

한국어문학의 심화와 확산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가이드북

# 한국문학과 삼국유사의 문화예술

서 철 원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이 영상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AKS-2021-KDA-1250006)

## 강의계획서

- 강의명: 한국문학과 삼국유사의 문화예술
- 강사명: 서철원
- 구성: 총 10강
- 분과: 고전문학
- 수준(난이도): 고급
- 특징: 권역형
- 수업방식: 강의형

### - 강의 목표

삼국유사를 기초로 옛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현대 예술의 소재로 삼았던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기획 또는 창작을 시도할 수 있다. 나아가 삼국유사 속 시간과 공간을 동아시아 문화와 인적 교류의 현장으로 파악하여, 앞으로 동아시아의 한류 문화 예술에 이바지할 만한 단서를 마련할 수 있다.

### - 강의 계획

순서	강의 제목	강의 내용
1	삼국유사, 상상과 현실의 만남	① 강의 개관 ② 삼국유사의 성격 ③ 삼국유사의 체제 ④ 기이(紀異)와 감통(感通)의 만남 ⑤ 삼국유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⑥ 정리
2	신화의 시대에서 종교의 시간으로(1) : 건국신화의 여신들	① 강의 개관 ② 단군신화의 응녀 ③ 동명신화(부여+고구려)의 유화 ④ 백제 건국과 소서노 -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 ⑤ 신라의 선도산 성모 - 혁거세와 알영의 어머니 ⑥ 대가야의 정견 모주 - 주일과 청예(김수로)의 어머니 ⑦ 정리
3	신화의 시대에서 종교의 시간으로(2): 종교설화 속 성자 형상	① 강의 개관 ② 진표와 미륵신앙 설화 ③ 광덕, 엄장과 미타신앙 설화 ④ 원효, 의상과 관음신앙 설화 ⑤ 사복과 화엄신앙 설화 ⑥ 정리
4	고대 한국에 대한 판타지 콘텐츠	① 강의 개관 ② 사극 주몽(MBC, 2006) ③ 판타지극 아스달 연대기(TVN, 2019) ④ 게임 삼국통일 대륙을 꿈꾸며 (up2date,

		1999) vs. 천년의 신화 (HQ팀 제작, 2000) ⑤ 게임 Age of Empires (마이크로소프트 유통, 1997) ⑥ 정리
5	삼국유사의 공간(1): 불국토, 그 이상향의 안과 밖	① 강의 개관 ② 미술가 양지의 신비한 능력 ③ 미륵과 화랑의 기원 ④ 불국사와 석굴암(1): 불국사의 바둑판식 구조 ⑤ 불국사와 석굴암(2): 석굴암의 구심점과 원심력 ⑥ 정리
6	삼국유사의 공간(2): 편찬자 일연의 답사 경로와 관광지화	① 삼국유사 기행문 “길 위의 삼국유사” ② 삼국유사 테마파크(경북 군위) ③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 - 일연의 삶과 ‘민중성’의 관계 ④ 삼국유사 안팎의 해외 체험 ⑤ 정리
7	삼국유사의 캐릭터(1): 현실에 출현한 비현실적 존재들	① 강의 개관 ② 귀신과 친구였던 비형량 ③ 수로부인과 용왕의 정체 ④ 희생과 죄책감, 김현감호 ⑤ 내부자가 되지 못한 처용 ⑥ 만파식적과 동아시아의 예약 ⑦ 정리
8	삼국유사의 캐릭터(2): 내 고장의 위인과 신들의 모습	① 강의 개관 ② 철쭉꽃 핀 헌화가의 발상지 ③ 처용과 고래, 울산의 선택은? ④ 연개소문의 고향과 향토사학 ⑤ 정리
9	삼국유사의 정치(1): 투쟁으로서 왕의 삶과 죽음	① 강의 개관 ② 의자왕과 백제의 멸망 ③ 경덕왕과 신라 전성기의 끝 ④ 해상왕 장보고의 삶과 죽음 ⑤ 정리
10	삼국유사의 정치(2): 사극의 전쟁, 권력 암투와 연애담	① 강의 개관 ② KBS 근초고왕, 삼각관계와 부여 계승론 ③ SBS 서동요, 정통과 퓨전의 갈림길 ④ KBS 대왕의 꿈, 신라 무열왕의 성장과 리더쉽 ⑤ KBS 해신, 장보고의 꿈과 좌절 ⑥ 정리

- 수강생 유의사항

1. 학습활동으로 제시된 퀴즈, 토론, 보고서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강좌 내용 및 학습 과정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K-MOOC 강의 게시판 또는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1차시> 삼국유사, 상상과 현실의 만남

### ■ 학습목표

1. <삼국유사>의 성격과 체제를 살펴보고 이해한다.
2. <삼국유사>의 <기이>, <감통> 편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3. <삼국유사>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삼국유사의 성격
3. 삼국유사의 체제
4. 기이(紀異)와 감통(感通)의 만남
5. 삼국유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6.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서철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삼국유사의 내용과 주제에 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관의 제목은 삼국유사 상상과 현실의 만남 이렇게 약간 좀 낭만적으로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것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어떤 실제 있었던 역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는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앞으로의 한국 문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세계 문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화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얽혀 있는 역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고 싶다 하는 꿈 상상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 아쉬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공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지금 처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삼국유사라는

책을 편찬하신 일연이라는 스님께서, 그때 이제 삼국사기라고 하는 공식적인 국가의 입장, 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훌륭한 역사책이 이미 있었지만요. 그런 공식적인 역사만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유일한 시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역사를 바라보는 데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삼국유사라는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눈이 둘 있어요. 눈이 둘 있는 것은 물론 한쪽 눈이 잘 안 보일 때 다른 쪽 눈을 가지고 보완하자는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만나서 초점이 맞았을 때 비로소 시선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한쪽 눈이 조금 좋지 않은데,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고 예전에 양쪽 눈이 다 멀쩡했을 때가 그리워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온전하게 건강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주관적인 꿈을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상상과 현실,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남성과 여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뭔가 두 가지 대칭적이고 대립적인 시선들이 하나로 만났을 때 우리는 온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상과 현실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요. 반대로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다 놓친다는 말도 있는데, 근데 다 놓친다는 결과가 그냥 안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놓치면 놓치는 대로 그런 실패를 가지고 또 배우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삼국유사라는 복합적인 성격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10차례에 걸친 강좌가 다 끝나고 나서, 서로 느끼고 공감하고 싶은 점은 다양성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지입니다. 한국 문화라고 해서, 한국 문화니까 한국만의 어떤 고유한 것, 독자적인 것, 다른 나라에 없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삼국유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서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국유사의 전체적 성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아까 궁극적으로 역사의 다양성 나아가서 문화의 다양성을 보고 싶다는 목적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거기에 비추어서 이제 삼국유사라는 책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체제,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목차는 어떤 의도에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편은 기이편하고 감통편, 이렇게 두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기이편이라고 하는 편에는 정치적인 역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을 제목으로 이루어진 것들도 많고 해서, 주로 왕이나 왕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주로 기이 편에 실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그런데 '기이'할 때 '이'자가 저게 이상하다 할 때 이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사건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게 현실적인 일들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적인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어디 가서 용을 만났다는지, 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뭔가 신통력으로 치료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 이게 무슨 역사냐?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일종의 암시나 상징으로 비유적인 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역적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 하면 이거

그대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죠. 왕권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검은색의 용이 궁궐 한가운데 나타났다는지 하는 식으로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과 비유 저편에 있는,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거를 추리하고 상상하는 게 오랫동안 고대 한국의 문화를 전공하는 분들이 했던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비롯해서 고대 한국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작업에는. 이렇게 상징과 비유를 풀이해가는 그런 추리와 상상력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통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이편 말고도 여러 편이 있는데, 문학이나 문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감통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저 '감'자가 감응한다는 뜻인데요. 감응한다는 말은 감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감화나 감동 이런 말들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통이란 감정으로 통한다. 그럼 누구와 감정으로 통하느냐? 하면 여러 세상에 속한 존재들, 그러니까 귀신이라든지, 도깨비라든지, 요괴라든지, 용왕이라든지, 산신령님, 또 하늘에 계신 천신, 이런 여러 세상의 존재들과 공감하고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통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감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도깨비나 귀신, 뭐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대상들인데, 굳이 우리가 그런 존재들과 통해야 하나? 요즘 세상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세상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나라라고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귀신 도깨비나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해외여행을 자주 못 다니던 시절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도 사실은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나라에 허락받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도깨비처럼 무섭고 이런 존재라기보다 그만큼 낯설었던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통편이 주는 교훈은 귀신 도깨비도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똑같은 거죠. 귀신 도깨비만큼 사람들끼리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달라 보이는 존재들이라고 해도요. 좋지 않은 과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혼혈인 친구들에게 좀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분들도 계시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이제 극복하고,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 심지어 생명이 없는 존재들까지도, 모든 존재들은 다 똑같이 누구나 감정을 갖고 있으며, 그 감정을 통해서 누구와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저 감통편이라는 편목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여러 편보다 감통편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는 사실 이미 말씀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갔던 존재들, 입장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자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가 한쪽에는 다양성, 서로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추구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혐오와 차별이 굉장히 만연해 있죠. 지역감정이라든지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물론 거기에는 훨씬 더 깊은 정치적이고도 사회적인 나름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감통의 정신을 가지고 봅시다. 그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유연한 태도의 효용성과 정당성을 삼국유사의 정신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낯선 대상들과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큰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오징어에 대한 서양과 동양의 어떤 생각 차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서양 사람들은 오징어를 잘 안 먹죠. 안 먹을 뿐만 아니라 괴수로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크라켄이라고 하는 오징어 괴수예요. 서양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낯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저 낯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배를 저렇게 오징어 괴물이 바닷속으로 끌고 가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런 많았죠. 그래서 이 크라켄 하면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 선원들이 갖고 있었던 불안과 공포를 상징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을 넘어서서 외계인에 대해서 가질 법한 불안과 공포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이 괴수 크라켄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 그거는 상상이잖아?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항해했던 사람들에게는 그저 상상만이 아니었어요. 엄연한 현실이었지요. 그리고 멀리 떠난 뱃사람들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걱정입니까? 항해가 좀 비극적인 일을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소식을 모르니까 크라켄이 잡아갔나? 이려고 이제 더 공포에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라켄은 엄연히 상상이었지만,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현실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귀신이나 도깨비를 생각해 보면요. 병 고쳐주고 무슨 다리를 놓아주기도 하고, 저렇게 무서운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약간 들죠.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참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맨 처음 갖고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언어나 문화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먼 옛날에는 인도와 중국의 문화를 한국이 한번 소화해서 일본에 전달해주었고, 근대 이후로는 이게 침략하고 얽혀 있어서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어쨌건 한국이 근대 문화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를 번역할 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래저래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일본과의 교류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길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일본은 뭐든지 이렇게 좀 약간 친근한 또 귀여운 소녀의 모습으로 묘사를 많이 하는 '모에'라는 전통이 있는데요. 재가 저래 봐도 침략자거든요. <침략 오징어 소녀>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데, 보시면 애 모자하고 옷이 그 오징어의 몸체랑 같고요. 머리카락이 저렇게 촘촘처럼 돼 있는 게 오징어의 여러 개 달린 다리를 묘사한 것이거든요. 나름 호기심과 친근함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상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명색이 침략자인데, 오징어가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잡혀 오징어 먹물을 뿜혀서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만드는 그런 노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노동 착취 비슷한 짓을 당하면서 나름대로 비정규직의 비애랄까 이런 것까지도 보입니다. 순전히 상상인데, 누구도 저거를 현실이라 생각하진 않겠죠. 침략자가 저런 식으로 희화화된거나, 오히려 노동자로서 좀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묘사까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낯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세계는 저 불안과 공포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현실적인 힘을 지닌 그런 공포도 아니고, 마냥 호기심과 친근함만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가벼운 대상도 아니에요. 크라켄과 오징어소녀 사이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 끼어든 상상으로서 삼국유사의 세계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크라켄이 갖고 있는 불안함. 공포심 그리고 오징어 소녀가 보여주는 친근하면서도 해학적인 모습 그 중간 어딘가에 머물면서요. 경우에 따라 이 양쪽 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실에 끼어든 상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삼국유사의 어떤 상상력의 특징이라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 2. 삼국유사의 성격

이렇게 들어가는 말씀을 말씀드렸고요, 먼저 그러면 삼국유사의 성격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할 때 저 유자는 유산, 남겨진 것, 우리가 누구에게 물려받은 것을 유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유실물, 잃어버린 것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저 유자를 써요. 그러니까 저 남겼다는 게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기도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잃어버린 것, 빠뜨린 것 이런 것을 '유'라는 글자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유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빠뜨린 일들을 수집하고 모아가지고 후대에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빠뜨린 일들을 모아 놓는다고 했는데, 누가 빠뜨렸을까? 이거는 제목부터가 그 당시에 공식적인 역사책이었던 삼국사기를 의식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된 내용을 쭉 보시면, 삼국사기는 정치적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달라요. 아까 기이편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써서, 나름대로 이제 문학적으로 다듬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문화사, 아무래도 편찬자가 스님이었으니까, 불교를 중심으로 한 사상사에다가 이제 삼국사기에서 빠뜨렸던 여러 가지 미술사의 자료들을 설명했어요, 미술사 자료라지만 사실은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불교 조각이나 건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큰 관심을 갖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현실적인 이야기 위주로 되어 있어요. 현실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다. 비과학적인 옛날이야기들은 거의 뺐습니다.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요. 단군 신화도 나오지 않고, 비현실적인 신화나 상상력에 의한 이야기들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삼국유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사람이 속하지 않은 다른 세상들, 그리고 사람과는 다른 세상에 살았던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성격에 따른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국사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만 추려서 후세에 전해주겠다. 사람들이 상상한 이야기는 굳이 남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책이라면요. 삼국유사는 이 책을 편찬한 일연이라는 스님이 여기저기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절들을 다니면서요. 절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전통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에도 남아 있고 또 이제 절을 오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의 상태로 남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요.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그냥 사라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긴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치와 현실 같은 실제 세상을 움직이는 힘들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후세에 남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국사기는 우리가 읽어보면 사전 같아요. 몇 년 몇 월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라에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절차를 정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정보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 대한 교양을 좀 갖춰야겠다는 목적으로 삼국사기를 읽으려면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쭉 읽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삼국사기를 읽기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검색해서 필요한 걸 찾아서 보면 되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읽지 않고 다 읽은 다음에 읽으면서 외우든, 메모하거나 정리해서 활용해야 했으니까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었죠. 그에 비하면 삼국유사는 스토리텔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짤막한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이거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냥 다른 데 읽으시면 돼요, 다른 곳을 읽으시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만 골라서 읽어도 충분히 우리가 삼국유사를 충분히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삼국유사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읽기가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뒤에서부터 읽으시는 게 좀 더 접근성에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얼마나 다른 책인지 세 가지로 정리했죠. 정치사와 대립되는 문화사, 현실계에 대립되는 환상계, 그리고 사전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이야기 중심의 스토리텔링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은 왜 빠뜨린 일을 굳이 수집했을까?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입장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역사 교과서는 여러 가지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자연과학과 공학에서는 정확한 게 중요하겠지만, 역사나 철학을 비롯해서 인문학의 이런 영역들은 정확한 하나의 정보보다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서 다양한 시각을 만들어내는가?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의 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일본 애니메이션 보여드렸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은 지금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는 진짜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귀여운 소녀로 만들었어요. 일본 역사의 위인들까지도 소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의 어떤 콘텐츠가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을 소녀로 묘사하면? 글썽요. 저는 그것도 나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런 다양한 창작의 자유도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우리가 정말 세계에 호응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콘텐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 삼국유사는 적어도 그런 어떤 나름대로 표현의 자유랄까 이런 게 좀 있었던 책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온 것입니다.

삼국유사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맥락이 있어요.

첫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해야 한다. 역사라는 게 문헌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역사책만 역사일까요? 지금은 개인이 출판할 수도 있고 출판의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만 책 만드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해야 하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예전에는 글을 아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고, 책을 써서 자신의 생각이나 갖고 있는 정보를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문헌 안에만 들어있는 역사만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보여주는 역사, 그리고 탑이나 불상 이런 미술 작품들이 보여주는 역사,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가면요.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이니까 어디나 가면은 산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 산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장이나 그 산에 살았던 도깨비나 귀신, 호랑이 같은 산신령들의 이야기가 있죠. 이런 것들은 글을 알고 책을 남길 수 있는 지식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범박하게 말하자면 민중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민중

이라는 개념이 근대적인 개념이니까 부담스럽다면요. 그냥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삶과 인생, 이런 것들을 삼국사기(\*삼국유사)가 보여주는 다양성으로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세상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아니?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더냐? 그건 그런데요. 유일한 세상이라고 해도 그게 꼭 인간만의 세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아니 인간들만 이 지구를 살아가냐? 이 지구에 살아가는 엄청나게 많은 동물, 식물, 미생물들. 그리고 지금은 무생물이 됐지만 흙이나 물, 모든 자원의 성분들은 과거의 생명에서 온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 하죠.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니까 다른가? 그치만 화장해도 이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지만 미래에는 미생물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지만 과거에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이루는 그런 물질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윤회에서의 전생이 나라는 존재가 있는 그대로 예전에 그 전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물질에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현상을 윤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단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게 인간만이 그 세상의 소유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존재들, 물론 삼국유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라고 묘사했죠. 그들이 인간과 함께 소통해야 하니까, 사람의 몸과 사람의 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놓기는 했지만, 인간 이외에 여러 가지 존재들 그리고 그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감정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감통'을 이룰 수 있었을 때. 우리 인간들의 세상도 더 풍요로워지고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더 깊이 있게 된다는 생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유일한 소유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란 상당히 오만한 표현이죠. 근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산다. 더욱 넓게 보자면 사람끼리만 더불어 사는 게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면 어떤 생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비건이라고 해서 채식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식물도 아픔을 느낀다고도 하죠. 식물한테 험한 얘기 해 주면 애가 막 실망하고, 좋은 얘기 해주면 또 무력무력 잘 자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 자체가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딘가에서 힘겨운 일을 맡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연으로 얽혀 있다. 인연이라는 말에서 '인'이라는 게 원인, '연'이라는 게 결과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누군가가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공부하고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가 얽혀 있는 것을 문학적으로는 서사라고 하죠. 그리고 인연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여러 가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나만이 유일한 어떤 대단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얽히고설켜 있다는 것을 뚜렷이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갑질도 안 하고 진상 짓도 안 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겠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삼국유사, 특히 그 감통편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3. 삼국유사의 체제

삼국유사의 체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왕력편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잘 보지는 않는데, 삼국유사에는 연표가 달려있습니다. 표가 있어요. 그래서 왕력이라고 해서 왕들의 내력, 그러니까 왕들이 어떤 혈통을 갖고 있었는지를 쪽 보여주는 계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뒤에 나오는 기이편의 왕들의 계보하고 간혹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내용 자체가 난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삼국유사를 읽을 때 왕력 편을 따로 읽지는 않아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두 번째 기이편부터입니다. 기이편을 보시면 왕조나 왕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편의 '기'라고 하는 한자는 황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만 쓰는 한자거든요. 그러므로 왕조나 왕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해서 저 '기'자를 쓰고요. 뒤에 있는 '이'자는 이상하다고 할 때 그 '이'자예요. 그래서 아까 현실에 끼어든 상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로, 처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아마 처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는데 울산 지역에 나타났다가 신라의 수도 경주로 가서 벼슬했습니다.

그런데 처용에 관해서 남은 자료들을 보면, 처용 탈이 있어요. 처용 탈에 나타난 처용의 외모를 보면, 검은 얼굴에 코와 턱이 크고 상당히 이국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토착적인 한국인이 아니라, 아랍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을까? 탈에 나타난 모습이 그러니 아랍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울산에 살다가 경주로 왔다니까, 왕에게 인질로 잡힌 호족의 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원래 울산 지역 호족의 아들이었는데, 신라 왕실에서 나름대로 울산 지역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인 처용을 잡아간 게 아닐까? 겉으로는 벼슬을 시켜준다고 하고, 사실은 지방 호족이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인질로 잡아두었다고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용이 경주에서 처용가라는 향가를 불러서 전염병의 신을 퇴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퇴치했으니까 무당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살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보는 입장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노래를 불러서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이거는 향가라는 노래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신비한 힘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닐까? 전부 다 보면 더 많은데, 진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처용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상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몇 년 사이에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팬데믹 상태였죠. 그래서 병을 치료했던 처용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또 주목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가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처용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용왕의 아들이고 울산에 살다가 경주에 왔고 전염병을 나름의 방식으로 물리쳤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100년 동안 상상을 해도 이 상상이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상상력이 현실에 끼어든 상상력이라는 건 뭐냐? 이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민중문화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을 때는 처용은 무당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만 갖고 있었던 권력을 지방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권한과 역할을 주자, 그랬을 때는 호족의 아들로서의 처용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15년쯤 전에 아랍 문화가 한동안 유행이었을 때, 이슬람 문화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좀 한국 사회가 관심이 컸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용이 아랍 사람이었다는 게 유행해서 그때 이제 또 아랍 지역의 왕자하고 신라의 공주하고 사랑을 나누는 서사시가 주목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전염병을 물리친 존재로서 처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요. 심지어 한류 이런 또 한국 문화와 음악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노래가 전염병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또 주목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처용에 대한 상상력은 사실은 한국 사회 한국 문화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던가? 이 관심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에 끼어든 상상이라는 게, 정말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전통문화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이편에 등장하는 삼국유사의 이야기들은 그냥 정치적인 그런 변화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나름대로 상상을 통해서 이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오늘날의 우리 문화에 관한 입장에 따라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편을 지나서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여러 편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기가 힘드니까 여타편, 여타라는 말은 기타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밖의 다른 편, 이렇게 그냥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삼국유사 전체 내용 가운데 절반 가까우니까 그렇게만 부르면 안 될 것 같지요.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고승전, 큰 스님 역할을 했던 스님들을 고승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부분은 고승전의 제목들하고 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기이편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이 흥법편부터 마지막 효선편까지는 주로 불교와 관련된 종교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색깔로 구별해 두었는데요. 앞에 있는 세 편, 흥법, 탑상, 의해, 이 세 편은 직접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흥법은 ‘법’할 때 법이 불교거든요. 그리고 뭔가 처음. 일어나는 것을 ‘흥’이라고 하잖아요. 흥했다. 그래서 불교가 처음 들어온 시절의 이야기가 저 흥법편에 주로 실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탑상은, 탑은 눈에 보이는 탑이지요. 상은 저게 불상, 합쳐서 불교 조각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이나 불상 같은 물질적인 증거들이 주로 저기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의해 ‘의’는 뜻, ‘해’는 이해, 그래서 의해라고 하면 불교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불교의 정신적인 근거, 주로 불교 경전이나 여러 가지 사상의 전파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법은 불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탑상은 불교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물질적인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의해는 불교의 정신적인 뜻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세 편이 불교와 관련된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신주하고 감통은, 불교와 다른 요소들과의 교섭 소통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주 할 때 ‘주’는 주술이거든요. 그래서 주술과 불교가 교섭하는 내용이 신주라는 제목에 들어 있고요. 감통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다른 세상과의 어떤 공감과 소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두 편은 불교와 유교가 알고 보면 서로 가깝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남긴 고려 후기는, 나중에 고려를 이어받은 조선의 국교가 될 유교가 힘을

언어가던 때였습니다.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지닌 정치적인 신념이 이 세상에 받아들여질 만하다, 그러면 나가서 정치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가서 정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속세를 벗어나서 숨어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대에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나의 신념이 다음 세대에는 좀 세상과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에 신경을 쓰고 그러겠죠. 그래서 속세를 벗어나게 된 이들의 이야기가 피은편에 있습니다.

또 하나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효도죠, 효도하는 마음에서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마음, 말하자면 삼강 오륜이 다 효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던 유교였으니까, 당연히 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마지막으로 유교와의 일치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속세를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속세에서 효도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각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승전하고 제목은 비슷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앞에 세 편은 순수하게 불교적인 내용, 중간에 있는 두 편은 불교와 다른 사상 다른 문화와의 소통,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두 편은 앞으로 고려 이후에 조선 사회를 이끌어갈 유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과 불교가 사실은 굉장히 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상당히 체계적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국유사의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목차만으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삼국유사 편찬자의 태도가 지닌 특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삼국의 기원으로서 삼한을 내세웠죠. 삼한이라고 하면 한반도 남부에 자리 잡았던,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마한,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에 있었던 진한, 경상남도과 전남 서부 지역까지 있었던 변한 등입니다. 이렇게 마한, 진한, 변한 세 나라가 삼한이었는데요. 물론 고구려도 있기는 하지요. 고구려까지 삼한에 포함시키려다 보니 삼한과 삼국이 겹치게 됩니다. 삼국유사는 삼국의 기원으로서 삼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삼국사기는 삼국만 딱 나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만 나오고, 마한, 진한, 변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게다가 단군 신화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조선이나 삼국 이전에 있었던 여러 나라에 관한 서술은 빈약합니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제목에는 삼국이라 했지만, 고조선도 나오고 부여도 나오고, 삼한의 여러 나라들이 대체로 나오는 데다가 한반도에 있었던 삼국 이외의 작은 나라들까지도 빠짐없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락국기도 대략 다 실었고요. 사라진 건국신화 이본들의 내용도 곳곳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국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삼국의 건국 신화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내용도 다채롭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을 삼국과 삼한의 기원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조선의 옛 지역이 72개의 나라로 나뉘었다가 나중에 삼한으로 통합되고, 삼국으로 통합되고 궁극적으로 신라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형성 과정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는 왕력편의 특징인데요. 신라와 후고구려, 궁예가 세웠던 후고구려라는 나라가 고려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들에 관한 기록의 끝자리에서는 국제, 나라가 망했다는 표현이거든요. 나라가 망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디다. 왜냐하면 신라와 후고구려를 고려가 계승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왕력편에서는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부의 여러 나라들까지 다 이렇게 빠짐없이 신고 있는 거죠. 그 나라들도 넓은 의미에서 다 고려가 계승했다. 이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고려의 영유권,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고려의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은 삼국유사의 전체적인 편찬 의도, 신라와 고려가 한국을 통일한 나라들로서 역사의 주류, 곧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편찬 의식을 나름대로 보여주었죠.

그런 편찬 의식과는 약간 좀 구별되는 삼국유사 자체의 독창성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인 역사책은 정치적인 역사와 문화의 역사를 나름대로 구별했어요. 함께 신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책으로 통합해서 편찬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는 없었고 한국사에도 다시 없었던 삼국유사만의 유일한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역사 이야기를 하려면 삼국사기처럼 정치적인 역사 이야기만 하고, 불교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그것만 따로 전문적인 책을 쓰면 되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내용을 정리해서 한 권으로 합친 경우는 상당히 좀 드뭅니다. 바로 삼국유사 안에서도 역사를 바라보는 복합적인 기준이 뒤섞여 있다고 볼 수 있죠. 섞여 있다고만 하면 좀 정리가 안 된 듯한 인상도 주지만, 이런 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다양성을 갖추어야겠다는 신념이 이 책의 독창적인 이런 시도를 통해서 구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 4. 기이(紀異)와 감통(感通)의 만남

그러면 기이편하고 감통편에서 하나씩 이야기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이편에서는 전체 기록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단군 신화를 갖고 왔는데요. 단군 신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간략하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녀라고 하는 주인공이 출현하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서 살다가 환웅이라는 신의 아들에게 빙니다.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환웅은 쑥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걸 먹으면서 100일 동안 동굴 속에 있어야 사람이 된다고 했네요. 그런데 곰은 21일 만에 사람이 됐어요. 100일 만에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21일 만에 된 것을 보면 이 다섯 배 이상의 노력을 했겠죠. 이런 노력을 통해 사람이 되었는데, 호랑이는 그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사람이 된 곰은, 곰에서 사람이 됐으니까 이름이 웅녀라네요. 웅이 곰이라는 뜻이거든요. 곰 여인 웅녀는 결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웅녀가 눈이 높아서 그랬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웅녀를 어떤 이유에서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웅녀가, 아무튼 예전에 빌었던 환웅 신한테 다시 한 번 빌어요. 아이를 낳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환웅이 잠깐 사람의 몸이 돼 가지고 웅녀와 혼인해서 단군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 단군이 고조선의 시조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단군은 건국을 한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만 옮겨 다녀요. 처음에는 평양에서 나라를 세웠다가 아사달이라는 곳으로 옮겨가더니, 나중에 기자라고 하는 중국의 제후가 조선에 오니까 장당경이라는 곳으로 또 옮겼다가, 결국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령이 됩니다. 나이가 1908세니까 오래 사셨구나. 오래 사신 건 좋은데 나라만 옮겨 다녔어요. 뭐 다른 일한 게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 단군 할아버지를 모독하냐? 그게 아니라 단군 신화의 내용만 놓고 보면 그래요. 여기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환웅은 그냥 원하

는 거는 다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에 비하면 단군은 뭘 원했는지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웅녀는 사람이 되는 걸 원했죠. 단군이 원하는 게 뭘지는 모르겠는데, 웅녀는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됐어요. 100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21일 만에 아주 빨리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일 시간을 줘 놓고 무슨 외국어 시험 점수 200점을 올려라 하면 힘들죠. 근데 100일이면 될까 했는데 21일 만에 됐으면 대단한 성과였고 신의 아내가 됐잖아요. 신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 또 건국 시조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 단군 신화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단군일까, 환웅일까, 웅녀일까? 누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성장했고, 누가 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인 노력을 했는가?

이게 웅녀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보면 웅녀는 꿈, 짐승이었다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었다가 사람 중에는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신의 아내가 되고, 건국 시조를 낳았으면 여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꺼렸던 존재가, 누구보다도 높은 존재로까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는 웅녀의 성장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실제로 나라를 세운 것은 나중에 사라지는 환웅이었고요. 단군은 주변에 다른 세력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만 다녔어요. 그래도 이 이동이나 이주 자체가 신화적인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서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화에서, 그럼 단군에게 약속의 땅은 무엇일까? 평양일까, 아사달일까, 장당경이었을까? 그건 불분명해요.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웅과 단군의 위치가 이 이야기 안에서 불투명하거나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썩과 마늘을 먹고 동굴 속에서 갇혀 지내야 한다는 웅녀의 과제는 꽤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통과 의례를 통해서 내적인 갈등, 나 그냥 꿈으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편하게 살래 하는 내적인 갈등을 이겨내죠. 내적인 갈등은 이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외적인 갈등, 꿈이었다가 사람이 됐는데, 사람 중에서는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어떤 외적인 갈등까지 모두 극복해낸 인물은 웅녀죠. 그래서 웅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인정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첫 건국 신화의 주인공은 사실은 여성이었던 거죠. 건국 시조의 어머니요. 건국 시조가 어떤 영웅적인 행적을 보여주었는지는 의외로 단군 신화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웅녀, 시조의 어머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국 시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늑대와 사슴의 신비로운 만남으로 시조가 태어났다. 혹은 신과 신이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시조가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아니라 꿈이었다가 안팎의 갈등을 모두 극복하고 사람이 된 존재가 시조의 어머니였다. 시조의 어머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엄청난 노력과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과연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그 세상 바깥에 있었던 존재가 들어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결국 나중에 신으로까지 성장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아닌 존재에서 사람이 되었다가 나중에 신으로까지 성장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신화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건국 신화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사람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었다가

신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존재가 더 높은 존재가 되기까지의 고생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고조선이 세워지는 이야기다, 이렇게만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지요. 이 이야기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 사람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윤동주라는, 훌륭한 시를 많이 썼던 근대 한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아우와의 대화를 보시면,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서러운, 진정으로 서러운 대답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 되는 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기서 사람답다는 거는 무엇일까? 유교에서 깨달음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서너 살 먹은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생물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다운 삶을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혁도 있었고 선언들도 있었지만요. 우리는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인생은 서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다운 삶을 살자! 이것이 삼국유사가 그 첫 이야기부터 제시하고 있는 아주 무거운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왼쪽에, 자꾸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요괴인간>이라는 작품입니다. 보기만 해도 좀 징그럽죠. 그런데 저 주인공들이 외모가 저런 탓에 굉장히 구박을 받으면서도, 정말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해요. 그냥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계속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착한 요괴들인데 사람들이 그 선행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쫓고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저 주인공들은 사람이 되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방법을 알아내는데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몸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천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하고 결국 애네들을 오해한 사람들이 불을 질러서 화재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처럼 결말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림체가 저렇게 주인공이 저렇게 생겨서, 제가 어렸을 때도 저 만화를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좀 예쁘고 착하게 생긴 주인공들이 나오는 걸 봐야지. 저런 걸 왜 보냐? 그리고 좀 오해하셨는데, 저는 저 작품을 보면서, 저 주인공들은 이미 처음부터 사람이었던 게 아닐까? 사람이라는 것은 외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사람다운 마음을 갖고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었던 저들은, 요괴 인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들 아시는 그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도, 따뜻한 마음의 괴물이 등장하는 이야기잖아요. 겉모습만 사람이고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저렇게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람들을 위하고 살았던 요괴들. 그런 요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삼국유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산호라는 만화가께서 남기신 웅녀 그림입니다. 옆에는 같이 사람이 되려다가 못 된 호랑이도 있고요. 썩과 마늘도 이렇게 접시에 담겨 있지요. 김산호라는 분이 좀 국수주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서 걸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국의 신화 속의 영웅들에 대해서 훌륭한 그림을 많이 남기셔서 잠깐 소개해봤습니다.

단군 신화에도 호랑이가 나오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응녀 그림에도 호랑이가 있었는데요. 감동편에도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현감호, 김현이라는 사람이 호랑이를 감동시켰다는 뜻일 것 같죠. 정확히 말하자면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켰다고보다, 김현이 호랑이의 희생에 감동을 받았다는 게 사실에는 더 맞아요. 하지만 감동이라는 게 서로 감동을 주고 받은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바뀌어도 되는 거죠. 러시아어가 이제 주어랑 목적어 자리가 서로 바뀌는 게 인터넷의 밈처럼 이야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 자리가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 도 같습니다.

이야기를 보시면 김현이라는 남성이 음력 2월에 탑돌이를 하다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연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자 호랑이한테는 오빠가 셋 있었는데요. 이 오빠 호랑이들은 생명을 해치기를 좋아하는 나쁜 호랑이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다고 하니까, 그 누이 동생인 호랑이, 김현과 사랑했던 그 호랑이가 오빠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호랑이는 이왕 천벌을 받는 김에, 남편인 김현을 출세시켜주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신라의 수도 경주 시장에 가 난리를 칠 테니까, 그때 남편 김현이 나타나서, ‘저 호랑이를 내가 잡겠다.’고 하래요. 그러면 어차피 호랑이는 죽는 목숨이지만, 호랑이를 죽인 공으로 남편이 성공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참 애처로운 이야기를 해서, 김현이 그 말대로 합니다. 자기 아내의 죽음을 핑계로 결국 출세하게 된다는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 보셨다시피, 여성의 희생에 관한 이야기죠. 오빠들을 대신해서 천벌을 받았고, 또 그 천벌을 받아서 결국 남편을 성공시킨 이야기잖아요? 여성의 희생에 대한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부처님의 거룩함이 대단해서 호랑이 같은 미물도 거룩한 희생의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인간과 호랑이라는 종족의 차이를 넘어선, 그런 거룩한 사랑의 종교적인 성취를 찬양하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삼국유사의 관점에서 이거는 종교적인 이야기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 저렇게 오빠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여성이 훌륭한 여성이고 본받을 만한 여성이다.’ 그런 여성을 열녀라는 이름으로 찬양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지만요. 한 여성의 목숨을 희생하여 오빠가 살아남고 남편이 출세하는 잔혹한 기록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요괴 인간하고 프랑켄슈타인 말씀드렸지만요. 그렇게도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요괴, 귀신, 정령들과는 다르게요. 김현은 그렇게까지 출세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김현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남자 주인공들은, 뭔가 수동적이고 책임감이 좀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현과 비슷한 남주인공들이 요괴와 귀신들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는 한국에도 많고 중국이나 일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현실 속의 이성에게서는 사랑을 느끼거나, 사랑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현실의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20세기나 21세기에 이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대

신에 현실 속의 이성에게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분들이 제법 있어 왔습니다. 좀 안 좋은 의미로 말하자면 현실 속 사랑에서의 패배자 혹은 부적응자로 취급받아 온 이들의 사랑은 아닌가? 그렇게 놓고 보면 왜 사람은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사람이 아닌 존재들과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가 하는 세태 비판의 의미도 여기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면 여담인데요. 가만히 보면 부처님이 소개해 주는 이성과는 비극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유명한 조신의 꿈 이야기에 나오는 조신도 꿈속에서 사랑을 이루었지만,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평생 살아가다가는, 이혼이 답이다, 헤어져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오신화라는, 한국 최초의 소설이라고도 하는 작품집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귀신과 인간의 사랑도 애초부터 잘 되기가 어려운 사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소중한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또 힘겨운 감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로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80년대 후반에 나왔던 <천녀유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기 링크된 것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요재지이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는데요. 원작은 서사적인 과정이 좀 단순했고요. 여주인공이 귀신인데 밥도 먹고 시집살이도 모범적으로 하다가, 귀신이 아닌 선녀로까지 칭찬받기도 합니다. 남녀 주인공이 완전히 행복한 결말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영화에서는 남주인공과 퇴마사가 힘을 합쳐 나무 귀신에게 속박된 여주인공을 구해내지만, 여주인공과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남의 일일 때 한정해서지만요. 원작의 경쾌함을 비장미로 바꾸어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속편을 역지로 만들면서 내용이 뒤엉켜 버렸어요. 그래도 이 영화가 귀신과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킨 그런 화제작이었구요, 영어 제목처럼 'Chinese Ghost Story'의 본질을 널리 알린 성과가 있으므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 속의 이성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오타쿠라고 불리는 이들이 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오타쿠-가상 세계의 아이들>은 벌써 20년 전에 번역된 책이기는 한데요. 자신의 이상형을 어떤 오타쿠가 그림으로 그리고는 이게 바로 내 이상형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환상일 뿐이고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저자가 여자친구를 좀 사귀어 보라고 하니, 여자친구 사귀는 것보다 만화 그리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에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입는 게 두려운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자는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현실에서 자신의 사랑을 찾지는 못했지만, 만화 속에 자신의 사랑을 이미 창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한 사람이므로 그 행복을 굳이 현실 속의 사랑을 통해서 깨뜨릴 필요는 없겠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런 감정을 뭔가 좀 병적이라고 느끼실 것은 아니에요. 당송팔가문 앞에 권학문, 학문을 권하는 시들 중에 보면, 책 속에 다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책 속에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여성,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꿈이 책 속에 이미 들어있대요. 그러니 책만 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학문을 권하는 글인데, 이거랑 뭐가 그렇게 다른니까? 우리가 상상과 환상 속에서 자기 만족에 충분한 이상을 찾을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현실에서 상처 입으면서 실제 사람들만을 만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는 큰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르죠.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이는 생판 남이

잡아요? 그래도 얼마나 서로에게 맞춰주기를 강요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와는 관계없이, 상처 입고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이 아닌 다른 세상은 없다고 하지만, 모든 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 나름대로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존재들의 수만큼 다양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체험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설령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취향은 존중해줘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이런 취향은 이런 상상은 존중해야 마땅하겠지요.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라고, 부모님이라고 이 사람들의 꿈과 상상을 깨뜨리고 꺾박하고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5. 삼국유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삼국유사를 교과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단군 신화가 나오니까 단군 이래로 단일민족을 강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통일된 한 줄기 민족혼을 보여준다, 이런 것을 강조했던 적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드릴 말씀은요. 삼국유사의 진정한 목적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성이 다른 사람들끼리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남과 다른 '나'가 존중받지 못하는 탓에, 언제부턴가 누구라도 분노와 울분을 품고 하루하루 버티게 되었죠. '나'가 존중을 못 받는데 어떻게 '너'를 인정하고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로 어우러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삼국유사는 호랑이와 사람의 사랑도 보여주었죠. 비극적으로 끝나기는 했지만요. 다른 존재들과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사람이 아닌 존재에 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가치관을 강조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과의 공존과 만남과 화해를 거듭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 6. 정리

정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가 빠뜨린 역사를 남겨준 책입니다. 과거의 사실은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쌓여가는 역사는 지식인들이 독점적으로 쓴 책 바깥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글을 알고 책을 썼던 사람들만이 남긴 그 역사가 유일한 역사가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자연과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이 전해주는 역사, 이런 것들이 삼국유사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기이편과 감통편을 통해서 하나의 세상 안에서도 그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다양한 세상을 누군가의 기준만을 앞세워 비난하고 폄하할 수 없다는 진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더 드러날 말씀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짧고 허무하죠. 짧고 허무하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이걸 아니에요. 짧고 허무하니까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순간 세상에 안 계실 때가 많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떠올리는 순간, 그 사람은 곁에 없습니다. 결국 있을 때 잘하라는 뻔한 얘기가 되기는 하는데요. 짧으니까 허무하니까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비로소 물의 소중함을 그때야 알고, 다리가 아파야 다리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요. 짧고 허무하니까 우리 인생은 소중한 것이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짧고 허무한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내 것만큼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게 삼국유사의 참뜻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삼국유사>의 왕력편은 연표 혹은 계보에 해당하는 편으로, 기이편의 계보와 정확히 일치한다. (O/X)

정답: X

2. <삼국유사>의 기이편은 왕조나 왕권에 관한 중요한 내용(紀)과 현실에 끼어든 상상(異)이 함께 실려 있는 편이다. (O/X)

정답: O

3. <삼국유사>의 체제는 3단 구성으로, 왕력편, 기이편, 감통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O/X)

정답: X

4. <삼국유사> 기이편의 <고조선 왕검조선>에서, 환웅이 단군보다 먼저 나라를 세웠다. (O/X)

정답: O

5. <삼국유사> 감통편 <김현감호>의 의미는 주인공 김현의 인품이 호랑이를 감동하게 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O/X)

정답: X

선택형(5분)

1. 다음 중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삼국사기>는 정치사를 위주로 다룬 책인 반면, <삼국유사>는 문화사를 위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② <삼국사기>는 주로 이계의 기이한 이야기를 실은 책인 반면, <삼국유사>는 현실계의 실제적 이야기를 주로 실은 책이다.

③ <삼국사기>는 사전에 가까운 책인 반면, <삼국유사>는 스토리텔링 위주의 책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②

2. <삼국유사>가 빠뜨린 이야기(遺事)를 수집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① <삼국사기>를 인식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책을 편찬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② 인간 이외 존재들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인간의 우월함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③ 역사 이해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자 했기 때문이다.

정답: ③

3. 다음 중 <삼국유사> 편찬자의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삼국의 기원으로서 삼한을 중시한 것에는 <삼국사기>가 배제한 삼국 이전의 여러 국가를 서술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조선의 옛 지역이 72국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삼국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어느 한 국가의 형성보다는 성읍 국가가 통합되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③ 왕력편에서 신라와 후고구려 말미에 '국제(國際)'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고려가 이들의 계승국임을 부정하고 삼국통일보다 후삼국통일에 비중을 두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4. 다음 중 <삼국유사>의 처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이편에 등장하며, '현실에 끼어든 상상'의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② 처용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지방 호족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③ 처용의 정체 추정은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가 시기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답: ②

5. 다음 중 <고조선 왕검조선>의 웅녀와 <김현감호>의 호랑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웅녀가 등장하는 <고조선 왕검조선>은 기이편에, 호랑이가 등장하는 <김현감호>는 감통편에 실려 있다.

② <고조선 왕검조선>의 웅녀는 통과 의례를 통해 내적, 외적 갈등을 모두 극복한 인물이다.

③ <김현감호>의 호랑이는 이계의 존재로, 비인간적인 면모가 강조되어 비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③

####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삼국유사>는 일반사와 불교사를 분리하여 서술하되, 하나의 책으로 ○○하여 서술했다는 독창성을 보이는 책이다.

정답: 통합

2. <삼국유사>의 기이편과 감통편은 하나의 세상 안에도, 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숫자만큼 ○○○ 세상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답: 다양한

3. <삼국유사>는 인생은 짧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 것이라는 종교적 깨달음을 전달해주고도 있다.

정답: 소중

**나. 토의 (30분)**

<김현감호> 이야기는 여성의 희생에 대한 잔혹한 기록인가, 종(種)을 벗어난 사랑의 종교적 성취에 대한 예찬인가? 자유롭게 토의해본다.

**다. 과제(60분)**

‘다양성’, ‘공존’, ‘화해’ 등의 키워드를 활용해 <삼국유사>를 바라보는 태도에 관한 글을 써본다.

■ 참고자료

삼국유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삼국사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애니메이션 <신처용전> 1편 ([영상 보기](#))

일연, 서철원 역, 『삼국유사』, 아르테, 2022.

에티엔 바랄, 성지수 역, 『오타쿠-가상 세계의 아이들』, 문학과지성사, 2002.

## <2차시> 신화의 시대에서 종교의 시간으로

### ■ 학습목표

1. 한국 건국신화를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2.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건국신화의 여신을 비교해 살펴본다.
3. 건국신화의 형성과 그 의미를 이해한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단군신화의 웅녀
3. 동명신화(부여+고구려)의 유화
4. 백제 건국과 소서노 -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
5. 신라의 선도산 성모 - 혁거세와 알영의 어머니
6. 대가야의 정견 모주 - 주일과 청예(김수로)의 어머니
7.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서철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유사의 여러 내용을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신화의 시대에서 종교의 시간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신화의 시대를 다루고 다음 시간에 종교의 시간을 다루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러보면 보통 신화를 얘기한 다음에 신화에서 역사로. 이런 표현들 많이들 쓰는데 근데 사실은 신화에서 역사가 나왔다가보다 역사에서 신화가 나왔다고 하는 게 좀 더 솔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우리가 다룰 건국 신화나 아니면 또 한국 문화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창세 신화 같은 것들을 보면 세상이 생겨났을 때 창세 신화가 생기고 나라를 세웠을 때 건국 신화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어느 정도 흘러가서 인간들의 호기심이 어느 정도 좀 성장했을 때 세상의 기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그 나라의 정체성이랄까 이제 발전 방향이 결정된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졌을 거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국 신화라는 것들은 나라가 세워진 건국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나라가 세워진 지 한참 있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에서 신화가 나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화의 시대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종교의 시간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불교의 수입과 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신앙으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불교가 들어온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나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고대 한국이 그냥 한 지역에서 자기들 나름의 문화를 영위하고 생활하고 생각이나 사상을 만들어 갔던 그런 시대에서, 세계적인 그러니까 저 나라에서 저걸 한다는데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저 나라에 해당하는 거는 보통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큰 나라,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에서 불교를 가지고 이제 멋있는 절이나 집 같은 것도 짓고 탑도 쌓고 아름다운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이것저것 좀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뭔가 좀 문화적인 주체성이 없어 모방한다거나 뭐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나는 남들과 달라.’ ‘남들과 다른 뭘 할 거야.’ 이려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던 시기가 있다 해도, 경쟁 사회 안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여러 사람과 같은 기준에서 경쟁해서 이기려면 남들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남들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편종교 보편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의 수용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화의 시대에서 주인공으로서 여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군신화의 주인공, 그 서사적 갈등의 주인공은 웅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조선 다음으로는 부여와 고구려를 이야기해야겠죠. 그런데 부여와 고구려는 건국 신화가 똑같아요. 고구려의 시조를 우리가 동명왕이라고 하는데 부여의 시조도 동명왕입니다. 그리고 백제도 자기네 시조를 동명왕이라고 부른 것 같은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따라서 부여와 고구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백제까지도 똑같은 건국 신화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백제는 보통 건국 신화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정해도 좋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유화, 동명왕의 어머니인 유화의 모습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구려 건국 신화라고 할 때는 고구려만의 건국 신화겠죠? 그렇지만 동명 신화라고 부르면, ‘동명’이라는 사람은 부여와 고구려, 어쩌면 백제까지도 시조를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동명 신화라고 하면 최소한 부여와 고구려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명칭이 됩니다.

그리고 백제를 건국할 때,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였던 소서노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두 번째 아내죠. 첫 번째 아내는 부여에 두고 온 본처로 훗날 유리왕의 어머니였고, 두 번째 아내 소서노도 마찬가지로 주몽과는 재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아들들끼리 관계가 좀 애매하고, 비류와 온조의 친아버지가 누구냐도 다르게 볼 수 있죠.

신라의 경우는 혁거세와 알영을 낳은 선도산 성모라는 신이 있습니다. 선도산 산신령인데, 옛날에는 산신령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여성인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선도산의 성모님이 혁거세와 알영이라는 두 사람을 낳았는데, 남매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함께 신라를 세워 시조가 두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 편에 있고, 또 다른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백마가 낳은 알이 혁거세가 되었고, 닭 모양을 한 용이 알영을 낳아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라 건국 신화에서는 백마나 닭 모양의 계룡이나 시조신의 인간적인 부모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다른 이야기에서는 혁거세와 알영의 어머니로서 선도산 성모라는 산신령이 등장합니다. 이 산신령은 중국 황제의 딸이라는 이야기도 또 붙어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기도 합니다.

가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금관가야 시조 김수로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상자 안에 들어있던 알에서 태어났으니까, 신라 가야 이렇게 놓고 보면 알에서 태어난 게 공통점이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건 금관가야의 입장이고요. 아시다시피 가야가 6개 이상의 가야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금관가야가 멸망한 다음 가야 연맹의 맹주 노릇을 했던 대가야 쪽도 건국 신화를 갖고 있어요. 그 대가야의 건국신화를 보면 정견 모주라는 여신이 이비가라는 하늘의 신과 남녀 관계를 맺어 뇌질주일, 뇌질청예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꼭 성이 뇌질인 것 같죠. 성에 비하면 이름은 평범합니다. 주일과 청예, 주일은 붉은 태양, 청예는 푸른 후에, 그래서 첫째 아들인 주일이 대가야의 시조인 이진아시왕인데, 이 이름이 일본이 신 이자나기와 비슷해서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일본도 붉은색 태양을 국가의 상징으로 삼았지요.

그래서 대가야 건국 신화에 따르면 정견 모주가 낳은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대가야의 시조가 되었고 둘째 아들이 금관가야의 시조가 되었죠. 금관가야는 우리 대가야의 동생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결국 한반도 남부는 여신이 두 아이를 낳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백제의 시조를 온조라고 기억하고, 그 형 비류는 괜히 따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가 망한 사람으로 남아 있는데, 어쨌건 두 형제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죠.

이들과는 다르게 신라의 혁거세와 알영은 부부가 됐으니까 사이가 괜찮았던 것도 같아요. 한편 가야의 형제들은 대가야와 금관가야라는 나라를 그냥 각각 따로 세웠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한반도 남부 여신들의 아들딸들은 각각 관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백제 신라 가야라는 각각의 나라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발전했던 방향을 나름대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국 당시에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라, 백제 신라 가야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나라의 틀이 갖춰졌을 때, 우리 집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라서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 신화들은 역사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웅녀나 유화도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는 한데, 한반도 남부 쪽에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여신들의 모습을 자료에서 확인하고, 이 신화들이 보여주는 각각의 나라의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 단군신화의 웅녀

이건 고조선 부분의 일부를 갖고 왔는데요. 옛 기록에서 말한다, 단군고기라고 돼 있어요. 단군고기가 특정한 책 이름인지, 아니면 단군에 대한 옛 기록을 그냥 이렇게 쓴 건지 확실하진 않아요.

옛날에 환인, 일연은 스님이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교의 하늘 임금인 제석을 뜻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건 말하자면 스님티를 내느라고 그런 거예요. 이 주석은 단적으로 맞는 주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 옛날의 환인이 나중에 들어온 불교에서 말하는 제석이 됐을 리가 없잖아요. 단군 신화가 아무리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

에 이루어진 신화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굳이 불교 임금 제석이라 하는 건 불교 신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일 뿐입니다.

참고로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던 졸본성, 그 졸본성의 다른 이름이 환인성이었거든요. 물론 여기와는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도 이제 뜻보다는 음을 따라 이렇게 한자로 쓴 걸 테니까, 뭔가 고구려나 고조선이 자리 잡았던 한반도 북부나 지금의 길림 연변 그쪽 지역에서는 혹시 뭔가 하늘을 뜻하는 것을 환인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상상도 되죠.

다음으로 환인의 여러 아들 중에 환웅이, ‘내려가서 나라를 세워야지.’ 이런 뜻이 있으니까, 아버지인 환인이 아들인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천부인이 뭘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많은 사면이 굽을 하거나 제사 지낼 때 검, 거울과 방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와 관련이 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0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이라고 주석을 달았는데, 후대의 관점으로 단군과 평양을 연결하려다 보니 평양에 있는 묘향산이라 주석을 달았겠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보통은 백두산으로 봅니다. 백두산의 신단수란 나무 아래에 내려와서 신시라는 나라를 세우고 환웅천왕이라는 왕이 되었다 하는 거죠.

여기에 또 천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자기네 임금을 천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갖다가 베껴서 천황이라는 표현 만든 게 아니냐 그러시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천왕, 천황 이런 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지을 수 있는 이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구름 바람의 신 우리가 이제 풍백, 우사, 운사 이렇게 부르는 신들과 360가지 일을 맡으면서 이제 세상에 머물러서 다스렸다. 여기까지가 환웅의 이야기인데, 환웅은 아무런 갈등도 겪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백두산에 내려와 나라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겠죠. 신화적인 맥락을 벗어나 정리해 보자면, 여러 아들 중에 환웅이 있었던 거잖아요. 독생자가 아니고. 여러 아들 중 하나였다는 건 다른 지역에 환인이라는 임금이 먼저 있었고, 그 임금의 여러 아들들이 각자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서 자기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를테면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세우고 나서, 그 아들들이 아시아 전체 여러 지역에 가서 각자의 나라를 세워서 또 다른 칸이 되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좀 강대하거나 앞선 문물을 지녔던 다른 지역 임금의 자손들이 여기저기 각자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원정을 떠났는데, 그중에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백두산 근처에 원정을 와서 나라를 세운 거죠.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의 무리가 3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천 명의 앞선 문물 혹은 강한 무기를 갖춘 세력이, 아직은 석기 시대에 있었던 지역으로 와 이 지역 사람들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원주민을 침략하는 유혈 사태 속에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잔인해 보이니까, 그런 전쟁이나 갈등의 기록들은 없애버리고 아주 평화롭게 하느님 뜻에 의해 나라를 세운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고대 한국에 묘하게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통하는 유물들이 여기저기 확인이 되는데, 원래부터 한반도에 정착했던 세력들이 고조선을 비롯한 나라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앞선 문명을 갖고 이주해온 세력들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이 기록에 어느 정도 암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웅 세력은 하늘의 아들이라 주장하면서, 나무 아래 나라를 세울 정도로 나무를 굉장히 좋아했으므로, 나무가 뿌리에서 줄기를 타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자손이 많아지고 번창하는 모습에 연결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는 세계의 나무, 세계수에 얽힌 신화나 전설이 참 많기도 합니다.

이제 비로소 웅녀가 등장하네요.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굴에 살았다가 사람이 되려고 빌었더니, 썩과 마늘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참 좋아합니다. 곰과 호랑이는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아야 사람이 된답니다. 햇빛을 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배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독립된 하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 달 동안 어둠 속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저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 속에 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동물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벗어던지고, 인간으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저 동굴 속에서 썩과 마늘을 먹는 어둠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웅녀가 이 서사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1일 만에 호랑이는 실패했지만 곰은 여인의 몸이 되었는데, 아까 100일이 지나야 한다면 21일 만에 됐습니다. 보통은 더 늦기 마련인데, 특이하게 더 빨리 되었지요. 웅녀는 같은 부족 안에서 혼인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래부터 사람이었던 이들이 곰이었다가 사람이 된 존재에 대해서 갖는 경계심이나 이질감이 좀 들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은 원래 곰이었으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요. 같은 사람끼리도 인종 차별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물며 곰이었던 사람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화책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곰나루에 대한 전설이 있잖아요. 어떤 사냥꾼인지 나무꾼인지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인연을 맺고 잘 살다가, 아내가 자꾸 어디서 싱싱한 생선을 잘 잡아 오길래, 몰래 뒤를 밟아 그 정체가 곰이라는 걸 알게 되죠. 놀라서 달아나는데 곰 여인이 남편을 쫓아오다가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구미호 이야기 같은 경우처럼 곰이 이 남자를 홀렸다고 지레짐작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곰의 의도가 정말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곰나루 이야기가 괴담일지도 모르고, 곰의 입장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일 과정을 21일 만에 졸업하는 노력과 인내심의 성과를 보여준 웅녀 역시도, 다른 인간들에게는 동등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은 결혼이 필수인 시대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인간의 완성을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되려면 아들 노릇 딸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아내 노릇 어머니 노릇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이런 여러 관계를 경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혼해야 완성이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웅녀도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는 게 문제니까, 당산나무, 아까 환웅이 내려왔던 그 나무입니다. 환웅에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신이 잠깐 인간의 몸이 되어 혼인하고, 아들을 낳아서 단군왕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웅녀의 이야기고 마지막이 단군 얘기인데, 단군 얘기는 갑작스레 정색하고 순전히 역사적인 얘기가 돼 버리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평양성, 지금의 서경 지역에 도읍하고 조선이라고 했다. 이게 북한의 그 평양인지, 한반도 바깥에 평양이라는 지명이 따로 있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군 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 한반도 바깥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다시 아사달에 돌아오는데, 아사달은 지금 평양의 옛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지역을 앞에서는 평양, 몇 줄 뒤에는 아사달이라 쓴 셈이지요. 좀 어색하긴 합니다.

어색한 게 있을 수 없는 일까지는 아니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다른 나라 제후에 밀려 수도를 옮겨 다니는 모습은, 다른 건국 신화의 주인공들과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영

웅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쪽 보시면은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 누가 고난을 겪고 성장하는가, 누가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적인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가 생각해 보시면요. 환웅은 갈등을 아예 겪지 않았고, 단군은 주인공다운 성취가 없었죠.

그래서 이 신화의 주인공을 환웅이나 단군이라 할 수는 없겠고,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의 몸과 결혼이라는 사람됨의 자격까지 성취하는 웅녀가 이 신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제왕운기라는 책에 또 다른 단군 신화가 실렸습니다. 첫째 단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둘째 단락에 단군의 어머니가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환웅의 손녀가 단군의 어머니입니다. 환웅은 단군의 외가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쪽으로 단군의 혈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웅의 손녀가 약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썩과 마늘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약을 먹고 사람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꿈은 아니었겠죠. 단군의 출생을 위해 인간이 된 신이 아까는 아버지 환웅이었지만, 여기서는 단군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단수산 박달나무의 신과 혼인해서 단군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까는 이 아들의 이름이 왜 단군이었는지 설명이 안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박달나무 신의 아들이니까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단군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이 기록은 단군의 어머니 쪽 혈통의 기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특징이 있죠. 게다가 삼국을 비롯한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의 공통 기원으로 단군을 분명하게 내세웠습니다. 나름 민족의 기원으로서 단군이 되었네요. 그런데 백제만 빠진 게 좀 걸리긴 합니다.

끝으로 부여, 고구려와 연관이 깊은 하백의 딸과 부루도 나오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해모수에 해당하는 역할도 단군에게 맡겼습니다. 하백의 딸은 해모수의 아내로 주몽의 어머니인데, 여기서는 단군이 그 남편이라 했으니 주몽과 부여의 해부루 왕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라는 걸까요? 고조선과 부여의 연결이 기묘합니다. 그런데 이 연결 역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하백의 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단군 신화에서 갈등과 성장의 주인공은 웅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이었죠. 꿈이었는데 인간이 됐어요. 썩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됐지만, 결혼할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과 결혼해서 신의 아내가 되고, 사실상 신격화된 건국 시조를 낳았습니다. 신의 아내, 신의 어머니라면 여신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엄청난 성장을 하고, 건국 신의 어머니 유형의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제왕운기에서는 환웅의 손녀가 단군의 어머니, 그래서 모계 혈통이 천신이 되고 부계가 박달나무 신이라고 합니다. 고조선의 시조 단군은 부여의 시조 해모수와 동일시되는데, 그 근거는 하백의 딸이라는 어머니 신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바뀌어도 어머니는 하백의 딸로 똑같지요. 따라서 부여와 고구려의 신화 역시 하백의 딸이라는 유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백 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고조선이나 부여, 고구려 모두 내륙에서 시작한 나라였기에 물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욱 절실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늘의 자손이란 것보다도 물과의 인연이 더 소중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근래에 나온 상체리 작가의 단군신화 웹툰에서는 원전에 없었던 환웅의 고난이나, 왜 꿈이 아닌 호랑이가 후대에 산신령으로 남게 되었는지 등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작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인이 환웅을 낳고, 애가 자라는 걸 보다가 넓은 세상을 경험시켜주자 해서 바람의 신, 비의 신, 구름의 신, 이 3명의 신하인데, 각각 육-해-공의 성격을 더했습니다. 환웅은 공룡들이 사는 세상을 인간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고 애쓰는데, 그 과정에서 저 세 신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참 찡합니다. 만나니였던 환웅이 과업을 이루고 성장하기까지 많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원작의 웅녀가 동굴에서 썩과 마늘을 먹었듯 웹툰의 환웅도 군대식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농경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착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세 신하가 환웅을 결혼시키기 위해 호랑이와 곰을 동굴에 가둔 것으로 내용이 좀 바뀝니다. 나중에는 호랑이가 곰을 좋아해서 환웅과 삼각관계인 것처럼 되는데, 만화적 허용이긴 하지만 한국식 막장 드라마의 영향이 약간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랑에 실패한 호랑이는 앙심을 품고, 환웅과 웅녀가 아꼈던 인류를 잡아먹는 호랑이가 됩니다. 산의 신이기는 한데, 산신보다는 산의 왕이라는 뜻의 산군으로 더 많이 불리죠.

이 웹툰의 가치는 대략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원전에 없었던 환웅의 고난을 추가해서, 사실은 환웅의 고난이 아니라 바람의 신, 물의 신 이런 분들이 겪는 고난이기는 했는데, 어쨌건 이제 환웅을 좀 더 주인공답게 만들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왜 호랑이가 아닌 곰이 한국인들의 조상인데도, 곰보다는 호랑이를 신으로 더 많이 섬기고 두려워할까 하는 의문을 나름대로 풀었습니다. 원작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이런 식의 변형으로 부족했던 설명을 채운 점이 참 좋았습니다.

### 3. 동명신화(부여+고구려)의 유화

고구려와 부여의 시조가 모두 '동명'으로 불렸기 때문에, 일단 동명 신화라는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동명 신화는 여러 시기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록에 남아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건국 신화라는 것 자체가 건국의 첫 장면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그 나라의 목적과 성격이 분명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구려 건국 신화는 사실은 한 5세기쯤 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신라나 가야도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건국 신화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모습도 떠올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삼국유사 본문과 1세기의 논형을 함께 보겠습니다. 삼국유사 본문에는 약간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한 명의 아이를 두 번 임신해요. 이것은 기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게 되니까 같은 아이를 두 번 임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임신은 삼국유사에만 나오는데, 동부여 금와왕이 백두산 남쪽에서 하백의 딸 유화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해모수라는 남자를 만나, 웅신산, 곰신의 산이라니까 뭔가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이 생각나죠. 그 웅신산 아래 압록강 근처 집에서 정을 통했답니다. 당연히 이때 임신한, 해모수의 아들이 주몽이겠지요. 다음 내용에서 햇빛 때문에 임신했다고 해도, 주몽의 아버지를 햇빛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인용된 단군기를 보면, 단군이 하백의 딸과 가까이하더니 부루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왕운기에서 봤던 그 기록이죠. 그런데 단군기라는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만 똑같고 아버지랑 아들은 다 달라 집니다. 부루와 주몽이 배다른 형제라 나오지만,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다른 동복형제입니다. 단군과 주몽은 2천 년 넘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설정은 부여가 고조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세기 중국의 왕충이라는 사람이 쓴 논형이라는 책에는 앞에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고구려

가 아닌 부여의 기원을 알려주는데, 그 내용은 고구려 건국 신화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고구려 건국 신화의 원작이 부여 신화이고, 맨 앞의 해모수 내용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금와왕의 동부여 대신 색리라는 다른 나라가 나옵니다. 같은 신화를 공유하는 집단이 이동하고 분화한 흔적이지요.

맨 앞의 해모수 내용은 추가된 것이라 했지요. 그럼 언제 추가되었을까? 5세기 때 이루어진 광개토왕릉 비문을 봐도 해모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5세기까지도, 광개토대왕의 공식적인 기록에서조차 해모수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광개토왕릉 비문은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공식적으로 새긴 것이니까, 거의 천 년 뒤의 삼국유사와는 차원이 다른 신빙성이 있습니다. 주몽의 공식적인 이름이 추모왕이었음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다만 해모수와 유화 부부 이야기는 하백의 딸이 등장했던 단군 신화 이본의 영향으로 추가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하백의 딸 이야기만은 보시다시피 광개토왕릉 비문에 나옵니다. 어머니가 하백의 딸이라고 분명히 내세우고 있지요. 다만 유화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서 좀 석연치 않습니다.

이제 유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세기 논형의 부여 신화에서는 시조의 어머니가 그냥 색리국왕의 궁녀였습니다. 그러다가 5세기 광개토왕릉 비문에서는 하백의 딸이 되었고, 여기 13세기 동명왕편에서 농업의 신이라는 속성도 추가됩니다.

주몽이 동부여를 떠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어머니와 이별해야 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인간적이죠. 그러자 그 어머니 유화가, 너는 내 생각 말라며 오곡의 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내줬냐 하면 비둘기 다리에다가 매 가지고 전해주게 했어요. 그러나 주몽은 너무 슬퍼서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비둘기를 통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고구려가 7세기 후반에 망했지요. 그런데 13세기까지도 고구려 건국 신화에 다른 요소가 추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그 나라의 건국 신화가 끊임없이 후계 국가들에 의해서 내용이 추가되고 수정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유화는 이렇게 시녀, 하백의 딸, 농업의 신 등으로 웅녀처럼 성장하고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현실적인 식견을 지닌 현자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삼국사기의 유화는 주몽에게 부여에서 억울하게 해를 당하지 말고, 멀리 떠나 주몽 자신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건국 자체가 유화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조 못지않은 비중이었지요. 모자 간의 재회가 끝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요. 이렇게 유화는 여신이 되었지만 현실을 떠나지 않는 특이한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웅녀가 동물이었다가 인간이 되고 다시 이제 신의 아내가 되는 그런 것처럼, 동명신화의 유화도 처음에는 신분이 낮은 궁녀였다가, 물의 신 하백의 딸이 되면서 신이 됐죠. 근데 물의 신이 아니라 물의 신의 딸이기 때문에, 독립된 신격이라기보다 약간 좀 종속된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13세기에 접어들어 비로소 곡식을 주는 농경신, 지모신 이런 속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독립된 신격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쪽은 하늘, 어머니 쪽은 땅,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인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런 의식과 유사한 고정된 위치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국 신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몽골 제국이 고려를 침략하면서 고구려나 고조선 같은 고대 국가의 여러 신들한테 더 확장된 신성함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몽골의 침략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여러 건국 신화들이 비로소 하나의 모습으로 재편성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이 그림은 주몽을 교육하는 유화의 모습인데요. 뭔가 좀 약간 이질적이죠. 이거 북한의 동명왕릉에 있는 그림입니다. 북한은 평양을 단군과 주몽에 연결하여 자신들이 차지한 한반도 북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4. 백제 건국과 소서노 -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

삼국유사에는 백제 시조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신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서동이나, 고려 태조 왕건하고 싸웠던 견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그래도 건국 신화를 두루 살피는 자리니까, 삼국사기의 백제 시조 기록이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조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가 소개돼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온조왕의 시조일 때 고구려는 두려운 아버지의 나라로 묘사돼 있습니다. 온조왕은 아버지가 주몽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백제를 세운 동기가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아까 고구려 건국될 때 보시면 유화가 주몽에게 네 재주와 힘으로 나라를 세우라던 당당한 목소리와 아주 다릅니다. 고구려에 대한 공포심이 건국의 동기라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친고구려적이고, 더 심하게 말하자면 고구려에 복종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쪽이 온조를 시조로 한 기록들입니다. 이것이 과연 백제 사람들의 주체적인 기록일까요?

반면에 온조의 형이었던 비류가 시조일 때는, 아버지가 주몽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북부 여왕 해부루의 손자 우태입니다. 주몽은 해부루의 양아들 금와왕의 양아들이었죠. 혈통으로는 비류가 부여에 더 가깝고, 최소한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비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재산을 기울여 도와서 건국에 노고가 많았는데, 주몽이 세상을 떠나니까 나라는 유류가 차지하여 남쪽에 가 나라를 세우잡니다. 주몽이 죽고 유리왕이 계승자가 되기까지, 널리 알려졌듯 칼 하나 맞춰 갖고 너 후계자 해라,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죠. 이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거쳐 유리가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다른 곳에 세우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우리 어머니가 재산을 기울여 세웠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울분과 분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더 혼란스럽습니다. 중국 쪽을 보면 동명의 후손 중에 구태라는 사람이 백제를 세웠다고 했는데, 이 동명은 아마 부여의 시조 동명왕이겠지요. 고구려와 백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국했으니, 주몽의 후손이라면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요동태수 공손도와 사둔이 되고, 동이, 동쪽 변방의 강국이 되었다고 해서, 뭔가 백제와 중국 사이의 인연을 많이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삼국사기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사 제목을 온조왕이라 한 것을 보면 온조 시조설에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일본도 일본서기에 도모라고 하는 사람을 백제의 시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모라는 사람은 동명이란 이름과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일본서기의 설명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백제 멸망 후에 일본으로 이주한 백제인들이 워낙 많았으므로, 도모라는 이름도 근거 없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백제를 누가 세웠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라마다 다 달라서 불가사의한 면이 있어요. 백제 시조는 친고구려적인 온조와 반고구려적인 비류가 나란히 있는데, 반고구려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구려가 아닌 백제가 부여의 정통 후계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와 부여 계승 전쟁을 벌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처음에 백제가 이제 고구려하고 국력이 비슷했을 때는 반고구려적인 경향이 강했겠는데, 나중에 백제의 세력이 약해지고 친고구려적인 성향이 강해지며, 온조가 시조라는 관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고구려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온조처럼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 것이냐, 비류처럼 바닷가에서 무역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 기원은 주몽이 아니었죠. 시조로서 온조는 주몽이 아버지라고 했지만, 비류는 주몽이 아버지가 북부여의 후손 우태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상황 따라 달라지지만, 어머니가 소서노라는 점은 이들 형제에게는 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초기 역사학자 신채호는 소서노가 바로 백제의 시조다, 그리고 한국사 최초의 여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책에서 그렇게 인정받은 적은 없었지만, 신채호가 보기에는 비류나 온조보다는, 진정한 백제의 시조는 우리가 잊고 지낸 소서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백제의 시조 소서노는 그렇게 잊히고 인정받지 못하게 됐느냐? 고구려랑 친한 입장에서는 소서노가 고구려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니까 긍정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내세울 수 없었고, 또 고구려를 싫어하는 이들에게는 애초에 이 사람이 주몽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남쪽까지 이주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웅녀나 유화처럼 신앙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소서노 여대왕 존영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신흥 종교 단체에서 그린 그림인데 신채호의 이 설을 받아들여 소서노를 여대왕, 한국사 최초의 여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의 주몽이란 사극에서도, 한혜진 씨가 열연했는데 소서노를 주몽 못지않은 아름다운 호걸로 묘사했지요. 소서노는 비록 오랫동안 잊혀 왔지만, 캐릭터로서 상당한 매력이 있어서 그 사극에서도 주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잘 그려냈습니다.

## 5. 신라의 선도산 성모 - 혁거세와 알영의 어머니

그리고 신라의 선도산 성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라의 첫 번째 임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혁거세 그리고 혁거세의 부인이었던 알영 이분들의 어머니로서 선도산의 산신령이 있습니다. 선도산 성모라고도 하는데 소서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억에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보통 삼국유사에서 백마가 알을 낳고 하늘로 올라간 자리에 박혁거세가 태어났다. 그리고 박혁거세의 배우자를 정할 때 나정이라는 우물에서 알영이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다른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우신관이라는 곳에서 여자 신선의 모습을 모신 곳을 보았습니다. 그때 왕보라는 사람이 이것은 귀국의 신이니 혹시 아느냐 묻고는 이어서, 아마 왕보라는 사람이 이어서 계속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물어보는 데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옛날 어느 황실의 여인, 그러니까 중국 황제의 딸이 남편 없이 아이를 임신했다는데, 마치 고구려의 유화처럼 약간 신화적인 모습이죠. 남편 없이 아이를 임신하여 의심을 받게 되자 배를 타고 바다에 떠서 진한 지역에 이르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해동의 첫 임금이 되고 황제의 딸이었던 그 여인은 땅에 머물러 지내는 신선이 되어 영원히 선도산에 머문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황제의 딸이 진한 땅에 이르러서 아들을 낳았는데 해동의 첫 이름이 됐다. 그럼 당연히 진한 땅 첫 임금, 신라 시조 박혁거세를 떠올릴 법하지만 김부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도산의 신성함은 알 수 있지만, 그 신의 아들이 어느 때에 왕 노릇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요. 말하자면 김부식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편찬한 역사책에서도 신라의 시조를 박혁거세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나름대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굳이 중국 황제의 딸 선도산 성모가 시조를 낳았다. 이런 계통의 이야기를 따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중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선도산 성모 이야기가 워낙 유명해서 중국에까지 알려진 신라 건국 신화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고 신상까지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조각상이 남아 있을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백마가 알을 낳았다는 이야기보다 이 신화가 당시 동아시아에는 훨씬 더 유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삼국유사에도 두 군데에 이 선도산 성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박혁거세의 탄생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일연은 신라 수도 서라벌 서쪽의 서술산, 곧 선도산의 성모가 이제 탄생한 것이니 중국 사람들이 선도 성모를 찬양하여 신현조방, 신은 임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진 현자를 임신해서, 조방, 나라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계룡이 상서로운 조짐을 나타내고 알영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혹시 서술 성모의 현신을 말한 것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계룡이 알영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혹시 선도산 성모를 이야기한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백마 이야기를 먼저 했지만, 성모에 관한 서술의 비중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또 나와요. 감통편에서 선도산 성모는 착한 여승의 활동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본래 중국 황제의 딸로 이름을 사소라고 한다고, 그 이름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선의 술법을 배워 해동에 와 머물고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았대요. 진한에 와 시조를 낳았다는 기록은 앞서 김부식의 사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혁거세와 알영 두 성인을 낳았다고 하여, 아들과 딸 모두의 어머니임을 명백하게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들 남매는 따로 태어난 게 아니라, 모두 선도산 성모가 낳은 아이였는데 남매이면서도 이제 부부가 된 사이였죠. 아시다시피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남녀 한 쌍만 있었을 것이므로, 그 남녀 한 쌍에서 이제 모든 인류가 태어났다면 최초의 부부는 최초의 남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신화 같은 것도 보면 마지막에 남매만 살아남거든요. 남매가 그냥 남매로서 살아가면 번식을 할 수가 없으니, 남매가 부부가 되어 번식을 하는 게 좋을까? 이걸 나름대로 점치기 위해서 남매가 각각 다른 산에 올라 이쪽 산하고 저쪽 산에서 멧돌을 굴렸는데, 멧돌이 위 아래가 딱 합쳐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합치라는 게 하늘의 뜻이구나 이려고서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그런 설화도 있어요. 그래서 남매가 그렇게 부부가 되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신화적으로 오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혁거세와 알영이 남매이면서 부부가 된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죠.

이어서 계룡, 계림, 백마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이유는 닭이 서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이지 자축인묘진사오미 이게 다 나름대로 방향이 있는데 닭이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동쪽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닭이 꼭끼요 운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계룡이 알영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서쪽의 선도산 성모와 연결되는 것도 계룡의 '계'가 닭이라 서쪽이라 그렇거든요.

선도산 성모가 낳은 아이 두 명이 어떻게 동시에 시조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혁거세왕이 마한에 호공이란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 호공이 신라에 두 명의 성인이 있다고 해서 혁거세와 알영을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삼국유사에 실려 있어요.

이제 신라의 경우도 남매 부부가 되는 혁거세와 알영, 이 두 사람이 동등한 공통의 시조로서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이 상당히 옛날부터 있어왔고, 그게 중국에까지 건너가서 선도산 성모에 대한 신앙을 전파시킬 정도로 널리 퍼진 그런 전승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백제의 경우는 형제가 갈등을 했죠. 고구려하고 잘 지낼 것이냐 아니면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 온조처럼 농경 국가를 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비류처럼 바닷가에 자리 잡고 해양 국가를 세울 것이냐 하는 식으로 대립했는데, 혁거세와 알영은 남매이자 부부였습니다.

알영은 닭의 부리를 지닌 계룡의 딸, 서쪽의 계룡이죠. 그리고 혁거세는 백마의 아들이었죠. 흰색도 서쪽을 상징한다고 했으니, 공통적으로 서쪽을 상징하는 사람들끼리 만나 부부가 된 것이죠. 나중에 김씨 왕족의 시조가 되는 김알지 역시 닭과 인연이 깊은 계림이라는 지역에서 닭의 울음과 함께 출현했어요.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신라는 뭔가 흰색, 서쪽 이런 상징을 강하게 갖고 있는 나라였다고 볼 수 있죠.

대구의 옛 이름이 달구벌이거든요. 이 달구가 사투리로 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알지 세력이 대구에 근거지를 두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런 논리라면 이 사람들이 다 대구에서 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신라는 백제와 달리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지요. 혁거세와 알영의 상징성이 이렇게 크니까, 우리는 그 어머니가 되는 선도산 성모에 대해서 거의 잊고 지낸 거죠. 잊고 지냈는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 여자 신전으로서 인기를 얻는 특이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경주 남산에 있는 불상인데요. 아마 선도산 성모가 이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불상이고요. 노란 성모상은 송실대 박물관에 있는 유물인데 여기 보시면 성모가 있고 옆으로 사람 얼굴이 11개가 있어서, 관음보살의 여러 가지 상징 가운데 11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십일면 관음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관음보살이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기 예수를 품은 성모 마리아의 상이 아닐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여러 개 있는 성모 마리아 상도 없지요. 이거는 성모 마리아의 상징이 나름대로 이제 관음보살이 갖고 있는 자비하고 또 통하는 면이 있으니까요. 성모라면 종교를 불문하고 동정심이 많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성모상까지 끌어들이는 이유는, 이게 상당히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고, 여기 등장하는 모자 관계가 선도산 성모와 그 자식 시조들의 관계를 떠올리게 해서였습니다.

## 6. 대가야의 정견 모주 - 주일과 청예(김수로)의 어머니

끝으로 가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백제의 형제 갈등 그리고 이제 신라의 남매 결연에 대응하는 가야의 모습은, 형제가 각각 나라를 세워 공존하는 연맹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여신 정견 모주는 이비가라는 하늘신과 결혼해서 뇌질주일, 뇌질청예 두 아들을 낳았답니다. 큰아들 주일은 대가야의 왕이 되었고, 둘째아들 청예는 이제 금관국 금관가야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이 기록은 조선시대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령현, 옛 대가야 지역의 것이었습니다. 조

선시대 기록이지만 최치원이 쓴 책을 인용한 거니까, 이 기록 자체는 9세기 통일 신라 때 것이죠. 그래서 특이한 점이 몇 있어요.

일단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제 수로왕의 금관가야에서 이진아시왕이 건국한 대가야로 옮겨지게 되면서, 대가야 사람들이 이제 금관가야도 우리 일부가 됐으니까 금관가야가 우리 대가야의 동생 나라라는 그런 신화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 무렵 만들어진 신화라고 볼 수 있어요. 금관가야가 망하고 그 유민들이 대가야에 많이 망명하게 되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 7. 정리

북방 신화의 여신은 성장합니다. 용녀는 동물이었다가 인간 나아가 여신으로, 이렇게 단군 신화라는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유화는 1세기 때 궁녀였다가 5세기 광개토왕릉 비문에는 하백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누군가의 딸이니까 약간 좀 종속적인 신이라고 했죠. 13세기 동명왕편에 이르러 대지의 신이라는 또 다른 속성이 가미됩니다. 유화는 하나의 텍스트가 아니라, 전승과 재편성의 과정을 통해 속성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어요.

남방 신화의 여신들은 잊힌 존재였지만, 두 아이를 낳아 그들의 관계를 통해 국가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백제의 경우 형제가 갈등했어요. 한 나라 안에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다핵 국가라는 백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통해서 한성 백제, 웅진 백제, 사비 백제, 이렇게 이제 수도를 중심으로 한 백제 역사를 기억하고 있지만,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백제는 삼국사기의 백제에서는 중심지가 아니었던, 호남 지역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의 백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와는 제법 차이가 있어요. 전라남도 나주나 그 부근을 가보면 금관도 있고 유물이 많은데, 삼국유사에서는 서동과 미륵사 말고는 호남 지역을 잘 설명해주지 않으니, 문헌에 힘을 빌려서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백제가 멸망했을 때, 아시다시피 나당 연합군 13만 대군이 밀려왔을 때 계백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갔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망했잖아요. 근데 백제 부흥군이 왕도 다 잡혀갔는데 3년 동안 더 버텼어요.

그러니까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을 함락시키는 데는 오천 결사대만 무찌르면 되는 거였는데 다른 백제 지역을 점령하기까지는 3년 동안 더 고생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수도가 없어져도 지방 세력은 그렇게 큰 지장은 받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열이 바로 비류와 온조로 이제 처음부터 갈라져 있었던 백제의 상황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여러 성 씨가 하나의 왕족으로 통합되고 중앙 집권적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졌죠. 여러 성 씨가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인지 박씨인지 김씨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박재상이라고 나오는 신라의 충신이 삼국유사에는 김재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를 점령했던 이사부, 삼국사기에는 김씨라고 나오지만 삼국유사에는 박이종이라고 나와요. 이사부의 부나 이종할 때 종은 다 남자 이름 뒤에 붙는 존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사람의 성씨가 어떨 때는 박씨로, 어떨 때는 김씨로 나온다는 것은 두 성씨 사이에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냥 제 추측이지만, 저는 저게 아버지 성을 따르기도 하고 어머니 성을 따르기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 씨하고 김 씨가 서로 결혼도 많이 했거든요. 박씨, 김씨가 왕족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따르면 박재상인데 어머니 성을 따르면 김재상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박 김재상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근거는 없고 그냥 제 상상입니다.

그리고 가야의 경우는 형제가 나라를 따로따로 세웠잖아요. 그래도 서열을 따져 금관가야가 우두머리다, 아니다, 대가야가 우두머리다 하는 서열 정도는 존재했던 연맹체 국가의 모습을 이 신화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국신화는 건국할 당시의 어떤 현실이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세워지고 성장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동명신화>는 고구려와 부여의 건국신화이며, 유화라는 신화적 여성이 등장한다. (O/X)

정답: O

2. 신화 속에서 혁거세와 알영은 남매이면서 부부가 되었다. (O/X)

정답: O

3. 백제 건국신화의 형제 갈등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다핵 국가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다. (O/X)

정답: O

4. 북방 신화의 여신인 웅녀는 동물이었다가 인간, 나아가 여신으로 성장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O/X)

정답: O

5. 건국신화는 대부분 건국할 당시의 현실이나 상황만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O/X)

정답: X

선택형(5분)

1. 다음 중 <단군신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웅이 3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 ② 꿈은 언급된 100일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여인의 몸을 얻게 되었다.
- ③ 꿈 여인은 같은 부족 안에서 혼인할 사람을 찾아 단군왕검을 잉태하였다.

정답: ③

2. 다음 중 <단군신화> 웅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왕운기>에서는 환웅의 손녀이자 단군의 어머니이다.
- ② 꿈에서 인간으로 변하자마자 인외(人外)의 존재 취급에서 벗어났다.
- ③ 건국신의 어머니로서 여신 유형의 첫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②

3. 다음 중 <동명신화> 유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3세기 <동명왕편>에는 오곡의 종자를 보내는 장면으로 농경신의 속성이 추가되었다.
- ② 삼국사기에는 유화의 현실적, 인간적 식견이 부각되어 있다.
- ③ 수신의 딸이라는 독립된 신격에서 곡신, 지모신이라는 종속된 신격으로의 성장을 보인다.

다.

정답: ③

4. 다음 중 백제 건국신화 소서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친고구려 쪽의 비류와 반고구려 쪽의 온조의 공통 기원이라 할 수 있다.
- ② <동명신화>의 유화처럼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 ③ 신채호가 한국 최초의 여왕이자 백제의 시조라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정답: ③

5. 다음 중 신라 선도산 성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국 황제의 딸로, 남편 없이 아이를 임신해 해동의 첫 임금을 낳는다.
- ② 땅에 머물러 지내는 신선이 되어 영원히 선도산에 머물게 된다.
- ③ 김부식이 출생과 이후 행적에 관해 자세히 서술하고 강조하였다.

정답: ③

####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단군신화>에서 시련과 갈등을 겪고, 성장을 이뤄 신의 아내까지 된 진정한 주인공은 ○  
○라고 할 수 있다.

정답: 웅녀

2. 백제 시조에 대하여, 반고구려 쪽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아닌 백제가 ○○의 정통 후계자  
라 여겼다.

정답: 부여

3. 가야 건국신화에서 여섯 형제의 공존은 서열을 지닌 ○○○ 국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다.

정답: 연맹체

#### 나. 토의 (30분)

한국 건국신화 속 여성 인물이 보이는 주인공으로서의 면모와 그 성격에 대하여 토의해본  
다.

#### 다. 과제 (60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여신들의 성격을 비교하고, 각 건국신화의  
내용들이 해당 국가의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글을 써 본다.

■ 참고자료

삼국유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삼국사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단군신화 2021> - 상체리 ([만화 보기](#))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역,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이규보, 조현설 역, 『동명왕편』, 아카넷, 2011.

## <3차시> 신화의 시대에서 종교의 시간으로

### ■ 학습목표

1. 종교설화 속에 나타난 성자의 삶과 깨달음을 살펴본다.
2.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신앙인 미륵신앙, 미타신앙, 관음신앙, 화엄신앙을 설화와 함께 이해한다.
3. 종교설화를 통해 신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람직한 삶과 죽음의 모습을 이해한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진표와 미륵신앙 설화
3. 광덕, 엄장과 미타신앙 설화
4. 원효, 의상과 관음신앙 설화
5. 사복과 화엄신앙 설화
6.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서철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국 영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국 영웅이라고 하면 정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었지요. 이번 시간에는 종교적인 깨달음이나 실천에 대한 삶의 자취를 보여주었던 종교 설화 속의 성자들이 살았던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자면 신화 속에 등장하는 건국 영웅들이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면, 종교 이야기 속의 성자들은 이런 성자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나 종교적인 깨달음, 실천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죽음을 맞을지에 대한 인생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찾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공포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모색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시간대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처했던 고민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조의 역사는 몇백 년, 길면 몇천 년 세월이 흘러가면 자취가 희미해지지만요.

우리가 뭐 신라나 고려나 예전에 있었던 왕조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더라도, 그 왕조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직접 끼쳤는지 이야기하려면 더 많은 지식과 공부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성자들의 가르침은 훨씬 더 큰 울림을 광범위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구원자가 되어 다윗의 후손답게 왕조를 부흥하지는 않았지만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처님도 자신이 속한 석가족의 왕위를 버리고, 삶과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을 찾기 위해 애쓰셨지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보편적인 인류의 깨달음과 가르침으로써 영원히 남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삼국유사>는 정치 공동체의 설립 목적을 설명해 주는 신화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 나아가 문화적인 연대의식과 공감대를 이룩해 갔던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을 가지고 공평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몇 성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삼국시대의 불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혀서 말하면은 불교겠지만, 넓게 말하자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관한 당시 사람들의 고민과 그 고민의 결과물 자체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몇몇 성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신앙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미륵신앙, 미타신앙, 관음신앙과 화엄신앙 등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다양한 사상과 신앙들이 있었겠지만요. 그래도 그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고, 한국의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네 가지 유형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맨 처음은 진표와 미륵신앙입니다. 진표라는 분은 처음에는 한 사람의 열정적인 수행자로서 자신이 믿었던 미륵보살이라는 신을 만나기까지 극단적인 고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의 손가락뼈를 받았다고도 하는데요. 이분이 믿었던 미륵보살, 현재는 미륵보살이지만 나중에 미륵불이라는 부처님이 될 것으로 예언 받은 신인데요.

미륵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미래와 연결되는 사례, 그리고 용 신앙과 연결되는 사례 등 두 가지 경우를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래와 연결이 되는 그런 사례는요. 미륵이라는 분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세주라거나, 메시아라고도 부르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강조된 미륵은, 어두운 현실을 물리치고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분입니다. 후삼국 시대에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자신을 미륵이라고 주장하며, 후백제의 견훤이 미륵 신앙을 강조했던 모습 등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열어갈 자신들이야말로,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미륵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셈이지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궁예와 견훤의 세력은 진표가 미륵 신앙을 열심히 퍼뜨렸던 지역과 많이 겹쳐 있습니다.

아무튼 미륵 신앙을 널리 퍼뜨렸던, 미륵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는 진표라는 분에 대한 존경심은, 나중에 미륵을 향한 신앙심과 구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미륵을 만났다는 진표가 미륵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일종의 우상화처럼 비칠 수도 있지요. 진표에 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미륵을 만난 사람이 또 하나의 미륵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륵의 또 다른 이미지는 용입니다. 용을 한국의 고유어로는 미리, 미르 등으로 부르는데요. 소서노를 한국 최초의 여왕이라 주장하기도 했던 신채호 기억나시죠? 그 신채호가 <용과 용의 대격전>이라는 판타지 소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작품에서 동양의 용은 권력자의 상징에

불과했지만, 서양의 드래곤은 정반대로 권력에 저항하는 악마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지요. 신라 문화의 용은 화랑을 상징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마치 삼단 논법처럼 화랑이 미륵의 이미지를 갖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화랑이 미리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화랑이 왕당파였다는 점도 용의 상징과 엮어 생각해 보면 의미심장한 듯합니다.

요컨대 구세주와 용의 이미지를 합치면, 미륵은 개혁하여 바뀐 세상의 권력자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일제 시대 신흥 종교의 교주들은 먼 옛날 궁예가 그러했듯 자신을 미륵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이런 미륵신앙을 본격적으로 대중화했던 인물이 진표라 하겠습니다.

미타 신앙입니다. 미타 신앙의 미타란 말은요. 저승을 맡아주시는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있어요. 그러니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이 곧 미타 신앙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하는, 죽음을 마주하는 삶의 자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인간다운 죽음은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미타 신앙의 고민도 일정 정도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음 신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미타불이 저승을 맡아주는 분이라면, 관음보살은 현실에 존재하는 이들을 도와줍니다. ‘관음’할 때 ‘관’은 본다는 뜻이고 ‘음’은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괴로워하는 모습이나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보고 듣고 하여 도와주는 분이 관음보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하나의 신이 모든 존재들의 고민을 다 해소할 수가 있겠어요? 업무가 너무 많겠지요. 그래서 관음보살에게 다 떠맡겨 놓고, 그 관음보살이 다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 관음보살이 보여주는 자비의 실천을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모든 존재가 이타적 실천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관음보살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리하면 미륵은 미래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실 분, 아미타불은 우리가 저승에 가면 아름다운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는 신, 그리고 관음보살은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역할들이 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신앙이 각각 있어서요. 마침 거기에 맞는 설화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살펴보고요 합니다.

그런데 문학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개념은 마지막의 화엄 신앙의 화엄으로 보입니다. 화엄이 뭘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화엄경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묘사가 서정적이고 시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고 묘사했지만, 우리가 지닌 제한된 언어만으로는 화엄이라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적절하게 다 묘사할 수가 없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언어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생각을 표현하고 우리가 느낀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데는, 또 언어만큼 적절한 도구도 달리 없잖아요.

그래서 철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도구로서의 언어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과 비슷해집니다. 뭔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언어를 통한 표현과 소통을 긍정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나름대로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언어나 문학 관련자들과 밀접하게 엮힌 것이 화엄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의 역할에 관한 탐구가 화엄 신앙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요. 상당히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설화를 통해서 그 설화에 등장하는 성자들을 알아보죠. 미륵을 만났다가 먼 훗날에는 미륵처럼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진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까 고민했던 광덕과 엄장, 그리고 많은 이들이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

고 싶었던 원효와 의상, 그리고 언어의 효용을 처음에는 부정했다가 나중에는 긍정했던 사복 등 네 사람의 성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신라 불교, 나아가 신라인들이 꿈꾸었던 바람직한 삶과 죽음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 진표와 미륵신앙 설화

그러면 진표와 미륵신앙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진표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서 처음 들어볼 가능성이 있네요. 이 분은 신라 경덕왕 때, 그러니까 8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백제계 승려였습니다. 8세기 경덕왕 때라면 백제가 멸망한 지도 거의 200년 가까이 지나버린 시점인데요. 왜 718년에 태어난 진표를 백제계 승려라고 할까요? 그 근거는 송나라 때 고승전에 진표를 백제 승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 신라 시대에 살았지만 사람이지만요. 나름대로 백제 계통 인물로 평가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진표는 두 가지 업적으로 유명합니다. 첫째는 점찰 법회라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점찰’이란 그 행사가 나름대로 놀이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놀이 행사를 통해 불교를 대중화하기에 이바지했다는 겁니다. 점찰이란 무엇일까? 189개의 주사위 비슷한 도구를 활용해서, 점을 치듯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행사였다고 해요. 주사위 비슷한 도구를 활용했다면 사행성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서로 내기하고 경쟁하는 요소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쪽이었다면, 그렇게 문제 삼을 일만은 아닌 것 같네요. 자칫 딱딱하고 엄숙해지기 쉬운 종교 행사에, 놀이처럼 참여하고 성과를 냈다는 모습이 흥미롭기도 합니다.

이런 행사를 진표가 창안해서 불교 대중화에 성과를 냈다면 그것대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따 보시겠지만, 점찰 법회의 아이디어는 진표가 미륵보살을 만나 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이의 도구 역시 미륵보살이 전해주었고, 나중에 가면 그 도구 자체가 미륵의 손가락 뼈였다는 내용까지 추가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퍼진 배경에는, 이 점찰 법회가 미륵 신앙을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진표의 두 번째 업적은, 바로 미륵 신앙을 전국적으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북 김제와 강원도 강릉 지역이 주 활동 무대였는데요. 나중에 후삼국 시대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발상지와도 가깝지요. 아까 미륵은 미래의 권력을 목표로 한 이들의 꿈과도 얽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알다시피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는 자기가 미륵이라고 했죠. 내가 미륵이니라! 하면서 남들의 마음도 꿰뚫어볼 수 있다는 이제 관심법이라는 능력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폭군처럼 안 좋은 일도 많이 벌이고 그랬다지요. 후고구려는 왕이 자기를 미륵이라고 했고요. 후백제를 세운 견훤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김제에 금산사라는 절에 머물면서 미륵 신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금산사는 진표가 김제에 살 때 머물렀던 그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삼국 시대에는 결국 미륵 신앙을 바탕으로 민심을 얻은 사람들이 후고구려와 후백제라는 큰 세력을 얻게 되었지요. 그 미륵 신앙의 씨앗을 진표가 뿌렸다고도 할 수 있어요. 천 년 넘는 시간이 흘러가 진표라는 사람 자체는 잊혀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한때 한국은 그냥 돌맹이 두 개만 겹쳐놓고 미륵이라고 할 정도로 미륵 신앙이 성행했고요. 일제 시대에도 신흥 종교 교주들은 자신을 미륵이다, 그래서 개벽을 열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났던 미륵 신앙의 영향력을 처음 만든 사람이 진표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의 고승전에 나타난 진표의 인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몸을 던지는 고행이 나와요. 말 그대로 몸을 던져요. 그런 무리한 고행은 약간 신화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통과 의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건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성과가 189개의 주사위 비슷한 도구로 증명됩니다. 그 도구 중에 2개는 미륵의 손가락뼈라고 합니다. 189개가 다 미륵의 손가락뼈는 아니고요. 그 가운데 8번 하고 9번, 이렇게 2개만이 그렇습니다. 점찰 법회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까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미륵의 뼈가 나올 확률은 189분의 2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낮은 확률인 것도 같지만, 요즘 모바일 게임의 0.0000몇 퍼센트라는 확률에 비하면 아주 참 너그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하여 이 뼈 신앙, 미륵의 손가락뼈를 포함한 미륵 신앙은 점찰 법회를 타고 전국적으로 널리 퍼집니다. 그 성과가 이제 인간과 동물 모두를 감화시키는 것에 이르지요. 종교나 신화 속의 지도자들이 어디 가서 뭘 할 때 보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감동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티프가 역시 진표 이야기에든 등장해요. 그러므로 진표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이런 미륵 신앙을 후대에 이제 끼친 사람으로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진표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고행에 관한 기록을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표 관련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0세기의 송나라 고승전에 실린 것이고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것들로 12세기의 진표 전간, 진표 비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륵의 손가락뼈를 전해주었다는 뜻의 제목이고, 비명은 말 그대로 진표의 비석에 적혔던 글의 내용입니다. 고행은 진표에게 미륵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진표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될 만하다는 자격을 주기도 했다고 봅니다.

진표에 관한 기록은 시기가 후대로 갈수록 자세해집니다. 아무래도 상상력이나 신앙심이 점점 더 발휘되는 것 같은 모습이지요. 처음에는 몸을 던졌다고만 하더니, 나중에는 온몸을 돌에 메쳐서 무릎과 팔뚝이 모두 부서지고 피가 바위 언덕에 비 오듯 하엿다네요. 더 나중으로 가면 파란색 옷을 입은 동자가 두 손으로 받들어준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투신할 때도 그 동자가 받들어줄 줄 알고 몸을 던졌다네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손과 팔이 부러져서 그냥 떨어져 버렸답니다.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진표의 고행은 지금으로 치면 투신자살과도 비슷한 모습이군요.

이렇게 진표가 고행하는 과정만 먼저 보면, 이 고행이 지닌 통과 의례적인 속성이 눈에 띕니다. 신을 만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편의 자료를 각각 조금씩 살펴보면, 진표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고행의 과정, 뼈에 대한 신앙, 진표가 세상을 감화시켰던 일 등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은 미륵의 손가락뼈를 얻게 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점점 얘기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각과 본각이니 개념도 덧붙여지는데요. 불교적으로는 중요한 개념들이지만, 이들 자체가 이야기에서 꼭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진표가 처음 만났던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 대신, 미륵에 대한 신앙을 대중화의 소재로 선택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일본 불교에서 지장보살의 인기에 비하면, 한국에서 지장보살은 그리 널리 신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표가 뼈를 통해 미륵의 인정을 받아서였을까요? 점차 진표의 뼈도 사람들이 따로 챙길 만큼 대단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뼈를 섬기는 모습은 약간 샤머니즘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네요.

먼저 10세기에 그 송나라 고승전에는 이렇게 7일 단위로 진표의 수행 절차가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7일이 지났을 때 지장보살을 만났어요. 지장보살은 황금 지팡이를 흔들면서 진표에게 기구도 주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알려주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진표의

목적은 지장보살을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미륵보살을 만나는 것이라서, 지장보살과의 만남은 진표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했으므로, 다시 한 번 고행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7일이 또 지나가니까 큰 귀신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진표를 바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진표가 머물던 절벽을 가면 굉장히 아찔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절벽에서 여러 차례 떨어져 보았던 경험 덕분이었을까요? 진표의 몸에 다친 곳이 없었다네요. 몸이 멀쩡했던 이유가 먼저 만났던 지장보살의 도움 덕분이었다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고 미륵을 만나겠다는 결의와 신앙심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기적이었겠지요.

그래서 처음 한 번은 불완전한 만남, 두 번째는 귀신을 만나는 고난, 두 차례의 절차를 다 겪고 나니까 21일이 흘렀네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단군 신화에서요. 여주인공이었던 웅녀가 사람이 되기까지 21일이 필요했죠. 7일이 세 번 지난 것을 3·7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진표도 21일이 지나니까, 정말 자신이 목적했던 대로 미륵보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요. 첫째는 제비 뽑는 도구를 줍니다. 이 도구를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점찰 법회를 열어서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비 뽑는 도구라면 일종의 사행성이 있는 물건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어려운 경전을 읽히거나 하기 어려운 수행을 하라고, 어렵고 힘든 깨달음의 방법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놀이처럼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종교적인 깨달음을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 절에 가면은 설교나 설법을 듣죠. 나름대로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요.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자리는 좀 다르죠. 찬송가를 부르거나 찬불가를 부르거나 하는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고요. 나아가 그거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언어의 한계인 것 같지만, 노래가 지닌 힘과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람은 엄숙하고 진지한 것만 계속하기보다는, 긴장을 약간 풀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미륵보살은 진표에게 긴장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비 뽑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가라, 즐겁게 공부하고 수행할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야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글자를 모르는 사람,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도 똑같은 깨달음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즐거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올 방법을 이 제비 뽑는 도구를 통해서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점찰 법회의 목적을 한결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참회해야 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미타 신앙과 관련한 광덕과 엄장 이야기에서도 이 참회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참회해야 하는가? 바로 제비 뽑는 도구와 놀이에 가까운 행사를 통해 참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비장하고 슬픈 모습으로 뉘우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비를 뽑아서 거기 나와 있는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참회의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지하고 어려운 깨달음의 길만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놀이를 통한 수행 방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런 수행 방법의 내용으로 참회를 통한 깨달음의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표가 어떻게 이 제비 뽑는 도구를 구체적으로 참회에 활용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시다. 그러나 참회라는 자칫 엄숙하고 진지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은 이들이 부담 없게 대할 수 있도록 놀이의 방식으로 제공했다는 점은 중요해요.

종교 행사와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 수업에서도 굉장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저도 그렇지만 대개의 수업은 지루합니다. 그러므로 지루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좀 부담 없게 전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데요. 진표에게 미륵보살이 주었던 이 가르침이 나름대로 재미있는 교육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놀이와 구별되지 않는 교육이지요. 그런 방침의 교육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여간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자료였던 송나라의 고승전에서는요. 놀이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주면서도 참회를 위한 사람들의 고민을 해소해 주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12세기의 자료 두 편을 마저 보겠습니다. 먼저 '진표 전간'에서는 진표가 얻은 두 개의 도구가 사실은 손가락뼈, 그것도 미륵의 손가락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진표 자신의 뼈도 이렇게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뼈에 대한 신앙을 좀 더 말씀드릴까요? 사람의 생명 가운데 살과 피,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흐르면은 없어지지요. 하지만 뼈는 돌하고 비슷하게 딱딱한 물질이어서, 오래도록 남게 된다고 믿었겠지요. 그리고 주사위도 그렇고 옷놀이할 때 쓰는 옷도 그렇고요. 놀이에 쓰는 도구들은 대개 이렇게 딱딱한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를 신앙하는 모습이 여기에 추가됐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두 개의 손가락뼈가 각각 8과 9라는 숫자를 상징한다고 말해주죠. 8과 9가 불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역시 좀 어려운 개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12세기 때 자료를 보면 그 어려운 개념을 한층 더 확장해서, 번뇌를 없앤다는 시각, 그리고 만물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본각, 9라는 숫자는 세상의 사물들, 8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낼 가능성 등으로 정보와 지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이걸 알려주는 수단으로 놀이와 도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도솔천이라는 미륵의 하늘나라 이야기도 나오네요. 뒤로 갈수록 설명이 어찌 점점 복잡해지죠?

애초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즐겁게 깨달음으로 이끌어보자는 그런 취지가 개념 설명에 밀려 오히려 조금씩 약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뼈 신앙에 대한 말씀어요. 조금 더 12세기 때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자료에서는, 뼈를 신앙하는 이유가 이게 진표가 미륵에게 직접 받은 도구인 동시에 미륵 자신의 손가락뼈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미륵의 뼈였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자료에서는 뼈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미륵의 뼈에 대한 신앙에서, 진표의 뼈에 대한 신앙으로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진표가 세상을 떠날 때 바위 위에 올라가서 죽었다는데요. 바위는 뼈하고 비슷한 딱딱한 속성을 갖고 있어서 시간이 오래 흘러도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죽은 진표의 시체를 옮기지 않았더니, 그러면 당연히 수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골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흩어질 듯한 해골을 모아 소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 소나무가 계속 자라다 보니까, 그 소나무를 파서 진표의 뼈를 얻어 그걸 개인적으로 모시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무 밑을 캐서 진표의 뼈를 찾아다가, 따로 우리 집이나 개인적인 공간에 모셔놓고 또 신앙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소나무 아래에서 뼈를 찾아서 얻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표 같은 성자의 무덤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미륵의 손가락뼈를 얻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뼈에도 뭔가神通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걸까요? 사람들이 진표의 뼈를 자꾸

탐냅니다. 진표는 수목장을 한 셈인데요. 소나무 아래에서 이 사람의 뼈를 자꾸 캐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글을 쓴 사람이 보기에는 성스러운 진표의 뼈가 없어질까 봐요. 두려운 마음에 성골이라고 표현했던 그 남은 뼈를 다 모셔다가 정식으로 무덤을 다시 만들어서 편안하게 모셨다고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물론 진표의 뼈는 성자의 뼈니까, 신성한 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성자의 안식을 방해하고 무덤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뼈를 찾아서 신앙의 대상으로 따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요. 진표 자체가 기묘한 방향으로 신격화되고, 진표 자체가 이제 미륵과 비슷한 그런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겠습니다.

진표는 미륵의 뼈를 남겨준 사람, 미륵을 만나서 뼈를 얻어온 사람이었지요. 그러다가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신성한 뼈를 지닌 신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신이 되어버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미륵을 만난 사람이 미륵과 동일시되고 있잖아요. 신을 만난 사람이 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이상할까요? 성리학을 수립했다는 주자의 권위가 유교의 첫 스승 공자에 필적할 만해지고, 신의 종이라는 사제들의 말이 평신도들에게는 경전 자체보다 더 큰 권위를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전, 원작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이들이 또 다른 우상이 되는 모습은 이렇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삼국유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향가라고 하는 신라 시대 시를 보면, 나름대로 행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향가를 번역하신 분들이 <삼국유사>의 행 구분을 온전히 다 인정하지는 않고, 나름의 기준으로 다시 정했거든요. 원전의 행 구분보다는 그분들의 권위가 더 큰 대접을 받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증적인 이유가 나름대로 있기는 하지만, 원작을, 원점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태도 자체가 진표의 뜻은 아니었겠지만, 뜻하지 않게 우상화가 되어 버린 진표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이어서 진표가 세상을 감화시킨 흔적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날짐승, 길짐승도 길가에 얌전히 엎드려 있었고, 남녀가 머리를 풀어서 진흙을 덮었다고 했지요. 마치 신의 출현을 마주한 듯한 성스러운 모습인데요. 12세기 자료에서는 당시 임금이었다던 경덕왕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왕이 직접 진표를 인정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10세기 자료에서는 없었던 얘기가 12세기에 추가됐기 때문이에요. 경덕왕이 진표를 이렇게 스승으로 섬겼다는 것은 후대에 추가된 이야기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왕 기록을 추가하는 김에요. 후백제의 견훤이 굉장히 좋아했다가 나중에 유폐됐던 금산사라는 절이 있어요. 진표가 여기 머물렀다고 하니 후백제하고도 뭔가 인연이 생기게 되었죠.

용왕이 나와서 절을 지어주고, 미륵이 또 이렇게 또 불상을 만들어주고, 소들이 이제 진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네요. 왜 그런지 궁금해하던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불교에 입문합니다. 이제 출가하는 물고기와 자라들이 바다에서 나와서 다리를 놓아드렸다. 이런 것 역시 동명 신화 이래로 잇을 만하면 등장하는 요소죠.

그렇지만 약간 좀 배신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자라들이 진표를 도와줬는데요. 나중에 흉년이 되니까 물고기와 자라들이 저절로 죽게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이런 기적을 베풀습니다. 이거는 도와줬던 물고기와 자라들을 배신하는 것 같지 않나요? 보기에는 약

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표라는 실제 인물이 설화의 주인공이 되고 신처럼 숭배받기까지의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에 이르는 기록들을 서로 비교했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제 정리하면 진표와 같은 성자들은요. 신화적인 존재들이 통과 의례를 겪듯이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미륵신을 모셨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미륵신처럼 또 숭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마치 신흥 종교 종교 교주들이 처음에는 하느님 예수님 얘기하다가, 내가 예수다, 내가 미륵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표가 직접 스스로를 높였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후대의 자료로 갈수록 사람들이 진표를 그렇게 모시는 것 과도 같은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폈던 여신들과 시대가 갈수록 잊히면서 역할이 달라져 갔던 모습과도 비교할 만하지요.

### 3. 광덕, 엄장과 미타신앙 설화

이렇게 해서 진표에 대한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렸는데요. 진표에 대한 신앙은 이렇게 한 사람이 신격화되어 가는 과정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부터 살펴볼 미타나 관음, 화엄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미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타 신앙 할 때 미타는 아미타불입니다. 우리가 염불을 외울 때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데요. 나무라는 말은 무언가에 의존한다, 기댄다, 그게 나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미타예요. 아미타불이란 뭐냐 하면, 죽어서 저승에 간 우리를 도와주며 저승을 이렇게 관리하는 신입니다.

저승에 간다는 거는, 사실 저승 다녀와서, ‘야. 저승이 이렇더라.’ 하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불안하죠.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해답을 아미타불이 나름대로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미타 신앙은요. 독특하게도 죽음은 또 다른 삶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겁니다. 이 문자에서 ‘하루하루’라는 표현만 빼고 보면, 살아가는 건 죽어가는 거랑 다를 게 없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 저편의 우리 존재 방식 역시, 죽음을 경험한 그 이후의 또 다른 삶이 아닐까? 물론 그 삶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만은 아니겠지만요. 죽은 다음에도 뭔가 다른 세상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확고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점을 먼저 전제하고, 여기 광덕과 엄장 이야기를 볼게요. 7세기 후반에 광덕과 엄장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누가 먼저 극락에 가게 되면, 극락 갔다고 연락을 꼭 해주자고요. 이런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광덕이 먼저 죽고 광덕의 목소리가 엄장에게 들렸습니다. ‘여보게! 나 극락 간다네. 자네도 잘 지내다가 금세 나 따라오시게.’ 생각해 보면 먼저 죽은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빨리 나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엄장은 도를 닦는 사람이었고, 친구와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덤덤하게 그렇구나 하고 이제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 아내와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도 만들어주고 옵니다.

그런데 엄장이라는 이 친구는 현실에 대한 욕망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광덕이 그랬잖아요. 나 죽으면 잘 지내다가 따라와라. 그럼 친구를 따라갈 생각부터 해야 옳은데요. 노총각으로 살고 있어서였을까? 광덕이라는 친구한테는 아내가 있었으니까 친구의 아내와

재혼해서 남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가 그러고서 너 극락 갈 수 있겠냐고 대놓고 비판하니까 엄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하고는 10년을 살았으면서 나하고는 왜 안 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가 알려줍니다. 남편은 10년 동안 나랑 동침한 적도 없었고, 불경에 나와 있는 말씀 있는 그대로 수행해서 달빛을 올라타고 앓을 정도의 모습마저 보여주었다. 그런데 당신은 전남편하고는 너무도 다르다. 남녀 관계에 대한 욕망부터 먼저 가진 사람이니까, 이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엄장은 수행을 했던 사람이라서요. 광덕의 아내가 이렇게 자신을 타일러 주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원효라는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광덕처럼 열심히 수행하려고 해도, 광덕처럼 달빛을 타고 앓을 만한 수준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원효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원효가 엄장을 위해서 쉬운 수행법을 가르쳐준 덕분에, 그것만 그대로 열심히 했더니 엄장도 광덕과 마찬가지로 극락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극락에 갔다는 말은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결말인 거죠. 끝으로 알고 봤더니 광덕의 아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관음보살의 화신이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이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도와준 거죠.

그런데 광덕이라는 사람은 한 번 게으름 없이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그에 맞춰서 어려운 수행법으로 극락에 가도록 도와주었고요. 엄장이라는 사람은 욕망도 좀 있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니까, 그 유혹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려주고서 원효를 통해 쉬운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준 거죠.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달리 한 방법이 일종의 맞춤형 교육이나 친절한 게임 난이도 설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이렇습니다. 극락에 간 결과는 똑같았는데, 그 과정은 대조적으로 달랐죠. 광덕이라는 사람은 평생토록 성실했고 다른 욕망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불경을 거듭거듭 읽어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수행을 했어요. 달빛을 타고 수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범적인 방법으로 극락에 간 광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아내 역할을 했던 관음보살을 욕망의 대상처럼 대했지만, 진심으로 닦고 자기 수준에 맞는 쉬운 방식이냐 열심히 따랐던 엄장 역시, 결과적으로 얻은 성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광덕처럼 살아야 할까? 엄장처럼 살아야 할까? 할 수만 있다면야 광덕처럼 사는 게 좋겠지만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광덕과 같은 아주 훌륭한 성자가 아닌 이상, 죄악과 참회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너는 광덕처럼 살아라, 완전무결한 인간이 되어라. 그걸 강요하는 종교라면 상당히 가혹한 종교겠죠.

그보다는 어떻게 해야 진심 어린 참회가 되는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참회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만회하는 다른 방식의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친절한 종교이며 실질적인 사상이겠지요. 그래야 인간에게 지켜갈 수 있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덕과 엄장 이야기는, 참회라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증명해 줍니다. 진심으로 한 참회는 평생 열심히 수행한 것과 구별 없이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광덕처럼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광덕보다는 엄장에 가까운 삶을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엄장이 했던 참회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참회를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줄수록 종교는 인간에게

더 다가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요. 대부분의 종교가 저 참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을 물질적 증거로 주로 생각하죠. 헌금을 많이 하라는 등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동기 중에 하나였던 면죄부 생각나시죠? 죄를 없애주는 문서를 돈을 내고 사라고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자리를 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참회의 가치를 물질화하고 세속화하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한다는 그런 비난을 얻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건 참회를 하필 그런 가치에만 연결하는 종교인들의 태도가 문제이겠고, 참회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큰 효능을 지녔는지 보여준 설화로써 광덕과 엄장의 이야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완전무결한 삶을 살아갈 필요는 그리 없죠. 사람이란 사람이므로 실수하고 허술한 면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그것을 뉘우치고 참회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회한 사람은 그 이전의 자기 자신보다는 더 큰 삶의 무게를 갖고 지닌다는 가르침을 이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하고 딱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어렸을 때 제가 개척교회에서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를 굉장히 못해요. 못하는 노래일망정 열심히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유명한 찬양 가수분들 노래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했던 찬양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구나 하고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생각해 보니까, 진정한 신이라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는 참회나, 제가 못 부르는 노래로 나름대로 그래도 정성껏 했던 찬양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마음이 편하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신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정성을 기울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광덕처럼 평생 내내 저런 공덕을 닦은 것과, 엄장처럼 실수투성이로 살았던 삶이나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과거나 지난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모자랐던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신 앞에 떳떳한지를 볼 겁니다. 역시 신은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 원효, 의상과 관음신앙 설화

그러면 이제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 관음 신앙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아미타불이 우리의 죽음을 심판하고 관리하는 신이라면, 관음보살은 살아 있을 때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고 그 상황을 보며 도와주시는 분이 관음보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자는 볼 관자고 '음'자는 소리 음자잖아요. 이게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역이라는 설도 있지만, 어쨌건 관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상과 원효라는 두 분의 고승이 관음보살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그 광덕과 엄장 이야기하고 약간 좀 비교가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의상은 7일 동안 목욕재계하고 수호신들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관음보살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었나 보니까, 관음보살 자신이 앉았던 그 산꼭대기에 대나무 한 쌍이 돌아날 텐데, 그 자리에 절을 지어 많은 이들이 관음보살에게 기도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상이 진짜 관음보살께서 한국의 이 산에 머무시는 줄 깨닫고, 그곳에 절을 지어 관음보살에게 기도할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도라는 건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것대로 좋을 테지만, 꼭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누군가에게 내 어려움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으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은 현실의 문제가 곧장 해결되지 않아도, 위로나 위안을 받고 얻는 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고생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소통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당장 닦힌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더라도요. 그래서 관음보살에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는 다른 분들하고 서로 상담하며 어려움을 털어놓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관음보살에게 기도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의상이 관음보살에게 직접 계시 받아 만들어냈다는 거죠.

다음으로 원효가 또 마찬가지로 의상처럼 관음보살을 만나러 왔는데요. 아까 의상은 관음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했다죠. 진지하고 정성스러운 자세로 관음보살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효는 약간 태도가 달랐습니다. 관음보살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어떤 여성들을 차례로 만났는데, 그 여성들에게 장난스럽게 희롱하는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빨래했던 더러운 물을 떠주니까, 원효가 더러운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을 떠서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효를 기억할 때면,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해골물을 깨끗한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한밤중에 어두우니까 깨끗한지 더러운지 모르고 마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밝으니까, '아이고, 내가 해골바가지에 담긴 더러운 물을 마셨구나.' 그러고서 이제 막 구역질을 하다가, '그렇지. 깨끗하고 더러운은 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다. 내 마음이 이걸 깨끗하게 생각했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내 마음이 이걸 더럽다고 느끼니까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구나.'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지금 이 여인이 광덕과 엄장의 깨달음도 도와주었던 그 관음보살이었거든요. 관음보살이 준 더러운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계기가 됐던 그 더러운 물이었는데, 그걸 버린 건 깨달음의 초심을 잃은 거죠. 이거는 원효가 초심을 버렸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제 파랑새도 나타나서 좀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야 자기가 만났던 그 여인이 관음보살이었다는 점을 알게 됐지만요. 다시는 원효가 관음보살을 만날 수 없었다는 원효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초심을 잃은 사람에 대한 비판은 원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고승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효만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라 불교 전체가 초심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효를 표적으로 삼아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귀족 중심으로 흘러갔던 신라 불교 자체에 대한 나름의 비판이 원효를 하나의 사례로 해서 나타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원효가 잃어버린 초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보면요. 역시 이 이야기에서도 원효와 의상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은 함께 당나라에 유학 가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지가 되어 떠났는데요. 밤이 돼서 노숙을 하는데, 잠잘 곳이 없으니까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동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덤이었던 거죠. 거기서 원효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더니 마침 한쪽 구석에 바가지에 물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그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해골에 고여 있는 썩은 즙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서 토하려고 하다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아까 잠깐 요약했던 내용을 천천히 살피겠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부처님께서 온 세상은 내 마음에 달려 있고, 모든 존재는 나의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나의 인식, 무언가를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구나. 좋다, 싫다 하는 그런 감정은 내 마음한테 달려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다른 사물에 걸린 게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고서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 굳이 당나라까지 유학 갈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신라로 돌아가서 대중불교를 설파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원효는 여기서 보면 마음에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더러운 물 마시고 얻은 거잖아요. 더러운 물을 더러운 줄 모르고 구별하지 않고 먹었던 게 이 사람의 초심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관음보살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에서는 더러운 물을 거부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온 세상이 마음먹기 따라 달라지고 모든 존재는 나의 인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자신의 깨달음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었죠. 역시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아야 신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광덕과 엄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봤다시피 원효와 의상이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엮여서 비교당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흥부와 놀부>라든지 <콩쥐와 팥쥐>라든지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의 전통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있는데요. 특히 종교적 주제를 이야기할 때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까 관음보살이 의상한테요. 산꼭대기에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 대나무 한 쌍이 돌아와서 절을 지으라고 했지요. 의상이 절을 짓고 나서 한 10년쯤 있다가요.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거룩한 피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피리가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나무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가 관음보살을 만나지 못한 건 아니에요. 만났지만 깨끗함과 더러움을 차별하고 자신이 얻었던 최초의 깨달음을 뒤집었기 때문에, 만남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차별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있는 신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원효의 초심처럼 차별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음 신앙에서는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겠죠.

관음보살은 현실의 모든 이들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가 12월 24일 단 하룻밤에, 온 세상의 모든 어린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 대신에 산타는 부모님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관음보살의 정체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처지나 어려움을, 나의 처지와 어려움과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는 우리가 다른 우리들에게 관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음보살이 되어야, 이 관음보살이 얘기했던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도와준다는 기적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음보살의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음보살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실천이야말로 이 설화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5. 사복과 화엄신앙 설화

끝으로 화엄 신앙입니다. 화엄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말처럼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화엄은 소박하게 말하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화’라는 글자가

꽃 화자하고 통하거든요. 꽃처럼 화려하다는 말이에요. ‘엄’은 장엄하게 장식한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장식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지요. 아까 관음 신앙 설명할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타 신앙에서 말씀드렸던, 신이 인간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능력과 과거를 굳이 따지지 않는 그런 마음도 그렇지요. 이런 마음 하나하나 신앙심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화엄이라는 완전하고 완결된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엄은 말하자면 이런 세계 인식이 종합적으로 모인 집결체입니다.

화엄 신앙의 한 사례로서 사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도 않고, 계속 그냥 옆드려 있었어요. 사복의 ‘사’가 뱀 사자거든요. 그래서 뱀과 같은 아이라는 뜻에서요. 뱀처럼 옆드려 있고 말도 하지 않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이를 기르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복이 원효를 찾아옵니다. 원효가 참 안 끼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과 내가 전생에 불경을 읽고 다니던 암소가 죽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자고요. 말도 하지 않았던 자신을 힘들게 키워준 어머니를 전생의 암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쓸쓸한 장면인데요.

그리고 원효가 사복의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주니까, 말이 너무 길다고 편잔을 줍니다. 그래서 원효가 짧게 고치지요. 그러다가요. 이게 좀 약간 뭐 우습다고 해야 할지? 사복 자신은 원효보다 훨씬 긴 시를 지어요. 원효한테는 뭐 말이 그렇게 많냐 그랬는데요. 사복은 더 말을 많이 하면서 어머니를 잃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고백합니다.

원효는 사복의 어머니를 지혜의 호랑이 같다고 했어요. 사복은 그 전에 어머니를 경전을 읽고 다니던 암소였다고 했잖아요. 전생에는 암소였지만, 원효에게는 지혜의 호랑이 같았다는 평가를 듣고, 사복이 지은 시를 보면 부처님 못지않은 우리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부처님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헌신을 생각해 보면,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를 짓고 풀뿌리를 뽑았더니, 그 바로 아래에 화엄경에서 이야기했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네요. 사복은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간 거죠.

원효가 이 이야기에 나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를 지었다가 너무 길게 지었다고 편잔을 듣는 그게 하나의 역할이고요. 그 편잔 덕분에 사복의 슬픔이 긴 시로 드러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복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으로 떠났음을 증언하는 그 목격자 역할이었습니다.

화엄경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고 화려한 언어를 쓰면서도 언어를 넘어선 궁극적인 깨달음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이 언어에 대해서 지닌 생각은 화엄사상의 언어에 대한 생각과도 비슷합니다. 사복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원효가 시를 지었을 때, 왜 그렇게 말이 기냐? 말이 번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원효보다 더 길게 말했지요. 화엄경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언어를 넘어선 철학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언어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사복의 자세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전생에는 암소였죠. 현생에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원효에게는 지혜의 호랑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러나 내세에는 화엄 세상에 가서 부처님 같은 존재가 되었죠. 사복은 언어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지만요. 인연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네요. 혈육을 비롯한 이 세상의 인연은 다 부질없다. 모든 인연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허망하다 하는 생각이었다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로 짧고 허망하기 때문에 속세의 인연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효와 의상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남긴 <화엄연기>라는 책도 있는데요. 여기서 연기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화엄경의 아름다운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속세의 여러 가지 인연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어에 대한 생각, 혈육과의 인연에 대한 생각,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도 보죠. 왜 저렇게 힘들게 사실까?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힘겨운 고생을 하시며 대단하게 살아오셨던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혈육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은, 언어에 대한 화엄 신앙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도 같아요. 화엄의 세상은 초월적이고 신비로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소한 과정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화엄이라는 가르침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 6. 정리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진표는 성자였다가 점차 이제 신화적인 존재로 성장해 가는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고행을 했다가 나중에는 신앙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는 미륵 신앙이 대중화하고 동시에 지방 세력과 연결되는 상황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진표라는 사람의 행적이 과장되면서, 실제 인물이 신격화되는 과정의 한 사례가 되었죠.

그리고 미타 신앙에서는 좋은 죽음을 맞으려면 성실한 수행을 하거나 참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행하는 사이사이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회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관음 신앙에서는 현실에서 우리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음보살이 모든 존재를 보살펴주는 기적을 실제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음보살 같은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지녀야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끝으로 화엄 신앙에서는 언어적 표현의 한계와 효용도 모두 긍정하는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화엄 신앙의 근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언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싼 여러 인연에 대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역시 사람과의 소통, 사람이 아니면 다른 존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는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퀴즈 (5분)

1. <삼국유사>는 종교적·문화적 연대 의식과 공감대를 이룩하고자 노력했던 성자들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O/X)

정답: O

2. 진표는 아미타불을 만난 것을 계기로 점찰 법회를 열어서 불교를 대중화하는 일에 힘썼다. (O/X)

정답: X

3. 광덕과 엄장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각자의 수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O/X)

정답: O

4. 원효와 의상의 이야기는 우리가 현실에서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준다. (O/X)

정답: O

5. 사복과 원효의 이야기는 언어와 인연에 관한 확고부동한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은 진표와 미륵신앙 설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 중 적절하지 못한 설명은?

① 진표는 절벽에서 몸을 던지는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수행법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했다.

② 진표가 죽은 뒤, 사람들은 미륵의 뼈처럼 진표의 뼈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③ 진표는 설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물론 동물들까지 감화시키는 힘을 보여주었다.

정답: ①

2. 다음은 광덕, 엄장의 설화와 원효, 의상의 설화를 비교한 것이다. 이 중 적절하지 못한 설명은?

① 두 설화 모두 인물 2명을 비교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종교적 주제를 전달한다.

② 두 설화 모두 관음보살이 고귀한 신분으로 등장하여 등장인물들의 깨달음을 도와준다.

③ 두 설화 모두 초심을 지켜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답: ②

3. 다음은 사복과 화엄신앙 설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 중 적절하지 못한 설명은?

① 사복은 원효와 대화하며 언어와 어머니에 관한 생각을 점차 바꾸게 된다.

② 원효는 사복과의 만남을 정리하여 훗날 <화엄연기>라는 책을 남긴다.

③ 사복은 속세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 뒤에야 비로소 화엄경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정답: ②

####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여러 성자들은 자신의 ○○○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

정답: 깨달음

2. 광덕, 엄장과 미타신앙 설화는 과거의 잘못을 ○○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그 과정을 구체화하는 데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답: 참회

3. 사복 설화의 화엄신앙은 ○○를 통한 소통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다.

정답: 언어

#### 나. 토의 (50분)

앞서 살펴본 광덕과 엄장, 원효와 의상, 사복 설화에서 원효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원효가 각 설화에서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는지, 설화 속 역할은 무엇인지, 동일 인물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형상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다. 과제 (40분)

<삼국유사>에는 광덕과 엄장의 이야기 속에 <원왕생가(願往生歌)>라는 노래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아래에 인용한 <원왕생가> 현대어 풀이를 읽어 봅시다. 그리고 시의 화자가 ①광덕일 경우, ②엄장일 경우로 입장을 나눠서 '화자가 달님에게 소원을 빌 때의 정서'가 각각 어떻게 다를지, 그 이유까지 서술해 봅시다.

#### <원왕생가>

달님이 어째서  
서방까지 가실는지?  
아미타불 앞에  
알려주시렵니까?  
다짐 깊으신 아미타불께  
두 손 모아 우러러  
극락왕생 비나이다, 극락왕생 비나이다  
그렇게 극락을 그리워하는 이 있다고요.

아아, 이 몸 버려두시고도  
모든 중생 구하신다면 그 다짐 이루실까요?

(김완진 해독, 서철원 현대어 풀이)

## ■ 참고자료

- 일연 지음, 서철원 번역·해설, 『삼국유사』, 아르테, 2022.
- 贊寧, 『宋 高僧傳』 권14, <唐 百濟國 金山寺 眞表傳> (大正新修大藏經).
- 박미선, 「眞表 占察法會의 成立과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49, 한국고대사학회, 2008.
- 서철원, 「진표 전기(眞表 傳記)의 설화적 화소와 성자(聖者) 형상」, 『시민인문학』 16,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 \_\_\_\_\_, 「설화 속 원효 형상에 대한 이중적 시선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46, 한국고전문학회, 2014.
- \_\_\_\_\_, 「참회를 제재로 한 신라 문학과 불교의 관련 양상」, 『보조사상』 48, 보조사상연구원, 2017.
- \_\_\_\_\_, 「華嚴佛國과 新羅·麗初 詩歌의 이상세계」, 『한국시가연구』 51, 한국시가학회, 2020.

## <4차시> 고대 한국에 대한 판타지 콘텐츠

### ■ 학습목표

1. 한국의 상고, 고대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의 비판할 점과 의의를 살펴본다.
2. 한국의 고대사를 소재로 한 게임의 현재적 의미를 살펴본다.
3. 한국사, 한국 문화를 해석하는 여러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사극 주몽(MBC, 2006)
3. 판타지극 아스달 연대기(TVN, 2019)
4. 게임 삼국통일 대륙을 꿈꾸며(up2date, 1999) vs. 천년의 신화(HQ팀 제작, 2000)
5. 게임 Age of Empires(마이크로소프트 유통, 1997)
6.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서철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건국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삼국시대의 역사를 한국의 콘텐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극과 판타지극에 등장하는 고대사, 그래서 <주몽>이라는 사극과 근래에 제작되었던 <아스달 연대기>라는 판타지극을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느덧 한 20년 정도 흘러갔는데, 초기에 한국 게임 개발사들이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략게임을 다소 제작하곤 했습니다. 나름 라이벌이었던 <삼국통일> 과 <천년의 신화>라는 두 편의 게임을 소개하고, 이들보다 먼저 제작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즈>라는 게임에 등장하는 고대 한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006년에 나온 사극 <주몽>, 2006년은 고구려가 나오는 사극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만주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들을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했던 동북공정이라는 움직임이 중국에서 이때 있었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다! 중국사가 아니라는 거였죠. 요즘도 김치나 한복 이런 걸 중국의 문화라고 하고, 추석 때 송편 먹는 장면이 나온다고 한국 애니메이션이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요. 그런 움직임의 원류라고 할까, 여하튼 이 동북공정 때문에 사극

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주몽>이 가장 시청률도 높고 사회적인 호응도 컸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몽>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제작년에는 <아스달 연대기>라는, 한국판 <왕좌의 게임>이라고 나온 그런 작품입니다. 시즌제로 만든다고 해서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제 작년 하반기쯤에 시즌 2를 제작하려고 했답니다. 단군 신화에 나왔던 아사달이라는 지명을 약간 비튼 제목이죠. 이게 완전히 사극은 아니지만, 순전히 공상 판타지나 하면은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13년의 격차를 두고 나름대로 옛 한국 역사에 대한 새로운 창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다음으로 20세기 말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두 게임인데요. UP2DATE, HQ team 각 제작사가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삼국통일 대륙을 꿈꾸며>, 그러니까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제 대륙으로 넘어가자는, 그 당시의 국수주의를 잠깐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년 있다가 이제 <천년의 신화>라고 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나오는데 나중에 후삼국을 배경으로 한 추가 미션도 출시했습니다. 후삼국이 나오는 건 <태조 왕건>이라는 당시 인기 사극의 영향이었지요.

끝으로 이들보다 2, 3년 먼저 나온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즈>, 몇 년 전 개선판이 나와서 다시 유명해졌는데, 백제와 신라, 일본이 등장합니다. 일본군이 한반도 남부에서 활동하는 모습에 분노하기도 했는데, 유닛 움직임이나 그래픽 등이 나중에 나온 두 국산 게임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국산 게임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나름 최선을 다한 것들이라 믿습니다. 국산 게임이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했지만, 또 결과물이 썩 좋지 않아서 겪었던 문제점도 짚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 2. 사극 주몽(MBC, 2006)

첫 번째로 먼저 <주몽>을 보겠습니다. 링크된 15분 영상을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다물군의 중심 해모수, 다물이란 말 자체가 옛 땅을 회복한다는 고구려 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모수가 한나라에 빼앗긴 고조선의 옛 땅을 찾으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인 유화는 해모수의 아이를 임신한 채 금와왕의 후궁이 됩니다. 주몽은 금와왕의 자식들보다 뛰어나지만 견제를 많이 받고, 아버지인 줄 모른 채 해모수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소서노의 도움을 받으며 신뢰를 얻어갑니다. 사극의 대부분은 이런 주몽과 소서노의 성장 이야기이며, 건국 이후의 과정은 상상력이 개입될 요소가 적어서인지 큰 특색이 있지는 않습니다.

소서노의 활약상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고요. 금와왕과 유화, 해모수 사이의 삼각관계도 비중이 큼니다. 그런데 주요 악역인 대소 왕자보다, 중간에 역적 모의를 일으켰던 영포왕자가 훨씬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는 짓마다 허술하고, 약간 개그 캐릭터 같은 느낌이 있어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에서 만주 지역의 옛 한국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크게 경계했던 시점이라서, 공중파 3개 사가 전부 고구려 관련된 사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SBS의 <연개소문>, KBS의 <대조영> 등과 경쟁했는데, 늘 40%는 넘겼고 2월 27일에는 50.6%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채널도 많고 OTT도 많아 저런 시청률 절대 안 나오죠.

그러면 <주몽>이 어떻게 경쟁 작품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 당시를 지켜봤던 제 생각이

데,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첫째로 배우들 의상이나 풍경 같은 영상과 화면의 구성이 <주몽>이 더 좋았습니다. <연개소문>이나 <대조영>은 의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쪽은 아니었고, <연개소문>은 합판을 건물 대신 세워둔 장면이 있을 정도로 열악했어요.

두 번째는, 약간 좀 외적인 건데 <연개소문>과 <대조영>은 시작할 때 엄청나게 멋진 공성전 장면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고구려가 당나라를 물리쳤던 안시성 전투라는 대단한 공성전을 멋있게 묘사해서 시청자들이 크게 기대하게 했지만, 드라마는 영화가 아니니까 주어진 제작비 안에서 그런 장면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나오는 전쟁 장면들은 그에 미치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거 트레일러나 오프닝 장면에서 감탄했다가, 실제 게임이나 영화를 보고는 실망했던 상황과 비슷했어요. 가장 훌륭한 장면을 너무 먼저 보여주니, 갈수록 처음만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주몽>은 그런 식의 대규모 전쟁 장면은 아예 나오질 않았거든요. 아예 안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10만 군사의 군량미를 주몽이 싣고 가는데, 조그만 달구지 두 대에다가 10만 명의 식량이라고 싣고 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거는 식권 10만 장을 들고 가는 게 아닐까? 어떻게 10만 명이 먹을 양식이 저거밖에 안 되지? 이럴 정도로 규모를 대폭 줄이고 그 여백을 전부 로맨스와 성장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화를 둘러싼 삼각관계 그리고 이제 주몽의 원래 부인과 소서노 사이에 또 삼각관계 이런 식으로 진행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을 아껴서 화려한 의상과 마음에 와닿는 연출을 가능하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하나의 웅장한 장면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껴서 줄인 지출을 연출과 상상력에 투여할 것이냐? 그런 선택과 집중의 문제였던 것 같네요. 그냥 제가 느낀 요인이지만, 전투 장면 때문에 꼭 무리하지는 않았던 게 나름 독특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던 듯합니다. 그것이 시청률 경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시대는 다시 안 올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복잡미묘해서 중국의 공정에 뚜렷이 비판적인 작품도 많이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인용문을 보시면, <주몽>의 제작진은 고구려가 오늘보다 거대했던 이유는 중국에 맞섰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사극의 정신을 이 리뷰하신 분은 거대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작 의도도 그랬지요. 근데 거대함은 <연개소문>이나 <대조영>이 더 거대했거든요. 그 작품들은 일단 거대한 전쟁이 나오니까요. <주몽>은 제가 보기에는 거대함과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쨌건 제작 의도는 그랬답니다.

옛날에 만든 사극이지만 영상미나 연출은 훌륭하다고 했지요. 그래도 세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는데, 나름의 가치 역시 있어요.

비판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주몽> 사극이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그린 거냐, 아니면 부여 궁중에서 벌어지는 권력 갈등을 이야기한 거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 사극만이 아니라 그때 사극은 다 그랬어요. 약간 뒤에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이 나오는 사극도, 근초고왕이 왕 되기 이전에 벌어지는 권력 갈등이나 연애 이야기가 중심이고, 왕이 된 다음에 벌였던 정복 활동은 다 생략했어요. 전쟁 장면 찍으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랬겠지요. 조선 초기를 배경으로 했던 <용의 눈물> 같은 사극도 그렇죠. 이제 태조나 태종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왕 되기 전에 있었던 갈등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인공인 사극은 주인공이 왕이 되면 재미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부여 왕실이 주인공을 탄압하니까 일종의 빌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고조선과 고구려를 이 어주었던 나라를 이렇게 취급한 게 못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부여의 영토가 사실 한반도 안 에는 없었기 때문에, 부여가 한국사의 일부라는 인식은 굉장히 희미합니다. 역사 수업에서도 부여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어찌면 백제의 옛 수도 사비성이 오늘날 부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만이, 한국사와 부여의 인연을 애써 떠올리게 하는 작은 장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악역에 가깝지만, <주몽>에서는 부여가 한국사에서 말았던 역할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소중한 시도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북공정에 대해서 한국은 냉철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너무 감정적인 대응만 조장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적절한 비유일진 모르겠지만 가령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때, 논리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 감정적인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설득 보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적인 대응과 공감, 걱정이 있어야 논 리도 힘을 얻게 됩니다. 아마 글쓰기 수업 같은 자리에서 배우셨겠지만, 논리만 가지고 사람 을 상대해서 논리적으로 이긴 사람이 꼭 인생의 승리자가 되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공감 없이 논리적이지만 한 승리자에게는 그만큼 반발하는 이들도 많아집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 라는 말도 괜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교와도 얽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정을 앞세우는 게 꼭 정당하다 이런 것 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논리적 정당성만 필요하고 감정을 내세우지 않는 게 반드시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실 고증이 아쉽다는 비판들도 많이 했어요. 부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운택할 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부여 사람들이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 서, 저런 규모의 도시가 그때 있었을 것 같지 않은데 하는 등의 온갖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증을 정확히 따르자면 다큐멘터리를 보면 되지, 왜 사극을 보겠습니까? 드라마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허구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드라마고 예술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원전 그대로 재현하고 복원하는 게 본질적인 목표는 아니니까요. 만약 원작 그대로의 고구려 건국 신화를 영상으로 만들었다면, 50% 넘는 시청률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 는 대다수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고 호응을 얻었다는 성과는, 정확한 다큐멘터리와는 구별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감동과 호응이 고대사와 신화에 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 입니다. 잘 몰랐던 부여가 나오고, 동북공정은 이래요 저래요 하고 논리적으로만 설명해 주면, 누군가는 그게 뭐냐? 먹는 건가?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접 근하게 하여 고대 한국사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흥미를 느끼게 됐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주몽은 40살이 안 돼서 죽었는데도, 예전에는 주몽 얼굴을 상상해 보라 하면 대개는 수 염이 성성한 백전노장을 떠올리곤 했어요. 그런데 이 사극 이후로 주몽 하면 배우 송일국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신체호가 복원했던 영웅 소서노의 모습 역시 한혜진의 연기 를 통해 우리 눈과 귀로 느낄 수 있었지요. 고증에만 전념했다면 이런 성과가 가능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고구려 건국 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어렴풋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저런 뚜렷한 캐릭터로 남아 있게 됐습 니다. 15년 전의 드라마는 어찌면 150년 전의 소설보다도 오랜 느낌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오래된 느낌이 <주몽> 사극 자체를 클래식, 고전으로 만들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 3. 판타지극 아스달 연대기(TVN, 2019)

그러면 두 번째로 <아스달 연대기>, 이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내용이 한국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초기 보도 자료를 보면, 고조선과 아사달을 어느 정도 의식해서 만들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기록도 없고 상상만으로 메꾸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한국과는 상관없이 '아스'라는 상상의 공간과 시간을 다뤘다는 겁니다. 이 포스터에서 왼쪽 아래 계신 이 여성분은 마치 <반지의 제왕> 영화의 엘프 군주 갈라드리엘 같은, 좀 식물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 여성분은 고대인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 정도로 현대적인 미인형입니다. 오른쪽 위와 왼쪽 위의 남성분들 경우도 고대인이라기보다는 어느 판타지 소설에서 본 듯한, 특히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은 <왕좌의 게임>을 코스프레한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판 <왕좌의 게임>을 노렸다고도 하네요.

근데 이게 설정이 너무 방대해져서, 줄거리가 아닌 설정만 정리해 놓은 영상이 22분짜리가 있습니다.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 번 봐야 겨우 실마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치밀하다는 건 정성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 거겠지요. 그런데 줄거리가 진행되면서 설정이 자연스럽게 방대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양한 설정과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는 편이라 아주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게 흠이라면 흠인데, 아주 집중해서 보지 않고 잠깐만 탄생 각하고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드라마를 볼 때는 뭔가 좀 느슨하게 힐링이 되려고 보는 것도 있는데, 이건 마치 논문을 읽는 것처럼 집중해서 봐야 줄거리가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력이 달려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요.

예컨대 '올림사니'라는, 왕이나 제사장 급에서만 지낼 수 있다는, 집단 공동체에서 단 한 명만 지낼 수 있다는 제사가 있어요. 만약에 올림사니를 부족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러 번 지냈다면, 반역의 뜻이 있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꽤 있는데, 자막이 상당히 나오기는 하지만 생략된 것들도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설명하지 않고 진행되는 서사들이 많아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저게 무슨 의미이고 왜 저렇게 되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파악해야 볼 수 있는, 개성이 넘치는 드라마였습니다.

<아스달 연대기>는 한국형 <왕좌의 게임>이라는 아주 큰 야망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왕좌의 게임>도 마지막 결말 부분은 좀 허망했지요. 시즌제 드라마들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떡밥을 회수한다고 할까 줄거리를 수습하는 부분이 아주 딱딱 맞게 되지는 않지요. 그러면 결말이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왕좌의 게임>도 그렇게 됐죠. 하여간 애국 마케팅의 시대도 진작 끝났으니, 어쩌면 이제 한국형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실패의 아이콘이 될지도 모르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아사달에 집착하기보다, 아예 가상의 나라 아스로 떠나자는 계획은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 부족의 개성 있는 모습도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고요. 그런데 그만 시청률이 저조했어요. 집중하면서 봐야 하니까 느긋하게 보기 힘들었고, 또 표절 의혹이 있었죠. <왕좌의 게임>만 표절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유명한 여러 판타지 콘텐츠들에서 모티프와 클리셰를 모방한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어요. 2000년대 이전까지는 근로기준법을 그렇게 많이 의식했던 시절이 아니었지만, 이 작품은 2019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정페이 그런 게 용납될 시절이 아니었는데, 그런 위반 행위를 많이 해서 미운털이 많이 박혔죠. 그런데도 방송국에서는 2020년 하반기에 시즌 2를 제작하겠다고 했으니, 이 사람들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형

〈왕좌의 게임〉을 만들겠다는 의지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진심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쨌건 제작 예정이었는데, 팬데믹 상황 탓에 저런 대형 기획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다음으로 한국사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한국의 상고사를 어느 정도 연상할 만한 정도의 창작 신화로서 장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다른 부족의 언어 같은 것도 일일이 다 만들어 집어넣었죠. 〈반지의 제왕〉 원작자가 엘프의 언어를 창조한 것에 버금가는 정성입니다. 그리고 뇌안탈이라는 부족의 이름은 네안데르탈인에서, 산옹이라는 인물의 이름은 잘못 들으면 환웅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원시 시대나 상고사를 의식할 만한 흔적이 남아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 한국사를 기반으로 만든 또 콘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요컨대 애초의 의도만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셋째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비할 만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판타지와 역사 모두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저희 세대보다 판타지 문학을 더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판타지 문학에서의 설정,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이걸 일단 개성 있게 짚으면, 어떻게 차근차근 알려줄지 그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줄거리 자체를 짜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어떻게 이 낯선 용어의 물결과 낯선 세상의 관습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판타지 문학에 현실 세계에서 넘어간 사람이 한두 명쯤 나오기도 하는 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 판타지 세계의 낯선 문화와 제도가, 현실 세계의 무엇과 비슷하거나 대응되는지 나름대로 설명해 주는 해설자 비슷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그렇게 현실 세계의 존재들이 판타지에 넘어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스달 연대기〉에 현대인이 하나 나와야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애써 짜놓은 방대한 세계관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지 않고, 갑자기 줄거리 속에서 들이대는 장면들이 좀 많아서 기억하고 이해하기에 부담이 좀 됩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전 단계 역시 더 유의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판타지 세계라고 해도 문화와 문명의 요소들은 병행하며 발전해 가는 게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유명한 전략 게임에 그런 개발의 tree가 구현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아스의 문명들은 언어 부분은 굉장히 발달한 것에 비하면 다른 어떤 부분은 거의 발달하지 않아서 좀 의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잉카 제국처럼 바퀴도 만들 줄 몰랐는데 천문학은 굉장히 발달한 문명도 있었지만, 좀 일반적인 역사 발전 단계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개연성을 갖추었다더라면 어땠을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아스달 연대기〉는 전체적으로 의도는 좋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과 함께 판타지물로서도 그리고 역사물로서도 장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즌 2가 혹시 나온다면, 이런 요소들을 불식시켜야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4. 게임 삼국통일 대륙을 꿈꾸며(up2date, 1999) vs. 천년의 신화(HQ팀 제작, 2000)

이제 한국에서 만든 게임에 나타난 고대 한국사, 외국에서 만든 게임에 나타난 고대 한국사 이렇게 비교하며 차례로 보겠습니다.

〈삼국통일 대륙을 꿈꾸며〉, 옛날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운 받는 게 아니라, cd나 dvd 기기에 집어넣는 실물을 사서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링크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을 보시면 요즘 게임에 비해 해상도가 떨어져서 유닛이 거칠게 보이네요. 저런 장르는

또 섬세한 마이크로 컨트롤을 심하게 요구해서 핸드폰이나 게임패드로 할 수도 없어요. 키보드의 단축키와 마우스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다른 어떤 게임에도 없는 굉장한 개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 고구려, 백제, 신라에 해당하는 서북, 서남, 동남 지역 사투리로 대사가 나와요. 이런 시도는 아마 그 이후의 게임들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신라는 동남 방언이라고도 하는 경상도 사투리, 백제는 당연히 호남 사투리지만, 사실 백제의 수도는 경기 지역이었다가 충청권으로 옮겨갔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오류입니다. 그러나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랬고, 백제가 나오면 늘 호남 사투리를 씁니다. 뭐 트집 잡을 건 아니고, 하여간 이렇게 고구려는 또 평안도 사투리로, 다른 게임에는 없던 각자의 지역색을 드러내는 디테일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나름 화면은 삭막할지언정 참신한 시도를 했던 거죠.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주인공은 엄연히 신라인데 계백을 살리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이 살아남으면 대체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왕 대체 역사를 쓰는 김에 대포와 비행기가 등장해요. 과감하죠. 알다시피 한국의 화약은 고려시대 최무선이 라는 사람이 약간 밀무역 비슷한 수단으로 겨우 들여왔으니까, 화약 쓰는 대포가 있을 리 없고 비행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전략게임이니 뭐 이 정도는 전략을 다변화하기 위한 허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방언만큼이나 다른 특색도 있었습니다. 신라는 방어력, 고구려는 공격력, 여기까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신라는 오랫동안 버티며 성장했던 나라였고, 고구려는 한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 같으니까요. 백제는? 지금 백제 땅이 경기-충청-호남의 평야 지대를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력이나 무역 등이 강한 나라였다고 해서, 물량전으로 특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나라마다 이제 신령스러운 수호 동물도 있어서, 소환하면 전세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신라는 동쪽이니까 청룡, 고구려는 북쪽이니까 현무, 백제는 남쪽이니까 주작, 역시 사신도의 동서남북에 맞게 설정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투리가 나온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좀 큰 개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건설할 때 옆에 빌드 오더가 떠서 이렇게 같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짓는 건물을 지으면 이 테크 트리에 의해서 다음에 어떤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다. 이 정도가 이제 툴팁으로 나왔는데 예전 기준으로는 이렇게 친절한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투리와 편의성이라는 나름대로 이제 디테일을 추구했는데, 이런 거는 정성을 들여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픽이나 타격감 같은 쪽은 투자와 기술, 축적된 know-how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이 당시에 콘텐츠 개발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국산 게임들이 좀 영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요. 이 표지가 아마 말 탄 김유신일 텐데, 20년 전 그 당시에든 뭔가 구매욕을 일으킬 만한 그림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그래도 한국인이 한국의 역사를 소재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작품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소중하게 생각해 왔어요.

〈삼국통일〉보다는 그 이듬해에 나왔던 〈천년의 신화〉가 상업적으로는 조금 더 성공했어요. 왼쪽의 원작 표지 인물은 김춘추이고, 오른쪽은 후삼국의 궁예, 견훤, 왕권이 등장합니다. 〈태조 왕건〉 사극 배우들을 닮은 듯 닮지 않았는데, 아마 초상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사실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임진록 2〉 라는 작품을 다듬은 것이라,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했던 경우보다는 완성도를 더 갖추었겠지요. 2000년에 있었던 경주 문화 엑스포라는 행

사를 위해서 제작한 게임이라서 투자도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나은 환경에서 제작되었다는 겁니다. 링크된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삼국통일>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 방식이라 좀 답답한 느낌도 들었지요? <천년의 신화>는 이 장르의 근본 작품인 <스타크래프트>처럼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보는 시선이라 한결 익숙해 보입니다. <스타크래프트>와 비슷한 건 시선뿐만 아니라, 삼국 각자의 특성 역시 <스타크래프트>의 세 종족과 거의 일치합니다. 백제는 공성 병기가 강한,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프로토스에 가까우며 백제 시나리오는 그 전성기였던 4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기병 위주인데 저그에 가깝다네요. 역시 전성기였던 4-5세기 배경이구요. 7세기 중반의 신라는 마법을 쓰지만 묘하게도 테란 종족하고 특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 신라마다 각각 전성기의 정복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주요 전장과 역사를 이렇게라도 돌아볼 수 있는 게,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태조 왕건>이라는 사극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이 당시 인터넷의 패러디 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었어요. 이 게임 역시 그런 흐름에 이바지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모바일 게임 등에서 한국 고대사를 콘텐츠화하려는 시도는 종종 있었는데요. 이 두 작품이 나름대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지요. <천년의 신화>는 몇 년 전까지도 4, 500명 정도 어르신들이 하셨다네요. 당시 민속놀이 급이었던 <스타크래프트>에 비하면 취약한 점도 많지만, 구수한 사투리와 역사 속 전쟁 체험처럼 외국산 게임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성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게 아닐까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스타크래프트>의 표절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시대를 살아보고 자란 관점에서는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행사인 경주 엑스포, 인기 사극인 <태조 왕건>, 이런 흐름에 영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죠. 그런데 지금도 고대 한국사 갖고 게임을 만든다면 누가 투자할 것이며, 누가 돈을 지불하고 플레이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 척박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들이 성우는 참 훌륭했어요. 특히 사투리가요. 이런 게 영화로 치면 ost는 훌륭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ost는 훌륭했다, 이런 평은 칭찬할 게 없을 때 하는 말이라고도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저 두 게임이 완전히 그냥 실패작이라 할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실패작이었다면 <천년의 신화>가 몇 년 전까지도 모드가 나오고 수백 명씩 플레이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이런 작품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시도가 남긴 유산은 무엇일지일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쌓아 올린 창작 경험 덕분에 해외에 게임을 수출하고 게임을 생산하는 나라로서 지위를 누리게 됐잖아요. 저 시절의 어려움이 자양분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쪽도 많은데, 정성들인 시도들이 상업적으로 실패하고 소수 대기업의 과금 모델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이 아닌, 게임 속 아이템이라는 데이터에 수익 원을 들이게 되었지요. 요즘 화두인 NFT 역시 게임 내 아이템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확률 0%인 아이템에 소비자들은 개돼지 취급을 당한다고 하고, 게임 개발자들은 한때 1/3이 임금 체불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열악한 처우를 받아 왔습니다. 양질의 한국산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작품들을 외면한 탓이라면 지나친 생각일까요?

이런 상황이 누적되어,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산 게임은 어렵게 흑화되었습니다. Pay to

win, 이기려면 돈을 내시오. 과금을 해라. 그리고 사행성,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0% 라니, 몇 억을 질러도 이 아이템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게임의 재미와 밸런스를 위해서 확률을 0%로 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한국산 게임이 척박했던 환경 탓에 과금과 사행성에 의존해 왔던 모습이 이젠 달라지길 바랍니다.

## 5. 게임 Age of Empires(마이크로소프트 유통, 1997)

다음으로 이들보다 한 2~3년쯤 전에 나온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즈>, 고대 세계사가 배경인데 윈도우 제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게임이라서 등장하는 국가들의 특징이나 유닛의 움직임, 해상도 등이 상당히 섬세합니다. 2019년 리마스터가 됐는데,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이 활동하는 민감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고친 것 외에는 내용은 거의 그대로인 듯합니다.

링크된 소개 영상은 신라와 일본이 전쟁하는 장면인데요. 아까 한국산 게임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뭐랄까, 좀 서글퍼집니다. 일단 해상도가 굉장히 다르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즈>는 지금 쓰는 4k 해상도까지는 아니어도 꽤 높게 올라갑니다. 한국산 게임은 800\*600이나 1024\*768 이 정도가 표준이던 시절이었는데요. 지금의 핸드폰만 못합니다. 마음이 좀 아프죠. 이 작품은 역사를 배경으로 한 최초의 실시간 전략 게임이었습니다. 실시간이 아닌 전략 게임은 지금도 유명한 <문명>이라는 게 있지만, 판타지나 sf 요소가 없는 실시간 역사 전략은 이 게임이 최초였고, <스타크래프트>와 경쟁할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나라마다 특징이 조금씩 달랐어요. 큰 차이는 아니고 성장 방식에 약간 나라마다 개성을 반영한 차이가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나라를 바꾸어 가며 경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 문명이 나오는데, 문명마다 고증을 충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삼국이 나온단니까, 한국인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게임에 한국 고대사가 나온다는 소식에 약간 흥분하기도 했는데, 전설적인 한국사 개론서인 이기백 선생의 <한국사신론>까지 참고했다고 해서 대단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장면, 신라가 백제를 쳐들어왔는데 일본이 군대를 파견해서 백제를 도와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나마 원래는 한반도 남부를 일본의 식민지로 묘사했던 내용을 수정한 거였어요. 한반도 남부에 일본 식민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신라가 쳐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식민지를 경영했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반영한 내용이라 한국 쪽에서 항의를 많이 해서 수정한 거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 판매한 cd에는 신라가 백제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을 도와주는 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리마스터한 결정판은 내용 자체를 바꿨더라고요.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 그냥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요. 덕분에 한반도 맵이 등장하는 유일한 시나리오가 결정판에서는 그냥 없어졌습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즈 시리즈가 기묘한 게, 한국이 출연하면 한국이 약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시나리오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취급은 늘 좋지 않아서, 제작자들이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확실히 한국산 게임들에 비하면 기술 자체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친일적인 내용이나 떨떠름한 스토리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한류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즈>에서와 같이 중국이나 일본 나올 때 곁다리로 등장했던 시절은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한국사에 한정해서 보자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콘텐츠가 개발이 좀 덜 돼 있죠. 조선시대는 <대장금>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다들 아마 <대장금>을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은

데요. 아직 고대사의 경우는 본격적인 수준의 창작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이랄지, 고대사는 무슨 불가리아가 부여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사회학의 원로께서 그러셔서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국뽕 콘텐츠라고도 하죠. 이런 국수주의도 실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해서 한국이 배운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참고삼아 소개합니다. 이게 동영상에 있기는 한데 관심 있으면 링크해서 보시되 굳이 일부러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환단고기>(桓檀古記)라는 책에 나오는, 고대 한국이 문명의 기원이었고 중국 몽골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지배했다는 환국이라는 상상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핀란드가, 핀란드도 의외로 국수주의가 있는 나라인데, 이집트 문명이 핀란드에서 기원했다는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하곤 한답니다. 그래서 서양 유튜버들이, 그러면 <환단고기>의 환국과 고대 핀란드 제국이 가상으로 우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은 <헤일로>라는 1인칭 SF 슈팅 게임 화면을 이용했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참 씩씩했는데, 여기 '피노 코리언 하이퍼 워'(Finno-Korean Hyperwar)라는 메모를 보시면 기원전 8245년에서 6172년까지 2천 년 동안 고대 환국과 핀란드가 전쟁을 했고 그 결과 역시 꽤 설정을 이것저것 짜 놨어요. 하여간 우리가 너무 객관화가 안 되는 이런 소재를 실제 역사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좀 환상적이고 자유로운 상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 6. 정리

정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편의 드라마를 살폈는데 일단 고대 한국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보통 우리가 사극하면 조선시대 쪽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는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통과 원형에 대해서 좀 고정된 시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제 이 시기를 무대로 하면 소재가 다변화됩니다.

일단 여성 영웅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유화라든지, 소서노나 선도산 성모 같은 존재들이 여성 영웅의 속성을 갖고 있고요. 그 시대의 공간이었던 만주와 대륙에 대한 상상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공간에 대한 상상 그리고 문명의 시작에 대해서는 <아스달 연대기> 같은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 아직은 이론 것보다는 좀 이루어야 할 것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 거대함, 이거는 물론 한 15년쯤 전에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한다는 당시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는데요. 보셨다시피 이제 한나라를 비롯한 중국에 대해서 경쟁적, 대립적인 생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도 활발히 하고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서로 관계가 깊어져서, 이렇게 중국을 대놓고 비판하는 드라마가 또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는 굉장히 의욕을 많이 보인 드라마였는데, 집중하지 않은 상태로 무심히 보기에 너무 난해했습니다. <왕좌의 게임>을 소화해서 자기화하겠다는 의욕은 좋았는데, 공들인 성과를 차근차근 소비자에게 풀어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던가 합니다. 어쩌면 소설이나 웹툰 등을 통한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소비자들이 아스달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공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21세기 초까지도 게임은 세계적인 콘텐츠에다가 한국 문화의 스킨을 입힌, 그런 정도의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조악하고 조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의 척박한 환경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성과였습니다.

이런 시절을 버틴 개발자들이 돈 좀 벌해보려고 하면, 초심을 잃었네, 돈독이 올랐네 비난을 받기 일쑤였고, 정식으로 구매하기보다는 불법 복제를 통해 플레이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일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금과 사행성이란 방향으로 한국 게임 시장이 성장하게 되어 버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산 패키지 게임도 차차 나오게 되었고, 차츰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볼까 합니다. 구수한 사투리와 삼국시대 유적들을 더 좋은 기술로 만날 날이 오겠지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퀴즈 (5분)

1. 건국 신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콘텐츠는 제작 당시 사회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O/X)  
정답: O

2. MBC 드라마 <주몽>(2006)은 주몽과 소서노의 성장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O/X)  
정답: O

3.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2019)는 실제 있었던 고대 국가인 ‘아스’와 도시 ‘아스달’을  
배경으로 만든 작품이다. (O/X)  
정답: X

4. <삼국통일 대륙을 꿈꾸며>(1999)와 <천년의 신화>(2000)는 부여-고구려-일본 삼국을 배  
경으로 하는 게임으로, 유저는 삼국 중 원하는 진영을 골라 플레이할 수 있다. (O/X)  
정답: X

5.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는 고대 세계사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으로, 한국사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을 엿볼 수 있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은 드라마 <주몽>(2006)과 <아스달 연대기>(2019)를 보고 학생들이 나눈 의견이다.  
이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백호: <주몽>은 다른 드라마보다 부여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어서 재밌게 봤어.

② 태섭: <아스달 연대기>는 세계관이 방대하고 자세한 만큼, 그걸 시청자들에게 좀 더 친  
절하게 전달했으면 이해하기 더 쉬웠을 것 같아.

③ 준호: <주몽>과 <아스달 연대기>는 둘 다 고증에 치중하는 바람에 작품의 개성이 부족  
한 점이 아쉬웠어.

정답: ③

2. 다음은 게임 <삼국통일 대륙을 꿈꾸며>(1999)와 <천년의 신화>(2000), <에이지 오브 엠파  
이어>를 플레이하고 학생들이 나눈 의견이다. 이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대협: <삼국통일 대륙을 꿈꾸며>에서 각 지역의 사투리로 대사가 나오는 디테일이 좋았  
어.

② 명호: <천년의 신화>는 <임진록2>를 발전시켜서 명량 해전까지 실감나게 구현한 점이  
인상 깊었어.

③ 태산: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는 수정판 전에는 삼국시대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식민

지를 경영했다는 틀린 학설을 반영하고 있어서 아쉬웠어.

정답: ②

3. 다음은 학생들이 한국의 신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의논한 것이다. 이 중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① 수겸: '주몽'의 주변에서 조력한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② 준섭: 게임 개발자들을 자주 야근하고 철야 작업하도록 시켜서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시키는 게 좋겠어.

③ 창석: <아스달 연대기>를 온라인 게임으로 만든 다음에 유저가 '올림사니'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현금으로 비싸게 팔자.

정답: ①

####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게임은 실제 역사에 ○○○을 가미하여 만든다.

정답: 상상력

2. 드라마 <주몽>과 <아스달 연대기>는 전통과 원형에 대한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소재를 ○○하게 다루었다는 의의가 있다.

정답: 다양

3. 드라마, 게임과 같은 콘텐츠는 허구성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시청자와 유저에게 ○○을 준다는 가치가 있다.

정답: 감동

#### 나. 토의 (40분)

한국의 신화나 역사에서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여성 인물을 골라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 인물의 성격과 행적에 관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 다. 과제 (50분)

한국의 신화나 역사에서 관심 있는 인물을 1명 골라서 ①드라마 또는 ②게임의 등장인물로 각색해 봅시다. 구상에 창작자의 상상력이 가미되어도 좋습니다.

→ ①드라마의 경우: 인물의 성격(예: 어떤 때 웃고 우는지), 외모, 특기,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장단점, 주변 인물과의 관계, 생애에서 주요한 국면 등을 구상해 봅시다.

→ ②게임의 경우: ①을 참고하면서 추가적으로 게임의 장르에 맞춰 인물이 잘 쓰는 도구나 무기, 옷, 대표하는 색깔,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등을 함께 구상해 봅시다.

▪ 참고자료

- <주몽> 관련

옛드 : MBC 레전드 드라마 - '주몽' 15분안에 핵심요약 ([영상 보기](#))

지니스쿨 역사 - 나라를 두번 세운 소서노 ([영상 보기](#))

여호규, <드라마 '주몽'을 다시 본다>, 한국역사연구회, 2009.12.31. ([원문 보기](#))

- <아스달 연대기> 관련

tvN drama - [아스달의 모든 것]'아스달'의 뜻, 캐릭터 소개까지! ([영상 보기](#))

tvN drama - 아스달연대기 1-3화 십분요약 ([영상 보기](#))

- <삼국통일 대륙을 꿈꾸며> 관련

서네떡, All RTS Games - [삼국통일 대륙을 꿈꾸며] : RTS 고전게임 국산전략시뮬레이션 멀티플레이 ([영상 보기](#))

- <천년의 신화> 관련

아구 TV - 역사 스타크래프트! 【천년의 신화】 ([영상 보기](#))

- <Age of Empires> 관련

용가리 -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1 떠오르는 태양 야마토 캠페인 ([영상 보기](#))

- 기타

Crusader Europa - Finno-Korean Hyper War ([영상 보기](#))

## <5차시> 삼국유사의 공간(1): 불국토, 그 이상향의 안과 밖

### ■ 학습목표

1. 양지(良志)의 미술 작품과 향가 풍요의 의미를 이해한다.
2. 미륵과 화랑의 기원을 알고 이를 관련지어 살펴본다.
3. 불국사와 석굴암의 공간적 성격을 이해하고 그 함의를 파악한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미술가 양지의 신비한 능력
3. 미륵과 화랑의 기원
4. 불국사와 석굴암(1): 불국사의 바둑판식 구조
5. 불국사와 석굴암(2): 석굴암의 구심점과 원심력
6.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서철원입니다.

이제까지 신화와 종교를 중심으로 시간을 얘기했으므로, 이번에는 공간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공간으로서는 불국토라는, 신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교가 불교다 보니까, 불교적인 상상이 많이 들어간 불국토를 상상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이게 종교적인 성격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skin이라 할 겉모습이 불교일 뿐이지, 여기에 담긴 거는 우리가 떠올리는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세상 이런 것과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너무 불교의 입장에서만 볼 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상향이라고 생각했구나 하는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안과 밖이라고 써놓은 이유도 그래서인데요. 바깥에 드러난 모습은 불교지만, 안에 있는 주제는 불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과도 좀 통할 수 있는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세상의 삶의 공간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공간 얘기는 주로 불국사와 석굴암에 관해서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향의 모습을 그 공간들이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국토를 알아야겠습니다. 불국토는 미륵이 내려온 세상이기도 한데요. 미륵과 이상향에 대한 생각들은 불교 미술의

여러 형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름을 남긴 신라 미술가인 양지의 작품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상향이 불교 미술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미륵이 내려왔다는 이상향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서 불국사와 석굴암이라는 불교 건축물에 등장하는 이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 미술가 양지의 신비한 능력

양지의 기록은 삼국유사의 양지사적 기사에 나옵니다.

‘사적’할 때 ‘적’은, 나이 드신 분들이 밟고 다니는 지팡이거든요. ‘사’는 심부름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지의 지팡이가 심부름을 다녔다는 제목인데요. 그걸 그냥 신이한 능력 이렇게 그냥 풀어봤습니다. 본문의 양지 이름 앞에 ‘적’은 석가모니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첫 문장은 석가모니의 제자 양지의 조상과 고향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요. 두 가지 뜻입니다. 정말 알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신분이 천해서 이걸 나름대로 숨겨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양지의 경우 신분이 천했던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알 수 없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팡이 끝에 포대 하나를 걸어놓으면, 지팡이가 저절로 날아가 공양해 주는 신도의 집에 이르러 흔들면서 소리를 냈대요. 편리하죠. 그러면 그 집에서 이를 알아차리고 절에서 여러 행사할 비용을 냈었고, 포대가 차면 날아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양지가 머물던 곳을 석장사라고 했대요. 이에 따르면 양지의 가장 대표적인 초능력은 저절로 밥을 구해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예도 잘했답니다. 그런데 뒤에 예로 든 것은 글자가 아니라 거의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미술에 능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여러 작품을 남겼다는데, 오늘 살펴볼 건 사천왕사에서 나온 천왕 조각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양지의 대표작은 영묘사의 장육상이었습니다. 장육상은 한 3미터 쯤 되는 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키의 대략 두 배 정도 됩니다. 그 불상을 조각할 때요. 집중해서 바른 마음으로, 유식 그러니까 이제 사르나트라는 지역의 양식인데요, 한자로는 녹야원이라고 써요. 석가모니가 맨 처음 설법을 한 곳이 이제 녹야원입니다. 그래서 사르나트에 가면,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유적들이 많이 있고 조각도 꽤 출토됐어요.

그러면 이 사르나트 양식을 7세기 후반에 신라 사람이 익숙하게 알아서 조각을 할 수 있었겠느냐? 사르나트 형식은 이 사진처럼 이국적이고도 정밀합니다. 불상 옆에 장식도 많고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당시 신라 불상은요. 좋게 말하면 소박한 아름다움, 어찌 보면 눈사람처럼 둥글둥글한데, 또 머리가 큼니다. 그렇게 약간 귀엽게 만들어 놓고, 지금 카툰 이모티콘 중에 그런 거 많죠. 둥그런 거 몇 개 붙여놓고 이제 눈코입 달아놓고요. 그런 소박하고 간결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게 이 당시 신라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이런 양식을 구사할 수 있는 신라 미술가는 당시 기준으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양지가 인도풍 사르나트 양식을 쓴 거 보면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아닐까? 인도에 유학 다녀왔거나, 아니면 인도 사람이거나? 당시 미술사의 흐름에 비해서는 이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잘 보지 못했던 특이한 양식으로 양지의 작품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보고 성에 살던 남녀가 다투어 진흙을 날랐어요. 먼지가 날리던 거친 진흙을 날라다 주면,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으로 진흙이 다시 태어나니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지금 우리도 어디 가서 도자기 굽는 거 이렇게 보면, 흙덩어리가 저렇게 돼서 나오는 게 참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 도자기보다도 정밀한 예술 작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 믿으면 극락을 간다던데, 극락에 가면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겠지? 나도 진흙 같은 지겨운 속세를 벗어나 이 조각처럼 아름다운 이들과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상상력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데는 미술 작품이 역시 큰 역할을 해요. 눈으로 보는 미술 작품, 귀로 듣는 찬송 뭐 이런 것들요.

하지만 고등종교가 처음. 생겼을 때는요. 우상숭배를 금지한다는 뜻에서 저런 조각상을 만들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상징을 썼고요. 불교도 처음에는 석가모니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불꽃이나 다른 조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다가요. 그렇지만 전도하고 전파하려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각을 이용했죠. 그때는 문맹률도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조각이나 그림 같은 시각적인 걸 활용하는 게 종교를 전파할 때는 중요하답니다.

진흙을 나르던 이들이 조각 만드는 걸 보면서, 불교의 이상향은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이상향은 저렇게 아름다운 장식과 조각이 있는 공간이구나! 그곳에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불상이 공간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불국토라는 공간에 머무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기에 좀 큰 자극을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진흙을 나르면서 이 '풍요'라는 노래를요. 풍요란 노래의 제목이라기보다 민요라는 뜻이거든요. 그 노래는 이랬습니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슬픔 많아라. 즐거웠을 때도 있지만, 슬프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은 게 인생이에요. 슬픔 많은 우리 우리가 공덕 닦으러 온다네요. 공덕은 뭐냐? 진흙을 나르는 거죠. 지금 절 짓고 불상 만드는데 진흙을 나르고 있는 게 공덕이니까요. 이런 공덕을 잘 닦으면 우리도 언젠가 이 불상처럼 아름다운 세상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인생은 슬펐지만, 우리 죽음 너머엔 아름다운 곳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보기에 따라서는 슬픈 상상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위로받으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던 거죠.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힘들게 공부하며, 대학 가면 달라지겠지? 그래서 나름대로 힘든 입시를 거쳐서 대학에 오셨지만, 그 기대만큼 좋던가요? 대학에 와서는 취업 준비하려면은 또 힘든데요. 취업을 위해서 스펙도 쌓고, 이중 전공도 하고, 학점 관리도 하고요. 취업하면 나아질까요? 취업하면 승진이 있고, 승진하면 언제 결혼할지, 안 할지 고민이구요. 결혼하고 나면 또 내 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기르고, 인생의 슬픔과 기다림은 끝이 없습니다. 하여간 늘 이렇게 인생의 단계는 윗 단계가 있으므로 슬픈 것이고요. 그 윗 단계의 종결점은? 일단 죽음인 것 같아요.

근데 죽음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서 닦았던 공덕의 힘으로 아름다운 세상에 가보자는 거죠. 그 세상의 아름다움은 이 노래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름다움을 묘사해 주는 역할은 양지가 조각한 불상에 맡기는 거죠. 그 대신 각자가 나름의 슬픔이 사라진 곳을 상상합니다.

이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방아를 짚거나 일할 때 모두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양지에 관한 평이 나옵니다. 양지는 재능과 덕이 뛰어난 대가였지만 하찮은 기술만 세상에 드러났다고요. 미술이 하찮은 기술에 불과한 것은 아니지만요. 사람들이 미술가로서 양지만 기억하고, 사상가로서 양지의 위대함을 몰라서 서운했나 봅니다. 말하자면 사상보다 미술이 더

눈에 띄고, 오래 기억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합니다.

양지가 미술 작품을 통해 거둔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통한 호기심에서 불교에 관한 관심이 증대됐다. 흠을 퍼 날랐더니 저렇게 멋있는 조각이 돼서 돌아온다 하니까요. 일단 그게 신기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그냥 도 닦으려면은 뭘 하시오, 그런 개념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진흙이 저런 조각이 되는 것처럼, 서러운 우리 인생도 공덕을 닦으면 아름답게 다시 피어나겠지. 그러니까 이 종교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진흙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조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교리를 이해하는 거지요. 이런저런 지식을 암기하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설움과 공덕의 상호작용에 대한 공감이 싹트면서, 풍요와 양지의 미술 작품을 이해할 단서도 생길 수 있었죠.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양지의 조각은 ‘녹유사천왕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의 ‘녹유’란 조각을 만든 방법입니다. 색깔이 고운 유약을 입혀 불에 구워낸 거를 녹유라고 합니다.

사천왕상은 사천왕사라는 절에서 나왔습니다. 사천왕사는 낭산 기슭에 있는데, 선덕여왕릉도 거기 있어요. 선덕여왕의 능이 있는 사천왕사 목탑 터에서요. 흠으로 벽돌을 찍은 다음 색깔이 고운 유약을 입혀 불에 구워낸 녹유사천왕상이 나왔다는 거죠. 이 조각은 그러니까 이게 벽돌로 쓴 거거든요. 벽돌로 썼다면 굉장히 여러 조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부서져서, 부스러기를 모으면 고작 두어 조각의 흔적이 남게 된 거죠.

자료를 보시면 문무왕 14년, 674년이죠. 당나라가 50만 해군을 일으켜 신라 공격에 나섰죠.

그래서 나라가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훈련을 했던 곳이 사천왕사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천왕사는 유명한 호국사찰로, 당나라 해군이 쳐들어올 때, 사천왕사에서 주문을 외워서 격침한 적이 있다고도 해요. 양지는 이런 사찰의 벽돌을 조각해서 남긴 겁니다.

호국사찰하고 사천왕이 연결되는 이유는, 사천왕은 동서남북으로 부처님을 호위하는 뜻이 있어서겠습시다. 동서남북으로 지켜준다고 해서 사천왕이라고 부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사천왕은 수미산 세계 한가운데 있는 산을 수미산이라 하는데, 그 종턱에 산답니다. 그곳에서 네 방위를 지키는데, 남자 승려, 여자 승려, 남자 신도, 여자 신도 합쳐서 사부대중의 모든 이들을 지켜요. 아까 본 자료에 언급된 영묘사의 불상은 남지 않았지만, 어제부터 불 사천왕상을 통해 양지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미술가로서 숨씨를 엿보겠습니다.

양지의 사천왕상 조각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흙을 촘촘히 빚어 갑옷을 섬세하게 만들었죠. 밑에 마귀를 깔고 앉아 있는데, 그 표정이 재밌죠.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얼굴은 보다 보면 정들 것 같습니다.

이들 조각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대략 200조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요. 100년 만에 다시 발굴해서, 화면상으로 위쪽에 해당하는 것도 마저 찾았어요. 오른쪽 조각은 거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제시대 때 출토한 것 중에 일부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 갖고 있고, 나중에 경주에서 주도한 것들은 경주박물관이 갖고 있어서요. 합쳐서 모아서 보려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보내줘 전시회를 열 때 한정해서만 한 몸으로 됐다가요. 전시회 끝나면 또 나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뭔가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 같지요. 물론 각각의 박물관이 고생해서 찾은 거니까 소유권이 그렇게 됐겠죠. 그래도 100년 만에 완성되었다는 상황은 참 극적입니다.

아까 사르나트 양식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신라 사람들의 경험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이런 조각을 통해, 신라 사람들이 죽음 너머 이상향과 그곳의 성격을 상상했던 태도도 생각해 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 3. 미륵과 화랑의 기원

이제 다음으로 미륵과 화랑의 기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미륵을 묘사한 유명한 국보들이 있는데, 미륵은 미래에 이상향을 가져다줄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화랑이라는 단체가 생기기 전에, 원화라는 게 있었죠. ‘원화’의 원은 근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화라는 말 자체가 화랑의 기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아무래도 실제 사건이기보다는 화랑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이야기는 아닐까 해요. 그리고 진흥왕 때 원화가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흥왕이 즉위하기 이전에 신라가 가야와 전쟁을 할 때도 화랑단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이전에도 화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사실적으로 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흥왕은 천성이 흥미했다. 다시 말해 풍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화랑들의 사상인 화랑도를 다른 말로 풍류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 민가의 여성 중에서 아름답고 예쁜 자를 뽑아서 원화로 삼았다. 화랑의 기원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화랑은 귀족 청년들의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민가의 여성 중에 뽑았다고 하면, 꼭 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화랑은 남자들의 단체, 귀족들의 단체인데요. 여기서 설명하는 원화는 여성 중심의 단체 민간단체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민간에 기원을 두고 여성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성격이 있었는데, 나중에 국가가 주도하는 화랑이라는 이제 단체 조직으로 바뀌고 규율이 엄격해지면서 남성적이고 귀족적인 것으로 탈바꿈한 게 아닐까도 볼 수 있어요.

원화로 뽑힌 여성이 둘 있었습니다. 남모와 교정 두 원화가 있었는데, 모여든 무리가 300~400명이었대요. 막 시작하는 아이돌 팬클럽 규모 정도는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교정이 남모를 질투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노래를 지어서 동네 아이들이 부르게 하니까 시체를 찾은 거죠. 그래서 교정도 처형하고 진흥왕이 명령을 내려서 원화를 폐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폐지는 했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단체를 이루고 활동하는 게 이 시대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집단의 새로운 상징과 지도자로 삼을 만한 인물이 필요했죠. 이왕이면 백제나 고구려와 경쟁해서 삼한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이념까지 만들면 더 좋겠죠. 여성들이 우두머리가 됐다가 좀 안 좋게 되기는 했지만, 이런 단체와 인연이 필요하기는 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신라 바깥의 외국에서 새로운 상징과 이념이 될 만한 것을 수입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진흥왕보다 앞선 진지왕 때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흥륜사에 진자라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미륵상 앞에 나가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큰 성인께서 화랑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여기서 큰 성인이 누구냐 하면 미륵이거든요.

미륵에게 화랑의 몸으로 나타나 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 어느 날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서, 응천으로 가 보랍니다. 응천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웅진,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로 보입니다. 웅진과 웅천은 다른 게 아니냐 할 텐데요. 백제 온조왕 때부터 웅진을 웅천이라고 부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웅진의 더 옛날 이름은 웅천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경상남도 진해 지역의 옛 이름도 웅천이었어요. 신라에서 백제 웅진까지 가려면 외국이고 머니까 진해 정도 간 게 아니냐? 그러므로 백제 땅을 간 게 아니라, 경상남도 지역을 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어색해요. 나중에 웅진 간 다음, 남쪽으로 더 가서 천산이란 곳을 또 갑니다. 진해는 가장 남쪽이라 더 남쪽의 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주 쪽으로 가야, 남쪽의 산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상남도 지역이 아니라 백제 땅을 간 게 맞는 것 같아요.

꿈에 본 스님은 웅천 공주 수원사로 가면 미륵선화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미륵은 말 그대로 미륵이죠. 뒤의 선화는 각각 신선과 꽃인데 화랑의 '화'가 꽃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선화는 신선 같은 화랑입니다. 미륵선화란 곧 미륵인 화랑이라는 뜻이에요.

새로 창설할 화랑에 필요한 이념적 기반이 될 미륵을 만나고 싶으면, 백제 땅으로 가라는 말이지요. 백제가 미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전에 진표 기록 읽을 때, 진표가 백제 유민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백제 불교의 특징이 미륵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복스럽고 섬세하게 생긴 한 도령이 있었다네요. 복스럽고 섬세하게 생긴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원래 복스러운 거는 좀 둥글둥글한 거고, 섬세한 거는 가름한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얼굴형이 둥글면서도 가름하다는 말이라,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는데요. 이따가 국보 미륵반가사유상 보시면 아마 어떤 인상인지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습니다. 미륵의 얼굴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요. 한국의 것과는 인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미륵선화'의 얼굴에 대한 취향이 반영된 성과라고 할까요?

고운 눈매와 입뻐시, 작은 미소라고 하겠죠. 반가사유상의 그 표정일 겁니다. 그런 표정으로 맞이하니까, 진자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냐고 묻습니다. 답하기를 자기도 서울 사람입니다. 이 당시 서울은 경주니까 신라 사람인데, 백제 땅에 와 있었다는 거죠.

신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백제에 자유롭게 드나드냐? 사이가 서로 안 좋았는데 국경을 통제하는 거 없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세 나라가 다 국교는 불교였기 때문에, 스님들은 선교를 목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국경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스파이들이 스님 복장을 하고 국경을 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이제 고향 사람 만났으니까 잘해준다는 거죠. 이걸 저는 좀 설화적인 장치라고 봐요. 외국에서 만났지만 고향 사람이다. 간절하게 미륵 선화를 만나겠다고 머나먼 길을 떠났는데, 알고 보니 고향 사람 중에 미륵선화가 있었다는 거죠. 진자는 미륵선화와 헤어졌다가, 나중에 경주에서 다시 만납니다. 파랑새라는 동화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간절히 찾는 것은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죠. 가까운 일상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서울 사람이라는 게 이제 괜히 쓴 것 같지만 괜히 쓴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이 참 소중한 것이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밖으로 갔는데, 그 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버스에서 우연히 이상형을 만났는데, 잠깐 보는 사이에 그냥 벨 누르고 내려버린 상황 같죠.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의 승려들에게 물어요. 좀 전에 제가 만난 젊고 복스럽고 섬세한 얼굴과 눈망울 입술 주변이 보았던 그 젊은이 어디 갔습니까? 이제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줍니다. 남쪽으로 가면 천산이 있는데요. 이게 천 개의 산이라는 얘기인지 산 이름이 천산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산봉우리가 많은 걸 그냥 이렇게도 쓰니까요. 천산에 예로부터 현명한 사람들과 철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다른 세상에나 있을 법한 신기한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산신령이 노인으로 변해서 왜 왔냐 그러니까 미륵선화를 만나고 싶어서래요. 아니 지난번 문밖에서 이미 만났는데, 뭘 또 만나려고 하나? 깜짝 놀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주 땅에서 찾고 있는데, 진지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진자를 불려서 일깨워 줍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경주 사람이라 그랬다면, 경주에서 찾아야지. 경주성 안을 한번 찾아보래요.

그래서 그 말대로 찾다가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었더니, 미시랑이라 합니다. 미시랑의 '시(尸)' 자는 신라식 표기로 읽을 때 '르'로 읽거든요. 왜 '르'가 되냐 하면, 시 자 왼쪽에 막힌 부분을 띄우면 '르'와 비슷한 모양이 되어서입니다. 그래서 미시는 용을 뜻하는 미리 혹은 미르로 읽어서, 미륵과 비슷한 이름도 됩니다.

미시랑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성은 무엇인지 모른다네요.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났더니, 왕이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여 국선으로 삼았다. 국선은 화랑을 국선이라고도 하고, 화랑의 우두머리도 국선이라고 해요. 아까 이제 몰락했던 원화가, 이제 미시랑을 그 우두머리로 섬기면서 새 이름으로 부활하는 거죠.

원화가 일단 폐지됐지만, 이런 식으로 백제 땅에 가서 미륵이자 화랑인 미륵선화를 모시고 와서, 그를 새로운 우두머리로 삼아 집단의 성격 자체가 국가적, 귀족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보인 화목과 예의와 풍경은 보통과 달랐더니, 교육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미시랑의 풍류라는 말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화랑의 사상을 이제 풍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의 화랑도가 세상에 빛난 지 7년이 되더니 간 곳이 없었다고 했죠. 아까 소년이었었는데 7년이 지나니까 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화랑은 청소년 단체니까요. 소년이 7년이 지나면 어른이 되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종적을 감추고 사라졌다는 말은, 소년 시절이 끝났으니까 화랑으로서 미륵의 역할을 다 마쳤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그러자 진자는 슬퍼하다가 역시 세상 마친 곳을 알 수 없게 되었다네요. 화랑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창립자들은 역할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칠 때 떠나는 아름다운 모습이랄까요? 아름다운 유년기의 끝입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시랑의 이름 설명입니다. 미시가 어떻게 미르가 되느냐? 미는 미와 음이 가깝고 시는 력과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네요. 지금도 나라 사람들이 신선을 가리켜 미륵선화라고 하고, 중매하는 사람을 미시라고 하는 것도 미륵의 남은 풍류랍니다.

요약하면 원화가 폐지되고 화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원화하고 여자들이 우두머리를 하니까, 이렇게 살인 사건도 나고 좋지 않다. 그러니 남자를 우두머리로 해서 새로 만들자 하는 1차원적 상황은 아니죠. 민간에 기원을 두고 여성을 중심으로 모였던 자연 발생적인 단체는, 이제 전쟁을 많이 하고 외국과 경쟁하는 시대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 귀족 남성 청년을 중심으로 군사 조직에 가까운 역할을 하도록 청년 단체의 성격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백제 땅에서 미륵 신앙을 수입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보자는 시도였지요.

지금 우리가 읽은 미륵선화에 얽힌 설화는 원화와 화랑의 교체에 대해서 더 풍부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야와 전쟁할 때 이미 화랑들이 활약이 있었으므로, 이거는 정말로 진흥왕 진지왕 때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설화적 윤색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화랑은 어떻게, 왜 미륵의 화신이 되었는가? 용에 대한 신앙은 이제 고유 신앙이었고, 아마 원화였을 단계에도 용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이제 청년 단체였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미륵이라고 하는 게 용의 고유어인 미르하고 음이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용에 대한 신앙이 미륵에 대한 신앙으로 교체가 된다고 할 만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백제 미륵 신앙이 신라에 전파된 이유는요. 미륵 신앙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규율이나 계율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 엄격한 계율이 바로 군사 조직에 필요한 그런 엄격한 계율과 통하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백제가 미륵 신앙을 활용해서 국력을 높이는 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라에서도 백제 미륵 신앙을 수입해서, 화랑단과 결합해서 계율 잘 지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국가의 발전도 도모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그런 미륵에 대한 상상이 반가사유상이라는 모습으로도 구현됐습니다.

끝으로 간절하게 찾던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으므로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봐야 한다는 문학적 특징도 보여주고 있어요. 희망의 파랑새를 찾아서 전 세계를 누볐는데 결국은 근처에 있었다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만나던 친구가 결국 학과 동기랑 결혼하는 상황도 비슷하죠.

미륵반가사유상을 살펴졌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국보 78호고 가운데 있는 게 83호인데, 78호가 조금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머리 장식이 화려하고 큰 보관을 쓰고 있죠. 83호는 머리 장식은 별로 없는데요. 둘의 얼굴 표정은 꼭 동일인의 것처럼 닮았습니다.

83호는 신라에서 만든 거라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78호는요. 이렇게 화려한 관을 쓰고 있는 게 백제 불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제에서 많이 쓰는 관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백제에서 만든 게 아닐까 그런 논쟁이 좀 있습니다.

78호가 백제에서 만든 건지 신라에서 만든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이렇게까지 닮은 불상을 백제와 신라가 같이 만들고 있었다는 건 두 나라의 미륵 신앙이 얼마나 닮았는지 증언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아래의 중국이나 일본에서 표현한 미륵하고는 표정이나 기법이 차이가 있어요. 일본의 경우 자세는 너무나 비슷한데, 표정의 미소가 애매하게 다릅니다. 요즘 말로 K-미륵이라 할까요. 한국의 미륵만 보여주는 웃음이 있습니다. 복스럽고도 섬세한 얼굴의 잔잔한 미소는, 진자가 만났을 미시랑의 표정 그대로일 것만 같습니다.

백제에서 신라로 미륵선화가 수용되는 것처럼, 백제의 미륵 신앙이 신라로 넘어간 과정을 보여주는 단서로서 반가사유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서로 이렇게 문화를 주거나 받거나, 하나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오른쪽 위의 돌 조각은 경상북도 봉화에 남은 것으로, 하반신과 왼손만 딱 남은 게 좀 서운하지만, 이렇게 크게도 미륵상을 조각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랫도리를 묘사하는 방식은 대략 비슷해서 같은 기술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전문가의 해설을 링크해 두었으니 잠깐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4. 불국사와 석굴암(1): 불국사의 바둑판식 구조

불국사와 석굴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주는 설화가 있는데요. 좀 비현실적인 면이 있어서 사실 그대로라고 믿기는 어렵겠죠. 그저 불국사와 석굴암의 기원과 성격에 관해서 당시 사람들 나름의 이해 방식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설화를 먼저 살펴보고,

이들이 지닌 사상적인 기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량리에 정조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머리가 크고 정수리가 평평한 성과 같았으므로 대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이 가난해서 복안이라는 부자의 집에서 머슴으로 지냈다네요. 부잣집 머슴이라면 신분은 천했지만, 극단적으로 빈곤했던 처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집에서 밥을 나눠주니까요. 나름 부잣집 머슴의 혜택일지도 모르겠네요.

땅을 가지면 안정적인 재산의 기반이니까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점개라는 스님이 하여간 와서 주인집에서 시주하는 모습을 봤어요. 대성은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를 얻는다는 말을 스님께 듣습니다. 만 배를 얻는다면 이런 좋은 재테크가 없죠.

그래서 대성이 듣고 뛰어 들어가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생에 착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봐요. 근데 지금 또 보시하지 않으면, 내세에 또 어렵게 살겠지요. 어찌면 일종의 공포 마케팅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머슴 살아서 받은 밥을 스님께 바치면, 나중에는 우리가 잘살게 되지 않겠냐 하니까 어머니도 좋다고 해서 밥을 스님에게 바쳤죠. 당시 국교가 불교였으니까 선행이죠.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심청전 보면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것이다. 결과적으로 눈을 뜨기는 떴어요. 근데 그게 공양미 300석하고 인과관계가 확실한지? 우리가 이야기를 읽다보면 공양미 300석은 잊어버리잖아요. 어느새 그거보다는 심청이의 효심이 그런 인과관계를 만든 것이지, 공양미 300석이라는 재물을 바친 게 해피엔딩을 만들었는지는 관심 밖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현대사회의 논리로는 자연스럽지 않죠. 마찬가지로 맹목적으로 과도한 투자도 좋지 않잖아요. 이거는 지난날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의 윤리지, 지금 우리로서는 긍정하기 참 어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이 죽음을 당하였다네요. 그 발 약간을 그나마 그렇게 바쳤는데, 오히려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됐다.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니냐? 그러면 시주한 거는 뭐냐? 불교라는 종교는 거짓말이 아니냐? 인과관계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읽어보면은 결국은 인과관계가 맞아요. 결국에는 김대성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하는 큰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심청전에서 공양미 300석을 잊어버린 것처럼, 김대성이 이런 희생을 했다는 것은 김대성이 훌륭한 사람이 된 거랑은 이렇게 인과관계가 긴밀하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성은 자연스럽지 않게 죽었는데, 김문양이라는 재상의 집에 태어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모량리 대성이라는 아이가 너희 집에 의탁한다고 해요. 대성이 죽었던 바로 그날 밤에 김문양의 아내가 임신했던 거죠. 태어난 아이가 왼손을 쥐고 퍼지 않았다가, 7일째에 퍼졌는데 금으로 만든 쪽지에 '대성' 두 글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전생에 가난한 대성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이런 것을 쥐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대성이라고 하고 그 어머니 전생의 어머니를 맞이해서 집에서 함께 봉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는 불국사나 석굴암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불쑥 끼어들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대성이는 사냥을 좋아했는데, 토함산에 올랐어요. 지금 토함산에 뭐가 있냐 하면 불국사가 토함산에 있어요. 불국사가 지어진 토함산과 관계된 이야기니까,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토함산에서 곰 한 마리를 잡았다네요. 단군신화에도 나왔던 곰이로군요. 뭔가 곰 신앙에 대한 흔적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곰 한 마리를 잡고 자는 중에, 꿈에 곰이 귀신으로 변해서

야단칩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 잡아먹겠다. 하니까는 무서워서 싹싹 비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절 하나 지을 수 있겠냐? 옛날이야기 속 호랑이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데, 꿈은 절 하나 지어줘야 안 잡아먹는다니, 가성비가 나쁘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깨니까는, 땀이 이불을 적셨대요. 그 뒤로는 사냥을 그치고 꿈을 위해서 이제 장수사라는 절을 지었다는 겁니다. 김대성은 토함산에 젊은 시절에 장수사라는 절을 지었고, 나이 든 다음 불국사라는 절을 또 지었다는 얘기죠.

이 일 때문에 감동해서 자비의 큰 소원이 두터워졌답니다. 다음은 유명한 구절이죠. 현생의 양친을 위해 불국사를 창건하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불사를 창건했습니다. 석굴암의 원래 이름은 석불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의 형태를 상당 부분 잃어버려서인지, 석굴암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들리죠. 신림과 표훈 두 스님을 머물게 하고, 거대한 불상을 설치하고, 이 거대한 불상은 석굴암에 있는 그 불상입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두 세상의 부모에게 효도한 것은 옛날에도 듣기 드문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석굴암의 석불상을 조각하려고, 큰 돌 하나를 감실의 뚜껍으로 만들려고 했다네요. 감실이란 불상 위에 있는 다락 같은 것을 감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돌이 갑자기 셋으로 깨졌어요. 진짜 석굴암 천장의 둥그런 돌이 셋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세 조각 나 있는 돌을 왜 굳이 힘들게 위로 올렸을까? 그러니까 세 조각이 나 있는 게 뭔가 상징성이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 텐데요. 삼국 통일의 꿈을 저 세 조각난 돌이 하나로 합쳐진 거에 담았다고도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출처가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예전부터 있었습니

다. 하여간 돌이 부서지자 김대성은 화가 나 아무렇게나 잠들어요. 화가 날 만하죠. 근데 밤중에 천신이 내려와서 이 셋으로 깨진 것을 하나로 다시 합쳐주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 고개로 가서 향나무를 불에 태워 천신에게 바쳤고, 땅의 이름을 향령, 향나무 있는 언덕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불국사의 사다리와 석탑은 청운교, 백운교, 석가탑과 다보탑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청운교와 백운교는 다리인데, 왜 사다리라는 뜻의 '운제'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들 다리 밑에는 원래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불국사 주변을 도는 물은 화엄경에서 바다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복원 과정에서 그냥 메꿔버렸습니다. 물 위의 다리를 건너 우리 세상에서 아름다운 화엄의 세상으로 건너가는 상징이니까, 그 다리들은 다른 층으로 인도하는 사다리이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물이 사라진 게 좀 약간 좀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불국사의 다리와 석탑마다, 돌과 나무에 새긴 업적이 경주 여러 사찰 중에 더한 것이 없었다는 평입니다. 경주의 여러 사찰뿐만 아니라, 전 세계라고 하면은 너무 좀 과장된 것일까요?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야 중국, 한국, 일본 다 다르겠지만, 불국사의 다리와 석탑처럼, 특히 다보탑처럼 독특한 모양을 갖춘 탑은 다른 나라에 없는 독창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불국사와 석굴암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은 이제 지금 읽은 이 단락에 다 되어 있어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효심이 지극해서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만들고,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석굴암을 창건했다고 했죠. 이 내용을 기억하고 보겠습니다. 불국사의 화려한 다리와 석탑을 생각해 보면, 평민보다는 신분이 더 높은 이들이 주로 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굴암은 아시다시피 한번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왕하고 왕족 몇몇 사람만 가서 불공을 드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굴 안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저승과 연결된 것도 같아요. 단군신화에도 나오는, 다시 태어나기 위한 동굴의 어둠이랄

까? 그런 점에서 저승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생의 부모를 위한 것 같죠. 반면에 불국사는 탁 트인 공간에 있으니까 현실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이 설화가 이루어진 과정을 역으로 생각해 보죠. 불국사와 석굴암이라는 절이 서로 짝이 되어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대성이라는 같은 사람이 두 개의 절을 지은 걸 보면, 뭔가 여기 어울리는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효심이 지극하니까, 아마 현생을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 초월적인 내세나 전생을 위해서 석굴암을 창건한 것이 아닐까 한 겁니다. 내세란 죽음 다음의 삶이고, 죽음을 거듭한다면 전생과 내세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전생에는 김대성이 원래 가난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형편이 달라져서 이렇게 됐다는 게 좀 더 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줄거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석굴암에서도 압도적인 불상의 모습 위에 뜬금없이 자리 잡은 깨진 돌이 눈에 잘 띄었겠지요. 그게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셋으로 깨졌던 것을 천신이 고쳐주었으므로 재활용했다는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국사의 경우에는 돌다리, 석가탑, 다보탑,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유산에 속하는 것들이 이제 남아 있게 된 거죠. 여기 다음으로 설화적 성격이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향전의 기록이라는데, 마을에 떠도는 기록이나 이야기를 향전이라고 써요. 절의 기록에는 이렇게 다르게 되었다는 거죠.

경덕왕 때 큰 재상이었던 대성이 불국사를 처음 창건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대성은 시작했던 사람이었고 이게 완성된 것은 경덕왕의 아들인 혜공왕 때를 지나서 774년 12월 2일에 이르러서야, 이제 대성이 죽자 완성하여 끝마쳤대네요. 김대성은 사실은 불국사가 완성되는 거를 보지 못하고, 그보다 좀 일찍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런 기록만 있는데, 이제 옛날이야기에는 전생에 가난했던 김대성이 어찌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란히 다 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일연이 김대성의 일대기에 감동해서 지은 작품인데요. 역시 결국은 만 배의 이득이 있으리라는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예언 자체가 실현됐다 안 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불가사의할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한 예술 작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사람의 일생 전체로도 모자르다는 겁니다. 한 번 살아서 이런 일이 아니라, 전생부터 조짐이 있었어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여기 들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행운을 만났거나 좋은 배우자를 얻었거나 특히 좋은 배우자를 얻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전생에 나라를 지켰나? ‘전생에’ 그게 이제 이런 생각이 거든요. 이제 김대성이 남긴 훌륭한 업적은 한 사람이 한 번 살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김대성의 전생은 어땠을까? 전생은 가난했지만 어떤 신앙심이 있었고, 부모님께 잘하려는 효심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생에 걸친 변함없는 마음의 결과로 이런 게 가능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한 번 살아서 그런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전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창작되었어요. 이런 상상력과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불국사와 석굴암의 불상들도 한번 보죠. 링크된 영상 두 편을 먼저 봐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불국사의 원래 이름은 ‘화엄불국사’였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의 주인공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불상이거든요. 비로자나불, 이게 화엄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불국사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비로자나불은 불국사의 중심에 있지 않고 약간 좀 위쪽으로

치우친 곳에 있어요. 그러면 불국사의 중심에는?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불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석가모니 불상은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비로자나불은 남아 있지만요.

그래도 화엄경의 주인공이니까, 불국사의 상징적인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분은 아미타불, 저승을 주관하는 부처님인데 두 불상의 크기가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국사는 어느 한 존재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여러 존재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동등하고 맡고 있지 않았을까 해요.

반면에 석굴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에 큰 불상이 다른 어느 대상보다도 우뚝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셋이 모이면요. 저승을 주관하는 아미타불, 현세를 주관하는 석가모니, 그리고 비로자나불은 범신이라고 해서 추상적인 원리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세와 현세, 그리고 둘을 아우르는 추상적인 원리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고로 저승을 주관하는 아미타불의 둥근 손 모양, 그리고 비로자나불은 손을 세로로 일자로 딱 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두루 통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상징하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하기는 했는데 비로자나불은 원래 형체가 없어야 해요. 추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도 불상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할 테니까 손 모양을 상징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석가모니는 손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여기 석굴암 불상이 하고 있는 오른쪽 손을 아래로 내린 자세는 항마촉지인이라고 해서 악마를 항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손 모양은 분명히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손 모양인데요. 아미타불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향이요. 서쪽에 앉아 동쪽을 보게 돼 있어요. 아미타불은 서방정토에 있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저승에 가면은 동쪽을 봐야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교는 저승이 해가 지는 서쪽에 있다고 해요. 무덤이라는 이집트 피라미드도 다 나일강 서쪽에 있거든요.

석굴암의 불상은 왜 석가모니의 손 모양을 하고, 아미타불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림이 불상의 정체는 뭐지? 석굴암의 경우는 여러 가지 수학적 배치로 통해서 한가운데 있는 저 불상만 눈에 집중적으로 잘 들어오도록 수학적 고려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석굴암은 전생이나 죽음 저편, 저승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생에서 내생으로 가려면 또 저승을 거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뭔가 저승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아미타불이 갖고 있는 동쪽을 바라보는 성격을 여기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여담도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 불상의 이마에 보석이 하나 박혀 있다는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굴암 동쪽에 해가 뜨면, 이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짝 앞으로 빛나겠지요. 그러면 신라의 동쪽에 일본이 있으니까,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불상이 동쪽을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아미타불이 아니어도 왜 동쪽을 보는지 꽤 그럴싸한 설명이 되지요.

신라가 일본을 얼마나 의식했는지는 7세기 후반 문무왕의 죽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무왕이 얼마나 일본의 해적, 왜구가 보기 싫었으면요. 자신을 수중에 장사 지내주면, 용이 되어 왜구를 혼내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문무왕릉은 한때 세계 유일의 수중릉이라고도 했죠. 그만큼 신라는 왜구들을 혐오했기에, 그런 의미에서 석굴암이 동쪽을 바라보았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요.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 그것도 중요한 유적이기는 한데요. 석굴암하고 같이 얘기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에 좀 덜 띄는 불상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절의 수난

의 역사랄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석굴암의 복원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석굴암 안에 있는 공기가 소통이 돼서, 천년이 넘었는데도 훼손되지 않고 잘 있었는데요. 일제시대 때 나름대로 복원한답시고 위를 콘크리트로 발라버려서, 통풍이 안 돼서 습기가 많이 찬대요. 그래서 지금은 불상 앞을 유리 벽으로 보호해 놓고,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해 놔습니다.

그러면 일본 그들이 또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메워버렸네. 그런 비난을 이제껏 많이 했는데요. 어설프게 한 거는 맞지만, 그 당시에 콘크리트 말고 다른 기술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들 입장에선 하느라고 한 것도 같아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원래 석굴암 앞에 5층 석탑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담하면서도 아름다웠다는 묘사가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탑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일본 사람들이 복원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게 아닐까 짐작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불국사 다보탑에도요. 다보탑 사방에 돌사자가 하나씩 네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나머지 세 개는 일본 사람들이 가져간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추측하는데, 추측이라기보다 거의 확신에 가깝죠. 근데 약 올리듯 돌사자 네 개를 다 안 가져가고, 세 개만 가져가고 하나는 남겨놨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수난을 당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불국사 밑에 있었던 물도 없어졌지요. 물을 계속 관리하기가 힘들어서였는지 복원 과정에서 메워버렸는데, 나름 상징적인 조경이라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링크된 영상을 보셨으면, 불국사와 석굴암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불국사는 바둑판식 병렬적인 배치를 지녔고, 석굴암은 구심점을 강조하여 한가운데의 불상이 주인공 같습니다. 불국사는 모두가 주인공인데, 석굴암은 한가운데에 있는 존재가 뚜렷한 주인공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국사의 원래 이름이 ‘화엄불국사’였으니까요. 화엄불국은 약간 낯선 용어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용어인 불국토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불국토를 구현한 것이 불국사와 석굴암인데요.

신라 사람들은 경주 땅이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자기네들이 사는 땅을 불국토라고 불렀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화엄도 앞에 붙여서 화엄불국이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화엄경엔 ‘일즉다, 다즉일’,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라는 말이 있죠. 영어에는 ‘one for all, all for one’이란 비슷한 듯한 표현도 있죠. 하나면서 여럿이다. 통일적이면서도 다양하다. 모여서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흩어져 확산한다. 그리고 근래에는 평등과 조화를 추구하는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 능력을 발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조화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 평등과 조화의 모습까지 상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각형의 불국사와 원형의 석굴암, 다양한 모두가 주인공인 불국사와, 하나의 주인공을 온 세상이 바라보는 석굴암은 여럿과 하나를 각기 상징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도덕, 윤리 교과서에서 화엄사상 얘기를 할 때면, 하나라는 측면을 더 강조하여 화엄사상은 전제 왕권에 기여했다. 전제 왕권이 하나니까 모든 신라의 백성 여럿이 한 사람의 왕을 향해서 모여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뭔가 국민 통합이나, 나라 전체가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돼서요. 화엄 사상 자체도 옛날처럼 그렇게 획일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자료를 보시면요.

의상 법사의 말인데요. 화엄 사상을 한국에 정착시켰던 의상 법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화염 사상이 전제왕권에 이바지했던 일방적인 측면만 있었다라면, 의상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의상은 화염 사상가지만, 아니 화염 사상가였기 때문에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왕이 성을 새로 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의 정치가 밝으면 풀 언덕에 금을 그어서 성이라고 해도 백성들이 넘지 않을 텐데, 정치가 밝지 못하면 장성을 쌓는다 해도 재난을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나 잘해야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토목 공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록에는, 의상이 화염경을 강의했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어려운 경전을 강의했는데 이렇게 인기 있을 수가 있나? 지금으로 치면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이런 주제로 강연하는데 매진이 됐다는 얘기니까, 솔직히 믿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건 그렇다고 하니까요. 문무왕이 또 뭔가 했더니, 의상은 역시 참 싫어해요. 땅과 노비를 내려줬는데 그걸 안 받고 이릅니다.

우리 불교는 평등해서 모두 지위가 같고, 귀천이 같은 가르침을 따른다. 굳이 땅을 소유하고 노비를 써야 하나? 법계로 집을 삼고 몸소 밭을 갈아 농사지어 먹겠다. 법신, 아까 나온 비로자나불입니다. 화염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려라면 몸소 밭을 갈아 농사지어 먹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노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런 거는 화염경을 공부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은 화염사상이란 전제 왕권을 견제하고, 제한적이거나 평등을 강조했던 일면을 지니고 있어서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요. 한 15년쯤 전부터 화염 사상이 갖고 있었던, 이런 절대 권력을 견제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정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기존에 얘기했던 전제왕권을 강화하려는 면도 있지 만요. 어쨌건 그동안 너무 '1'이라는 한쪽에만 치우쳐서 화염 사상을 이해해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곧 다양성과 다원성을 존중했던 면을 좀 더 강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구복 선생님께서는 개론서에서조차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과 '다'가 서로 똑같은 단계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만 상대를 인정하여 성립될 수 있다는, 절대 평등의 의미를 유출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류가 소중할 것은 한 개인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체 인류가 '다'에 해당하는 거죠.

인류는 소중하죠. 인류는 소중할 건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저 자신이 소중할 존재이니까요. 옛날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 네가 좀 억울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아라, 인내를 미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내가 미덕이 아니죠. 인내 때문에 오히려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억울해서, 이제 개개인의 정신이 위태로워지고 사람들의 우울증이 심해지니까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억지로라도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터놓고 그걸 털어놓아야죠. 불만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화염 사상의 의미를 전제왕권의 긍정보다는 평등과 조화 쪽에서 찾는 관점이 훨씬 더 건강한 사상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상이 제시했던 이거는 너무나 급진적인 이론이라서, 신라의 골품제 사회 안에서는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회적 평등으로 실현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영도하는 화염 종단 안에서만이라도, 누구나 평등할 수 있도록 종단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상의 제자들 중에는 진정, 지통 이런 평민 출신 승려들이 오히려 종단의 중심인물이 돼서, 의상의 화염 사상이 이런 면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거는 마치 근대의 동학을 일으킨 교주였던 최제우가 최시형을 후계자로 내세웠던 것과 같죠. 최시형은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자기네 머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낮은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신분 제도와는 관계없이 사람이 우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기 여종 중에 한 사람은 며느리로 삼고, 한 사람은 양녀로 삼았어요. 그래서 최제우가 이런 신분 타파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신에 따라서 제자를 차별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화엄 사상이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전제 왕권에 기여하는 사상으로 좀 변질된 것은요. 고려 초기에 균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광종이라는 전제 왕권을 추구했던 왕과 결탁하면서, 그런 면을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가람 배치도를 각각 설명 드립니다.

불국사의 경우는 동쪽에 있는 대웅전하고 서쪽에 있는 극락전, 그리고 위에 관음전도 있지요. 비로전, 관음전, 여기 가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다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극락전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대웅전은 저리로 가고, 관음전은 요리로 들어가고, 비로전도 잘 보면 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각의 공간이 독립적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좀 병에 걸렸어요. 관음보살이 내 병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서부터 쪽 갈 게 아니라 이 계단을 통해서 관음전으로 이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까지 갈 필요 없다 하면 앞에만 이렇게 갖다 나와도 되죠.

그래서 각각의 공간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 관음, 비로자나, 석가모니, 아미타불 이런 모든 존재들이 각각 독립된 존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둑판 같은 이런 병렬적인 구성을 통해서, 각각의 존재들이 독립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국사 자체가 화엄경을 있는 그대로 공간적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을 보면 우리는 구름과 바다에 대한 여러 메타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청운교, 백운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게 상징적으로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변에 있었던 물이 지금은 사라져 버려서요. 바다 한가운데 화엄경의 이상적인 공간이 있다는 그런 공간적인 상상력이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것들이 바로 현실적인 공간이었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신라 사람들은 불국사예다가 자기네 나름의 불국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불국토는 사실 여기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경내도 안에 이거를 다 포함하고서야 완성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화엄경을 읽고 이해하기가 부담스러울 때, 화엄경이 주는 어떤 상상력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불국사가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불국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화엄경이었다는 말이죠.

## 5. 불국사와 석굴암(2): 석굴암의 구심점과 원심력

그리고 석굴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는데 가운데 불상 하나를 위해서 모여 있고요. 가운데가 눈에 더 잘 띄기 위해, 오른쪽처럼 수학적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굴암은 여러 대상의 균형보다는 본존불 하나만을 위한 집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이 갖고 있던 다양함, ‘다’라는 측면에 불국사가 있다면, ‘일’, 하나라는 측면에는 석굴암이 있었어요.

## 6. 정리

정리하겠습니다.

양지에게서 아름답고 섬세한 불교 예술의 상상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륵이 지닌 복스럽고도 섬세한 소년의 인상은 여성 중심 공동체였던 원화를 귀족 남성 중심의 국가적, 군사적 조직인 화랑으로 탈바꿈하기에 기여했습니다.

화엄 사상은 전제 왕권의 옹호와 왕권 강화보다는 시대적인 제약 안에서 비유적으로나마 조화와 평등을 추구했어요. 이 조화와 평등이라는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덕목이지요.

불국사는 바둑판식 배치를 통해서 다원성을, 그리고 석굴암은 중앙의 구심점에 해당하는 일원적 배치를 추구하고 있지요. 둘이 짝을 이루어야 나와 너가 우리로 어우러질 수 있지 않을까요? 화엄의 뜻은 삼국유사의 주제와도 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양지(良志)는 승려로서, 인도풍의 사르나트 양식을 채택하여 작품을 조각하였다. (O/X)

정답: O

2. '원화'는 신라 화랑의 기원으로, 귀족 중심의 남성 청년들의 집단이다. (O/X)

정답: X

3. 미륵반가사유상 국보 78호는 백제 불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백제와 신라의 신앙적 교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O/X)

정답: O

4. 불국사에 있는 비로자나불의 불상은 아비타불의 불상보다 크기가 크고 정교하며, 중앙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O/X)

정답: X

5. 의상은 평등을 강조하는 화엄 종단을 운영하여, 신라 골품제의 타파를 포함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였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미술가 양지(良志)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라에서 태어난 신라의 미술가로,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 ② 공양하는 신도의 집으로 날아가 소리를 내는 신비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 ③ 서예를 잘하고 미술에 능했으며, 대표작으로 영묘사의 장육상이 있다.

정답: ①

2. 다음 중 미술가 양지(良志)가 이국풍의 미술 작품을 통해 얻은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통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불교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 ② 이국적인 미(美)의 강조를 통해 타 종교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강조하였다.
- ③ '설움'과 '공덕'의 상호작용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종교적 감성을 촉발시켰다.

정답: ②

3. 다음 중 신라 화랑의 형성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기원이 되는 원화가 폐지되어 귀족 청년 집단의 새로운 상징과 이념이 필요해졌다.
- ②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도전 의식과 혁명의 의지가 일어나고 있었다.
- ③ 전통 질서가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외래 문물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정답: ①

4. 다음 중 백제 미륵 신앙의 신라 전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나라 모두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스님들은 선교를 목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국경을 오갈 수 있었다.

② 신라에서는 백제 미륵 신앙을 수입해 화랑단과 결합하여 국력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③ 미륵 신앙의 규율이나 계율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 두 나라의 필요에 부합하였다.

정답: ③

5. 다음 중 불국사와 석굴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간의 성격과 의도로 볼 때, 불국사는 현생과 현세, 석굴암은 전생이나 내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불국사는 바둑판식 병렬적 배치를 보이거나, 석굴암은 한가운데의 불상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강조한 배치를 보인다.

③ 불국사는 화엄경을 바탕으로 한 일원주의적 성격을, 석굴암은 평등을 중시하는 다원주의적 성격을 추구하고 있다.

정답: ③

###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양지의 녹유사천왕상과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방을 호위하는 사천왕의 성격은 ○○불교의 성격과 연결된다.

정답: 호국

2. 미륵과 고유어 미르의 음이 유사하므로, 미륵 신앙은 ○ 신앙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으며, 화랑 역시 기원인 원화에서부터 ○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청년단체였을 것이라 추측되기도 한다.

정답: 용

3. 불국사, 석굴암, 나아가 <삼국유사>의 주제에서도 보이듯, 화엄사상은 전제왕권 옹호와 왕권 강화보다는 시대적 제약 안에서 비유적으로나마 ○○와 ◎◎을 추구한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조화, 평등

### 나. 토의 (30분)

양지(良志)는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으며, 그의 신비한 능력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 자유롭게 토의해본다.

**다. 과제 (60분)**

불국사와 석굴암의 공간적 배치와 의상의 화엄 사상을 연결지어 설명하는 글을 써 본다.

## ■ 참고자료

삼국유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보기](#))

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 해설 ([영상 보기](#))

뷰티풀 코리아 - 신라인이 완성한 부처의 나라, 불국사 ([영상 보기](#))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영상 보기](#))

일연, 서철원 역, 『삼국유사』, 아르테, 2022.

자현, 『불교의 가람배치와 불국사에 대한 재조명』, 한국학술정보, 2009.

정구복, 『교양으로 읽는 삼국사 1』, 시아콘텐츠, 2018.

강우방, 「불국사 건축의 종교적 상징구조」,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7, 169-217면

서철원, 「화엄불국과 신라·려초시가의 이상세계」, 『한국시가연구』 51, 한국시가학회, 2020, 29-63면.

## <6차시> 삼국유사의 공간(2): 편찬자 일연의 답사 경로와 관광지화

### ■ 학습목표

1.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저자 일연이 답사한 장소를 살펴본다.
2. <삼국유사>의 공간에 얽힌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본다.
3. <화엄연기>를 중심으로 의상의 해외 체험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 ■ 강의 목차

1. 삼국유사 기행문 “길 위의 삼국유사”
2. 삼국유사 테마파크(경북 군위)
3.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 - 일연의 삶과 ‘민중성’의 관계
4. 삼국유사 안팎의 해외 체험
5.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서철원입니다.

오늘은 <삼국유사>의 공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편찬자 일연, <삼국유사>를 편찬하신 분이 일연이란 스님이시죠. 그래서 일연의 답사 경로, <삼국유사>라는 책이 일연이 여기저기 전국 각지의 사찰을 중심으로 답사를 다니면서, 사찰과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옛 기록을 모아서 삼국유사라는 제목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행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답사를 다니면서 거기서 모은 자료들을 이렇게 책으로 펴낸 거니까요.

그래서 일연의 답사 경로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 곳에서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살펴보고요 합니다.

일연의 답사가 민중성을 지녔다는 주장을 통해 21세기 한국학과 <삼국유사>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의상의 당나라 유학을 중심으로 <삼국유사> 안팎의 해외 체험도 떠올려 보겠습니다.

#### 1. 삼국유사 기행문 “길 위의 삼국유사”

우선 <길 위의 삼국유사>라는 기행문이 있는데요. 그 일연의 답사 경로를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나온 책이에요. 총 16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요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사, 신라의 수도 경주의 남산, 포항의 영일만, 동해 바다 등입니다.

우리 수업 앞에서 나왔던 인물과 사건도 종종 등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삼국유사 테마파크지요.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팬데믹 탓에 관람객이 적긴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홍보 영상과 체험 영상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이라는 국제신문 연재물을 통해, 일연의 답사 경로에 정말 민중성에 관한 고려가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려 후기 노비들의 민란 발생 지역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지역과 많이 겹친다는 주장입니다. 민란과 근대적 민중성과의 연결이 신선한 말씀이지만, 좀 조심스러울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길 위의 삼국유사>. 고운기 선생님이 글을 쓰고, 양진 작가님께서 사진을 제공하셨습니다. 고운기 선생님은 <삼국유사>에 대한 다시쓰기 성격의 책도 여럿 내셨습니다. 시인이기도 해서, 책 중간마다 시가 제법 실렸어요.

첫 번째로 ‘가연은 완산 아이 울고 가네’, 금산사와 의상봉이란 부제가 달렸습니다. 금산사는 앞서 나왔던 미륵 신앙의 성자 진표가 세운 절이고, 의상봉은 진표가 이제 미륵보살을 만났으리라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오른쪽에 높이 12m짜리 불상이 금산사 안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진표 당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절 앞에 4차로도 마찬가지로 진표와는 상관없죠. 우리나라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으면 멋있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간판이 많아서요. 사진이 이제 멋있게 나오는 곳은 역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광지의 이런 모습이 약간 짜증난다는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네 관광지 모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 책에 꽤 여러 차례 등장하고, 나아가서 산업화의 산물에 대한 혐오감이랄까 그런 것도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 책의 독자층을 산업화, 문명화된 도시의 모습에 실망하고, 전원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중장년층을 설정해서일까요?

보시면 이게 금산사에 있는 3층짜리 목탑이에요. 이게 어딜 봐서 탑이나 하시겠지만요. 이 안에 아까 본 불상이 들어 있거든요. 예를 집어넣으려면 1, 2, 3층이 다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층층으로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층층이 막혀 있으면 건물로서 기능을 할 텐데. 뚫려 가지고 그냥 불상 하나 집어넣는 기능만 하고 있으니까 탑입니다.

역시 옛 모습을 상상하기 쉽지 않아서 서운하대요. 금산사를 이루는 건물 자체도 다 조선시대 한옥 양식이거든요. 옛 자취가 남지 않아서 굉장히 서운하다 했지만, 유일한 옛 자취 역시 진표의 시대 것은 아니네요.

이분이 금산사를 소재로 시를 하나 썼어요. 피꼬리같은 목소리를 한 선배에 대한 애뜻한 짝사랑을 주제로 했습니다. 관광지에서 시를 짓는 것도, 시에 대한 추억이 많은 세대가 호응할 만한 요소겠죠. 짓곳은 남자 선배 하나가 답사 여행 내내 나와 짝을 만들어 주고는 서동과 선화 공주니 어찌니 했다는 것도 반세기 이전의 감수성만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표가 머물렀다는 의상봉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표는 예전에 말씀드렸듯, 백제 유민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미륵 신앙이 백제 불교의 특징이기도 했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고행이 이루어진 장소를 의상봉으로 추정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진표가 절벽 아래 몸을 던지는 고행을 거듭했다는 곳의 사진입니다. 참 아찔하죠? 유튜브에서 여기 가는 길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여기 절벽 여기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생긴 길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풍경은 굉장히 좋죠. 저것도 옛날 사진이니까 지금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이 좋아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진표가 벼랑 아래로 몸을 날리는 모습은, 예전에 읽어본 적 있죠? 넘어갑니다.

역시 예전에 말씀드렸듯, 진표가 미륵신앙을 전파했던 자리에서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일어났습니다. 이 책은 견훤 집안의 뿌리를 광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훤이 경상북도 상주 호족 아자개의 아들이었다는데, 굳이 전라도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운 이유는 뭘까? 그거는 견훤 집안의 뿌리가 광주임을 알려주는 <삼국유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대네요.

광주 북촌에 사는 한 여인에게 밤마다 기이한 사내가 찾아오는데, 밤마다 남자가 찾아온다고 해서 밤에 오는 사람, 야래자 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래자가 그렇게 찾아오는데, 부모는 잠든 사이 실을 바늘에 꿰어 옷에 꽂아 놓으라 해요. 다음날 따라가 보니, 큰 지렁이 허리에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 지렁이와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견훤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렁이 대신 돼지가 나오는 점을 제외하면, 최치원의 탄생 이야기하고도 같아요.

지렁이나 돼지는 건국 영웅의 아버지 역할로 어떨까요? 좀 그래서인지 미완의 영웅을 이야기할 때 주로 야래자 설화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쪽이 좀 평범한 동물로 나타나죠. 아버지 쪽의 약점을, 이 책에서는 견훤의 어머니가 지체 높지 못한 띠꺼머리총각과 눈이 맞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상주로 이주했다는 것이지요. 그럴싸한데, 이런 처지에서 상주로 옮겨 그 지역 유력자의 아들을 자처하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그보다는 경주 지역의 지배력이 약해진 전주 지역으로 가서, 자신을 잘 모르는 지역민에게 내가 사실은 호남의 아들이었다고 주장하는 편이 어떨까 싶은데요. 뭐 다양한 상상력이 가능하니 좋은 일이지요.

오른쪽에 보면 제목에도 있었던 <완산요>가 나오지요. ‘가엾은 완산 아이 / 아비 잃고 눈물 흘리네.’ 이 완산 아이는 누구냐? 견훤이 아버지인 아자개하고 굉장히 싸웠어요. 그러니까 완산 아이가 견훤, 잃어버린 아버지는 아자개로 볼 수도 있고요. 완산 아이를 견훤의 아들들로 볼 수도 있어요. 견훤이 아들들한테 유펜을 당해서 금산사에 머물렀으니까요. 견훤이 나중에 고려 편을 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려의 편을 들게 되니까, 아버지 탓에 나라가 망했다고 눈물을 흘린다. 3대에 걸친 가족사의 비극을 꼬집는 노래였을까요? 일연은 후백제의 멸망 원인을 견훤의 가족사에서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주 남산에 있는 마애불은 시멘트로 쌓인 정체불명의 담들을,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졌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천박한 종류들의 집합을 상징하는지도 모른다며 시작합니다. 아마 담이 없었던 옛날 풍경이 더 익숙한 분들은 확 공감하실 거예요.

담이 아닌 자연 상태의 바위를 좋아합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바위에다가 그들이 그리워하던 세계를 새긴 경주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박한 예술혼의 소유자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불국사나 석굴암은 뚜렷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건축물이지만요. 여기 경주 남산은 수백 년에 걸쳐 이제 이름 모를 사람들이 계속 돌에다가 새긴 불상들이 누적된 성과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획된 건축물이 갖고 있는 일관성은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신라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흔적을 남긴 것이므로, 불교 조각이지만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한국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직접 남겨 전해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까 본 불사의암의 날카로운 절벽과는 대조적으로, 경주 남산은 이렇게 소담하다고 할까,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펍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저 친근한 모습에 속아서 무턱대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험해요.

<경주 남산>이라는 시를 남긴, 정일근 시인에 대한 라이벌 의식 비슷한 게 재미있습니다. 그 시에서 경주 남산을 ‘돌 속에 숨은 내 사랑’이라 했네요. 좀 전에 경주 남산 불상들의 얼굴

이 신라인들, 한국인의 조상들의 얼굴이라 했었죠? 그런 발상에서 경주 남산의 불상들을 보면, 석굴암 같은 곳에 있는 불상처럼 웅장한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냥 친근합니다. 신라 시대 사람들은 얼굴이 저랬겠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돌 속에 숨은 내 사랑’이란 어찌면 사별한 혈육이나 다신 못 볼 그리운 이들의 얼굴이겠지요.

계속해서 머리 부분이 날아간 엽기적인 모습의 석불 좌상이 나옵니다. 세월의 상처인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세월의 상처인 것들도 있는데, 경상북도 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불상을 훼손하는 일도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불상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상반신을 박살내기도 하고, 경주 남산의 이런 불상들도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가끔 있었죠.

그리고 석불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석불상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는데, 지난 시간에 석굴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미타불처럼 서방정토에서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존재가 동쪽을 마주 본다고 했습니다. 이 불상은 좌대, 불상 받침이 굉장히 높는데, 받침이 높은 이유는 우리의 이상과 정신을 높이려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한국 불상을 떠올려 보면, 눈이 일단 옆으로 돼 있고 입도 이제 눈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선 하나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웃는지 우는지 알 듯 모를 듯한 좀 애매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혼날 때, 부모님 표정을 보면은 기분을 판단하기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나를 더 혼내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풀어져 기분이 좀 나아지신 건지? 그 묘한 표정이 있어요. 저는 그 표정이 이 한국 불상의 표정하고 비슷한, 은근하고 노골적이지 않게,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하면서도 풍부한 표정이지요. 그런 것을 경주 남산 불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 남산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예요. 제가 화엄사상 얘기하면서도 다양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주 남산도 다른 의미에서 화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모습은 예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런 다양함은 아니지만,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또 부자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든 불상과, 돈이 없는 사람이 최대한의 가성비를 추구하면서 만든 불상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정도의 질적인 차이가 이 불상들 사이에 있어요. 경주 남산은 그런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낭만적인 대동 사회에 가까운 다양성을 경주 남산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 남산은 어느 한 불상이 대단하다 이렇기보다는 여러 불상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다양성의 집합이 문화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신선암 마애불을 사진으로 찍어냈지요. 신라 사람들에게 큰 바위 얼굴의 역할을 했을 거라네요. 그 이야기에서 마을 사람들은 믿었죠. 산 중턱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모든 지혜와 용기를 갖춘 사람이 언젠가 나타나리라고요. 누군가가 큰 바위 얼굴인가 했지만 다들 위선자라서, 순진한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만 남기고 떠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럴수록 간절한 기대가 커졌는데, 소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주인공 소년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간절하게 찾아 헤맸던 것이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는 그런 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는, 그리고 닮고 싶어 하는 모습을 이렇게 큰 바위 얼굴에 담아서 마애 불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 표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호한 한국인의 표정이죠. 화를 내는 건지, 편안한 건지, 즐거워하는 건지, 아니면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름대로 포괄하고 있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 효소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남산 비파암에 사는 초라한 승려가 끼어들었어요. 마지 못해 자리를 주었는데, 너무 왕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런 거지같은 중이 와 가지고 이렇게 밥을 축내나? 해서 얘기합니다.

나가거든 왕이 친히 베푸는 자리에서 밥 얻어먹었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승려가 왕도 진짜 부처님을 공양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는 남산 쪽으로 사라졌다는 거죠. 왕이 부랴부랴 쫓아가 보니 바위 속에 숨어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라는 교과서적인 얘기는 많이 하죠.

이 얘기는 남산에 있는 불상들이 아무리 조잡한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엄연한 불상이니까 존중해야 한다. 더 폭넓게 생각해 보자면 아무리 못나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존중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신라 불교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었던 평등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평등하다, 왜 평등하나면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게 부처의 교리거든요. 그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니까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평등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의 평등이라고요. 역으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 못 사는 거는 전생이 그래서 그래, 하는 결정론적인 사고가 또 깔려 있어요. 그런 한계는 있지만 적어도 비유적인 측면에서는 신라 불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가능성을 존중하니까,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짜 부처님인 거예요.

다음에는 미륵 신앙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은 목이 이렇게 날아가 있잖아요. 반듯하게 잘려 있어서 누가 의도적으로 잘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확실하게 딱 쪼개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교에서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는 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큰 바위 얼굴 나오죠.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 결국 신라인이 되었습니까.

이제 포항과 강원도 양양의 부석사입니다. 포항 출신 시인 이육사의 <청포도>부터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나름 추억의 시인이죠.

그러면서 포항제철 탓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저런 풍경을 잃게 되었다죠. 이 책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포항제철 회장이던 박태준 씨를 만나면, 당신 때문에 내 고향이 없어졌다고 항의하고 싶다네요.

다음으로 도저히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옛날이야기, 포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연오랑 세오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포항 앞바다는 이렇게 좀 막막하고 어두운 느낌이랍니다. 연오랑과 세오녀는 어민으로서 힘겹고 가난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라 땅에서의 가난과 고생에 지쳐서 일본으로 갔다. 그러니까 생계형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연오랑 세오녀의 동기에 주목해보자 하는 거죠.

이제 고학력 중산층의 이민 붐을 보면서, 벌써 그때도 제 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살기 팍팍한 이들은 이민을 꿈꾸었던 게 아닌가 하는 방정맞은 생각까지 든다고 했죠. 이런 건 세대를 넘어 공감할 만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지역 식당과 민박 모습 역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하구요.

관광지에서 지나가다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제 생활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하루하루에 이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걱정거리인 이런 내외의 생활이, 먼 옛날 연오랑 세오녀가 했

던 생계에 대한 걱정과 좀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오랑 세오녀 부부도 이런 바닷가 어디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위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난 것일까? 아니, 장길리 바닷가에 이 부부야말로 연오랑 세오녀인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여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넋건지기'라고 해서, 비극적으로 죽은 자식들을 위해 부모가 곶을 여는 내용입니다.

나라는 일종의 큰 무당이다. 국민과 함께 울고 웃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하는 사제가 다른 나라의 사제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느 나라의 사제나 신분이 높습니다. 지배층에 속한 존재들이예요. 근데 무당은 사제인데도 불구하고 좀 신분이 천하게 되어 있어요.

조선시대에 신비주의나 내세를 생각하는 초월적인 종교를 배격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는 한데요. 무당은 신분이 낮은 계층에 속해서, 어떤 지배 권력보다는 힘없는 서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했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무당에 대해서는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라는 일종의 큰 무당이다. 할 때는 나라라는 것은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 그게 바람직한 나라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무슨 무속을 신앙으로서 긍정하는 언급은 아닙니다. 나라라는 힘없는 일반 서민들,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은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포항의 오어사라는 절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원효와 혜공이라는 두 분 스님의 일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포항에 오어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요. 유명한 이유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혜공이 사는 절로 가끔 원효가 찾아왔는데, 두 스님이 절 앞으로 흐르는 냇가에서 내기를 했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먹고 똥을 누자는 것인데요. 스님은 채식해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효는 잡아먹은 물고기가 그냥 당연히 변으로 나왔는데, 혜공은 살아있는 물고기 그대로 나와서 다시 냇가로 헤엄쳐 갔다. 그래서 오어사라는 절 이름이, 너는 물고기를 먹고 똥을 뉘지만, 나는 물고기를 먹고 물고기 그대로 이렇게 나왔다. 나는 물고기를 배설했다. 그래서 나 오자에 물고기 어자를 써서 오어사, 이런 절 이름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죠. 처음에는 물고기는 물고기요 똥은 똥이었다. 나중에 보니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요, 똥은 똥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시 보라! 물고기는 물고기요 똥은 똥인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의 변형이죠?

요즘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성철이라는 조계종의 큰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이야기한 화두가 유행어처럼 번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했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데 다시 보면 산에도 물의 속성이 있고 물에도 산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더라 그런데 다시 또 보니까 여전히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이런 논법을 이제 많이 펼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춘기나 또는 성인이 막 되신 이런 어떤 인생의 전환기랄까 이런 때요. 예를 들어 내가 아무개라는 사람이었는데, 사춘기 때 중2병이 심해지면서 나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어딘가 나는 다른 세상이나 외계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뭔가 평소의 나와는 다른 나의

성격,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이따금 내성적이지 않은 돌발적인 행동을 하겠다. 그런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산이 산이 아닐 때, 물고기가 물고기가 아닐 때, 내가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바랄 때,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해보지 않았던 사랑을 새로 해보고 싶든지, 해보지 않았던 모험적인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싶든지, 내가 더 이상의 내가 아니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나답지 않은 내가 할 수 없었던 이제 다른 일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살아 보니까 결국은 내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소도 결국은 원래 나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요소까지 다 포함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범위가 확장되고 늘어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새로운 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원효는 똥을 뉘는데 혜공은 물고기를 뉘었으니까, 혜공이 더 도통하고 높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고, 똥도 나름 자원이니까, 장자도 이제 똥 속에도 도가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열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깨달음의 다양한 모습이라는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막 깨달을까 말까 하는 듯한 안개의 풍경입니다.

마지막에 또 이제 이육사의 <청포도>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포항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육사의 <청포도>, 연오랑 세오녀, 그리고 오어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와 선문답에 가까운 깨달음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산사 이야기를 합니다. 낙산사는 지난 번 관음보살 이야기할 때 나왔죠. 의상이 세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국사 이야기할 때, 불국사 맨 북쪽에 관음보살이 자리 잡은 공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관음보살이 어딘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화엄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라서 불국사라는 절 자체가 <화엄경>이라는 경전의 모습을 어떤 시각적 공간적인 이미지로 만든 곳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낙산사라는 절은 불국사 북쪽에 있었던 관음보살의 공간이 좀 이렇게 확장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책이 나온 시점에 낙산사가 막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엄의 장엄한 세계와 세속의 희로애락이 함께 놀던 곳이었다는데, 안타깝죠. 세속의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관음보살이라는 보살 자체가 세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음보살의 역할 자체가 세속의 희로애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낙산사가 2005년 봄, 설악산의 대형 산불 화재를 비켜 가지 못하고 전소되었다. 이 책이 2006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화재 직후라서 그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산사가 이상하게 불이 좀 자주 나요. 다음 보시면 낙산사에 닥친 참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연도 그가 사는 동안 낙산사의 참화를 전해 듣는데요. 52세 때 1258년, 고려와 몽골 사이의 전쟁이 치열하던 때 낙산사가 전쟁에 휘말려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기 이전에 낙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담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도 이 담이 좀 특이하게 생겼지요. 불에 타서 다 없어졌지만, 이 담이 문화적인 가치가 가장 높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원통보전은 절에 있는 건축물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통보전의 자랑거리인 꽃담, 화재의 상처가 깊어서 한동안은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죠.

<화엄경>에 따르면 관음보살은 남쪽 바다에 있는 보타락가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보타락가산을 줄여서 낙가산이라고도 하는데요. 더 줄여서 낙산이라고 해요. 낙산사라는 절의 이름이 이 산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샘물이 굽이쳐 돌고 울창한 숲에 향기로운 풀이 부드럽게 나 있는 이 산의 서쪽 바위굴에서 관음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해요.

아까 나왔던 세속의 희로애락 같은 데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 관음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이 산은 구원의 성소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상은 신라 땅 양양에 있는 낙산을 그 산이라고 비정하고, 여기 절을 지으면서 신화적인 이야기도 보태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소리를 관찰한다는 관음보살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관음보살은 가장 인기 있는 보살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니까 그렇죠. 갖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중생들이 관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그에 따라 33가지 화신으로 나타나서 즉시 구원합니다. 33단 변신을 하는 거죠.

예전에 보았던 낙산사 이야기의 원효에게도 여러 화신 중 하나의 모습으로 관음보살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특히 많았습니다. 관음의 모습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음보살은 여성 특히 혹은 이모님이나 할머니 같은 모습으로도 기억되고 있는데요. 관음보살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는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갖고 있는 모습도 있고 말 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마두관음이라고 하는데, 마두관음은 한국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중국하고 일본은 많아요. 마두관음 모습을 새긴 기념주화 같은 것도 일본에는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획기적인 낯선 모습보다는 모성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관음보살의 성격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11개 달린 11면 관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국 일본에서는 머리 11개를 똑같은 크기로 쪽 이렇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머리 아홉 달린 도적 이야기 같은 게 머리가 11개 달린 관음보살의 모습에서 약간 영감을 얻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11면 관음 역시 머리 11개를 같은 크기로 하기보다, 큰 머리 하나를 밑에다가 새겨 놓고 작은 머리 10개는 표정을 약간 다르게 해서 머리 위에다가 관처럼 올리기도 해요. 석굴 안에 그런 11면 관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11개 얼굴인데도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미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쨌건 한국에서의 관음보살은 모성을 갖고 있는 존재, 인간과 그렇게 멀지 않은 익숙함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번 보았던 낙산사 이야기의 원효입니다. 아까 해공하고 물고기를 배설한 이야기에서도 원효가 나왔죠. 그 이야기에서처럼 동굴에서 관음보살을 만났던 의상과 비교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 고승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원효가 꼭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효가 아예 이제 못난 사람으로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봤던 이야기를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낙산사 이야기 다음에는 공간적 배경이 비슷한 <조신의 꿈> 이야기도 나옵니다. 중간에 관음보살 조각상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이야기가 하나 끼어 있고요.

하지만 되찾은 관음보살은 몽골의 침략 탓에 다시 사라졌다고 하죠. 몽골의 침략이 <삼국유사> 창작의 한 동기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6.25도 있었구요. 낙산사 화재도 있었지요. 한국의 문화재들이 겪어야 했던 병란에, 남아있는 자료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조신의 꿈> 이야기를 보죠. 조신이라는 사람이 짝사랑했던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니까 관음보살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짝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소원을

빌었는데도 이 여인이 그냥 시집을 가버렸으니까, 원망하다가 잠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꾸게 된 꿈속에서 짝사랑했던 여인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평생을 보내지만 너무나 비참했죠.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고생만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서 이혼하는 것처럼 아내와 떨어져서 살기로 하고, 아이들을 나눠서 헤어지는 결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꿈의 내용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보통 꿈속에서 뭔가 토론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 이야기들은 많은데요. 토론하다가 억울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꿈속의 인생 자체를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게 그리는 꿈속 이야기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꿈속 내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극적이라는 점에서, 꿈의 문학사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음보살이 사람을 도와줄 때, 소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적절하지 않은 소원을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이 적절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교정하고 교육하고 다른 방식의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관음보살의 도움이란, 아주 교육적이고 자기 계발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며,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학사적인 가치와 함께 교육 사상으로서의 가치랄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지닌 이야기인데요.

낙산사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일상에서의 깨달음과 초세속적인 깨달음에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의상이나 원효가 프로의 경지에 선 깨달음의 달인이라면, 조신은 평범한 우리네 심성의 대변자입니다. 조신의 이야기는 의상과 원효 이야기에 덧붙은 형태로 남아 있지만요. 읽는 이에게 자신의 이야기처럼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평온하지 못할 절절함으로 가슴을 친다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낯설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낯선 꿈속의 인생은 즐겁고, 이렇게 우리 욕망이 실현되는 그런 무의식적인 공간이 꿈인데요. 어째서 조신에게는 이렇게 꿈속이 괴롭냐? 그 첫 번째 낯설인데요, 그런 낯설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관음보살이 있는 그대로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약간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이 좀 덜 떨어진 소원을 빌었다면은 자신의 덜떨어짐을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관음보살이 소원을 들어주는 방식이니까요.

다음으로 문화재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네요. 낙산사가 불에 탔는데 담은 그래도 좀 멀쩡하잖아요. 불에 조금 그을리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담이 멀쩡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 문화재청장이 했다고요. 어떻게 절간이 다 탔는데 아쉬움을 표해야지. 담벼락은 멀쩡하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불에 탔어도 탑은 아직 건재한데요. 그래서 한국에 석탑이 많은 이유가 목탑은 다 불에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석탑이 많은 거거든요. 석탑이 훨씬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좋아서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화재를 겪다 보면은 문화재가 훼손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책은 일연의 답사를 재구성해서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자가 생각한 구성에 따라서, 백제 땅부터 해서 경주 남산 그리고 신라 강원도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나름대로 공간을 중심으로 재배치를 해가지고 읽기 편하게 차례를 짚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단상과 단상이 모였죠. 태도 자체는 일관성이 있어요. 과거를 회고하고 그리워하며, 산업화를 부정하죠. 아까 이제 포항제철도 그렇고 뭔가 현대적인 문물이 들어선 것보다는 과거의 풍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요.

근데 과거의 풍경이 너무 유지되면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왜 우리 지역은 개발이 안 될까?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산업화의 성과가 남지 않고 옛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게 이제 좋은 건지, 거기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꼭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건 이 책의 타겟이 되는 독자층, 4~50대의, 지금은 50~60대가 되어 버린, 옛것에 대한 그리움이 큰 독자층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이 책에는 커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허무감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이게 또 있는 그대로의 허무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빈산에 달빛만 가득하다는 옛날 황진이 시조에 나오는 내용처럼, 비어있는 풍경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이제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우리의 정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 탑 하나만 남아 있고 다 없어지고 탁 트여 있는 산에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무한한 마음이 또 가득 차 있다. 이렇게도 역설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비어있으면서도 가득 찬 그런 장면이 이 책을 설명하기에 적절해 보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었는데, 추려서 읽어 봤고요.

## 2. 삼국유사 테마파크(경북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홍보 영상하고 체험 동영상을 링크했는데요. 이곳의 주된 콘텐츠는 전시나 이런 것보다는 체험 쪽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타거나 활쏘기하거나 그런 게 이 테마파크가 주로 내세우는 콘텐츠고요.

전시 등은 여기 가온누리관에 모여 있는데요. 신라 시대 주요 유물이나 유적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경주박물관에 이미 다 소장되어 있어서, 저기 가야만 볼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VR 중심으로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아직 갖추어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말 타고 활 쏘는 체험 위주로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말 타고 활 쏘려면 굳이 꼭 저기 갈 이유는 없죠. 가까운 국궁 체험장이나, 집이 좀 넓으면은 다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저런 활은 개인적으로 사도 되죠. 그러니까는 정말 활쏘기에 흥미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취미를 위해서 투자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로 전시 교육, 체험, 썰매장, 물놀이장, 말타기 등등 다 만들어 놔는데, 꼭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별로 없어요. 이게 테마파크의 고민이죠.

에버랜드 가면 사파리가 있다. 디즈니랜드에 가면 미키마우스와 도널드덕이 뭘 해준다. 유니버설 테마파크를 가면 또 영화 속 공간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아니면 안 되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는 나름대로 정성과 애를 많이 썼지만요. 대체 불가한 거를 만들기에는 좀 아직은 미흡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미흡함은 <삼국유사>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주요 박물관에 이미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지요.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테마파크는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3.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 - 일연의 삶과 '민중성'의 관계

그리고 21세기 한국학 연재물은 뭐냐 하면요. 여기 원고를 보시면 일연은 보잘것없는 신분 출신이며 중생의 허물을 벗고 부처가 되려 애쓴 승려였다. 그래서 민중의 이야기에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민중항쟁, 고려 후기에 있었던 만적, 망이, 망소이 이런 사람들의 민란은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는 불교의 이치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훌륭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연이 정말 민중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는지는 이 지도로 입증하고 있는데요. 고려 민중항쟁 지역과 일연이 머물던 곳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일연의 <삼국유사> 답사는 민중항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했던 답사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일연이 다녔던 포항이나 광주나 개경 강화 양주 이런 쪽은 이 당시에 대도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찰이 있는 곳이었어요. 큰 사찰이 있는 곳은 일연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는 답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최광수가 1217년 서경에서 민중항쟁을 벌였는데, 서경 안 갔어요. 서경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서쪽 서울, 서경이잖아요. 고려시대에는 가운데 개경이 있고 서경과 동경 수도가 세 개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데를 안 갔어요. <삼국유사>에는 고구려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민란이 있었던 진위현, 안 갔죠. 전주, 안 갔어요. 진주, 네 안 갔습니다. 울진, 안 갔죠. 벌써 이 지도만 봐도, 주요 도시라도 생각보다 완전히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연은 불교적으로 중요한 곳,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곳을 나름대로 간 거지요. 민중항쟁이 있었던 곳의 사찰을 굳이 찾아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지도가 겹치는 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비판한다기보다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민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9세기 20세기 근대적인 개념인데요. 일연에게는 이런 불교의 이치를 믿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보잘 것없는 신분이지만 중생의 허물을 벗고 부처가 되겠다는 결심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일연의 결심을 전적으로 어떤 민중항쟁과 같은 의식에 동참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에요. 일단 여기서 예로 든 지도만 놓고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일연의 가치는 굳이 민중적인 쪽에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연결하기 힘든 민중성예까지 일연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그렇게 좀 실상을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삼국유사>와 일연의 가치를 밝히는 데 반드시 그렇게 필요한 일도 아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민중성을 가지고 고전 문학이나 이제 고전 사상가들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시도가 20세기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의 업적은 굳이 민중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개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자체의 용어와 관점을 갖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관점에서만 이런 대상들의 가치를 파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얼핏 보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더 따져볼 필요는 있겠어요. 일연은 민중적이다. 이런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이 지도를 통해 주장하는 것인데요. 굳이 그렇게 민중이라는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4. 삼국유사 안팎의 해외 체험

제목을 <삼국유사> 안팎의 해외 체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가장 유명한 해외 체험은 원효와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 유학을 다녀온 일이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장보고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장보고가 중국에 개척했

던 신라 사람들의 거주지도 있었고, 일종의 문화 영토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 치면은 로스앤젤레스의 차이나타운 같은 게 있듯, 당나라에 신라 사람들의 집단 거주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엔닌이라고 하는 스님이 당나라 유학을 다녀올 때, 신라 사람들의 거주지와 장보고가 개척했던 항로를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당나라에 남아 있는 신라 문화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있고 합니다.

그것도 이 자리에서 보면 좋을 텐데, 나중에 장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이 원효와 의상의 당나라 유학 경험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책이 있어요. <화엄연기>라는 제목의 그림책인데, 몇 년 전 좋은 상태로 영인이 돼서 화면으로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원효와 의상이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하면서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심부름꾼이 한 사람씩 이렇게 있고요. 원효는 이제 돌아가는데 의상은 계속 길을 가려고 하죠. 두 사람이 똑같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인데도, 방법을 다르게 하면서 갈라지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일단 갈라지지만, 나중에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결국 만나서 영원한 동반자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겠지 하면서 이별하는 인간적인 애뜻한 장면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낭만적인 사랑이 나타난다고 묘사되는 여행기도 있는데요. 의상은 스님이니까 당연히 세속적인 의미의 사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묘라는 아가씨를 만나는 장면을 애뜻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의상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선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되죠. 승려로서 계율을 지켜야 할 입장이지는 했는데, 이 선묘의 마음은 나중에 다른 식으로 성취가 됩니다.

의상 스님이 지엄이라고 하는, 화엄 사상을 배우게 될 스승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삼국유사>에 보시면 의상과 지엄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엄의 제자로서 의상에겐 후배인, 법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지엄을 계승해서 중국의 화엄 사상을 크게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법장과 의상이 동문이라는 인연 역시 <삼국유사>에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학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의상은 지엄의 다른 제자들과도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돌아가는 의상을 배웅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동문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있고요. 떠나는 의상을 만나기 위해 관복을 입은 사람도 말을 타고 서두르는 장면이 있어서요. 중국 생활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의상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의상이 어떻게 중국에서 생활했는지 드러나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담으려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훈훈한 이별 장면이 있는 한편이에요. 아까 나왔던 의상을 짝사랑했던 선묘라는 아가씨는 선물을 챙겨 가지고 나름대로 서둘러서 나왔는데도 의상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의상이 선묘를 만나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일이 참 공교롭게 되었죠.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저렇게 물에 뛰어들어 자결합니다. 참 불효막심하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아서 물에 뛰어든 선묘는 용이 돼서, 이렇게 당나라에서 신라로 돌아오는 의상의 바닷길을 수호해 주고요. 나중에 의상이 신라에 돌아와서 새로운 사상인 화엄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존의 토착 종교인들과 갈등할 때, 용이 된 선묘가 의상을 도와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선묘의 짝사랑은 세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깨달음의 길을 향한 의상과 반려자가 되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꿈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더 높은 차원에서 차원 높은 사랑의 성취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 5. 정리

정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삼국유사> 기행문은요. 독자 타겟팅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40대, 50대처럼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큰 분들께, 옛날이 참 그립고도 좋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독자의 취향과 이 책에서 기대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배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지만, <삼국유사>라는 주제에 충실하면서도 대중들이 테마파크에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이루고 호응도 얻어낼 수 있을까? 과연 대체할 수 없는 <삼국유사>만의 콘텐츠를 얼마나 이 테마파크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영화사의 테마파크에 비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훌륭한 테마파크가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중성이라는 기준을 옛날 자료에 적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의상의 화엄 사상이 지녔던 그런 평등의 가치 이런 것들은 분명한 가치가 있지만요. 거기서의 평등이나 거기서의 민중성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똑같으리라는 그런 생각은 이제 우리가 하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의상의 여행은요. 깨달음의 길을 겸한 여행인데요. 거기서 한국인이었던 의상이 중국 여행한 내용을 일본 사람들이 그림으로 남겨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일본의 <화엄연기>라는 책 덕분에 중국을 통해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크게 공감을 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깨달음의 길과 의상의 깨달음의 길과 선묘의 사랑의 길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나름대로 이 책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퀴즈 (5분)

1. <삼국유사>는 저자 일연이 전국 각지의 오지를 중심으로 답사를 다녀온 후 펴낸 책이다.  
(O/X)

정답: X

2. 경주 남산에 있는 수많은 불상들은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  
(O/X)

정답: O

3. 신라 효소왕과 비파암 승려의 이야기는 신라 불교에 차별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O/X)

정답: O

4.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산사는 관음보살이 살고 있다는 보타락가산에서 이름을 따왔다.  
(O/X)

정답: O

5. 원효는 의상과의 당나라 유학 경험을 토대로 <화엄연기>를 지었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은 <삼국유사>를 토대로 일연의 답사 행적을 재구한 것이다. 이 중 적절하지 못한 설명은?

- ① 지금의 평양시에 가서 군졸이었던 최광수의 항쟁 이야기를 들었다.
- ②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금산사에 가서 진표의 고행 이야기를 들었다.
- ③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부근에 가서 연오랑과 세오녀 이야기를 들었다.

정답: ①

2. 다음은 <조신의 꿈>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이 중 적절한 설명은?

- ① 관음보살은 조신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벌을 내린다.
- ② 꿈속에서 조신은 짝사랑하던 여인을 만나 함께 풍족한 삶을 산다.
- ③ 꿈속에서 조신은 결국 자식들을 나누어 데리고 여인과 작별하게 된다.

정답: ③

3. 다음은 <화엄연기>에 나타난 원효와 의상의 해외 체험을 정리한 것이다. 이 중 적절하지 못한 설명은?

- ① 노정 중에 원효는 신라로 돌아가고 의상은 홀로 당나라로 향한다.

- ② 의상은 스승 지엄에게 화엄 사상을 배운 뒤 신라에 전파한다.
- ③ 의상은 연인 선묘와 결혼하여 함께 배를 타고 신라로 귀국한다.

정답: ③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 1.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불의 표정은 인간 감정의 ○○○○을 아울러 표현하고 있다.

정답: 희로애락

- 2. 그림책 <○○○○>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삼국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화엄연기

- 3. 용이 된 선묘는 의상의 깨달음을 도와주면서 종교의 깨달음까지도 포함한 보다 높은 차원의 ○○을 성취할 수 있었다.

정답: 사랑

**나. 토의 (50분)**

<삼국유사>에서 관음보살은 여성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삼국유사> 이야기 속에서 관음보살이 여성 캐릭터로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이를 바탕으로 <삼국유사> 속 관음보살이 보여주는 여성성의 특징에 관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다. 과제 (40분)**

<연오랑과 세오녀>의 세오녀와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 속 겐다는 닳은 점이 많습니 다. 둘 다 여성 주인공이고, 사라진 남성 파트너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나며, 그 과정에서 신기 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눈의 여왕>에서 겐다의 모험은 많은 비중으로 그려지는 반면, <연오랑과 세오녀>에서 세오녀의 모험은 간략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래 제시문 (가)에 묘사 된 겐다의 모험을 참고하여 제시문 (나) 빈칸 ①~③에 세오녀의 모험과 여정을 채워 넣어 봅 시다. 이때, <연오랑과 세오녀> 후반부에 나오는 세오녀의 능력을 활용해서 써도 좋겠습니다.

**(가) <눈의 여왕>**

(전략: 겐다와 카이는 소꿉친구이다. 어느 날 카이가 눈의 여왕을 도발하는 바람에 여왕이 그를 잡아가 버린다. 겐다는 카이를 찾으러 길을 떠난다.)

카이가 사라졌으니 겐다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카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했고, 누구도 겐다에게 대답해줄 수 없었다. 남자아이들은 카이가 거리를 달

려운 멋진 썰매에 자기 작은 썰매를 매달고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카이가 어찌 되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어린 겐다는 울고 또 울었다. 사람들은 카이가 시내에서 멀지 않은 강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했다. 참으로 길고 우울한 겨울의 나날이었다.

그러다 봄이 왔고, 봄과 함께 따뜻한 햇볕도 비추기 시작했다.

(중략)

“그 애가 어디 있는지 아니?” 겐다가 장미에게 물었다. “그 애는 정말 죽어버렸니?”

“아니, 그 애는 죽지 않았어.” 장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한동안 죽은 사람들과 땅속에서 지냈는데, 카이는 아무 데도 보이지 않던 걸!”

“정말 고마워!” 겐다가 장미들에게 말했다. 겐다는 다른 꽃들을 찾아가 들여다보며 물었다.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니?”

(중략)

성은 눈보라로 지은 것이었고, 창문과 문은 살을 에는 듯 찬 바람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중략) 소녀는 아무도 없는 널따란 얼음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카이를 알아보았다. 겐다는 카이를 양팔로 꼭 껴안고 외쳤다. “카이! 내 친구 카이! 마침내 찾았다!”

하지만 카이는 뻗뻗하고 차갑게 굳은 채 앉아 있었다. 겐다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것이 카이의 가슴에 떨어지자 곧장 심장으로 들어가 얼음 덩어리를 녹이고 작은 거울 조각을 사라지게 했다. (후략)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원작; 마리아 타타르 주석; 이나경 옮김,  
『(주석 달린) 안데르센 동화집』, 현대문학, 2011, 58~115쪽)

#### (나) <8대 아달라왕 시절의 연오랑과 세오녀> 전문

8대 아달라왕 4년(157년)에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 세오녀 부부가 살았다. 어느날 연오랑이 바다에 가 해조류를 따다가, 문득 나타난 바위[물고기라고도 한다.]에 실려 일본으로 갔다. 일본 사람들이 보고 말했다.

“보통 사람은 아니겠구나.”

그리하여 왕으로 삼았다.

(중략)

세오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찾아 나섰다. ( ① ) 바위 위에 놓인 남편의 신발을 보고 올라탔다가, 역시 연오랑과 마찬가지로 바위에 실려갔다. ( ② )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임금인 연오랑에게 데려다 주었다. ( ③ ) 부부는 다시 만났고, 세오녀는 왕비가 되었다.

이 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렸고, 일관이 점을 쳤다.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다가, 일본으로 떠나버려서 이런 변고가 생겼습니다.”

아달라왕은 사신을 보내 두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연오랑이 말한다.

“우리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그렇게 시킨 것인데, 어떻게 지금 돌아갈 수 있겠소? 그렇지만 짐의 왕비가 직접 짠 고운 비단이 있으니, 이것이라도 갖고 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보면 어떨까 하오.”

그리고는 비단을 선물로 주니, 사신이 돌아와 아뢰었다. 그 말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예전의 빛을 되찾았다. 그 비단을 왕의 보물창고에 두고 국보로 삼은 데다가, 그 창고 이름을 '귀비고(貴妃庫)'라 불렀다.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도기야라 한다.

(현대어 풀이: 서철원)

■ 참고자료

일연 지음, 서철원 번역·해설, 『삼국유사』, 아르테, 2022.

고운기 글, 양진 사진, 『길 위의 삼국유사』, 미래M&B, 2006.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 ([사이트 보기](#))

군위문화관광재단 - 삼국유사 테마파크 홍보영상 풀버전 ([영상 보기](#))

서철원, 「번역과 대중화를 통해 현장을 재현하는 사람들」, 『삼국유사 속 시공과 세상』, 지식과교양, 2022.

정천구,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 <3> 일연의 삶에 스며든 민중 항쟁」, 『국제신문』, 2020.9.13. ([글 보기](#))

김임중·허경진 엮음, 『화엄연기 원효회 의상회』, 민속원, 2018.

## <7차시> 삼국유사의 캐릭터(1): 현실에 출현한 비현실적 존재들

### ■ 학습목표

1. 비형량 캐릭터의 성격과 그 이중성을 살핀다.
2. 수로부인 캐릭터의 역할과 미적 권능을 살핀다.
3. 김현 아내의 역할을 살피고, 가족을 위한 여성의 희생에 대해 돌이켜본다.
4. 처용 캐릭터의 성격을 살피고 그 상징과 정체를 이해한다.
5. 만파식적의 역할을 살피고 그 상징성을 이해한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귀신과 친구였던 비형량
3. 수로부인과 용왕의 정체
4. 희생과 죄책감, 김현감호
5. 내부자가 되지 못한 처용
6. 만파식적과 동아시아의 예악
7.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서철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삼국유사에 나타난 캐릭터들을 살피겠습니다. 예전에 여신이나 성자 같은 캐릭터를 신화와 역사의 시간 말씀드릴 때 살폈던 적이 있었지요. 여기서도 그런 초월적인 시간 속의 캐릭터들이 아닌, 우리의 현실에 출현했던 비현실적인 존재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하고 공간 얘기를 했고 이제 캐릭터하고 이제 정치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정치 이야기는 사실은 권력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캐릭터를 좀 여러 개 갖고 와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비형량. 비형량은 보통 도깨비라고 그래요. 몇 년 전예요. <도깨비>라는 판타지 드라마가 있었죠. 공유라는 배우가 그 주인공이었죠. 여기서의 비형량을 한국적인 도깨비

의 시초라고도 얘기합니다. 신화적인 성격은 약해지고 귀신들과 어울렸던 신비한 존재였죠. 왕이었다가 죽은 귀신을 아버지로 해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귀신이라는 점에서는 약간 신화적인 성격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화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나라를 세우거나 세상의 기원이 되지는 못했던 이 비형량을 온전한 신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신비롭고 신화적이지만, 아주 그렇게 또 우리 일상을 벗어난 초월적인 존재는 아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도깨비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수로 부인입니다. 수로 부인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어서, 괴물에게 잡혀가는 또는 괴물과 교류하는 그런 여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성 역할이 고정된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은 꼭 여주인공은 납치되고, 그 납치된 여주인공을 구하러 삼각관계에 있는 남자 주인공이 1인용 2인용 맡아서 가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었잖아요? 그런 납치된 여주인공 역할을 수로부인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로부인이 완전히 그런 존재들처럼 납치만 당하고,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존재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능동적인 역할도 하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여신의 성격이란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건국 신화의 여신들과도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음으로 김현이란 남자 이야기는 예전에 잠깐 봤었지요. 호랑이와 결혼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혼이지만요. 김현의 아내는 사람이 아닌 호랑이였지만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여성상에 가깝습니다. 한때 가부장제 아래 현모양처라고 불렀던 분들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편이나 오빠 등 남자들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보면 이름으로 불리지를 않았어요. 누구 엄마, 아니면 무슨 무슨 님 그렇게 자식이나 자신이 속한 가문이나 지역으로 이렇게 존재가 규정되었죠. 인간으로서서는 서글픈 그런 삶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현의 아내 역시 이름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김현의 아내 이런 식으로 남편에 의해서 존재가 규정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런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여성상이 한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접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큰데요. 김현감호 바로 다음에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도징이라는 중국 사람의 아내 호랑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도징의 아내는 김현의 아내처럼 헌신 희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호랑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결국 호피를 뒤집어 쓰고 다시 호랑이가 돼서 숲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뭔가 남편을 배신한 것 같다. 신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게 이제 삼국유사의 평가였지요.

근데 현재의 우리가 보기에는요. 남편과 시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원래 삶을 찾아서 돌아갔다는 점에서 주체적인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이야기는 약간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는, 여성이 헌신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이야기, 이런 두 이야기 사이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성별을 벗어나서 생각해보자면, 가족 관계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가족은 이렇게 좀 든든한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억지로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가 또 가족 제도는 아닐까?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가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성별이 같은 형제나 자매가 자랄 때 보면, 옷이나 필요한 용품이나 이런 거 구입할 때 보면, 굉장히 그게 좀 미묘해요. 동

생 입장에서는 언니가 더 좋은 거 갖고 가는 거 아닐까? 언니는 또 다르죠. 왜 나는 언니라고 맨날 양보만 해야 하는가? 형제의 경우는요. 동생 생각으로는 형은 맨날 나를 그냥 힘으로 제압하고 때리기만 한다. 형보다는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죠. 형 입장은 또 달라요. 동생은 모르지만 아우에 대한 책임감을 나름 갖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성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동기간이라는 게 원래 좀 그렇습니다.

김현의 아내, 신도징의 아내 이야기는 전근대 시대 여성의 희생 헌신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더 시각을 넓혀서 생각하시면, 가족 제도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나름대로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용은요. 외노자라고도 하고 하죠.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물론 처용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는데요. 요즘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의 공존이나 유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요. 처용을 외국인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해졌어요. 옛날에는 지방 호족의 아들이나, 무당 이제 이렇게 보는 설이 우세한 적도 있었는데요.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 처용이란 캐릭터가 변화무쌍하고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요. 각 시대의 관심사에 따라서 처용이 누구냐 이게 자꾸 바뀌고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지방자치제라는 게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처용을 지방 호족의 아들이라고 보는 관점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들 외국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처용은 밤늦게까지 열심히 바깥에서 거기서는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놀이는 아니거든요.

굿놀이라고도 하는, 굿 같은 걸 했던 겁니다. 처용 입장에서는 나름 일하다가 온 것인데요. 그렇게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병의 신과 동침하여 가족이 파괴됐잖아요? 처용의 아내가 마음에 병이 들어 진짜 외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몸에 전염병에 걸린 것을 병의 신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표현한 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어쨌건 처용 이 사람은 신라 사회의 내부자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분노하기보다는 용서와 관용의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와 관용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 처용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인격적인 성숙이 괜히 나타나겠어요?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저절로 착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만파식적은요. 이게 피리니까 캐릭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캐릭터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사 어찌면 역사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아이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이제 중요한데, 사람과 물건 사이의 만남도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이라는 아이템이 없었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동영상 강의 덕분에 여러분들과 제가 간접적으로 만나는 이런 상황도요. 그런 거 보면 사람과 물건하고의 관계도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를 소개합니다. 피리 이름 만파식적에서 ‘적’이 피리라는 뜻입니다. ‘식’은 휴식 할 때 식이에요. 쉬게 한다는 거죠. ‘만파’란 온갖 풍파,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을 쉬게 하는 그런 피리죠. 이 피리만 불면 뭐든지 다 이루어졌다는데요. 이런 아이템이 등장하게 된 이유와 그 효과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번 비형량하고 2번 수로부인은 우리가 직접 콘텐츠로 활용할 만한 그런 인물 이라면요. 3번 김현의 아내와 4번 처용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가족,

이민 문제와도 좀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예요. 3번은 여성주의나 가족 제도. 그리고 4번은 외국인과 한국인과의 유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지요. 시간이 제법 흘렀으니 이제 비밀도 아니겠지요. 제가 몇 년 전 교육방송의 국어 문제집을 검토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리랑 타령> 있죠? 개화기의 <아리랑 타령>이 나왔는데요. 그거를 일본에서 한국인들이 불렀던 <아리랑>하고 비교하는 그런 문항이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에 징용으로 잡혀간 분들이 부른 아리랑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일본이 나와서 좀 거북하다, 이런 지적을 다른 분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때는 한국문학과 외국과의 관계를 교육의 소재로 적극 권장하더니, 이제 좀 거북하게 보기도 하는 시대가 오려나요? 그래서 다른 작품으로 교체한다고, 이번에는 사할린에 있는 <아리랑>을 또 갖고 오셨다는데요. 옛날 사할린으로 이민 가셨던 분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오시는 조선족 동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요즘은 한복이나 김치를 비롯한 한국문화에 대한 중국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인들이 많아졌구요.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를 계기로 그런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요. 그래서 뭔가 중국이나 조선족 이런 쪽도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제게 문의했던 겁니다.

제가 보니까 민감한 소재다,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예요. 아리랑 노래의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문항으로 출제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사할린 아리랑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문항으로 출제하기가 어려울 테니, 굳이 그 작품으로 하기보다는 내용이 좀 다양해서 출제하기 좋은 다른 작품으로 해 보자고 했었지요.

무조건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그냥 평화롭게 함께 살자. 이거를 약간 이상적인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요. 어느 나라나 실제로 갈등이 많이 있는 게 또 현실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유의해야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 <아리랑>, 사할린 <아리랑>을 어떻게 교육할지 나름 고민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처용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해도 좀 민감한 내용이지만 살짝 거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2. 귀신과 친구였던 비형량

비형량 이야기는 결말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주인공 비형량은 귀신과 친구였어요. 원래는 친구였는데요. 근데 이 비형량이 좀 안 좋았던 게요. 게 친구였던 귀신을 다른 귀신들에게 죽이게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라기보다, 안 좋은 표현인데 귀신들을 학원 폭력에서 이른바 자기 '빵 셔틀'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귀신들은 비형량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지요. 비형량은 그냥 자기가 막 대해도 되는 폭력의 대상으로 본 거죠. 이 이야기는 이따가 정리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도화녀 비형량입니다. 여기 도화녀가 비형량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게 이게 좀 신화적인 그런 구성과 관계가 있는데요. 도화녀는 비형량을 낳고 나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해요. 궁중에서 그냥 비형량을, 이게 신기하게 태어난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데려다가 궁중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자 관계가 별로 좀 돈독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비형량이 친구였던 귀신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고 하는 걸 보면요. 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죽었고, 어머니는 또 이제 궁중에서 자라느라고 거의 또 얼굴도 못 봤을 테니까요. 궁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정을 모르고 엄숙한 궁중에서

힘겹게 자란 존재라서 이렇게 잔혹한 인성을 갖게 된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어렵게 자랐지만 훌륭한 인성을 지닌 분들도 세상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건 그런 분들이 대단한 거지요. 비형량의 비정한 성격은 비형량만의 탓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비형량의 아버지는 진지 대왕. 왕인데 이름이 진지예요. 나라를 다스린 지 4년 만에 주색에 빠져 음란하고, 정사가 어지러우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폐위시켰다네요.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음란하다는 이유로 폐위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자 관계가 복잡한 왕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주색에 빠져 음란하다는 이런 이유만으로 폐위가 되지는 않거든요.

여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문도 여럿 나왔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볼 건 아니고, 다만 진지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귀족들의 생각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귀족들은 늘 당연하게도 왕권 강화를 싫어하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면, 왕의 권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에 왕의 명령을 안 듣는 게 바로 역적이고 이적 행위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지만 외국과 전쟁을 한다면? 아무리 국가원수가 밍고 그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전쟁도 어떻게 보면 왕권을 강화하는, 그리고 또 귀족들의 힘과 함께 국력까지 고갈시키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래서 진지왕의 이런 시도가 귀족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제 폐위까지 당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할 점은요. 신라라는 나라는 원래 왕족 중에서도 성골이란 혈통을 지닌 사람들만 임금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지왕은 진지왕은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성골이었겠죠. 그런데 쫓겨난 진지왕의 손자가 누구냐 하면 태종 무열왕 김춘추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춘추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렇게 마지막 성 여왕들이 다 죽고 나서 진골로서 처음 왕이 되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진골로서 첫 번째 왕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폐위당한 진지왕의 손자라는 겁니다. 폐위당했으니까 성골이었던 신분이 진골로 격하됐겠죠. 그랬다가 결국 나중에 손자 김춘추가 김유신과 함께 여러 가지 업적을 쌓아 다시 왕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지왕의 위치가 굉장히 미묘한 게, 폐위당한 폭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무열왕 이후로는, 무열왕의 후손들이 여러 번 신라 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신라 왕들의 직계 조상이라는 좀 미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설화가 정말 시조 신화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려면? 비형량이 김춘추의 아버지가 되면, 이거는 나름대로 김춘추의 아버지를 높이는 시조 신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김춘추의 아버지는 김용수라는 다른 사람이고 비형량이 아니에요. 비형량은 삼국사기나 다른 책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형량 이야기가 김춘추의 아버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완성된 신화라기보다는 뭔가 신화가 되려다 만 약간 어정쩡한 미완의 신화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보시면 이보다 앞서 사랑부 민가 여인의 얼굴과 자태가 아름다웠으므로 도화랑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 도화는 이제 복숭아꽃, 복사꽃이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비유할 때, 복사꽃이나 앵두 같은 입술 이렇게 좀 정형화된 그런 비유의 패턴이 있죠.

그래서 왕이 이 소문을 듣고 불러들여서 범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지켜야 하는 일은 두 남자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춘향전 같은 데에서 나오는, 열녀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남편을 섬긴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과거의 시대상도

그렇고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런 뜻으로 그냥 옛날 책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도화랑의 이 말은 두 남자를 동시에는 사귀지 않는다는 뜻으로요. 춘향전의 경우와는 약간 좀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원문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제가 괄호에 넣은 동시에는 섬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대화 때문입니다.

그 두 줄 밑에 왕이 얘기합니다. 너 죽이면 어떡할래? 하니까 차라리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안 한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죠? 그냥 남편 없으면 되겠어? 하니까 얼떨결인지 도화녀는 남편 없으면 되겠습니다 그러죠.

춘향전에 나오는 열녀의 개념에는 남편이 나중에 죽더라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도화녀가 살았던 신라시대 당시에는 열녀로서의 요건이랄까, 여성에게 강요한 열이라는 규범은 동시에 두 명과 중혼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없으면 당신과 되겠다. 하니까 왕이 그냥 놓아줬습니다. 이거 역시 앞에서 강조했던 진지왕의 음란하다는 성격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이런 미인에 대해서 욕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좀 부정할 수 없겠지만요. 그래도 대화를 좀 해서, 남편 없으면 되겠어? 하고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해서, 그렇다 하니까는 그냥 이렇게 놓아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성범죄자로서 성격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대놓고 무대뽀는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의 기준에서는 그나마 좀 인간적인 면을 갖추었다는 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해에 왕이 폐위되고 죽었는데 2년 후에 도화녀의 남편도 역시 죽었다. 이해 왕이 폐위되고 죽었다고 했는데, 삼국사기나 다른 자료를 보면 사실은 안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형랑 자체가 귀신의 아들은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폐위만 됐지 이제 죽은 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일단 죽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왕이 평시와 같이 나타나서, 너 옛날에 얘기한 거 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하고 나타난 거예요. 대단한 집념이죠. 죽어서까지요. 네 남편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으면 나하고 사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하고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화녀가 부모한테 얘기하니까, 임금님 말씀인데 따라야지 해가지고 7일 동안 머물렀는데요. 이 7일 사이에 도화녀는 비형랑을 임신하게 되는 거죠. 7일 있다가 종적이 사라졌는데, 이제 임신하여 해산하려 할 때 천지가 진동하며 한 사내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비형이라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인이 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비형랑의 그 이상한 소문을 듣고, 진지왕 다음에 왕이 된 진평왕이 부릅니다. 진평왕은 삼국유사의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진평왕에 대한 설화만 모아도 꽤 여러 개 됩니다.

아무튼 이 소문을 듣고 진평왕은 비형랑을 궁중으로 데려다가 길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는 바로 이별하고 궁중에서 자란 거죠. 그리고 나이가 15살이 되니까 집사라는 직책을 주었는데요. 요즘 개나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을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개나 고양이가 오히려 상전이고, 이제 그 친구들을 보살피느라고 집사 같은 신세가 됐다. 집사라는 거는 비서죠.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직책은 왕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잔심부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왕의 비서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비형랑이 맨날 밤이 되면 나가서 노니까 용사 50명을 시켜서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보니까 매번 월성을 날아서 넘었어요. 월성은 신라의 왕궁 이름이 월성이었거든요. 정확히는 반월성이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돼 있어서요. 원래 호공이라는 일본

에서 온 사람의 집이었는데 석탈해가 피를 써가지고 집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신라의 왕궁이 되었습니다.

근데 비형랑은 그 월성 왕궁을 날아서 넘어가지고, 황천 언덕 위에 서쪽에 있다가 귀신의 무리를 거느리고 놀았어요. 50명의 용사들은 너무 무서우니까요. 용사 50명이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좀 그렇지요. 그래도 귀신은 무서운 존재니까 비웃으면 안 되겠지만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걸 듣고 비형랑을 불러서, 너 귀신이란 논다매? 맞아요. 하니까 그러면 잘 됐다고, 귀신의 무리를 이끌고 신원사 북쪽 도랑에 다리를 놓아라 합니다. 잘 됐다. 우리 마침 토목 공사 할 거 있으니까, 네 친구 귀신들 데려다가 다리 좀 놓게 해라 시키는 거죠.

역시 왕은 발상이 비범합니다. 그러니까 칙명을 받들어 돌을 다듬어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이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쌓은 다리다 해서 귀교라 이름 붙였어요. 지금도 신원사 북쪽이었던 곳에 가면 귀교라는 이름의 돌다리가 있어요. 신라시대 때 귀신들이 이렇게 놓았다고 하는 바로 그 다리인지, 아니면 이 이야기를 보고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지는 알 수 없는데 하여간 귀교라는 다리 자체는 지금도 있습니다.

진평왕이 또 물어봅니다. 귀신의 무리 중에 좀 우리 일을 좀 도와줄 사람 없냐? 귀신들이 다리를 놓아주니까 너무나 편리해서 그랬겠죠. 다리 하나 놓으려면 예산이 많이 소비되고 그랬을 텐데. 이제 단숨에 해결이 되니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니까, 귀신 중에 아예 한 명을 상근직으로 스카우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길달이란 이름의 귀신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길달을 비형랑이 데려오니까, 길달에게 집사라는 관직을 주죠. 아까 이 집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비형랑이 집사였는데 데려온 귀신한테 바로 집사 벼슬을 주니까, 순식간에 길달은 비형랑하고 이제 동급이 된 거죠.

그뿐이 아니라요. 각간 임종이라는 왕족이 있었는데요. 각간은 진골 이상의 신분을 지닌 왕족이 주로 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임종은 왕족이죠. 왕이 명령해서 임종의 아들로 삼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길달은 왕족의 양아들이 됐으니까 왕족이 된 거죠.

그러면은 비형랑이 보기에요. 내가 부려 먹던 귀신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 같은 벼슬을 하고 나랑 똑같은 왕족이 됐네요. 그러니까는 비형랑에게 인간적인 감정이 있다면, 샘이 나고 질투할 만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길달은 흥륜사 남쪽에 누문 위에서, 누문은 뭐냐 하면요. 가령 송례문이 있으면 송례문 위에 불에 뒹던 그 나무집 같은 부분 있죠. 그렇게 문 위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에요. 길달은 밤마다 문 위에 문루에서 가서 잤다는데요. 왜 그랬냐면 길달에게 문을 만들어라 하니까. 밤까지도 쉬지 않고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야근을 한 거예요.

이거 비형랑하고 굉장히 대조되죠? 비형랑은 아까 밤만 되면은 놀러 나가서, 작작 좀 놀아라 하고 용사 50명에게 외출을 금지하도록 할 정도였죠. 그냥 밤만 되면 귀신들과 노는 사람이었는데요. 길다는 밤에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평왕이나 신라 사람들이 보기에 길달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지만 부지런하고, 비형랑은 그냥 놀다가 일 시키면, 그냥 다리 좀 놔라 하면 뭐 귀신들 부려 먹어서 성과는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노는 사람이니까 좀 그렇겠죠.

그런데 하루는 길달이 여우로 변하여 도망을 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제가 그냥 상상하기에는요. 이렇게 길달이 비형랑과 같은 집사며 왕족이 되었는데요. 비형랑에 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사람들의 신임도 얻으니까, 뭔가 비형랑이 트

집을 잡아 길달을 괴롭힌 게 아니었을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비형랑에게 사죄해야 되겠지만요. 제 상상으로는 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형랑에게 괴롭힘을 받던 길달이 여우로 변해서 도망을 갔는데, 비형랑이 귀신들을 시켜서 길달을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이 귀신들은 비형랑하고 명목상 친구였지만, 길달하고는 같은 귀신으로 더 가까운 친구였는데요. 근데 이제 비형랑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들의 친구를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 좋은 비유지만 학원 폭력에서 우정을 빙자하여 이루어지는 따돌림과 학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피해자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상황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귀신의 무리는 비형랑의 이름만 듣고도 두려워하며 달아났다네요. 한때 친구였다지만 이런 잔혹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같이 지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비형의 위협 자체가 두려워서라기보다 그 잔인함과 광기가 두려워서 달아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데요. 성스러운 임금의 혼, 이 이야기 안에서는 진지왕이 폭군이었기 때문에, 폭군을 또 성스러운 임금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미묘합니다. 성스러운 임금의 혼이 아들을 낳았으니 여기가 비형랑의 집이다. 날고 뛰는 잡귀의 무리들은 이곳에 머물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 글을 붙여서 귀신을 물리친다고 했는데요.

근데 귀신 입장에서 보자면은, 귀신이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 그냥 다리 놔주고, 이렇게 또 열심히 공사 현장에서 밤늦도록 일하고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요. 귀신이라는 그저 그 이유로, 너는 귀신이니까 인간과 어울릴 수 없고, 이렇게 잡아 죽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좀 슬픈 게요. 이렇게 다른 세상에 속한 존재가 신라 땅에 와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허용하지 않고 이런 편견 때문에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형랑처럼 비인간적인 인간들과, 반면에 길달처럼 인간적으로 훌륭한 요괴나 귀신들 그런 주제가 삼국유사에는 곳곳에 이렇게 좀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비형랑은 귀신과 친구였지만 그러나 잔인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비형랑과 길달은, 집사라는 같은 벼슬을 하고 이제 왕족의 아들 또는 이제 양아들이었죠. 그리고 신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했어요. 근데 왜 길달은 비형랑에게 죽임을 당했는가? 저는 비형랑의 질투심 내지는 가혹한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미완의 신화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형랑은 성스러운 왕의 아들, 신비한 출생 그렇지만 이거는 진지왕의 손자였던 무열왕에 속했던 가계의 밝은 면, 신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이제 귀신을 부리는 이런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밝은 면과요.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 면, 제가 말씀드렸던 폭군에 가까운 그런 폭력적인 특징도 있지요. 그래서 비형랑이라는 캐릭터는 선한 모습이나 그런 면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어두운 면을 같이 갖고 있죠. 좋게 말하면 입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주목해서 캐릭터화가 이루어졌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3개 정도 링크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 위에 있는 두 개를 각자 보시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맨 아래 <대왕의 꿈>은 나중에 따로 볼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기 <대왕의 꿈> 한 장면을 보시면 위가 비형랑이고 아래가 김춘추예요. 어린 시절의 김춘추에 비하면 삼촌 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연배가 적절하죠.

이 비형량이 귀문이라는 조직의 일원인데요. 귀신들하고 놀았다고 하는 걸, 귀문이라는 약간 닌자 비슷한 비밀 조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뭔가 고구려하고 첩보전도 벌이고 여러 가지 활약을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일단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이 노래 있죠. 성스러운 임금의 혼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거를 국악 쪽에서 편곡한 노래가 맨 위 비형량의 <나레가>입니다.

그 <나레가>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요. 노래 자체의 내용보다, 비형량이라는 캐릭터를 여성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현대 콘텐츠들이 이런 식으로 성별을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삼국지의 주인공들 관우 장비도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연희무쌍>이라는 오래된 콘텐츠가 있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비형량을 이렇게 여성으로 만들었다는 게 좀 흥미로웠고요. 이렇게 양쪽에 칼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무리 봐도 디아블로 같은 데 나오는 어쌔신 그런 걸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는 요 대왕의 꿈 사극에 나왔던, 귀문의 우두머리로서 약간 암살자나 닌자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던 비형량의 모습이 나름대로 또 영향을 끼쳐서 이런 콘텐츠가 나온 건 아닐까?

그리고 신라 사람들은 달을 좋아했으니까 달도 뒤에 있고, 나름대로 디테일을 살렸어요. 그리고 비형량의 어머니 이름이 복사꽃을 뜻하는 도화랑이니까, 흠날리는 꽃잎 같은 게 복사꽃 처럼 좀 분홍색이었으면은 더 디테일이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자체가 나름대로 참신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한동안 유행했던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에서 비형량 인물 소개도 각자 찾아보시면요. 캐릭터만 보시면은 뭐 좀 신라 느낌이 안 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신라의 미소년, 화랑 하면은 우리가 좀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났다는 게 순식간에 랜드마크 성을 만드는 능력으로, 그리고 밤마다 성을 넘어가서 놀았다고 했으니까 담을 뛰어넘는다는 능력을 부여했죠. 그러면 건축이나 건설 쪽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무한 페인트라는 특기를 부여했는데, 다른 영상을 보니까 무한 페인트 기능을 이용해서 유튜버들이 비형량 캐릭터를 홍보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건축은 비형량이 아닌 길달과 귀신들의 업적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모두의 마블> 캐릭터는 부분적인 유사성을 충실히 잘 살렸습니다.

결국 <대왕의 꿈>에 나오는 요 비형량이 그 이후의 콘텐츠에 나름대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위의 <나레가> 노래 배경 장면에 있었던 캐릭터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간간이 등장하는 비형량은 저렇게 비밀스러운 군사 활동을 벌이는 존재로 묘사될 때가 꽤 있었습니다.

### 3. 수로부인과 용왕의 정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수로부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나중에 처용의 정체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수로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일단 금관가야를 세웠던 김수로왕 하고 한글로는 똑같습니다. 한자로는 조금 달라요. 수로왕은 머리 수 자를 썼고, 수로부인은 물 수 자를 썼는데요. 이거는 한자의 뜻보다는 한국어로 소리 나는 대로 썼을 가능성도 커요. 그러므로 한자가 조금 다른 거는 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소리 나는 대로 썼다가보다요. 수로왕의 수는 머리잖아요. 그리고 수로부인의 수는 물. 머리하고 물하고 ㅁ, ㄹ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음을 이루는 요소가 ㅁ, ㄹ

로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뭔가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다르게 쓴 게 아닐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김수로왕을 맞아들일 때 불렀던 <구지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수로부인이 납치당했을 때 부른 해가라는 노래가 <구지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북아 거북아 이렇게 시작해서요. 주인공의 이름도 그렇고 이야기에 나오는 노래도 그렇고, 뭔가 수로 부인과 김수로왕이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상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등장합니다. 수로부인 이야기에는 노인이 두 사람 나오는데요. 이 노인들이 실제 노인일까 아니면 뭔가 좀 상징적인 존재를 이렇게 노인의 모습으로 이야기한 것일까? 또 그런 부분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로왕과의 관계 그리고 거북이가 나오는 노래 이렇게 두 가지 요소에 좀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성덕왕 때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순정은 남자 이름 치고는 약간 중성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길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옆에는 바위 봉우리가 병풍과 같이 바다를 둘러 높이가 천 길이나 되고, 그 위에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절벽이 있고 철쭉꽃이 있는 그런 풍경이죠.

순정공의 부인 수로가 그것을 보고, 좌우 사람들에게 저 꽃을 꺾어다 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다들 사양했어요.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입니다. 귀부인 수로가 이렇게 어디 가는 길에, 주위 사람들한테 저기 절벽 위에 철쭉꽃이 참 예쁜데 저거 좀 꺾어다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갈 길이 바쁜데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귀찮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수로부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길이 험해서 알 수가 없다. 모두 사양했는데 한 노인이 암소를 끌고 지나가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 꽃을 꺾어와 이런 노래를 지어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을 보면, 암소를 끌고 지나간다는데 이것 자체가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노자 아시죠 도덕경이라는 책을 쓴 노자. 노자라는 사람이 세상이 시끄럽다고 나중에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자취를 감출 때 소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소를 타고 사라진 노인 노자와 여기서의 노인은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 소는 불교에서도 나름대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십우도>라고 해가지고 10마리의 소가 있는 그림인데, 이 소 그림의 순서가 부처님이 되어가는 각각의 단계를 뜻하기도 해요. 불교의 목표는 극락왕생한다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바로 부처님이 되어가는 각자 자신의 깨달음을 얻는 게 불교의 목적이거든요. 불교는 자신을 바꾸려는 그런 뜻이 큰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이 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소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래서 <십우도>는 그 10가지 소 그림을 통해서요. 원래 소가 나한테 있었는데 어딘가 사라졌다가 다시 찾는 과정을 10가지 그림으로, 일종의 만화적인 구성처럼 표현하고 있어서 재밌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깨달음의 가능성을 소에다가 비유하여 표현했던 그런 전통이 불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 노인을 불교적인 존재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현실적인 존재일까, 비현실적인 존재일까? 비현실적인 존재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노자가 소를 타고 사라졌으니까 신선이야. 도교에서 얘기하는 신선이죠. 아니면 불교에서 나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소에다가 비유하는 전통이 있었으니까, 저 노인은 보살이야.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소를 끌고 가는 노인은 시골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막 보여요. 저 노인은 현실적인 실제 노인이다. 그냥 실제 노인이 소를 끌고 가다가 보니, 귀부인이 꽃 좀 하나 꺾어 달라는데 사람들이 그거 하나 안 해주나?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꽃을 꺾어다가 준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못 올라가는 절벽을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노인이 초능력자가 아니냐? 신선이나 보살 같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냥 시골 노인이니까 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샛길 같은 것을 알고 있어서, 샛길로 이렇게 올라가서 꽃을 꺾어다가 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냥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젊은 사람들이 꽃을 꺾어다 주지 않은 것은 귀찮아서겠죠. 그리고 노인이 꺾어다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골길을 잘 아는 현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정도로 이 이야기를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진실이나 사실이라는 거는 가장 단순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냥 주위 사람들이 수로 부인의 부탁을 귀찮아서 거절했지만, 지나가던 시골 노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름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원을 들어준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려 있는 시도, 이게 좀 뒤에 이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노인의 <헌화가>, 노인이 꽃을 바친 노래는 이래요. 붉은 바윗가에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주어는 시답게 생략돼 있어요. ‘수로부인이’ 붉은 바윗가에 ‘내가’ 잡은 암소를 놓게 하시고. 이런 문장에서 전체 주어인 수로부인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것도 생략돼 있고, 내가 잡은 암소를 놓게 하시고 했을 때 나도 생략돼 있어요. 주어는 다 생략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 일어났다는 게 더 중요하고, 주어가 무엇인지는 굳이 적지 않았지요.

내가 잡고 있는 이 암소를 놓게 하신다면, 그리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예, 주어는 다 생략했는데, 여기 목적어는 나를, 꽃을, 이렇게 차근차근 다 써주고 있죠. 그래서 당신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늙고 시골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 꽃을 꺾어서 바치겠습니다. 뭔가 간결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런 노인이 이런 귀부인을, 더군다나 남편도 있는 귀부인에게 이런 꽃을 바치면서 수작을 한다는 게 윤리적으로 어긋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인이 정색하고 수로부인을 스토킹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주변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저 아름다운 귀부인의 소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니! 나라도 뭔가 좀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거는 그냥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잠깐 일탈하는 그런 정도의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지요. 이걸 가지고 정말 수로부인과 노인이 마음이 통했다. 노인의 짝사랑이다. 그렇게까지 보는 거는 그것대로 좀 과한 집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뭔가 남녀 관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정도의 좀 일상적인 일탈은 그 당시 기준에서는 좀 가능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뭔가 모르는 사람끼리도 우연히 만나게 되면 친해져야겠다. 그거는 옛날 감성이예요. 옛날 감성이기는 한데, 이것만 놓고 보면 뭔가 신비한 얘기는 하나도 아니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일상적으로 있는 이야기고, 잠깐 노인이 이제 뭔가 즉흥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귀찮아하는 귀부인의 부탁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꼭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이야기라고만 보기에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용도 나타나고 굉장히 좀 비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틀 뒤에 임해정이라는 곳에서 수로부인 일행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바다의 용이 갑자기

기 부인을 끌고 바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임해정이라는 곳이 지금은 강원도 삼척 지역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강릉 옆에 있는 삼척, 이야기 속에서 지금 강릉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다음 시간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척에 가보시면 수로부인과 바다의 용을 조각한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수로부인과 바다의 용을 그렇게 조각해 놓은 공원을 가보시면 철쭉꽃 동산까지 재구성해놨습니다.

여기서 바다의 용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용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용은 용왕입니다. 글자 그대로 용왕할 때 용은 용이에요. 용왕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수로부인을 납치해가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또 노인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요 노인이 아까 이제 꽃을 바친 그 노인하고 동일 인물이라는 설도 있었는데요. 근데 원문에 분명히 또 한 노인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노인입니다.

아무튼 또 노인이 나타났었고, 도와주는 말을 하죠. 옛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했단데요. 여러 사람의 말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끔찍한 예이기는 한데요.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 사람의 말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여론으로 나타날 때도 있죠. 이렇게 엄청난 힘도 발휘하고, 그래서 하여간 언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저런 발명품들보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보지 않고 악플을 달고 하면, 나중에 부끄럽거나 후회할 만한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여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 말은 쇠도 녹인다. 그러니까 바닷속의 용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백성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치래요. 막대기로 언덕을 치는 건 신화에서 김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해 했던 행동하고 똑같거든요. 그 말대로 했더니 용이 부인을 받들고 바다에서 나와 바쳤단데요.

그래서 바닷속에 어땀냐? 하고 물어보니까요. 지상에서는 참 어떻게 이 수로부인을 구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아주 잘 지내다가 왔죠. 칠보 궁전의 음식은 다르고, 부드러우며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애기만 해요. 먹방 찍고 왔어요.

땅에서는 그냥 난리가 났는데 한가롭게 그냥 실컷 먹고 이렇게 돌아온 거죠. 수로부인의 옷에는 이상한 향기가 풍겼는데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로부인은 용모와 자색이 뛰어나서,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 여러 번 신물 실망스러운 존재들에게 붙들려 갔단데요.

예. 그러면 이게 ‘여러 번’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와 앞에 있는 이야기까지도 수로부인과 신령스러운 존재들의 접촉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용왕이 수로부인을 납치했다가 돌려주는 이야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노인과 수로부인 사이의 이야기도 평범한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 얘기가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닌데, 그냥 제 추측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앞의 <현화가> 노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데, 수로 부인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초월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용왕의 납치 이야기하고 나란히 엮어서, 저 노인도 우리가 봤을 때는 비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런 소문을 낸 것으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였는데 신비로운 이야기와 함께 묶어서, 여기에 등장하는 노인도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겠냐 그런 식의 이제 좀 소문을 퍼뜨렸던 거죠.

그럼 왜 이런 소문을 번거롭게 퍼뜨리느냐? 그 이유는 수로부인의 남편 순정공이 강릉태수

로 부임해서 가는 길인데요. 저 때 강릉에 인심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수도 경주의 왕권 혹은 수도권 귀족들에게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순정공이 이런 이야기를 퍼뜨려서, 내가 데리고 가는 이 수로부인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고 신령스러운 존재들도 욕심을 낼 만한 그런 대단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부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힘을 봐서라도 강릉 지역 주민들이 좋은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퍼진 것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이거는 <해가>라고 부르는 노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이 꽃을 바친 노래도 그 아래 실려 있어요. <해가>의 가사는 <구지가>랑 비슷해요.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아내 빼앗는 죄 얼마다 크냐? 너 만약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겠다.

<구지가> 기억나실까요? 거북아 거북아 이름을 부른 다음에, 머리를 내놓아라 명령을 내립니다. ‘내놓지 않으면’ 하는 말로 조건을 달고요. 구워 먹겠다. 결말도 똑같죠. 이게 이제 조금씩 내용만 추가됐을 뿐이지, 사실은 <구지가>하고 똑같은 노래예요.

그러면 기원 전후에 있었던 <구지가>라는 노래가, 왜 700년이나 흘러서 강릉 가는 길에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가? 도대체 수로 부인은 어떤 존재인가? 근데 수로라는 이름은 말이죠. 수로부인이 아마 수로왕의 금관가야 쪽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관가야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구지가>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일찍이 신라한테 멸망당한 금관가야 왕조의 건국 신화와 노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느냐?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 출신들이 큰 활약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유신 장군도 금관가야 출신이었잖아요. 나중에 김유신의 후손들은 몰락하기는 하지만요.

여기서의 <해가>라는 노래 자체는 서기 700년경,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한 세대 정도 뒤의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금관가야 출신들이 뭔가 이런저런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군사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수로부인이라는 금관가야 출신 여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였고, 여러 가지로 권능을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출신을 보여주는 노래가 이런 과정에서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설화나 이런 일들을 소문을 내세요. 강릉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나름대로 얻으려고 했던 자취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부인의 정체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금관가야 출신 왕족이었지만, 강릉 지역에 부임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활용하여 나름대로 민심을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지금 대략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는데요. 금관가야 시조 김수로왕과 수로부인은 동명이인입니다. 여기 구지가의 기록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 통일 무렵에, 대략 7세기 후반에 김유신을 비롯한 금관가야 왕족의 활동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10~20년 정도 지난 수로부인의 활동 연대, 8세기 초반 성덕왕 때 정도면 그래도 아직은 금관가야 출신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신라에 했던 기여를 어느 정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봅니다.

초성 ㅁ과 ㄹ의 의미는, 수로왕의 수는 머리 수 자, 수로 부인의 수는 물 수 자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데요. ㅁ과 ㄹ은 한국어로 용을 뜻하는 미르, 미리 등의 말에도 들어 있죠. 또 용

은 아까 보셨다시피 용왕도 있고, 용왕 자체가 물에서 나오는 존재라서 물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로부인의 물은 또 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 미륵선화 읽을 때요. 우리가 화랑을 미륵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화랑을 미륵이라고 보았던 옛날에는 화랑이 용을 상징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미르하고 미륵의 발음이 좀 비슷하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륵이라는 존재 자체가 용하고 같이 다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로 부인은 첫째로 금관가야의 맥, 둘째로 머리, 미르, 물 등의 의미망을 통해 연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고대 한국문화의 흔적을 증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거를 공간적으로 잘 구현한 게 삼척에 있는 수로부인 현화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콘텐츠 쪽을 살필 때 말씀드리죠. 삼척 수로부인 현화공원이 갖고 있는 수로부인이라는 상징을요. 대개로 유명한 경북 영덕 지역에서도 내세우려는 시도를 얼마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영덕에 철쭉이 많이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로 부인이 꺾어다 달라고 했던 철쭉이 영덕에 있는 철쭉이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철쭉은 삼척이나 영덕이 아닌 다른 곳에도 많이 있어요. 요 앞에 사진 보시면요. 여기도 수로부인이 꺾어달라고 하기 딱 좋게, 그렇게 철쭉이 피어 있죠? 여기 큰 산봉우리도 있고요. 이게 어디냐 하면 경남 산청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산청 지역도 이렇게 수로부인이 우리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우길 수가 있어요. 수로부인은 나오지 않지만 산청에서도 봄에 철쭉 축제 크게 합니다. 이런 곳은 대한민국 곳곳에 있으므로, 영덕의 철쭉이 꼭 그 철쭉이다 주장하려면 더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문제라고 할지, 한국의 지자체가 이런 시도를 많이 해요. 뭐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고전 문학이나 옛 기록에 나오는 것하고 연결해서 자기 지역의 문화유산을 늘리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거 자체가 다 관광 자원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쟁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악원에서 수로부인 뮤지컬을 6장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길게 만들었는데요. 노인과 용왕의 분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요. 그래도 <현화가>가 핵심이니까 <현화가> 부르는 장면을 링크해 두었으니, 잠깐 같이 보시고 넘어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래를 들어보시면 자줏빛 바위가 자꾸 나오는데요. 저게 뭐냐 하면 철쭉이 피어 있어서 바위가 멀리서 보면 철쭉 색깔인 자줏빛, 사실은 분홍색인 것 같지만 자줏빛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 철쭉이 핀 색깔을 자줏빛 바위라고 풀었어요.

노인의 분장이 너무 산신령님 같았어요. 저것도 소를 끄는 노인이라면 소를 끄는 노인다운 복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시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용왕님도 등장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분장과 의상에 공을 많이 들인 티가 납니다. 이미 저 자체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해서 더 뭐라고 좀 평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4. 희생과 죄책감, 김현감호

그러면은 이제 <김현감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라서 대부분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김현의 아내는 남편 김현과 오빠 호랑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죠. 그리고 김현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서는 이 김현의 죄책감이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다 늙어서 젊었을 때 일을 후회하면서 죄책감 때문에 이 기록을 남긴다는 내용이 거의 끝에 나와서 겨우 알 수 있을 따름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애정소설에서요. <운영전>이라든지 <심생전>이라든지 조선시대 고전소설을 보시면, 여주인공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사랑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겠다는 입장을 곳곳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웬지 그 남자 주인공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좀 소극적이고 자신이 없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좀 그거를 좀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운영전>의 남주인공인 김진사나, <심생전>의 주인공이었던 심생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갖고 있지요. <주생전>의 남주인공 주생도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회피했죠. 거슬러 올라가면 신화 속의 해모수나 환웅, 이런 신의 아들들조차 여주인공에 비하면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시다.

그래서 김현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그런 수동적, 소극적인 남주인공의 전통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김현이라는 캐릭터와는 대조적인 아내 호랑이를 주목할게요. 아내 호랑이는 동물이니까 암호랑이라고 하면 되는 데요. 이 호랑이의 희생이 너무나 고결한 것이라서 짐승을 뜻하는 ‘암’ 이런 말로 부르기가 좀 뭉개서요. 그냥 좀 어색하더라도 여성 호랑이, 호랑이 여성 그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띄엄띄엄 볼게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간은 중춘, 음력 2월입니다. 음력 2월 8일부터 15일이죠. 이게 농사짓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농사짓기 직전에는 이런 식으로요. 지금 발렌타인데이도 마침 2월 14일이잖아요. 여기 2월 8일부터 15일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전에 남녀 간에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대부분의 문화권에 있습니다. 남녀 관계를 많이 맺다 보면 열 달이 지나서 연말쯤 되면 아이들이 태어나겠지요. 그런 것처럼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좀 그런 풍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경 문화권에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한 2월 정도 기간에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흥륜사의 탑을 돌면서요. 김현이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돌았는데 짝을 못 찾았다가 한밤중에 어느 처녀가 염불하면서 따라 돌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 관계를 순식간에 맺게 되는데요. 근데 이 김현이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따라갑니다. 여성을 스토킹해요. 오지 말랬는데도 말 안 듣고 가서, 서산의 기슭에 이르러요.

서산이 나왔죠. 예전에 신라 시조를 낳았다는 선도산 성모를 이야기했었죠. 박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고 하는 선도산 성모의 선도산이 여기 나오는 서산이거든요. 서산은 신라의 건국 시조를 낳았다는 성모가 계시는 거룩한 성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의 아내는 그냥 호랑이가 아니라, 나름대로 신라의 성지에 살았던 영물, 성스러운 존재였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노파 역시 그냥 노파가 아니라, 선도산의 산신령 혹은 성모 그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노파가 누굴 데려왔냐 묻는 말에 사연을 얘기해주니까, 좋은 일인데 없는 것만 못하다 하죠. 근데 벌어진 일을 나무랄 수도 없고, 숨겨놔라 너희 오빠들이 알아차릴까 봐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호랑이 세 마리가 나타나서, 집에 비린내가 나네? 고기 먹겠다며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노파와 김현의 아내가 한목소리로, 참 코 좋기도 하다 미친 소리를 하나 이려고 좀 과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켜기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때마침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게 <삼국유사>에 이따금 등장해요. 이게 좀 ‘데이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라고 하나? 이런 초월자의 개입을 통해서 그냥 해결이 순식간에 돼 버리는 거죠. 너희는 다른 만물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너네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 너네 호랑이들이 평소에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을 많이 괴롭혔으니까 한 놈만 죽어라, 그러니까는 이 세 숫호랑이가 다 죽기 싫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김현의 아내가 나섭니다. 오빠들이 멀리 도망가서 근신한다면 그 별 내가 대신 받겠다. 이러니까 정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다 오빠들은 도망가 버리고, 오빠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김현의 아내가 이제 죽게 된 거죠.

여기서 세 가지 정도의 생각해볼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늘이 개입하죠.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는 공정해요. 호랑이들이 많이 죽였으니까 호랑이도 하나쯤 죽어야겠다. 그렇지만 공정한데 안 공정하죠. 그러면 죄를 지은 새 오빠들이 죽어야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여성 호랑이가 죽을까요? 물론 오빠들하고 같이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이야기 안에서는 아무 죄도 없는 여성 호랑이가 죽는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게, 우리가 만인 앞에 평등한 게 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평등하지는 않잖아요? 조금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 하늘의 개입이라는 게 어떤 법치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을 보여주죠. 표면적인 공정함을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이제 법꾸라지라는 말도 한동안 있었는데요. 법을 알수록 피하는 사람은 피해가고 억울한 사람은 계속 억울한, 하늘의 개입은 그런 법치의 장단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을 대신 받는 장면이요. 오빠들을 위한 희생, 남편의 출세를 위한 희생, 이게 워낙에 많은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에서 이런 식으로 여성의 희생을 묘사하고, 그거를 현모양처라는 등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든 등, 뻔한 말 몇 가지를 통해서 그런 희생을 미화하면서 또 동시에 계속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수백 년 동안 서사물의 큰 흐름이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허구의 서사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큰누나가 공장 다니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또 고시 공부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엄청나게 희생하고 뒷바라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흔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희생해서 남동생이나 남편이 나중에 그만큼 보상해주고 호강시켜주면 나름대로 미담이 될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그런 주머니 받거나 하는 미담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 무렵에는 먹튀가 많았습니다. 누나가 희생했는데, 그래도 뭐 공부는 내가 한 건데? 출세는 내가 한 건데? 라든지 출세해보니까 이제 좀 애인을 바꾸고 환승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여성들이 희생했던 적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여자친구가 로스쿨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엄청나게 했는데요. 졸업하니까 여성분이 환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별을 넘어선 문제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희생과 헌신의 서사가 수백 년 동안 여성들을 억압했고, 지금은 이제 그 성별을 넘어서서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런 독박을 쓰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 이걸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 호랑이의 마음하고 남편 김현의 마음이 미묘하게 달라요. 여성 호랑이가 희생하기로 해서 이제 김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내가 별을 받아서 죽을 것 같으면, 이왕이면 우리 남편 손에 죽어서 남편을 출세시키고 죽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여성 호랑이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비록 같은 종족은 아니지만, 하룻밤의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었으니 의리가 중하여

혼인의 즐거움을 얻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진지한 의리를 우리가 갖게 됐다. 여성은 우리 관계는 부부와 똑같다는 생각에서 큰 결심을 했는데, 김현의 말은 살짝 좀 알미워요. 사람이 다른 사람 사귀는 거는 인류의 도리인데, 사람과 이런 동물이나 정령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존재가 사귀는 거는 떳떳한 일은 아니다. 음,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의 만남은 애초부터 좀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헌신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일까요? 물론 이렇게 수습은 해요. 그래도 이렇게 됐으니 정말 다행스런 일인데, 어찌 차마 배우자의 죽음을 팔아서 벼슬을 바라겠는가? 나는 배우자의 죽음을 팔아서 벼슬할 수는 없다고 하죠.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원성왕이 호랑이를 물리칠 사람에게 2급의 벼슬을 주겠다고 할때요. 김현이 내가 하겠다 하고 나서서 관직을 먼저 받아요. 그냥 관직을 받습니다. 아무런 심리 묘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진실성이 있는 말인지? 우리가 좀 의심해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낭군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으면 하늘의 명령이고 내가 바라고 낭군의 경사고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이다. 미리 생각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짹짹 다섯 가지 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식의 문장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옛날이야기, 그러니까 설화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저거는 이 이야기 자체가 처음부터 글로 쓰여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열거를 쭉 늘어놓는 논법은 처음부터 문장이었던 한문학 쪽에서는 흔하게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동화나 설화, 입으로 하는 옛날이야기 이런 거 보면, 이런 문체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김현감호>가, 그냥 떠도는 설화를 글로 채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이 5가지 이야기를 나열하는 이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현은 관직을 먼저 받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벼슬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호랑이를 김현이 처단한 것으로 이야기를 꾸밈니다. 여기서 약간 좀 뭐 좀 깐다고 할까 김현의 아내는 죽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흥륜사 간장을 바르고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 무슨 약장수나 개인방송 뒷광고도 아닌데요. 갑자기 왜 흥륜사 간장의 약효가 나타나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런 거는 원래 있었던 이야기라기보다, 이 기록을 남겨주었을 흥륜사 쪽의 입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기억해 보면 김현과 호랑이가 처음 만났던 곳도 흥륜사의 탑이었죠. 그리고 호랑이에게 다친 다음에 어찌고저찌고 하는 건 흥륜사의 협찬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게 흥륜사 쪽에서 나온 기록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중에 추가된 게 아닐까 해요. 처음부터 있었다기 보다는, <김현감호>가 창작되고 일년이 훗날 이거를 채록하기에까지의 긴 시간 동안, 흥륜사 쪽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이런 요소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이제 김현이 찬 칼로 여성이 자결하고, 김현은 외칩니다. 호랑이를 쉽게 잡았다! 김현의 심리 묘사도 일절 없고, 뭐 김현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운운하는 내용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그냥 호랑이 쉽게 잡았다.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죠. 물론 사람이 정말 큰 슬픔을 겪게 되면, 눈물조차 안 나오고 이렇게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비정해 보였습니다.

그냥 다 숨기고 흥륜사 간장 바르세요. 이제 사람들도 다 치료가 됐고 지금 민가에서는 이

제 그 방법을 여전히 쓴다고 해요. 다친 상처에는 자기네 연고 바르라는 광고처럼요. 흥륜사 간장을 여전히 바른다는 그런 얘기를 참 자세히도 하는데, 김현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다들 잊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은 벼슬에 오른 다음에, 서촌 그러니까 아까 서산으로 가는 길목에 아내의 친정집이 있었잖아요. 그 친정집이 있었던 곳에 절을 지어서 호원사라고 하고, 불경을 읽게 해서 아내의 저승길을 인도했어요. 호랑이가 몸을 죽여서 자신을 성공하게 해준 은혜에 나름 보답했다는 거죠. 호원사에서 읽은 <범망경>이라는 불경에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거룩한 희생을 했던 김현의 아내의 일생과도 어울립니다.

이게 좀 인상적인 게요. 마지막에 김현은 죽기 전에 지난 일의 기이함에 매우 감동하여 붓으로 전을 써서 세상에서 비로소 듣고 알게 되었다고 했죠. 알고 보니 이 이야기의 서술자 자체가 김현이었습니다. 아까 김현의 내면 심리가 묘사되지 않은 것은, 나름 죄책감에 자신에 대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합니다.

끝에 나오는 논호림이란 이름은, 김현이 지은 작품의 원래 제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감호>의 원래 제목은 논호림, 호랑이와 숲에서 이야기한다는 뜻이지요. 이 이야기가 뭔가 흥륜사의 간접광고 같은 게 나중에 들어온 흔적은 있지만, 김현이 지은 원래 이야기의 모습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 남주인공 김현은 그렇게 바람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쨌건 자기 배우자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서 출세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는지,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런 변명을 하나도 안 했어요. 대신에 여기 여성 호랑이의 심리는, 나름대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었지요. 자기 자신의 심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얼마나 비정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김현의 죄책감이 애써 자기변명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김현은 주인공으로서는 좀 비겁한 남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술자로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부분을 이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로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1인칭 서술자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으면서 아, 김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너무 좀 그렇다. 말하자면 마음속으로 김현 욕을 한참 한 다음에야, 이거 사실은 김현이 죽기 전에 일을 자신이 직접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이걸 알게 되어 마지막에 나름대로 어떤 서술적인 트릭이랄까? 이런 반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고전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도입니다.

여러분들 고전 소설에서 이런 식의 반전을 느끼신 적이 혹시 있는가? 잘 기억이 안 나죠. 대개는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고전 소설은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중간중간 묘사의 흥미를 느끼는 것이지요. 주인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개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요. 예외적으로 <운영전> 같은 비극의 경우는 있지만요. 운영전도 처음부터 주인공들이 귀신으로 나와 결말을 얘기해 주죠. 반전은 없었어요. 이미 읽을 때부터 이제 이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날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처음부터 이미 드러나 있었죠. 김현감호의 반전이 뭐 그렇게 대단한 반전은 아니지만, 약간 이런 서술상의 트릭을 통해서 반전을 시도했다는 것이 후대 문학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면이죠.

김현이라는 캐릭터는 남자 주인공으로서는 우리가 좀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서술자로서 굳이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의 자서전에 흔

히 있는 자기 자랑이나 자기변명이 없어요. 서술자 김현은 자신의 약점을 굳이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라도 그때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 김현 나는 울면서 그 자리를 나왔어. 이런 얘기 붙일 법한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심적인 서술자라는 굉장히 드문 캐릭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감호> 바로 다음에요. 이거와 대비되는 신도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서 실려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신도징의 아내는 친정을 계속 그리워해요. 하지만 나중에 친정집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하루 동안 울다가 병 모퉁이에 호피 한 장을 보고 크게 웃으면서 호랑이가 돼서 신도징을 떠났습니다. 말하자면 이혼한 거죠. 자기가 원래 호랑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편찬차 일연은 말합니다. 슬프다 신도징과 김현 두 사람이 짐승과 혼인한 것은 똑같았지만, 왜 신도징의 아내만 사람을 배반했느냐? 그러니까 희생을 한 김현의 아내는 너무나 훌륭했지만, 중간에 남편을 버리고 떠난 신도징의 아내는 남편을 배반한 거니까 이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의 본성이 있더라도 부처님 덕분에 김현의 아내가 그럴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수백 년 전 사람이었던 일연의 입장에서야 당연합니다. 열녀 좋아하는 조선시대 양반 남성들 생각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 기준에서는 김현의 아내가 거룩하고 신도징의 아내는 의리가 없는 호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요. 결혼이라는 제도가요. 제도라고 해야 될지, 일단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가족 관계에 얽매어서 희생양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남성 여성을 떠나서 일단 형제든 가족이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는 좋은 가족 제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이런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가족들이 있었을 때 가능한 얘기고요. 제 아버지 세대만 해도 저렇게 헌신 덕분에 혜택을 입은 가족들이 뒤통수를 치는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희생양이라는 게 좋지 않고 오히려 신도징의 아내처럼 뭔가 억압을 떨치고 자신의 삶을 찾아나선 이런 호랑이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신도징의 아내를 오히려 주체적인 호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문학에서는 원작자, 편찬자가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기준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개 고전문학 연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편찬자의 기준에 뭔가 절대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 저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한다, 원작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수용 미학이나 독자 반응 비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작자 중심의 기준만 갖고 보면 그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도그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편찬자의 생각을 벗어나서 이 텍스트들을 오늘날의 우리들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김현의 아내는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죠 그러나 너무 불쌍해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좀 더 효율적인 가치관은, 신도징의 아내처럼 주체적인 호랑이의 모습이겠죠. 가정이건 직장이건 이제 우리의 원래 상태를 억압하고 나를 더 이상 '나'가 아닌 다른 존재로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그런 공동체의 억압은 이제 떨치고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호랑이라고 나왔지만, 호랑이로서 자기 본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직장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나 다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느라 원래 나 자신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를 김현의 아내와 신도징의 아내 각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젊은이의 양지>라고 하는 소설 원작의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원래 사랑하던 여성이 있었는데 출세하겠다고 이 여성을 버리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는 동서고금에 굉장히 많은데요. 원제는 이게 아니라 ‘미국의 비극’ 그런 제목이었는데 약간 초월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에게 헌신했던 여성을 버리는 그런 서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김현감호>는 뒤의 신도징의 아내 이야기와 겹쳐 봐야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 볼 점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냥 거룩한 희생이 등장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런 희생이 오늘날에도 과연 유효한 것인가?

저런 헌신을 하라고 맨날 야근시키고 죽도록 부려 먹으면서, 일본에서는 가축 비슷하게 사축(社畜)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제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은 가축이고 회사의 노예가 될 존재는 사축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요. 하여간 그런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반드시 옳은 일인지? 옛날에는 이제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서 하는 희생이 대표적인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김현감호>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김현이라는 사람이 남주인공으로서 굉장히 비정했지만, 서술자로서는 또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김현 같은 그런 사람의 삶을 전적으로 존중할 수는 없겠죠.

## 5. 내부자가 되지 못한 처용

수로부인 이야기 후반부에 동해 용왕이 나왔지요? 그 용왕과 동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동해 용왕이 처용의 아버지로 나오거든요. 별개의 작품이니까 똑같은 캐릭터는 아니지만요. 신라 사람들이 동해 용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로서 성격을 부여하려고 했어요. 비형랑 이야기의 길달도 그렇고, 지금 본 김현의 아내도 인간이 아닌 존재지만 인간 이상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발휘했지요. 처용 역시 순수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인간다움을 지니고 인간 세상의 내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처용 설화를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단락 보시면은, 현강왕 때 서울에서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연이어져 있었고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랫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고 바람과 비는 철마다 순조로웠다. 이런 거를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하죠. 그래서 현강왕 때는 태평성대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향락에 너무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나라가 마침내 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결국 처용 이야기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태평성대였지만 사실은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향락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태평성대지만 사실은 사회가 굼아가고 망해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주제가 이 처용 이야기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처음에 개운포 학성, 울산 지역입니다. 울산에 가서 놀다가 안개가 끼서, 이게 뭐냐? 하고 주변에 물어보니까요. 이걸 동해용의 조화랍니다. 용을 위해서 절을 지어주었더니 구름이 개고, 동해 용이 기뻐해서 일곱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 중에 하나 처용이 신라에 정착해서 임금을 돕게 됐다는 거죠.

현강왕은 처용의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처용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역신이 짝사랑했답니다. 역신이란 전염병의 신이에요. 의인화된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전염병이 밤중에 아내와 동침을 했다는 말은요. 처용의 아내가 병에 걸렸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전염병에 걸린 것을, 역시 그녀를 흠모해서 이렇게 잠자리에 같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한 걸로 이제 보통 보죠.

그런 장면을 본 처용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동경 밝은 날에 밤들이 노닐다가, 논다는 건 처용을 굿하고 다닌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밤새도록 논다는 것은, 굿을 하는 거를 논다고 표현해요. 굿놀이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밤새도록 굿을 하는 게, 직업상 야근하다가, 밤새도록 노동하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전염병의 신과 바람 피고 있더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네. 사람의 다리가 여럿 보이는데, 둘은 내 아내 것이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내 아내의 다리니까 내 것이라고 그냥 표현한 거죠. 본래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할꼬?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는데 화를 내지 않고, 뭐 빼앗긴 거를 어찌나? 하고 약간 달관 혹은 체념하는 모습으로 역신을 용서하는 거죠.

이렇게 용서하니까 역신도 역시 감동해서, 앞으로는 처용의 얼굴을 그린 것만 봐도 그 집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처용의 얼굴은 탈의 형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빛이죠. 검붉은 얼굴을 하고 코와 턱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진짜 전염병의 신이 보고 놀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어서 남산의 신도 나타나요. 남산의 신이 나타나서 춤을 추었는데, 신하들은 보지 못하고 왕이 혼자 봤다네요.

또한 북악의 신도 나타납니다. 북쪽의 신이 나타나서 또 춤을 추는데요. 중앙을 상징하는 지신, 땅의 신 역시 마찬가지로 궁궐에 나타나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 여러 방향에서 신들이 나타나 경고합니다. 처용은 동쪽에서 나타났고 다른 신들보다 분량이 좀 길기는 한데 결국 이것도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전염병을 경고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아내가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외도를 한 것이라면 윤리적인 타락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죠. 어떻게 봐도 처용가는 신라 사람들에게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남산의 신도 나라가 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북쪽의 신과 지신도 다 나타나서 나라가 망할 것을 경고해요. 마지막으로 <어법집>에서 암호 풀이 비슷한 말로 신비롭게 그 경고를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지신과 산신들은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았으므로 춤을 추어 경계했는데요. 처용 역시 노래와 춤으로 경계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전염병이나 사치스러운 거나 윤리적인 타락이나, 나라가 장차 망할 조짐이라며 경고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락에 너무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됐다는 거죠. 처용 이야기는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쪽은 안 나왔죠? 서쪽이 왜 안 나오냐 하면 너무 멀어요. 서쪽에 해당하는 성산이 계룡산이었는데요. 계룡산은 경주에서 멀죠. 그래서 안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남북과 중앙을 거쳐서 나라가 망하는 재난을 피해보려고, 현강왕이 여기저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때마다 신이 나타나서 춤을 추니까 왕은 경고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는 상서로운 조짐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을 먼저 볼게요. 처용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1980년대에는 무당으로 보는 관점이 좀 우세했어요. 우리가 무당이나 굿 이런 거를 뭐가 민중 예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민중 예술인 굿을 구현했던 무당이라는 점에 가장 주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녔던 90년대에는 지방자치라는 게 큰 화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용은 지방 호족의 자제다. 울산 지역 호족의 아들이었는데, 경주 땅에 인질로 잡혀와 역지로 정략결혼을 하고 경주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외도하는 이런 장면에서조차 화를 내지 못하고 빼앗긴 거를 어찌나 하는 태도 자체가, 뭔가 패배주의에 빠진 이제 그런 사람의 모습이겠다. 이런 게 그러니까 지방 호족의 자제가 서울에서 탄압을 받았던 거라는 거죠. 지방자치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중앙정부와는 구별되는 지방만의 특징이나 개성을 찾으려는 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울산 지역의 역울한 지방 호족 자제로서 처용이라는 캐릭터가 흥미를 끌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문화의 시대가 되면서, 처용은 이슬람 상인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더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이란에 가면 <쿠쉬나메>라는 서사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슬람 계통의 인물이 신라에 와서 결혼하고 살아가는 그런 서사시거든요. 그래서 <쿠쉬나메>가 직접적으로 처용과 관계가 있지 않냐 하는 소식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21세기에는 특이한 용모를 처용탈로 남긴, 이슬람 상인으로서의 처용의 속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처용이 이슬람 상인이라는 얘기는 사실 196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학설이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는데, 시대가 이렇게 다문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처용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입장이 더 힘을 많이 얻고 있죠. 그래서 제가 80년대는 이렇게 좀 들은 얘지만 90년대하고 21세기는 제가 이렇게 연구자로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니까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용의 정체는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시대가 뭘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처용의 정체가 달라져 온 거죠.

2번에 울산에서 제작한 처용가 애니메이션은요. 또 다른 처용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 시대에 발맞춰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힙합, 비보이, 퓨전 국악, 춤 배틀, 처용 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데요. 도깨비들이 서양 음악을 연주하며 말썽을 부리니까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처용이 처용탈을 쓰고 노래와 춤으로 도깨비들을 퇴치해요. 아무래도 울산시에서 제작한 것이고 약간 한국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도깨비들이 하는 비트박스나 랩 같은 서양 음악은 뭔가 좀 그런 것이고, 처용이 부르는 퓨전 국악을 많이 사랑해달라는 그런 사심이 약간 들어가 있기는 해요. 처용의 근본 역할 중 하나였던 한국 음악과 문화의 수호자 역할이 뒤늦게나마 주목받은 사례로서 눈길이 갑니다.

허혜정이라는 분이 쓴 책에서도 실크로드나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 같은, 이슬람 문화와 얽힌 무슬림으로서 이제 처용을 보려고 하는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처용의 문화와 실크로드를 연결해서 보자. 그런데 실크로드나 어떤 동서 교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다큐멘터리로 충분한 공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굳이 처용 갖고 실크로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우리가 간접 체험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보다 이 책에서 더 주목할 점은 처용의 아내입니다. 처용의 아내를 팜프파탈이라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수로부인 그리고 화랑 이전의 원화도 그랬지요. 이런 식으로 여성이 지닌 아름다움이 그 자체로서 현실적인 힘이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게 신라 사람들의 가치관에 크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처용 아내가 전염병의 신이 반할 정도의 미모를 갖고 있었다. 그것이 수로부인이 갖고 있었던, 동해 용왕이 한눈에 반할 정도의 미모,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용 아내라는 캐릭터를 더 개발한다면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 책에 처용 아내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다음으로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하고 연결해 보자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이 아직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지만, 일단 처용의 아내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 각각의 시대 정신을 나름대로 이 처용이라는 캐릭터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처용이라는 캐릭터를 바라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6. 만파식적과 동아시아의 예악

<만파식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파식적의 파는 풍파, 어려움을 이기면 우리가 풍파를 이기고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는 거죠. 식이라는 거는 쉬다 라는 뜻입니다. 멈추는 거를 우리가 휴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들을 멈추게 하는 적 피리,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는 피리라는 거죠.

우선 배경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신문왕 때입니다. 신문왕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아들이거든요.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고자 이 절을 처음으로 짓다가, 다 끝나치지 못하고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됐다. 동해 용이 또 나와요. 수로부인에도 나왔고, 처용의 아버지도 동해 용이었던데요. 이번에는 문무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가 실은 가장 앞선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본 동해 용이 등장하는 세 편의 얘기 순서가, <만파식적>이 맨 처음이고 그다음에 <수로부인>, 마지막이 <처용>입니다.

문무왕이 일본을 진압하고자 바다의 용이 됐는데, 그 아들 신문왕이 대왕암, 이견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감은사라는 절에서 동해바다 쪽을 보면, 멀리 대왕암이 보인다고도 하는데요.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옛말이죠.

만파식적은 문무왕하고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이 연결되어서 신문왕에게 준 보물이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웅들을 소환하는 첫 번째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적인 상징이 교체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신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었어요. 신라 3보라고 하는데요. 불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황룡사에 있었다는 큰 불상과 9층짜리 목탑 그리고 진평왕이 하늘에서 받았다는 옥으로 된 허리띠입니다. 이런 불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신라 3보가,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유교의 예악에 가까운 것이므로, 소리로서 천하를 다스린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예절로만 움직이면 사람을 굉장히 긴장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음악이라는 거는 사람을 풀어지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죠. 그래서 예와 악을 합쳐서 사람이 예절도 바르게 되고 또 건전한 음악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자를 비롯한 유교 사상가들은 세상에 음악이 아름다우면 그게 태평성대고, 음악이 음란하고 저질스러우면 난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였는데, 아까 우리가 본 처용가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죠. 서양 음악, 비트박스, 힙합 이런 게 막 있으면 난세고, 퓨전 국악을 사랑해야 태평성대다 그런 의식을 좀 전의 애니메이션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파식적이라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유교로 나름대로 이제 시대 정신이랄까, 불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데 어떤 종교의 영역과 정치사상의 영역을 구별하기 시작하자는 그런 의도가 이제 만파식적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타나는 과정도, 용이 이 피리를 갖다주는 걸로 돼 있고요. 뭔가 주술적인 아이템에 가까운 효과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요. 이게 이름으로만 유교적인 상징이지, 실질적

인 역할은 굉장히 주술적이고 신비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머리를 써서 살아라 하니까는 머리로 이제 못을 박는 그런 드립처럼, 피리를 통해서 음악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했는데, 음악이 아니라 피리 자체가 이제 뭔가 신통력을 가진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돌아가신 부왕 문무왕께서 바다의 용이 되어 삼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도 33촌의 아들로서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인 문무왕과 김유신, 삼국 통일의 두 영웅이 좋은 보물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견대라는 곳으로 가서요, '이견' 역시 주역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좀 유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견은 '이견대인' 해가지고 대인을 만나니 이롭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신성한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신성하거나 이제 뜻깊은 만남 만파식적을 만나는 것 자체를 뜻깊은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주역의 이견 대인에서 이견을 따다가 이렇게 제목을 단 거죠.

산이 하나 떠내려오는데 산의 형세가 거북이 머리 같고 그 위에는 한 줄기 대나무가 있었는데 이 대나무가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하나가 되었다. 이거는 둘이 되는 거는 짝수, 짝수를 음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건 홀수, 홀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짝수하고 하나 홀수 이게 이제 낮에는 이렇고 밤에는 이렇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음양의 변화거든요. 이제 음과 양이 계속 변하는, 서로를 따라서 변하는 장면이요. 한국의 태극기 한가운데에 있는 태극이 그거거든요. 음과 양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휘돌면서 위치를 바꾸는 태극은 종이에 정지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게 가운데가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동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게 이제 음양설이고, 음양설은 이제 꼭 유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요. 유교에서도 이제 음양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일설에는 산도 밤낮으로 합치고 갈라지는 게 대나무와 같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보태면 산 한가운데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와 산이 함께 낮에는 둘로 쪼개졌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지고, 다시 낮이 되면은 둘로 갈라지고, 이런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선이라고 생각할 점은, 만파식적은 둘로 갈라진다. 이게 나중에 속편이라고 할까, 다른 기록에서 이 기능을 활용해서 납치된 화랑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상징적으로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였을 텐데요. 신라 사람들은 '이게 둘로 갈라진단 말이야? 둘로 갈라지는 것 자체가 이 아이템의 기능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설화를 만들게 된 거죠. 이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회수되는 복선이예요. 이게 나름대로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를 얻어 가지고 참 멋있는 비유를 합니다. 박수칠 때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안 나고 두 손으로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대나무라는 물건은 합쳐져야 소리가 난다. 성왕께서 소리으로써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다. 소리으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교의 예악 사상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 자체는 유교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말인데요. 여기 보시면 용이 만파식적을 주면서 옥대도 하나 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효소왕이 되는 태자가 이걸 보고, 이 옥대의 여러 쪽들이 모두 진짜 용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냐? 하니까는 쪽 하나를 떼어서 물에 넣어보세요. 해서 시냇물에 넣었더니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자리가 연못이 됐어요.

무슨 포켓몬도 아니고? 이렇게 떼서 던지면 용이 되고, 휴대용 용이네요. 편리하죠.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는 것 자체가 유교적인 현실주의와는 굉장히 또 거리가 있는 그런 서술

이죠.

그리고 정말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게 아니라,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뭄에 비가 오고 장마는 개고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평온해져? 그러니까 만파파파식적이라고 더 높여서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인데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속편을 보시면 여기 부레량이라는 사람이, 실레량이라고도 하는데 납치를 당했어요. 북명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북명이 이름이 생소하시죠? 이게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보면은 신라 북쪽에 이런 나라가 있는 것으로 서술이 될 때가 있어요. 신라의 위치를 보면 아마 동해나 말갈 쪽을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북명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간혹 등장합니다. 그래서 납치를 당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이제 한탄하고 있는데 만파파파식적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부레량의 부하 안상이라는 사람이 다 구해왔는데요. 어떻게 오냐 하면 만파파파식적을 두 쪽으로 나누어 각각 한 쪽씩 타고, 자기는 거문고를 타고 와요. 신라의 악기는 뭘가 교통수단인 것 같죠?

이쯤 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만파파파식적이 둘로 갈라진다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씩 타고 오랑캐들의 나라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파파파식적이 갑자기 안 좋은 태도를 보이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알아보니까 사람들에게만 베풀을 주고 거문고와 피리한테는 베풀을 안 줬다. 그래서 애내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네요.

그러니까 이 만파파파식적이라는 피리와 여기 등장하는 만파파파식적의 친구 거문고는, 물건이지만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이 사람들을 도운 것이므로 그거는 베풀을 줄 만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의인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베풀도 받고 자기의 감정 상태나 기분도 표현하는 인간에 준하는 존재로 만파파파식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몇 년 전에 경주고등학교 영화 제작반에서 <만파파파식적> 설화를 영상으로 만든 게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음악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런 걸 내세우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읽어봤다시피, 더 정확히 말하면 음악이 아니라 악기죠. 악기 자체가 권능이 되는 신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수단이나 무기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옛날 판타지 소설에 등장했던, 의지를 갖고 있는 마검 같은 물건이지만 나름 인간에 준하는 존재로서 만파파파식적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물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로서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해서 만파파파식적까지 함께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 7. 정리

정리합니다. 비형량은 귀신의 친구였지만, 친구를 죽인 비정한 인물이고 오히려 길달과 귀신들이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수로부인은 신라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존재였지만, 금관가야 시조였던 수로왕과 이름이 같았고요. 여러 곳에 등장했던 동해 용왕과 인연이 깊었지요. 김현의 아내는 인간을 넘어선 거룩한 희생정신을 지녔지만, 함께 나왔던 신도징의 아내와의 대조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가족이 갖는 의미도 살렸습니다.

처용의 정체는 이렇게 시대적인 화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었고요. 만파파파식적은 유교적인 예악론을 시도한다고 말만 그랬지. 대다수의 신라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국가적 상징에

그런 윤리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권능, 신비롭고 초월적인 힘을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만  
파식적이라는 약간 캐릭터성이 있는 사물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18분)

O/X 퀴즈(5분)

1. 비형량의 귀신 친구 길달은 진평왕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비형량과 같은 집사 벼슬을 받았다. (O/X)

정답: O

2. 비형량의 어머니 도화녀의 '두 남자를 섬기지 않는다'는 열녀관은,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수절해야 한다고 강요되는 것이었다. (O/X)

정답: X

3. 처용의 정체를 이란 <쿠쉬나메> 서사시와 관련하여 이슬람 상인으로 보는 관점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며 더욱 지지를 받았다. (O/X)

정답: O

4. <헌화가>에 등장하는 노인이 '소'를 끄는 것은,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한 <십우도(十牛圖)>와 관련하여 유교적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O/X)

정답: X

5. <삼국유사>의 편찬자 일연은 무고함에도 희생을 자처한 <김현감호>의 호랑이보다, 억압을 떨치고 자신의 주체적 삶을 찾아나선 신도징의 아내 호랑이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X)

정답: X

선택형(5분)

1. 다음 중 <삼국유사>의 비형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형량은 엄숙한 궁중에서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자란 인물이다.
- ② 비형량은 귀신들과 어울리는 귀신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친구인 귀신을 죽이는 잔혹한 인성을 지닌 인물이다.
- ③ 비형량 이야기는 <삼국사기>의 김춘추의 이야기와 이어져 완성된 시조 신화의 성격을 보인다.

정답: ③

2. 다음 중 <삼국유사> 수로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로부인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향가 <헌화가>에서 노인이 수로부인에게 절벽 위의 꽃을 바쳤다.
- ② 수로부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수로부인은 용왕에게 납치되어 용궁에서 고난을 겪게 되었다.
- ③ 수로부인의 아름다움은 강릉에 부임하는 남편이 민심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정답: ②

3. 다음 중 <삼국유사> <김현감호> 이야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호랑이가 김현에게 자신이 죽었을 때의 이로움을 열거하는 장면을 볼 때, <김현감호>는 구전되던 설화를 채록된 것이라 추측된다.
- ② 인간을 해친 호랑이가 죄없는 형제들 대신 죽음으로 벌을 받는다는 점을 볼 때, 인과응보적 성격을 지닌 이야기라 할 수 있다.
- ③ 흥륜사의 탑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흥륜사의 간장이 명약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이야기가 창작된 이후 흥륜사 쪽 사람들이 해당 요소를 추가한 것이라 추측된다.

정답: ③

4. 다음 중 <삼국유사> 처용 이야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대적 화두에 따라 지방 호족의 자제, 이슬람 상인, 음악과 문화의 수호자 등 여러 정체가 제기되고 지지받아 왔다.
- ② 상서로운 조짐이 서쪽, 남쪽, 북쪽 중앙의 여러 방위에서 묘사되나, 동쪽의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결국 향락에 빠져 나라가 망하였다는 결말의 묘사를 볼 때, 신라 사회가 겉보기에는 태평성대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퇴폐와 향락으로 굶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5. 다음 중 <삼국유사> 만파식적 설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악을 통한 교화'라는 만파식적의 상징성은 유교적 예악론의 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 ② 만파식적이 둘로 갈라지는 특성을 지녔으며, 다른 기록에서 이 특성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은 유교에서 중시하는 음양론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 ③ 설화에서 인간들에게는 주어진 벼슬을 거문고와 피리는 받지 못한 것은 만파식적이 지닌 유교적 상징물의 역할 강조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 단답형(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 1. ○○○○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구지가>와 수로부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해가>의 유사성을 볼 때, 수로부인은 ○○○○ 출신의 왕족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정답: 금관가야

- 2. <김현감호>의 ○○은 이야기의 서술자이며, 자기 변명적 서술을 피하고 있는 그대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서술자라 할 수 있다.

정답: 김현

- 3. 만파식적에 등장하는 옛 영웅의 자취, 주술적 신통력 등의 면모를 볼 때, 유교적 예악론을 표방은 했으나, 다수의 신라인들은 여전히 국가적 상징에 유교적 윤리성이 아닌 ○○○적 권능을 요구했음이 추측된다.

정답: 비현실/초현실

**나. 토의(30분)**

<헌화가>에서 수로부인에게 꽃을 꺾어준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유롭게 토의해본다.

**다. 과제(60분)**

<김현감호>에 나타난 '하늘의 개입'은 결과적으로 공정함을 가져왔는가? 물음에 대한 답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서술해 본다.

■ 참고자료

비형량의 나레가 - 연두목 ([영상 보기](#))

모두의 마블 비형량 ([영상 보기](#))

사극 <대왕의 꿈> - 비형량의 귀문 조직 ([영상 보기](#))

수로부인 뮤지컬 ([영상 보기](#) / [4장 <헌화가>](#))

울산 제작 애니메이션 <신처용가> ([영상 보기](#))

사라진 문화재, 만파식적 - 경주고 영화제작반 UCC ([영상 보기](#))

일연, 서철원 역, 『삼국유사』, 아르테, 2022.

처용간행위원회, 『처용연구전집』, 역락, 2005.

## <8차시> 삼국유사의 캐릭터(2): 내 고장의 위인과 신들의 모습

### ■ 학습목표

1. <헌화가>가 지역문화 콘텐츠로서 개발된 모습을 알아본다.
2. 울산 지역의 문화적 상징으로서 처용과 고래의 사례를 비교한다.
3. 연개소문의 영웅적 모습이 형성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철쭉꽃 핀 헌화가의 발상지
3. 처용과 고래, 울산의 선택은?
4. 연개소문의 고향과 향토사학
5.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서철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네 명의 캐릭터와 하나의 아이টে임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살펴보고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볼 텐데요. 첫째는 <헌화가>가 어느 지역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삼척하고 영덕이 각자 나름대로 <헌화가>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했었는데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영덕 쪽은 <헌화가>를 포기한 것도 같아요. 그렇다고 삼척 쪽의 승리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건 영덕은 이제 대계의 본고장으로, 관람차를 만들어서 그거를 새로운 랜드마크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이 문제는 좀 과거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지금도 어찌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울산의 지역 축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 축제를 두 개 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울산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이 풍부하니까 자립도가 높죠. 그래서 축제 2개 하고 있는데요. 어느 게 더 울산을 상징하는 축제일 것이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헌화가>라는 하나의 작품을 두 지역이 서로 경쟁했던 그런 구도라면요. 두 번째는 울산이라는 하나의 지역 안에서 처용이냐, 고래냐? 삼각관계에서 나냐, 저

인간이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아직도 좀 미묘한 경쟁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특정 지역 간의 경쟁, 2번은 한 지역 안에서 테마 간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개소문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삼국유사>에서 우리가 읽었던 자료는 아니지만요. 향토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제목에도 있는 내 고장이란 표현 많이 쓰시는데요. 내 고장의 이 '내'라는 게 좀 배타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고장이 아니라 내 고장, 다른 고장과는 다른 내 고장,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기준보다는 특수한 기준에 의해서 내 고장의 위인을 높이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문중과 얽힌 소재도 많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재를 찾기가 조금 어려웠던 게요. 소재는 많은데 아시다시피 문중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잘못 건드리면 큰 일 나요. 몇 년 전 역사 왜곡 혐의를 받았던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 때문이에요. 그때 전주 이씨 종정에서요. 그분들은 왕족이라서 어지간한 일에는 그렇게 의견을 잘 내지는 않았어요. 왕들에 대한 묘사가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좀 너무하다 싶었는지 거기서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애니메이션이었던가? 이순신 장군을 여성으로 성별 전환해서 묘사한 작품이 있었는데요. 이순신 장군 쪽 문중에서 이거는 좀 너무하다 해서 역시 또 이제 움직였어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문중이 좀 움직일 만한 사례였죠. 그런데 움직일 만하지 않은데도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게 어떤 고장이냐 문중과 얽힌 얘기를 하기가 거북한 소재들이 많았는데요. 연개소문은요, 제가 연씨 문중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연개소문의 사례는, 연개소문한테 별로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 유의할 점을 충분히 얘기할 만한 그런 무난한 소재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 2. 철쭉꽃 핀 현화가의 발상지

<현화가>의 발상지는 우리가 읽었다시피, 철쭉꽃이 빨갭게 피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철쭉꽃이 피어 있는 절벽은 전국 각지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난 수업에서도 경남 산청 지역에 핀 철쭉꽃하고 언덕을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기후만 맞으면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자연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하면 삼척의 임해정 자취는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치를 확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2002년 대구 <매일신문>에 실려요. 저자인 이상희라는 분은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전 대구시장으로 영광학원 이사장이랍니다. 대략 각이 나오죠? 어떤 말씀을 하실지요. 대략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외국 선진국의 경우, 선진국이 이렇게 하니깐 우리도 좀 해보자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느냐?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나 전설이 있으면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 놓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것 아닌 일에도 큰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 놓고 거꾸로 설화나 전설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건이나 전설이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기념물을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 시장님이나 이사장님으로서 하실 만한 말씀이죠. 그래서 2002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20년이 흐른 지금을 보면 전국 각지 어느 곳을 가도 이런 조형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 많죠. 보기에 따라서는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동해안은 너무도 아름답다. 동해안에는 수로부인이나 뭐 이런 장소가 있을 법하다. 푸른 바닷가, 하얀 백사장, 가파른 절벽이 솟은 곳, 기암에서 그런 곳이

발견되지 않으면, 비슷한 장소를 선정하여 인공을 가하여 보완하면 된다. 없으면 만들자는 얘  
기입니다.

없으면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해서요. 심청이가 서해 바다 인당수에 빠져서 죽었다가 부활했  
다는데, 인당수는 어딘지 몰라요. 그럼 만들자! 흥부의 무덤, 만들자. 춘향이의 묘, 만들자. 그  
래서 저기 특히 좀 판소리가 그런 게 많은데요. 판소리와 관련된 곳에 가면 그렇게 소설 속  
가공인물들의 유적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없으면 만들자, 시장님들, 이사장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하나까 남들이 하나까 우리도 하자. 이게 효과적일까? 효과적일 수는 있는  
데 정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적이려면 잘 해야죠.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읽어보면요. 장소가 선정되면 절벽 밑에 <헌화가>의 시비를 세우자.  
먼저 세우는 지역이 임자다? 없으면 만드는 거니까요. 그 옆에 수로부인의 조각상을 세우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리고는 저 유명한 <헌화가>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라고 우기는 것이다.  
무슨 교통사고 난 다음에 시비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네, 우기자. 그것이 무슨 법에 저촉될까?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정해놓고 우기면 된  
다는 게요. 제가 이분이 대구 시장으로서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의미건 나  
쁜 의미건 참 정치인다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없으면 만들자는 게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게 세월이 흐르면은 <헌화가>의 발상지로 자리 잡아서 동해안을 오가는 수많은 관광버스  
승용차가 줄줄이 멈춘다. 이게 좋은 풍경일까요? 예전에 읽은 고운기 선생 여행기 떠올려 보  
시죠. 그 책은 이런 풍경을 굉장히 싫어했죠. 제가 고운기 선생님 생각에 완전히 동조하는 것  
은 아니지만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풍경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멋있게 안 나오잖아요. 무슨 고깃집 간판이니 모텔  
네온사인 이런 게 막 찍히다 보니까는 그게 꼭 아름다운지?

관심 있는 기관 단체에서 시도해 볼 만하다. 그래서 삼척하고 영덕 지역이 나선 거죠. 제가  
평을 하자면 동해안은 이렇지 않아도 아름답고 또 이렇지 않아야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  
다.

외국의 사례, 이거 스토리텔링을 더 보태서, 뭔가 조그마한 스토리텔링의 요소가 있을 때  
그거를 조형물로 만든 사례거든요. 톰 빌리라고 하는 유명한 고양이가 있었어요. 왼쪽을 보시  
면 애가 맨날 같은 장소에서 이려고 있었다고 해요.

귀엽죠? 근데 이제 애가 이제 나이를 먹고 무지개다리를 건넜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동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막 똑같다고 감탄들을 하는데요. 똑같아요? 좀 무섭게 생겼죠. 동상 보면 뭔  
가 묘하게 사람 얼굴 같아서 인면견 같은, 개가 아닌 고양이니까 인면묘라고 해야 될까? 하여  
튼 밤에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색깔도요. 그냥 좀 애를 캐리커처로 만들어서 인형 같은 걸  
이렇게 놓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유럽 특유의 센스라고 할는지? 하여튼 그  
래도 이걸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나까 나름대로 성공한 거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  
는 조금 아쉬워요.

고양이 톰의 새침데기 같으면서도 슬쩍 자신을 바라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묘한 표정이 하나  
도 안 살아났어요. 그냥 무섭죠? 근데 유럽 쪽에서는 오래된 미술품 복원하다가 참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디지털 복원 같은 거 잘못해 가지고요. 이것도 그런 디지털라이즈의 참사는 아  
닐지요? 사람이 톰의 생전 모습을 직접 보고 조각을 했으면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요. 아무튼 이게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없으면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만들어  
본다고 만든 그런 사례죠.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선진국을 도입하면 좋나?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학폭 멈춰! 이거는 이렇게 방대한 배경이 있고 그 성과로서 이 말이 효과를 거두게 된 건데요. 과정을 없이 하고 결과만 갖고 와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평가도 받았죠. 이게 어느덧 꽤 예전 일인데 이제 와서 저러냐 하고 말하는데요. 요새 학교 폭력이 화제가 되니까 이게 재발굴되어 여러 가지 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선진국 것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좀 생각을 해야겠죠.

원래 얘기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저 이사장님 기대에 부응해서, 삼척에 수로부인 현화공원, 영어 이름까지도 잘 지었습니다. 원래 저곳은 동해안의 해맞이 명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여기를 자가용으로 찾아가려면 내비에 해맞이 공원이라고 쳐야 제대로 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해돋이를 아주 멋있게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여기다가 임해정을 복원해서요. 임해정은 수로부인이 해룡에게 납치됐던 곳이죠. 거기는 삼척 지역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 삼척에서 바로 수로부인이 용에게 납치당했던 곳이 우리 지역이다 했죠. 그래서 <현화가>보다는 <해가>라는 노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임해정을 복원해서 관리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무지하게 커요.

여기 보시면 공원이 조성되기 전부터 해맞이 장소로 유명했던 곳으로 20분 정도 걸어가면 해돋이를 멋있게 볼 수 있었고, 산책로 입구에는 높이 50미터의 엘리베이터까지 마련해서 나름대로 관광객의 발걸음을 고려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꼭대기에 보시면 수로부인하고 해룡이 이렇게요. 저 멀리 임해정이 보이죠. 예 이 조그만 게 임해정입니다. 옆에는 식당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건물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좀 원근감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커서 멋집니다. 하지만 해돋이를 가릴 정도로 커요. 원래 해돋이로 유명했던 곳인데, 이제는 이것 때문에 좀 해돋이를 온전하게 보기 어려울 정도래요. 그럴 정도로까지 이걸 크게 만드는 게 과연 괜찮은 일인지 좀 의문은 드는데요.

사진과 함께 짤막한 소개 영상을 하나 링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 그 유명한 엘리베이터도 나옵니다. 50미터 높이로 대단하죠. 근데 왜 엘리베이터를 빨간색으로 했을까? 어르신들은 빨간색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뜬금없이 들었는데요. 역시 너무 커요. 그래도 경관을 해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원래 유명했던 해돋이 모습을 왜곡시킬 정도라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삼척 지역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한 거죠. 물론 그 성의라는 게 꼭 좀 적절한 방향이었던가, 이거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최대한의 성의를 다했습니다. 향가와 <삼국유사>를 전공하는 한 연구자로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덕이 도전했다는 거는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해정에서 이틀 정도, 걸어서 이틀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덕에서 대게 먹고 위로 올라가서 동해안 보고 수로부인 현화공원 들르고 충분히 하루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통이 발달돼 있으니 그 정도로 가까운 지역이고 또 <삼국유사>의 수로부인 기록과도 같은 바위가 두 지역에 걸쳐 병풍처럼 있고요.

그리고 역로에서 역이라는 게 교통의 거점이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지나가는 근방으로 철쭉이 아름답게 피는 곳은 바로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골곡포 북쪽 바위산밖에는 없다. 했지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도 삼척은 저렇게 뭔가 거대한 것들로 성의를 보였는데요. 영덕은 요거 하나 달랑 있어요. 이 해파랑 길이라는 길에 이거는 그냥 둘레길이거든요. 둘레길 코스에다가 <현화가>의 탄

생지다 하고요. 이제 수로 구인하고 노인을, 이 그림에서는 노인이 너무 저자세인 것 같죠?

뭔가 수로부인과 노인 사이의 비율도 좀 안 맞아 보여요. 하여튼 이거 하나 이렇게 해놓고 <헌화가>의 탄생지, 그리고 여기 가도 <헌화가>와 관련된 거는요. 이게 2017년 사진인데 이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헌화가>와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걸 영덕이 만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지역은 영덕의 여러 가지 유산 가운데 <헌화가>를 그저 하나의 사례로서 내세우자는 정도의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2년 9월 14일 오후 2시에 <헌화가>의 발상지를 재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저도 여기 가서 토론할 뻔 했는데, 어깨를 다쳐가지고 못 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실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덕이 <헌화가>의 발상지가 맞다,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하면 지역 어르신들이 노여워하십니다. 그래서 가기 거부했는데요. 어깨를 다쳐 가지고요. 그런 게 새옹지마죠. 그래서 다른 분이 가서서 대계를 많이 얻어 와서 참 잘 먹었다고 싱거운 인사만 했습니다. 대계 못 먹은 거는 아쉽겠지만, 학문적인 신념을 지키지 못하는 게 더더욱 슬픈 일이니깐 괜찮습니다.

전 군의원이신 이완섭이라는 분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향토 사학자이기도 해요. 그래도 연구라는 거를 나름대로 하신 분인데요. 장사리 문산호 떠 있는 곳 한편에 작은 공연장을 만들어 <헌화가>를 잘 엮어 연극을 만들고, 고려 때 <무고>와 오랜 전통을 지닌 <월월이청청>, <월월이청청>은 앞에 사진을 실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강강술래>랑 똑같죠.

그냥 <강강술래>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기네 지역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강강술래>라고 하면은 전국적인 이름이니깐요. 영덕에서만 부르는 <월월이청청>이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강강술래>랑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다른 건 내 고장만의 <월월이청청>이라는 이름뿐이겠지요.

그러니까 <헌화가>랑 <월월이청청>이랑 6:25 때 장사 상륙 작전 이렇게 영덕의 모든 것을 다 결합하면 뭐가 될까? 잘 결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걱정도 되죠. 마지막으로 철쭉도 그 양반이 저절로 꺾어준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헌화가> 지은 노인을 ‘그 양반’이라? 가항 나훈아도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 그러니까 <헌화가>의 작가를 그 양반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자쭈빛 관복을 입은 순정공을 <헌화가>에서 자쭈빛 바위에 비유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그 관복이 자쭈빛이었다. 그러니까 순정공이 청했다. 그러면 순정공은 자기 아내한테 다른 남자로 하여금 꽃을 꺾어서 바치게 한 거니까요. 글썄요 대인배라고 해야 할지? 그렇죠. 진골로 유명한 장군인 순정공이 부탁을 하니까, 이 영덕 지역의 노인이 꽃을 꺾어 바치면서 <헌화가>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영덕 지역은 결국 이렇게 <헌화가>를 갖고 더 뭔가를 만들 생각을 포기하고요. 경북 영덕 강구항에 국내 최대 규모의 관람차를 만들어 랜드마크로 삼았습니다. 강구항 일대의 풍경과 영덕의 관광 지도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라는 뉴스도 나왔으니까요. 모쪼록 성공을 빕니다.

바닷가에다가 저런 관람차를 만들면 눈에 띄고 좋기는 할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삼척과 영덕이 사실은 당일 내지는 1박 2일 코스니까요. 나중에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쨌건 자연스러운 경관을 약간 손상한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역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관광 자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그 노력이 언제나 효과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각자의 입장에서 애쓰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 3. 처용과 고래, 울산의 선택은?

이번에는 울산이라는 하나의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지역의 대표 상징이 처용일까, 고래일까? 먼저 말씀드리면 처용은 지난 번 봤듯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뭐랄까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내의 불륜을 용서한 남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울산 지역 사람들은 처용이 울산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나, 그저 무능한 남성이 아니냐? 이런 불륜과 얽힌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울산의 상징적인 축제로 내세울 수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울산에는 울산대학에 국문학과가 있고, 처용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째서인지 울산 처용 문화제는 외지에 있는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개최할 때가 많이 있었습시다. 그래서 울산시의 자본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배를 불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이렇다 보니 대안으로 뜨는 게 고래 축제였어요. 그런데 고래 축제는, 어찌 보면 고래를 죽이는 축제잖아요. 고래를 잡아먹는 축제니까요. 그런 축제 전국적으로 많죠. 고래고기 먹으면서 고래를 찬양하는 시를 읊더라고요.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너무 안 좋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고래는 어류가 아니고 포유류이기도 하고, 우리가 돌고래나 범고래 이런 것처럼 또 귀여운 고래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꺼려집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약간 둘 다 나름대로 한계랄까 약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울산 지역은 더 훌륭한 지역 축제를 열고 싶어 하는 열망을 지닌 분들이 많았지요.

처용 문화제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처음부터 처용 문화제는 아니었어요. 1967년에 시작된 울산 공업 축제, 이때 한창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시작하고 산업화가 시작됐던 시점이라서요. 노동자들이 많았던 울산 공업 축제의 기본을 두고 있는 유서 깊은 축제인데요. 92년부터, 처용에 대해서 이 무렵에는 외국인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민중적인 성격과 지역적인 특색이 강한 존재라는 인상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잘 바꿨는지는 좀 평가해 봐야 할 그런 면이 있죠.

행사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축적됐어요. 처용 콘텐츠 이런 것들하고, 처용 월드 뮤직, 처용 앵글 서던쇼, 이런 것들하고 처용 퍼레이드, 이 퍼레이드에서는요. 옛날에는 울산 바위 쪽에 가서 그 바닷가에 있는 바위에서 헝강왕과 처용이 만나는 장면을 재현하는 그런 공연도 했었어요. 옛날에 분장이나 고증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학예회 같은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많이 연출했었는데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 처용 퍼레이드의 의미가 나름 큰 게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 중에 추천으로 두 분을 뽑아서 처용 부부의 이런 모습을 하고 또 퍼레이드를 도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처용 퍼레이드가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월드 뮤직이나 앵글서던 쇼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링크된 처용 문화제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더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채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몇 시간짜리 있으니까 원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신나는 리듬에 맞춰 플래시몹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머리에 각자 처용탈을 쓴다거나 해서 뭔가 처용에 관계된 걸 하나씩 부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연과 축제가 달라져도, 처용이라는 근본만은 꼭 지니고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도 같죠.

울산은 음식문화 대잔치도 열고, 지역 축제로 문화 부흥을 이끌겠다는 의지와 투자가 대단합니다. 울산이 지역 축제 참 대규모 소규모로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그만큼 이제 뭔가 자기

지역 문화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울산시는 많이 갖고 있고요. 울산 시민들도 적극적인데, 안타깝게도 처용이라는 소재가 그만큼 부흥을 못 했어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국문학과 민속학 전공하는 분들의 책임이 상당히 큼니다. 온전히 개발만 하면, 이렇게 투자하고 지원할 생각을 분명히 울산시는 갖고 있었는데요. 수십 년째 해도 성과가 지지부진하니까, 점차 고래나 음식 문화 대잔치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2017년 고래 축제 장면인데, 오른쪽이 실제 장면이에요. 왜 또 돌고래를 하필 이렇게 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컨셉 장면이죠.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는 관광객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향상됐다는 이런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2018년 축제에도 이렇게 약간 귀여운 컨셉으로요.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고래의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2018년 서울대 수의 인문 사회학 교실에서 발표한 이 현황에 따르면, 각종 동물 축제의 84%는 동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있었다. 86개의 동물 축제를 조사한 결과, 84%가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 축제였다. 산천어 축제 하면 산천어 잡아먹고 맨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울산 고래 축제는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래가 없대네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방식으로 있다는데요. 첫째 접시 위에 살점으로 전략한 고래, 둘째 좁은 수족관에 갇혀 신음하는 고래, 특히 고래는 너무 커서 수족관에 있으면은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셋째 가로등과 공공 조형물의 모티프가 된 고래, 그래서 이것이 고래 생태도시, 고래 특구를 표방한 울산이 고래를 기념하는 방식인가?

그래서 제 기억에는요. 실제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고래 호텔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오갈 데 없이 고생하는 고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바닷속에다가 만들겠다. 뭐 이제 그런 아이디어도 고래 축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래를 위하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고래가 이렇게 폭염으로 많이 죽고, 한국에서도 고래 잡아먹겠다고 많이 이렇게 포경을 하는데요. 일본이 고래 고기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발맞춰서 이렇게 고래를 학대하면서, 국제사회가 일본을 공격하면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다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동물을 잡아먹고 그러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 고래 축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쪽으로는 고래를 위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자꾸 취하면서, 결국 고래를 착취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제품을 소비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아주 안 좋게 얘기하면 위선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기대에 비해서 뭔가 지역을 상징하는 테마를 확고하게 안정적으로 마련하지는 못한 것도 같아요. 비극적인 일이지요. 그리고 고래 축제에는 고래에 대한 시를 짓고 고래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처용 문화제를 기획하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울산의 상징이 되느냐는 이 두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도 얽혀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또 무의미하다 그렇게 까지 볼 거는 아니에요. 고래를 비롯한 문화적인 상징을 우리가 창작의 원천으로서 개발할 필

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처용이라는 캐릭터의 큰 매력을 잘 활용해 볼 필요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처용 애니메이션은 상대적으로 걸작이에요. 제가 처용 문화제와 관련해서 정말 희한한 시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 정도면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 그 내용 자체보다도 드디어 처용이 제대로 된 콘텐츠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봤어요.

그래도 제 전공 때문에 고래보다는 처용 편인데요. 고래도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면 좋겠어요. 고래를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요. 그래서 울산 지역의 이런 노력은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하여간 울산 지역의 이런 노력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삼척하고 영덕도 관광객 좀 많이 받아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전문학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하거나 안타까울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그래도 그런 노력을 아예 기울이지 않는 지역보다는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애쓰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4. 연개소문의 고향과 향토사학

이제 연개소문에 관한 여러 지역 향토사학의 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개소문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고구려 사람이니까 고구려 어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세기 초반에 민족사학의 어떤 상상과 추론이 연개소문의 고향을 정했다는 겁니다. 연개소문의 고향이 어디인가 하는 거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연개소문을 민족 전체의 영웅으로 만들고 싶었던 생각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한국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식민지 사회였고요. 그럴 때 있었던 영웅에 대한 생각을 언제까지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지? 이것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연개소문은 민족 환란의 시기에 기대되었던 국가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온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거대 제국하고 맞섰던 민족주의의 영웅이었다는 데요. 오늘날에도 이런 정복자와 군사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영웅이 필요할까요? 오늘날에 필요한 영웅은 다른 성격의 영웅이겠죠. 근데 영웅에 대한 게 옛날 얘기지, 지금 왜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산업화 시대, 1960년대 이후로 삼성, 현대, LG 이런 재벌 기업인들도 국가 차원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회고록이나 자서전 같은 것이 자기 계발서처럼 잘 읽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씨가 집에서 소 판 돈 훔쳐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장사하다가 몇 번 말아먹다 성공하는 식이었죠. 지금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런 영웅담과 성공 신화가 재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희화화된 재벌들의 모습도 있지만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런 성공 신화가 있었는데, 그들은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영웅형 CEO는 오늘날의 기업 문화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인물만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주화 시대의 투사 영웅들, 정보화 시대의 영웅들도 점차 과거가 되어 갑니다. 정보화 시대의 영웅 하면 저희 젊었을 때 빌 게이츠나, 고인이 된 애플의 잡스 등이 있었죠. 그들 역시 우상화되고,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영웅은 그 시대의 과제에 부응했을 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 영웅이지요. 어느 시대 어떤 나라에서나 이런 사람은 영웅이다 하는 고정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

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독재자 연개소문은 지금 한국 사회 일부에서 그리워하는 독재형 지도자의 원형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개소문은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캐릭터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20세기 초반의 영웅대망론이 여전히 한국 사회와 문화를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없는지 돌이켜 보자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연개소문의 고향이 강화도라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출신인데요. 중학교 다닐 때 읽었던 '향토 애향 독본'이라는 책에도 나왔어요. 그 책에 따르면 연개소문은 경기도의 위인이었지요. 여기 보시면 고구려 대막리지 연개소문의 유적비가 고려산을 바라보며 서 있다. 강화도에 고려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고려가 몽골 제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강화도가 일시적으로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임시 수도가 강화도였던 그 사실과 좀 관계가 된 지명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고려산을 고려가 아닌 고구려와 연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향토사 <강도지>에 따르면 연개소문이 강화도 고려산 기슭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5세기 이후로는 자기네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수왕 이후로는 고구려가 자기네를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인정해 주면 왕건의 고려랑 너무 헛갈리니까, 그냥 고구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는 계속 고구려를 고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강화도 고려산이 고려가 강화도를 임시 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생긴 게 아니라, 고구려 때부터 고려산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강도지>라는 책에서 하는 건데요. 향토사하고 문중에 등장하는 시조 신화는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기 지역이나 조상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찾아서 덧붙이는 게 향토지하고 족보의 특징이기도 해요. 해당 지역이나 그 문중 안에서 주로 통했던 자료들이라는 한계가 있었던 자료들입니다. 그래도 연개소문의 유적비가 있지 않냐? 비석이 있으면 진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비석은 1993년에 만들었어요. 1993년에 모종의 이유로 민족주의 사학 열풍이 나름대로 불면서요. 연개소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개소문이 등장하는 사극을 방송에서 여럿 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신채호는, 여기 <조선상고사>라는 신채호가 지은 책에 보면 연개소문이 당나라 태종이 부상당하고 돌아갔을 때, 연개소문이 하북 지방을 점령했다는 설을 신채호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고, 이런 설화가 연변이나 그쪽 지역에 좀 퍼져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화가 있으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신채호가 생각한 건데요. 신채호가 살아 있을 당시는 역사책을 구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분은 독립운동하는 틈틈이 역사책을 쓰신 분이어서요. <조선상고사>의 내용은 역사책으로서는 그 실증성에 결함이나 허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애국심과, 일본 제국주의라는 불의에 굴복할 수 없다는 저항 정신은 우리가 상당히 높이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항 정신을 바탕에 둔 사상, 사상을 담은 책으로서 <조선상고사>가 가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역사서와 견주었을 때 역사서만으로서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상서로서의 가치가 크죠. 어쨌건 이런 신채호가 추측했던 이야기를 비석에 세워서, 이제 연개소문을 강화도와 관련이 깊은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솔직하죠. 연개소문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없대네요.

그러니까 이 향토사 <강도지>가 역사적 자료가 아닌 거예요. 강화도의 향토사 <속수증보강도지> 역시 향토사 자료죠. 연개소문은 고려산 밑에서 출생했는데, 물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대중을 현혹시켰다네요. 그래서 고려산의 우물에서 태어났으니까, 성을 못 연자로 했다.

그러면 연개소문의 아버지는 연 씨가 아니었는데 연개소문 때부터 연 씨라는 성을 썼구나. 정말 그렇다면 요 얘기가 맞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신라로 망명한 연개소문의 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연정토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정토에 태어나고 싶었으면, 이름을 정토로 지었을까? 불교 정토 신앙의 유행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동생 이름이 연정토인 걸 보면 아버지 성도 연 씨였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설화적인 윤색이지, 실제 역사적 사실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말에게 먹였다는 다섯 개의 우물과 집터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때마침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접근이 어렵다네요. 그러니까 답사를 직접 가서 진짜인지 아닌지 밝힐 수가 없었다는, 좀 편리한 구성이죠.

정통 역사서에서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이거는 신라의 후예인 김부식이 신라를 정통으로 만들기 위해 고구려의 역사를 좋지 않게 꾸며놓은 탓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대에 들어와서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진 이유는 신채호 덕분이예요. 신채호가 위대한 혁명가 연개소문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은식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탁월한 전략가라 했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어쩔건 고구려를 지켜냈기 때문에, 수나라보다 당나라가 훨씬 이렇게 좀 군세가 막강했었는데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채호나 박은식은 연개소문의 이미지에,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는데 연개소문 같은 훌륭한 군사적인 지도자가 있다면 이런 침략을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연개소문 같은 역할을 했을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지, 연개소문이라는 인간의 전체 성격을 온전히 다 긍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런 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이 북한과 6.25 내전을 했을 때, 아무리 이승만이 싫은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치적 호불호와는 별개로, 어쩔건 나라가 위기였을 때는 그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연개소문처럼, 그가 고구려가 당나라와의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할 민족의 영웅이 나타나서 일본과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조선 대한제국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역사 인식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한계랄까 하는 부분도 있죠. 어떤 영웅의 활약만으로 우리가 구한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워낙에 이제 문명의 격차도 컸고 경제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군사적인 힘만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대안으로 국채 보상 운동이나 민립 대학 설립 등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일제에게 다 무너졌지요.

우리가 먼치킨이라고 부르는 그런 천재들이 구한말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서재필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 영어 한마디 못 하면서 미국 가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거는 대단한 일인데요. 그런 천재적인 인물들도, 그런 몇몇 엘리트 영웅들의 노력만으로는 판세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화 영웅들이 못한 일을 전쟁 영웅은 할 수 있었을까요? 문화 영웅들 중에는 친일파가 된 이들도 많았으니, 그들에 비하면 물리적인 독립운동이 한결 떼떽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역사의 불가항력의 흐름을 꿰뚫을 정도의 눈은 신채호나 박은식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이런 영웅이 나타나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겠지 그런 정도를 좀 생각

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채호같은 분들이 뭔가 모자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당시 기준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인식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태어났다고 해서, 예전에 태어나신 분들을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 역할하느라 한 건데요. 이런 시대적인 제약과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인제 지역에서도 연개소문 얘기가 있습니다. 연국혜라는 연개소문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예, 연 씨입니다. 설화이기는 한데 50세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갓선동, 갓은 '이제 막'이라는 뜻이죠. 갓 서른, 갓 마흔, 갓 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갓 쉰이 됐을 때, 막 50살이 됐을 때 아이를 낳았으니까 애 이름을 갓선동이라고 지었다.

그러면 이름이 연갓선동이겠지요. 근데 7살 때 지나가던 노승이, 아이 수명이 짧으니까 15년 동안 집을 떠나야 한다네요. 이거 웬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설정인데요. 그래서 머슴살이하다가 고구려를 괴롭히던 달달국을 공격하였다. 달달국이라는 이름은 약간 역사 지식이 필요한 이름입니다.

저 달달이 뭐냐 하면, 몽골족을 서양에서 타르타르 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타르타르족은 사실은 몽골족 중에서 징기스칸하고 원수가 되는 부족 이름이었는데요. 근데 징기스칸의 나라를 서양에서 타르타르라고 불렀으니까, 징기스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겠네요. 어쨌건 타르타르를 한자로 달달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약간 역사 지식이 필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가 고구려 때 것은 아니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연개소문이 강화도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인제에서 살았다고 하고요. 왜 인제에 살았는지도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국혜가 갓선동을 버린 곳이 인제군의 두메산골이었다 해서요.

갓선동이는 인제군에서 부자인 유 씨의 사위가 돼 가지고,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성공합니다. 그리고 달달국으로 들어가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 나라의 문물을 몸소 익혔다고 합니다. 징기스칸도 적국의 포로가 되어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달달국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어렸을 때 버림받은 것처럼 몽골이나 약간 북방 쪽 전설의 냄새가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인제문화원 사이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강화도 쪽 얘기는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사이트에 있거든요. 흥미롭게도 두 사이트 이야기 모두 그 출처가 신채호였습니다. 인천은 신채호 덕분에 이걸 알게 됐다. 여기 신채호 나오잖아요. 근데 인제 쪽에서도 만주 지역에서 신채호가 찾아낸 소설 <갓선동전>이 연개소문의 이야기라고 언급하고 있죠. 갓선동이라는 캐릭터가 연개소문과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이 신채호였어요.

신채호는 그렇게 주장한 근거는요. 만주에서 한글 소설을 하나 찾았는데, 제목이 갓선동인데 갓선동이 곧 연개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갓선동이 연개소문이 되느냐? 그 이유는 갓선의 초성에 ㄱ하고 ㅅ이 있는데요. 연개소문의 성을 빼 이름에 개소, ㄱ과 ㅅ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무슨 사람 이름이 개소문이나? 좀 비범한 이름이에요. 개소문의 개소가 '갓선'에서 변한 것이라는 생각을 신채호가 했습니다.

이 소설 <갓선동전>은 지금 사라졌지만, 인제 지역에서 만주 쪽 건국 영웅들 이야기하고 묘하게 겹쳐져 전설처럼 남아 있다는 게 특이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 이름이 또 연국혜라고 나오는 거를 보면, 연 씨 집안 개소문하고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갓선이 어떻게 개소가 되느냐? 이거는 좀 음운적으로 좀 밝혀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요. 옛날 한국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초성이 비슷하면 그냥 같은 음으로 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극에도 연개소문이 등장해요. 고구려를 멸망시킨 설인귀와 대립합니다. 이 그림에서 누가 연개소문이고 누가 설인귀일까요? 당연히 왼쪽이 설인귀겠죠. 설인귀가 선한 역할이고, 연개소문이 빌런입니다. 딱 봐도 빌런처럼 생겼죠. 등의 깃발 쪽에 단검을 몇 개 꽂아놓고, 단검 다섯 개를 한꺼번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연개소문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중국의 민중들은, 이 연개소문이 말하자면 설인귀 같은 귀족과 싸우는 존재니까요. 연개소문을 의외로 긍정적으로 본 중국인들도 또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민중 영웅으로서요. 한국에선 정치인으로서 영웅이었지만, 중국에서는 민중 영웅이라고 해야 될지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느꼈던 연개소문의 빌런으로서의 강인함은, 당나라 귀족들과 싸우는 국적을 넘어선 민중 영웅으로 비쳐졌다는 거죠, 일종의 다크 히어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의 출신 지역은 고구려, 강화도 혹은 강원도 인제 중에 어느 쪽일까요? 그리고 한국의 민족 영웅 혹은 중국의 민중 영웅 캐릭터로서 되살아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5. 정리

짚막하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지역 자치단체 사이의 문제는, 사실 확인이 어차피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서라도 관광 자원을 개발해야겠다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무리수를 범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지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에 있었던, 이 지역에서 누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는 주최자와 후원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누가 맡느냐 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저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나 갖고도 여러 곳에서 부딪힐 수 있는데, 울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의 예산이 풍부하니까 이런 모습도 보였죠.

그리고 연개소문을 영웅으로 보려는 시도는, 여러 지역에서 민족 영웅으로서의 연개소문이 우리 지역 출신이다. 이거를 많이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이걸 따지기에 앞서, 이런 식의 영웅이 과연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여전히 필요한 존재일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거는, 뻔한 말이지만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정신, 예전에 처용 볼 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반영한 존재가 그 시대의 과제에 부응하는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퀴즈 (5분)

1. <삼국유사> 속 인물, 장소, 소재 등은 오늘날 여러 지역에서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O/X)

정답: O

2. <삼국유사>를 비롯한 문헌을 근거로 <헌화가>의 발상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 (O/X)

정답: X

3. 울산의 처용문화제는 50년 넘게 같은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학술제이다. (O/X)

정답: X

4. 연개소문의 영웅적 모습은 연구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O/X)

정답: O

5. 중국 경극 속에 등장하는 연개소문은 악역이면서 동시에 민중 영웅 캐릭터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은 <헌화가>를 뮤지컬로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획안을 구상한 것이다. 지역 간 협업 형태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다음 중 문화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 ① ☆☆시에서 비용을 가장 많이 투자하므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독점한다.
- ② ○○군과 □□시의 영상 디자이너들이 호흡을 맞춰 철쭉꽃 배경을 만든다.
- ③ 지역의 유희 시설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찾아가는' 공연 형태로 기획한다.

정답: ①

2. <처용과 망해사>를 근거로 '처용' 캐릭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음 중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캐릭터의 성격은 조급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 ② 노래와 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 ③ 현실적인 사람의 모습과 용의 아들로써 신비한 모습이 모두 드러나도록 디자인한다.

정답: ①

3. 연개소문의 출신과 행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다. 이에 대한 이해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연개소문의 정확한 출신지는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

② 국권을 상실한 시기에는 연개소문의 군사적 성격이 부각되었다.

③ 연개소문의 본명은 '연정토'로서 불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정답: ③

####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삼국유사> 속 소재들은 문화적 관광 ○○으로 개발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답: 자원

2.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물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적 ○○○을 알 수 있다.

정답: 정체성

3. 역사와 문학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을 주고받는다.

정답: 영향

#### 나. 토의 (40분)

<처용과 망해사>를 참고하여 울산의 처용문화제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획해 봅시다.

#### 다. 과제 (50분)

자신의 고장을 대표하는 위인 또는 문학 속 캐릭터를 조사해 봅시다. 그리고 그 캐릭터의 일대기를 간략히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각해서 소개해 봅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캐릭터의 능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써도 좋겠습니다.

## ▪ 참고자료

### - <헌화가> 콘텐츠 관련

이상희, 「이상희칼럼-향가 '헌화가'의 시비」, 『매일신문』, 2002.9.30. ([글 보기](#))

이완섭, 「【외부 기고문】 영덕(盈德)이야기(3)」, 『고향신문』, 2020.12.08. ([글 보기](#))

전현옥, 「수로부인 헌화가 발상지는 영덕군」, 『뉴시스』, 기사등록 2012.09.07, 최종수정 2016.12.28. ([글 보기](#))

YTN - 높이 140m 국내 최대 관람차 대게 성지 영덕에 세운다! ([영상 보기](#))

황정일, 「터키 이스탄불에 고양이 동상이 세워진 사연은」, 『중앙일보』, 2016.10.06. ([글 보기](#))

### - 울산 지역문화 콘텐츠 관련

울산 처용문화제 ([페이스북 보기](#))

ubc 울산방송 뉴스 - 처용문화제·음식문화 대잔치 소규모 축제 속 힐링 20201031 ([영상 보기](#))

처용문화제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보기](#))

울산 고래축제 ([사이트 보기](#))

안정섭, 「'관광객 만족도 향상' 울산고래축제 평가보고회」, 『뉴시스』, 2017.06.22. ([글 보기](#))

### - 연개소문 관련

신경섭, 「연개소문 인물 형상 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7-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연개소문의 고향은 강화도」, 2013.12.02. ([글 보기](#))

최명환 집필, 「갯신동이가 성장한 인제군」 ([글 보기](#))

## <9차시> 삼국유사의 정치(1): 투쟁으로서 왕의 삶과 죽음

### ■ 학습목표

1. 의자왕의 행적을 중심으로 백제 멸망의 실상을 재구성한다.
2. 경덕왕대 정치와 문화 예술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3. 장보고의 일생을 중심으로 신라의 지방과 중앙의 세력 관계를 이해한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의자왕과 백제의 멸망
3. 경덕왕과 신라 전성기의 끝
4. 해상왕 장보고의 삶과 죽음
5.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서철원입니다.

우리 <삼국유사> 읽는 시간 중에는 이제 마지막 챕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시간과 공간, 캐릭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정치입니다. 투쟁으로서 왕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첫째로 백제 마지막 임금 의자왕은 신라와 투쟁했죠. 백제와 신라의 대결에서 의자왕은 패배했고, 신라 쪽에 김유신과 김춘추가 승리했으니까요. 패배한 입장에서 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자왕이 정말 무능하고 사치한 임금이었을까? 사치스럽던 거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무능이라는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8세기 후반의 신라 경덕왕은 귀족들과 투쟁했어요. 경덕왕 본인은 전제왕권,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텐데요. 전제왕권이라고 표현하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권력을 왕 혼자서 갖겠다. 이렇게 권력이 집중된 독재 체제를 경덕왕은 꿈꾸었는데요. 귀족들 입장에서는 권력은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분권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겠죠. 한국사에서는 전제왕권과 왕권 강화를 강조해 온 천수백 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권 분립을 하지만 여전히 행정부의 권한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느 시기 역사에나 있었

던 갈등인데, 경덕왕 때는 그것이 상당히 심각했던 시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보고입니다. 장보고가 무슨 왕이나? 하겠지만 해상왕 장보고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라의 어떤 왕보다도 큰 꿈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장보고의 해상왕으로서의 꿈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왕에 준하는 존재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보고는 귀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를 겪었는데요. 그런 차별의 문제에는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혐오의 문제도 약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투쟁이죠. 첫째는 다른 나라와의 투쟁이었던 의자왕의 경우, 둘째는 정치적인 목표가 달랐던 왕과 귀족 사이의 내적인 투쟁, 그리고 세 번째는 신분과 관련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별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와 싸웠던 한 개인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는 다 보면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정치권력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 의자왕과 백제의 멸망

여기 보시면 아래 그림처럼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야기 때문에, 의자왕 하면 뭔가 음란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 옛날 <황산별>이라는 영화에서 계백과 의자왕의 단란했던 때입니다. 참 아주 해맑게 웃고 있죠.

지도 보시면 이게 백제와 신라인데요. 의자왕의 아버지인 무왕 때부터 의자왕 때까지, 신라와 전쟁해서 이렇게 신라의 땅을 굉장히 많이 빼앗았죠. 그리고 고구려도 그에 호응해서 이렇게 강원도 북부 일대를 쳐들어와서, 자칫하면 백제랑 고구려가 더 협력을 잘했으면 국토가 끊겨 완전히 신라가 고립될 뻔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라를 몰아붙였던 왕이니까요. 사치했다, 안 했다는 별개로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무능한 왕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신라의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나서요. 김춘추는 사실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한 것이고, 군사적으로 이 땅을 나중에 되찾는 것은 김유신이 많이 활약했어요.

어쨌건 우리가 이 지도 하나만 놓고 봐도, 의자왕이 무능하기는커녕 신라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격했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이 당시 백제 왕이었던 무왕하고 의자왕이 굉장히 꺾끄러운 사람이었겠다. 이렇게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맑게 웃고 계시는 이 의자왕이, 신라 입장에서는 상당한 골칫거리였다. 그런 정도를 전제하고 여기서부터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라가 압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결국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삼국유사> 기이편 전체 내용의 딱 가운데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제목은 신라의 임금이었던 태종 무열왕, 태종 대왕이 제목인데요. 내용은 백제가 망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백제가 큰 비중으로 등장하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는 무왕의 큰아들이었다. 영웅스럽고 용맹하여 담력이 있었고, 부모 섬기기를 효도로 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 해동의 증자라고 불렸다. 해동은 중국에서 한국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고, 증자는 <효경>이라고 하는 책에도 관여해서 초기 유학자들 가운데 굉장한 상징성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해동의 증자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임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주색에 빠져서 정사가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웠다. 그런데 아까 지도에 따르면 나라가 위태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라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면서 나라 자체는 좋은 형편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하고는 약간 다르죠. 의자왕을 폄하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국가 지도자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평소에는 왕의 말을 좀 안 들어도 말을 안 듣냐 이려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전시에 그러면 반역이잖아요. 조금만 왕의 말을 안 들어도 왕은 역적으로 몰아 처형도 할 수 있고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었어요. 의자왕은 귀족들에게 그런 일을 더러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귀족들의 인심을 많이 잃어버렸는지, 나중에 사비성이 함락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지방의 귀족들이 아무도 의자왕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백이 오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 나서야 했던 거죠. 근데 사비성이 함락된 이후로도 백제가 3년 동안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부흥 운동을 벌였던 것을 보면요. 백제 지방 권력과 경제력이 대단한 수준이었던 거죠. 수도가 함락된 다음에도 3년 동안 부흥 운동을 할 수 있었을 정도니까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의자왕이 인심을 많이 잃었다는 거죠. 인심을 잃은 이유는 주색에 빠져서 정사가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워서였을까요? 그보다는 저렇게 신라와 전쟁을 많이 벌이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귀족들을 처단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 높였던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평 성충이 말하죠. 좌평은 백제에서 장관이나 재상에 해당하는 벼슬이에요. 근데 저 좌평이란 한자가 뜻이 참 좋고요. 중국식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반면에 신라는 각간, 아찬, 이찬, 고구려는 육살, 고추가 이런 벼슬 이름에 비하면 완전한 한자어입니다. 여기서 대형은 큰형님이란 뜻이니까, 높은 벼슬하는 사람을 고구려는 큰 형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구려나 신라에 비하면, 백제가 중국식 관직 이름을 더 정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사실 당나라하고 외교가 활발했던 나라는 백제였고, 중국의 문물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도 백제였어요. 그런데 백제는 당나라를 군사적으로까지 활용할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신라는 워낙 백제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고, 고구려도 원수의 나라가 됐으니까 당나라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백제의 관직명은 신라나 고구려에 비해서 이렇게 한자어로서의 성격을 더 명료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충은 이런 직언으로, 의자왕이 인심을 잃으니까 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듣지 않고 옥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되니까 글을 올려서, 충신은 죽어서도 임금을 잊지 않는다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해요. 성충이 보니까 반드시 저 신라가 당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올 것 같은데요. 육지로는 탄현, 지금의 경기도 평택 북쪽 지역을 탄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길로는 기벌포, 지금의 부여를 흐르는 백마강이라는 강이죠. 이때는 백강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요충지를 이야기해 주고 이 두 곳을 잘 지키라고 그런 간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간언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에 의자왕이 주색에 빠져서 정치가 어지럽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성충이 말을 어떻게 했겠어요? 제발 주색에 빠지지 말고 정치 좀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요. 유언으로 이런 요충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긴 이유는요. 그러니까 성충이 보기에 의자왕의 실책이 외교나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충의 논리는 이렇죠. 왕께서 이렇게 전쟁을 자꾸 해가지고, 민생을 어렵게 하고 귀족들을 자꾸 이렇게 처벌하시는데 좀 그러지 마십시오. 자꾸 전쟁을 하면 결국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온다면 이런 식으로 요충지를 수비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인과관계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라면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마지막 유언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군사적인 쪽으로 나온 걸 보면, 성충하고 의자왕의 관계가 틀어진 것 역시 이렇게 신라를 압박하는 게 과연 정책상으로 올바른 것이냐? 이렇게 힘들게 전쟁을 해서 신라 땅 빼앗는 게 과연 우리 백제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겠느냐?

그리고 지방의 호족들도 나름대로 백제의 지도자들인데, 의자왕이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거기에 반발하는 귀족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고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렇지만 그래도 왕께서 계속 전쟁한다면 언젠가 역습이 있을 텐데, 그 역습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충은 그런 얘기를 하고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게 좀 이렇게 과한 생각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결과적으로 이런 유언이 등장하려면, 성충과 의자왕의 갈등의 원인은 그런 주색잡기가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전략에 대한 시각 차이, 전쟁에 대한 관점의 차이, 그것 때문에 의자왕과 성충이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659년입니다. 660년에 백제가 망했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백제가 망했다기보다 사비성이 함락 당했죠. 백제가 완전히 망한 거는 부흥 운동이 완전히 끝난 663년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이때부터 아주 불길한 괴담에 가까운 일들이 백제 땅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 번호를 매겨놨는데 이 번호가 12번까지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조짐이 서너 가지 나와도 엄청 많은 건데 12가지나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신라의 입장에서 백제를 저주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았나? 실제로는 659년까지도 백제는 신라와 전쟁을 하고 백제가 신라 땅을 빼앗기도 했어요. 물론 김유신이 반격해 되찾은 적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 역사는 그러니까 망하기 1년 전까지도 전쟁을 막 할 정도로 백제의 국력이 아주 그렇게 소진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의자왕이 무리해서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659년에 백제의 오회사, 오합사라고도 하는데 이게 오합지졸을 연상하게 하는 오합이라는 이름이라서 조금 그런데요. 백제의 대표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커다란 붉은 말이 나타나 밤낮으로 6시간을 거닐다가 가버렸다. 2월에는 많은 여우들이 의자왕의 궁궐에 들어왔는데, 여우 한 마리가 좌평의 책상 위에 앉았다. 아까 그 성충이 좌평이었죠. 좌평은 다섯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안 좋은 표현인데 여성들을 여우에 빗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본서기>라는 일본의 역사책을 보면 의자왕의 왕비가 굉장히 정치에 참견을 많이 하고 나라를 어지러뜨렸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나온 역사 소설인데 의자왕의 왕비를 신라의 스파이였다고 한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하여튼 신라의 스파이라는 상상을 할 정도로 의자왕의 왕비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참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 같죠. 암탉이 작은 참새와 교미하였다는 것도 뭔가 왕실에 있었던 불륜의 현장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 같죠.

그리고 5월 사비 언덕 위에 큰 물고기가 나와서 죽었는데 길이가 3장이나 되었고, 먹은 사람은 모두 죽었다네요. 세 길은 도량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m에서 6m 쯤 되는 건데, 이 거를 먹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9월에는 나무가 사람처럼 울었고 밤에는 귀신이 남쪽 길에서 울부짖었다.

이어집니다. 점점 끔찍해져요.

우물물이 핏빛이 되었고, 660년으로 해가 바뀌었죠. 우물물이 핏빛이 되었고, 작은 고기가 나와서 죽었는데 먹을 수 없었고, 사비수의 물이 핏빛이 되었다. 개구리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여들고요.

8번이 정말 이상해요. 왕도의 백성들이 이유 없이 놀라서 달아나, 누가 잡으러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자빠져 죽은 자가 100명, 재물을 잃은 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저는 이 시리즈 중에 이 얘기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공포심을 느끼는 거는, 알 수 없는 존재가 이렇게 따라올 때 우리는 큰 공포심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으스스한 산길이나 골목길을 가는 것처럼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배가 큰 물결을 따라서 절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만만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큰 개가 나타나서 짓고 또 개들이 모여서 울고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중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개구리가 막 이렇게 우는 것도 있었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집의 큰아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거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탈출 장면처럼 이렇게 괴기스러운 장면이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라가 망한다는 거를 신들이 경고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벗어나서 저주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귀신 하나가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 하고는 땅 속으로 들어갔다. 참 귀신도 이거 한 마디 하려고 굳이 와 가지고 좀 그렇죠. 이게 이상해서 그 귀신이 들어간 땅을 파봤더니, 거북이가 한 마리 나왔는데 등에 백제는 온달 보름달이고 신라는 초승달이다.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보름달은 기울어질 일만 남았고 초승달은 앞으로 꼭 채워가면서 발전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의자왕은 기분이 나빠서 무당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보름달은 융성한 것이고 초승달은 미약하다 그러니까 신라 별거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왕이 기뻐했다는데요.

그런데 이미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백제는 망한다. 그러면 이 조짐이 좋은 조짐이 아닐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억지 해석을 한다는 건 의자왕뿐만 아니라 백제 사람들의 기억력 자체를 무시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는 거는, 이걸 신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생각한 상징이었어요. 여기 신라의 월성을 보시면 이게 월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거 초승달처럼 생겼죠? 신라 사람들은 달을 좋아했는데, 보름달보다는 반달이나 초승달을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궐의 모습을 이렇게 초승달을 본따서 짓고 월성이나 반월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 어디에 보름달 모양으로 된 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라가 자기네들을 생각했던 국가적 상징이 초승달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는 것은, 백제가 아닌 신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가 그리고 앞에 있는 11가지의 이야기를 다 합쳐서요. 이거는 신라 입장에서 백제가 망하기를 바라거나 백제가 이래서 망했다는 그런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신라 입장에서 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12가지의, 무슨 콜라 먹는 아이스크림 메뉴처럼 참 여러 가지 멸망의 이유를 붙여서 저주를 퍼

붓고요.

여기 나오는 이 태종은 당나라 태종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태종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벼슬을 내려서, 결국 소정방과 김유신이 백제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친구 중에 이름이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백제를 무지 싫어하셨나 봐요.

그래서 의자왕이 이 소식을 듣고 계책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의직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군사는 물에 익숙하지 않고, 신라의 군사는 큰 나라 당나라의 후원만 믿고 적을 가볍게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아니까 당나라 군대만 이기면 신라 군대는 알아서 물러갈 것이다. 이런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달솔 상영이란 사람이 말해요. 달솔은 좌평보다 약간 낮은 직책의 벼슬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 군사는 먼 길을 왔으니까 빨리 결전하려고 하는 날카로운 기세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먼 길을 빨리 왔으면 일단 지쳤으니까, 제가 전략의 고수는 아니지만 일단 먼 길을 빨리 온 군대는 지쳤을 것이니까 준비를 하기 전에 빨리 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달솔 상영은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당나라 군대는 멀리서 왔으니까 그 날카로운 기세를 당할 수 없고, 신라는 우리가 많이 이겨봤으니까 신라 군대는 우리를 보기만 하면은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라를 먼저 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달솔 상영이 신라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이 사람이 야말로 스파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근데 의자왕은 아까 처음 보여드린 지도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많이 해본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흥수라는 사람이, 성충하고 마찬가지로 이유로 죄를 얻어서 전라남도 장흥으로 유배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충남 부여에서 전남 장흥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가 본 적이 없지만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 위급한 상황에 결론이 안 나니까 장흥에 유배된 사람한테 부여에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이게 참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흥수야, 일이 급하게 됐으니 어떻게 할까? 하니까 성충이 말한 대로 하십시오. 성충의 전략이 그게 나름대로 진심 어린 타당한 조언이니까 지금의 평택 북부 지역하고 백마강 일대 이 두 곳을 지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하니까 대신들이 흥수는 감옥에 결박돼 있으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망한다. 그러고서 오히려 거꾸로 탄현과 백마강을 넘어왔을 때 애네들을 쳐야 한다. 이런 성충의 말과는 정반대의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병사들이 여길 지났다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사람의 말을 안 들어서 나라가 망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가 망할 만한 그런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현명한 사람의 말도 통하지 않게 되는 건지,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지만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무리한 전쟁과 지방 호족 세력들을 탄압하는 거에 대한 의자왕과 성충, 흥수 이런 사람들의 평소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평소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나라를 위한 조언을 솔직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그런 방향보다는 일단 좀 반대파를 견제하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언제나 좀 많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의자왕 입장

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성충과 흥수가 평소에 나와 생각이 달랐으니까 나를 안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패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의자왕을 백제의 다른 지역에 있었던 지역 귀족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계백 장군이 결사대 오천으로 장렬하게 싸웠지만 황산벌에서 전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계백 얘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 참 대단한 능력자다, 그리고 아주 비장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황산벌에 나가서 야전할 게 아니라, 사비성을 지키고 있으면서 지방에서 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면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나름대로 했었어요. 그래서 계백의 이 장면이 굉장히 뭔가 국가를 위한 충성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인데, 왜 굳이 나갔을까? 사비성을 지키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했죠. 근데 그런 제 생각이 좀 어리석었던 게, 사비성을 지키고 있어 봐야 의자왕을 도우러 지역에서 아무도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득이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왜 지역의 귀족들이 의자왕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거는 인심을 잃어서, 그다음에는 의자왕이 보여주었던 그런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평소에 자기랑 생각이 비슷했던 사람의 말만 그냥 무작정 쫓아가는 비상식적인 면 때문이었겠죠.

그런 의자왕과 대비되는 신라와 김유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 군대와 함께 진군하다가 갑자기 새 한 마리가 소정방의 머리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는 점을 쳤더니 소정방 당신 운세가 안 좋은데요. 이런 점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그만두고 가자 그랬더니 김유신이 아주 훌륭한 말을 합니다.

어찌 날아다니는 새의 괴이함으로 천시를 어길 수 있으리오? 너는 그런 미신을 믿냐? 하늘에 응하고 민심에 순응하여 어질지 못한 자를 정벌하는데, 어떻게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겠냐? 저런 미신스러운 자연 현상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정의롭고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유학자들이 할 법한 그런 생각이죠.

윤리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고, 설령 좋은 결과가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당한 일은 해야 한다. 상당히 합리적인 유학자들이나 할 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검을 뽑아서 새를 겨누니, 새는 몸뚱이가 갈기갈기 찢긴 채 좌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김유신이 미신을 타파하고 소정방을 설득해서 백제를 정벌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약간 다른 방식의 전설로 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동국여지승람>이라는 조선시대 책에 나오는 전설인데요.

여기는 백제 도성이 함락된 뒤에 있었던 일로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낙화암에서 당나라 병선이 순식간에 뒤엎어지니까 점을 쳤더니, 백제를 지켜온 강에 있는 용이 화를 낸 것이다. 그래서 백마를 미끼로 해 가지고 용을 낚은 그런 조룡대의 전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등장하는 새도 그렇고 여기 있는 어룡, 이렇게 백제의 수호신들이 나름대로 나당 연합군을 나름대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김유신이나 신통력을 갖고 있었던 소정방 앞에서는 좀 역부족이었다. 짧게 말하면 하늘도 백제를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백제 멸망 설화라고 해서 굉장히 얘기가 자세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나중에 패배하게 되자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 성충의 말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탄현과 기벌포를 지켜라 이거죠. 평택 지역과 백마강을 지켜라, 그 말을 안 들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후회이기도 한데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충과 의자왕이 틀어지는 계기가 된 말, 성충이 첫 번째로 간언했

던 그 말, 그냥 이런 전략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있었던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 대한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제 상상에 따르면 전쟁 좀 그만하고 귀족들하고도 그만 싸우고 좀 민생을 좀 보살피라는 그런 식의 간언을 듣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었다 하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충의 말을 그냥 여기 인용된 전쟁을 이렇게 해라, 라는 것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의자왕의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무리를 거느리고 또 굳게 지켰는데, 어쨌거나 의자왕은 도망가고 의자왕의 아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왜 당신이 마음대로 왕을 하나? 이런 또 정치적인 갈등이 그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도망간 다음에 나름대로 누군가가 지도자가 돼서 사비성을 또 지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도 이렇게 또 있을 정도로요. 이거는 말하자면 의자왕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반발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한 의자왕은 중국으로 끌려가고 백제의 영토를 당나라가 분할하게 됩니다. 웅진 등등 5개의 도독부를 나누었는데, 여기 보면 마한이 있죠. 마한이 백제의 일부가 되기는 했지만, 마한이라는 이름 자체는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도 살아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동명, 동명은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드시피 부여의 시조가 동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구려의 시조만 동명이 아니라 부여의 시조도 동명이고, 또 부여의 시조 동명이라는 이름을 모방해서 고구려가 주몽에게 동명이라는 이름을 오히려 붙인 건데요. 백제도 나중에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고치고, 부여 계승 의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왕들의 성도 부여 씨로 바꾸었죠. 처음부터 부여 씨가 이렇게 있었다고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나중에 좀 부여 씨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한 그리고 부여를 계승했다는 의미의 동명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백제의 여러 지역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자왕이 병들어 죽자, 나라가 망하자마자 거의 동시기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화병으로 죽은 거죠. 사실은 이게 나름대로 신라하고 전쟁도 잘하고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순식간에 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화병이 나서 죽으니까 손호와 진속보라는 옛날 왕들의 무덤 옆에 장사를 지냈는데요.

저거는 의자왕을 모욕한 겁니다. 손호라는 사람은, 삼국지의 오나라 있죠? 손견. 손책. 손권 이렇게 이어지는 오나라. 그 오나라의 마지막 임금으로 아주 음란한 임금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속보라는 사람도 남북조 시대 임금인데 마찬가지로 음란하고 사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옆에다가 의자왕의 무덤도 같이 만들어서, 의자왕은 결국 역대 중국 황제 중에 아주 안 좋은 황제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암군이고 지저분한 임금이었다. 그런 평가를 중국에서 내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의자왕이 중국에 잡혀간 이야기까지 했죠. 마지막으로 백제 멸망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유명한 삼천궁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궁녀가 3천 명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백제고기>에 이르기를, 이거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일본서기>에도 이거 인용 많이 하고 있어요. 부여성은 사비성이죠. 사비성 북쪽 모서리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의자왕과 여러 후궁들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서로 일컬어 말하기를, 차라리 자살을 할지 언정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 하고 서로 이끌고 이곳에 이르러 강에 몸을 던져 죽었으므로 타사암라고 한다.

원래 이야기는 의자왕과 후궁들이 당나라에 끌려가서 굴욕을 당하느니 백제 왕족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여기서 죽자 하고 함께 자살했다는 그런 설화였는데요. 근데 의자왕의 무덤은 중국에 분명히 있으니까, <삼국유사>에서는 이거는 거짓말이다. 속설이 와전된 것이다. 그러니까 의자왕은 여기서 안 죽었고 후궁들만 죽었다.

그런데 의자왕이 중국에서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했으니까, 사치하고 음란한 임금의 표본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의자왕의 궁녀가 삼천 명쯤 됐을 것이다. 그레가지고 타사암도 낙화암이라는 좀 로맨틱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의자왕은 안 죽었으니까 이 후궁들이 자살했다는 전설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삼천궁녀와 왕후가 요녀라는 등의 설화는 일본 쪽에 많이 남아 있어요. <삼국유사>의 암군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의자왕은 사치스러울 수는 있는데, 암군이라고 보기에야 아까 보여드린 지도나 그런 실제 업적들이 많이 있어요. 해동의 증자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리한 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는데, 그게 귀족들의 반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귀족들을 많이 처단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인심을 잃어서 전쟁이 났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멸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야성 전투에서 나오겠지만 아버지 무왕에 이어서 신라를 압박하고 642년에 대야성을 함락시켜서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을 죽이고 옛 가야 땅을 거의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 대야성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인데요. 예, 가야 땅을 거의 다 차지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라의 요충지를 거의 다 점령했던 성과를 놓고 보면은 암군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정도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 대야성을 함락시킨 사건이 결국은 신라가 당나라와 군사적인 동맹을 꼭 맺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김춘추는 자기 딸과 사위를 죽인 백제를 꼭 멸망시키리라 맹세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김춘추가 멍하니 하루 종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주먹을 불끈 쥐고, 백제를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김춘추의 결심을 결국 실현에 옮긴 사람은 김유신과 소정방이지만요. 어쨌건 이거는 너무 신라를 자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야성 전투 요거는 백제의 공세가 절정에 달한 사건으로서, 대야성의 함락으로 선덕여왕의 정치적인 능력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하고 위기에 빠졌는데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유신이라는 사람을 군주에 임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김춘추가 고구려도 가고 일본도 가고요. 근데 이상하게 김춘추는 외교를 하러 가면은 본인이 역류 당합니다.

고구려 땅에서도 역류 당했다가 구토지설 이야기를 듣고 풀려나고, 일본에서도 납치당할 뻔하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근데 당나라와의 동맹을 성공한 거 보면 역시 인생은 한 방이 아닌가? 계속 실패하다가도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뭘 하면 상당히 크죠. 이렇게 김춘추가 직접 고구려나 일본에 가고 한 거는 역시 딸과 사위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니까 대립하더라도 너무 상대방을 자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의자왕에 빼앗았던 땅도 김유신이 나중에 거의 되찾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새로 빼앗은 지역을 군사적인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였던 김춘추와 또 멸망한 나라의 왕손이었던 자기 자신이 신라의 정치적, 군사적 실세가 되어가는 그런 기반이 됐던 거죠.

결과적으로 당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당나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대야성 전투의 결과 일시적으로 백제가 신라를 압도했지만, 이 전투의 역사적 의미는 크다. 신라가

대야성 전투의 패배로 몰리게 된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군권을 장악한 김유신, 외교권을 장악한 김춘추가 등장합니다. 김춘추가 외교권을 장악한 건 유일하게 당나라와의 외교에서 성공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당나라가 가장 좀 덩어리가 큰 동맹이 될 수 있는 나라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폐위당한 할아버지의 약점을 극복하고 중요한 정치 세력이 돼서, 양자가 연합해서 새로운 신라 중대 왕실의 핵심 세력, 우리가 무열왕계라고 부르는 그런 왕통이 성립됐고 이들에 의해서 삼국 통일이 성취됐습니다.

백제가 멸망하는 거에 대한 설화의 관심이 굉장히 컸던 이유는 바로 신라가, 그리고 김춘추라는 권력자가 백제의 멸망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정황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3. 경덕왕과 신라 전성기의 끝

그랬던 중대 왕실이 몰락하는 모습을 경덕왕 때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경덕왕은 우리가 예전 수업 때 봤었던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다루진 않았는데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는 성덕대왕신종, 굉장히 크고 이 안에 사람 여럿 들어갈 것 같죠.

좀 끔찍한 생각인데 하여튼 이건 다른 이름으로 에밀레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종을 만들 때 어린아이를 산채로 집어넣어, 종의 소리가 어린아이 울음처럼 아주 맑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종의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인체와 그렇게 공통된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거는 좀 다른 설화적인 맥락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규모의 불교 미술 조각이나 건축을 경덕왕 때 많이 시작하거나 완성을 보았는데. 이런 걸 했던 이유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이나 건축물을 짓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는 내용은요. <경덕왕 총담사 표훈 대덕>이라는 짤막한 설화 하나를 볼 건데요. 경덕왕 때는 신라의 전성기였던 신라 중대가 끝나는 시기로서, 경덕왕이 나름대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시도한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링크된 영상을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덕왕 때는 여러 가지로 귀족들과 갈등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는 등 정치적인 격동기였는데요. 그런 정치적인 격동기에서 나름대로 왕실의 권위를 어느 정도 내세우기 위해 유명한 불교 미술과 건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경덕왕 총담사 표훈대덕>은, 바로 신라 중대의 마지막 임금인 경덕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덕왕의 아들이 여기 뒤에 나오는 혜공왕인데요. 혜공왕 때부터는 왕이 워낙 금방금방 죽어요. 그래서 피살된 왕도 많고요. 그래서 굳이 왕의 순서가 어떻게 흘러간다.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왕권이 불안정하고 자꾸 바뀌는 그런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왕다운 왕 역할을 했던 거의 마지막 왕이 경덕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첫째 문장이 뜬금없는 문장이 나옵니다. 당나라에서 <도덕경>을 보냈더니 경덕왕이 예를 갖추어서 받았다. 이거는 뒤에 이야기랑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이 앞에 내용이 뭐가 더 있었는데, 이거를 따서 붙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왜 컴퓨터로 문서 작업할 때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마우스 클릭 잘못하면 엉뚱한 내용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전체 내용과는 상관없고 앞에

랑 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다.

그렇게도 보는데요. 그러나 이게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게요. 신라는 불교 국가였는데 <도덕경>은 노자가 쓴 것으로 알려진, 도교나 도가 사상 쪽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덕왕 때 새로운 사상을 수입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 이 해는 765년이거든요. 근데 이때 경덕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경덕왕이 죽을 즈음에, 마지막으로 살아있었던 해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 만에 오악과 삼산의 신들이 대궐들에 나타나 왕을 모셨다. 요거랑 비슷한 장면이 우리가 예전에 <처용가> 읽을 때 있었죠. 서쪽을 빼놓고 동쪽 남쪽 북쪽 중앙에 있는 신들이 나타나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사람들은 그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태평성대인 줄 알고 즐겁게 놀다가 망했다. 그런 기록을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오악과 삼산의 신들이 나타나서 왕에게 경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경덕왕이 나름대로 이게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는 그런 조짐으로 생각하고, 죽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길거리에서 위엄이 있는 승려 한 분을 좀 모셔 오면 좋겠다. 하니까 때마침 고승이 배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경덕왕에게 데려다 주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합니다. 그러고서 이번에는 위엄과는 거리가 먼, 남루한 옷차림에 바구니를 지고 남쪽에서 나타난 스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같이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시면서 그대는 누구요. 하니까는 충담입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남산의 미륵님께 충담사가 차를 달여서 공양한다는데요. 지금 다녀오는 길이라네요. 경덕왕이 나한테도 한 잔 차를 주시오. 하니까 이렇게 줬는데, 맛이 아주 좋고 특이한 향이 풍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짐이 일찍이 듣기로 스님이 기파랑을 찬양한 노래가, 이게 우리가 <찬기파랑가>라고 부르는 그 노래죠. 스님이 지으신 그 <찬기파랑가>라는 노래가 뜻이 아주 훌륭하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이 문답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글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 글이 아주 뜻이 높다고 하던데 그래요? 했을 때 맞아요. 내가 쓴 글은 참 훌륭한 글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참 자의식이 강한 작가들이 아니라면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그 글은 뜻이 높다. 훌륭하다 이렇게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찬기파랑가> 노래의 뜻이 높다, 라는 뜻이라기보다 여기서의 뜻은 기파랑의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기파랑이라는 화랑이 품었던 그 뜻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렇다는 대답이 이어지고, 그렇다면 짐을 위해서 백성을 편안히 다스릴 노래, 백성을 편안히 다스릴 노래가 <안민가>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높다면 나를 위해서 <안민가>를 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기파랑의 뜻, 기파랑이 나라를 사랑했던 뜻이 굉장히 높았다면, 그게 높은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 뜻이 굉장히 높았다면 나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을 편하게 다스릴 수 있는 노래를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파랑은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님께 충성하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재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바쳤더니 너무 경덕왕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사에 봉하겠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왕사는 임금의 스승을 왕사라고 하고, 나라의 스승을 국사라고 하  
죠. 임금의 스승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총담사는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않았습니  
다.

이거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총담사가 속세의 권력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왕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해 경덕왕이 죽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  
을 드렸죠. 보아하니깐 경덕왕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고, 경덕왕이 죽은 다음에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왕사가 되어 정치적으로 힘든 일을 겪을 필요가 없지 않  
겠느냐? 이런 나름대로 판단력에 의해서 왕사를 거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 짧은데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냥 신들의 경고를 받아서 위엄이 있는 승려  
를 모시려고 했는데, 깨끗한 사람을 마다하고 좀 지저분한 차림을 한 총담사를 모셔다가 <안  
민가>라는 향가를 짓게 했다. 그리고 향가를 짓는 과정에서 기파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높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정도 했다.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의미심장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런 일이 한 5~6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5~6년 전에 하늘의 해가 두 개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늘에  
해가 두 개 났다는 것은 신화적인 맥락이 있는 이야기예요. 임금의 권력이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다. 해가 보통 임금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해가 두 개가 났다는 것은  
임금에게 저항하는 아주 불손한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뜻으로 보기도 해요. 그때 경덕왕  
이 월명사라는, <제망매가>라는 향가로 유명한 월명사라는 스님을 또 모셔다가 <도술가>라는  
향가를 불러서, 두 해 중에 하나가 떨어지게 만들었죠. 이렇게 주술적으로 왕권의 위기를 5년  
전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또 이렇게 뭔가 경고를 내리는 신들의 목소리가 들  
려오니까, 말하자면 이런 심판을 받은 거죠.

그때 여기 마침 나타난 깨끗한 고승은, 귀족들이 보기에 5~6년 전에 월명사가 나타나서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라 귀족들이 미리  
이렇게 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만한 고승을 모시자. 이렇게 생각해서 배회하고 있었던  
거죠. 깨끗한 고승 한 분이 때마침 배회하고 있었다는 건 좀 수상한 거예요. 어디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리저리 다니면서 왕과 귀족들이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데려다가 보여줬더니 물리쳤는데, 경덕왕은 이미 다시 한 승려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회했던 이 사람을 물리치고 총담사를 이렇게 데려다가 이야기를 미리 맞춰놓  
은 것도 같죠. 차도 미리 준비해야 마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때마침 갖고 있고요. 기파랑 얘  
기도 하죠. 우리가 옛날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시를 앗은 자리에서 지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는 그렇게 언제나 즉흥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뭔가 좀 얘  
기가 있으니까 이런 작품을 또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5~6년 전에 있었던 경덕왕과 월명사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구성을 갖고 있는데  
요. 그때는 해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성공했는데, 지금은 경덕왕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상황  
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했습니다.

경덕왕이 아름답게 여겨서 총담사를 왕사로 봉하려고 했던, 그 <안민가>의 내용은 이렇게  
입니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다. 여기 보시면 임금  
은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경덕왕이 이거 굉장히 좋아한 겁니다. 임금은 아무것  
도 안 하면 되니까요.

신하는 사랑해야 돼요. 신하에게는 백성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하들이 이 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임금과 권력 투쟁을 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겠죠. 그래서 신하가 어리석은 아이 같은 백성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임금과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거를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사랑을 알아야 한다. 꾸물거리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먹여서 다스려야 한다. 민생을 돌봐야 한다. 신하는 임금과 권력을 나누어 갖겠다는 투쟁을 그치고, 백성들을 먹여 다스리는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까? 이 땅밖에는 내가 살 곳이 없다. 이 땅을 버리고서는 내가 살 곳이 없다. 이런 정도로 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백성들이 갖게 된다면, 나라가 유지될 것이다. 흐름이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임금답게 임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하는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 상태로 있어요. 그랬을 때 백성이 사랑을 알도록 신하들이 정치를 똑바로 하는 것이 나라가 태평해질 수 있는 그런 조짐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민가>는 계층의 상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금 신하 백성 상하의 계층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나라가 되었을 때,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나라를 태평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관건은 신하가 사랑하신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임금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덕왕이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다. 자기한테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한테 좀 똑바로 하라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경덕왕 입장에서는 좋은 노래겠죠.

그리고 뜻이 높다는 기파랑을 찬미한 노래는 이래요. 이거는 양주동 선생님 번역인데요. 해독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일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치고, 목적어가 생략돼 있죠. 창문이나 방문 같은 거를 열어젖힌다는 얘기입니다.

문을 열어젖히고 보니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이 아닌가? 달이 흰 구름을 쫓아갑니다. 하늘에서요. 그리고 땅에서는요. 아래 볼게요. 기파랑이 지니신 마음의 끝자락을 쫓으려 한다. 하늘에는 달이 흰 구름을 쫓아가고, 땅에서는 기파랑의 마음을 시적 화자를 포함한 다른 화랑들이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도 쫓아가고 땅에서도 쫓아가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 새파란 시내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

여기 일오천은 고유명사입니다. 일오천이라는 이름의 냇물이 있다고 양주동 선생은 생각하셨는데요. 여기 조약돌이라고 돼 있는데, 조약돌보다는 절벽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이거는 절벽이라고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잣나무 가지 드높아 서리 모를 화판이요. 여기서 화판은 화랑의 우두머리, 아니면 요 판 자가 뭔가를 갈라서 본다는 뜻이어서요. 고깔, 고깔모자 그렇게 보는 설도 있는데요. 다시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서리 같은 위기를 모를 화랑정신의 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기파랑가>는 시선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늘 시냇가 절벽, 그리고 마음의 끝자락을 쫓아가는 잣나무 가지, 마지막에 그래서 시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어디를 보아도 기파랑의 자취가 남아 있으므로, 나는 기파랑의 자취와 뜻을 영원히 쫓을 것이라는 거죠.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기파랑을 따르겠다. 그런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 작품이 왜 가치가 있는가 하면, 여기 달이 있죠. 그리고 구름, 시내, 냇물, 잣나무 가지, 이런 식으로 후대의 시가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들이 이 <찬기파랑가>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의 주제보다는, 형식적인 완결성과 여기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더 큰 작품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안민가>와 비교해서 보는 시간이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첫째는 이렇게 기파랑이 나라를 생각했던 정신, 나라를 생각했던 기파랑의 마음을 백성을 다스리는 <안민가>라는 노래로 다시 한 번 풀어서 전달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하늘과 땅, 계층의 위와 아래를 움직이면서 내용을 전개하는 형식적인 유사성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덕왕은 5년 전에 그러했듯이, 5년 전에 <제망매가>라는 유명한 향가를 지었던 월명사를 불러 <도솔가>를 짓게 해서 왕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찬기파랑가>라는 유명한 향가를 지은 충담사를 불러다가 또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노래를 지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는 그렇게 큰 호응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담사는 왕사가 되지도 않았고, 귀족들도 정말 경덕왕의 뜻에 따라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시도에 동의하지도 않았고요. 또 경덕왕 자체가 <안민가>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안민가>는 예전에 <도솔가>가 그랬던 것처럼 좀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경덕왕의 후계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경덕왕은 그 남근의 길이가 20cm가 넘어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비를 내쫓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루는 표훈대덕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을 불러다가, 하느님께 부탁해서 아들을 하나 점지해 달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딸을 구한다면 가능한데, 아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딸을 바꿔서 아들로 해 달래요. 논란이 될 만한 말이죠.

그랬더니 하느님이, 딸을 바꿔서 아들로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나라가 위태롭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신라에 여왕이 없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렇게 예전에 있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여왕을 세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경덕왕은 굉장히 아들을 좋아해서, 나라는 위태로울지라도 아들을 얻어서 뒤를 잇는다면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경덕왕이 생각한 왕권 강화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권 강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내 아들이 꼭 내 뒤를 이어야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왕족들만을 위한 왕권 강화였죠. 뭔가 정치적인 효율성이거나 다른 이유에서 왕권 강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었다. 좀 실망스럽죠. 그리고 이런 그 생각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가 하면, 하느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늘과 사람 사이를 어지럽게 오갈 수 없는데, 스님은 이웃 마을처럼 왕래하면서 천기를 누설했으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웃 마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딸을 아들로 바꿔달라고 하고, 이게 되겠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돼요. 표훈 이후로는 신라의 성인이 태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목소리를 인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성인이라고 쓴 것 같은데, 그런 존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라죠. 그러니까 경덕왕은 아들 욕심 때문에 신라를 망하게 하고, 또 신라가 하늘과 교류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운명을 좋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태어났던 태자가 8살 때 왕위에 오르니, 이게 혜공왕이었어요. 아까 링크했던 영상에서 8살 때 혜공왕이 왕위에 올랐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암살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나이가 어렸으므로 태후가 조정에 나섰으나, 정사가 다스려지지 못했다는데요. 이렇게 읽으면 태후가 나섰으니까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정사가 다스려지지 못한 이유는 태후가 나서서 그런 게 아니라요. 경덕왕하고 신하들의 관

계가 애초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경덕왕이 죽은 다음에 혜공왕의 후견인이 될 만한 신하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왕하고 다른 신하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전의 의자왕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권력을 사이에 두고 왕하고 다른 신하들이 사이가 안 좋게 되면 그 다음 세대의 임금이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요. 대개 사극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태후가 뭔가 권력욕이 강해서 망하는 걸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극의 관용적인 표현이기는 한데, 실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 예전 세대 왕하고 신하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도적이 별떼처럼 일어나 막을 수가 없었으니 표훈 스님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그다음 말이 좀 의미심장한데요. 어린 혜공왕은 여자였는데 남자가 되었으므로, 한 살 때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언제나 여자들이 하는 장난을 하고 비단 주머니 차기를 좋아하며, 비단 주머니 차기를 좋아한다는 건 여장하기를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드레서였던 거죠.

좀 복장에 대한 패티시가 있다고 할까? 그런 사람인데 도사들과 어울리면서 희롱하였다. 그러니까 도사들하고 동성애를 했다는 얘기에요. 역으로 혜공왕이 도사들하고 동성애 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저 위에 있는 표훈대덕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맨 처음에 <도덕경> 받았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 아무 문맥이 없었는데요. 맨 밑으로 내려가서, 혜공왕이 도사들과 동성애를 했다. 이런 호응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 첫 문장이 들어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큰 난리가 있어 마침내 왕은 선덕왕 김양상에게 살해되었다. 선덕왕 김양상이 경덕왕하고 격렬하게 투쟁했던, 반왕당파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덕왕이 신하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의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할 신하가 앞장서서 왕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 기록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왕을 죽인다는 거는 대역죄인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누가 죽였다고 이렇게 딱 지목하는 경우는 의외로 흔치 않아요. 이거는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선덕왕이라는 왕이 되어 했던 역할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 당시부터 암살자가 누구인지 세상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양상이 언젠가는 혜공왕을 죽일 것이다. 하는 걸 그가 왕이 된 순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신하들에게 살해당하는 게 다반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고, 그리고 성인이 나지 않게 되면서 이런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서 종교나 사상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게 된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서 등재된 불국사와 석굴암 있지요? 그 우수성을 자료 화면이나 영상 등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저 당시 역사의 기준에서는 저런 거를 국력을 소진해가면서 만드는 것보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하는 그런 것보다, 신하들하고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신라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저 당시 역사의 기준에서는 좀 더 절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 미술 작품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유산인 것은 맞는데요. 그것도 사람들이 행복해 하고 태평성대였을 때 저런 작품들이 나왔다면 더 후련했을 텐데요. 그러나 저 미술 작품들이 만들어졌던 시대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이 작품들이 만들어진 시대 이후로 오랫동안 신라 사람들과 신라 정치는 별로 그렇게 태평한 적이 없었다는 게 조금은 좀 가슴 아쁩니다. 우리가 이런 작품의 예술적인 가치를

그 자체로서 또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만, 이것을 낳은 시대가 갖고 있었던 비극적인 면모 역시 또 한편으로 기억해 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일본에서 경덕왕의 아들을 사칭한 사기꾼이 있었어요. 경덕왕의 아들은 아까 말씀드린, 8살 때 왕이 된 혜공왕이 외동아들인데요. 752년이니까 경덕왕이 죽기 한 13, 4년 전이에요.

<속일본기>라는 일본 쪽 역사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왕자 김태렴하고 김훤, 김필런 이런 사람들 700명이요. 사기꾼의 규모가 굉장히 크죠. 700명이 7척의 배를 타고 와서 하카타에 입항해서, 신라 국왕의 사명을 받들어 인사를 올리고 예물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인사를 올리고 예물을 올린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신라 입장에서 굴욕적인 문서를 만들어 갖고, 신라가 일본의 왕을 황제로 모시고 신라가 일본의 제후 노릇을 하겠다는 굉장히 굴욕적인 문서를 만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이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 일본 사신이 신라에 왔습니다. 신라에 와 가지고 오만하고도 무례하므로 신라 왕이 만나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삼국사기>에 있는데요. 여기서 <삼국사기>의 요 기록만 놓고 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 게 일본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신라 왕자가 와 가지고 신라가 일본에 거의 속국이 되겠다는 그런 굴욕적인 문서를 주고 갔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일본 사신이 와서 마치 예전에 명나라 청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듯이요. 너네 왕자가 작년에 우리한테 와서 이랬으니까, 우리는 그 불평등 조약에 따라서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깐 경덕왕 입장에서는, 나는 아들이 없는데 저들이 뭘 소리를 하나? 하고서는 그냥 다 내쫓아버린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요. 일본이 신라하고의 무역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김태렴이나 이 사기꾼 일당들은 좀 더 큰 규모의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일곱 척의 배를 갖고 와 가지고 신라 물건도 팔고, 또 일본 물건도 수입하는 장사꾼들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장사꾼들이 외교 사절을 사칭해서 여러 가지 교섭을 하고, 그게 나중에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경덕왕의 아들 이야기가 나와서 여담처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왜 이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덕왕의 아들 이야기와도 관계가 있지만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뭘 했다. 이런 이야기가 신라나 고려 쪽 기록에는 있는데 중국 쪽에는 기록이 없는 게 더러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이런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왕자나 왕족을 사칭하지는 않았는데, 나는 중국에서 온 사신이다 하면 아무래도 한국 땅에서 무역하거나 활동하기가 좋으니까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이거나 신라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과 했던 무역의 규모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신라의 상단은, 비록 사기꾼이지만 몇백 명이 이 정도의 배를 타고 중국과 일본을 다니면서 무역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서요. 일본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자료겠지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가 명백하지 않아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좋은 자료라고 봅니다.

#### 4. 해상왕 장보고의 삶과 죽음

해상왕 장보고의 삶과 죽음에 관한 <삼국유사> 본문은 굉장히 짧아요.

신무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직후의 왕은 신문왕인데요. 신무왕이라는 왕이 나중에 또 있었어요. 왕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하죠. 왕위에 오르기 의협심이 있었던 궁파, 궁파란 장보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장보고에게 부탁합니다.

같은 하늘 안에 살 수 없는 원수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신무왕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왕위 계승권이 있는데, 이거를 억울하게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되찾는 과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궁파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장인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마음과 힘을 같이 하여 군대를 일으켜 서울로 쳐들어가서 왕이 됐어요. 압도적으로 서울 수비대를 장보고가 그냥 발라버립니다.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장보고는 이 군사력을 갖고 내가 왕을 만들어서 중앙 귀족과 인연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게 잘 안 되어 나중에 죽었으니까요. 장보고 이후 지방 호족들은 이 정도의 군사력이 있으면 내가 직접 왕을 하면서 저 신라를 쓰러뜨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장보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처럼, 호족들은 서라벌 경주의 왕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했더니, 미천한 출신이니까 불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보고는 출신은 미천했죠. 아마 6두품 이런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급 귀족도 아니고 그야말로 평민 출신이었는데, 중국이나 일본하고 무역했던 규모를 보면 왕에 못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도 미천한 출신이니까 외척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옳다구나, 그래야지 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반란을 모의하려고 했는데요. 염장이 나와요. 염장은 장보고의 옛 부하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염장이 이걸 듣고 내가 장보고를 암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무왕이 좋아서 허락했습니다. 이름값을 못하죠. 이름은 신무왕인데, '무'의 기본 정신은 저렇게 비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염장이 가서 장보고를 속이고, 술자리를 마련해서 장검으로 장보고를 죽였더니, 휘하의 군사들이 다 염장에게 굴복했다. 하는 건데요. 이것도 클리셰죠. 이런 상황에서 우두머리 하나를 죽이면 부하들이 다 항복하는 걸로 많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청해진을 장보고가 죽은 다음에도 잠깐 더 운영했어요. 장보고의 후계자들이 근데 오래 가지는 못했죠. 장보고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그냥 이런 상황이 바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좀 설화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장보고의 생애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어려서부터 해염도 잘 치고 했는데, 어렸을 때 이름이 궁파, 궁복 이랬는데요. 활 궁 자가 들어가는 거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처럼 활을 잘 쏘다는 뜻이거든요.

장보고는 중국에 가서 당나라 절도사들의 군대 양성 방법을 익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절도사들을 보러 다니면서 나름대로 군사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소질을 갖춘 거죠. 그리고 중국과 신라, 일본을 내왕했던 사람들이 산동성에서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해안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서해안이 되겠죠. 그쪽에 신라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 이쪽에 가면 신라하고 관계된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네요. 이때 신라 상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인천 같은 데 차이타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라타운이 중국에 있었던 거죠.

당나라나 신라 모두 중앙 집권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해적들이 신라 상인들을 많이 괴롭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보고가 사병을 만들어 만 명의 군대로 신라 상인들을 보호하겠다 하죠.

만 명 갖고 뭘 하나 하겠지만, 만 명이 육군이 아니라 해군이지요. 만 명이 탈 수 있는 배

가요. 배 하나에 한 100명씩 탄다고 쳐도 군함 100척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저게 작은 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라 무역상이 취급했던 물품은 아까 봤던 <속일본기> 752년 기록에서 알 수 있어요. 아까 봤던, 경덕왕의 아들을 사칭했던 사기꾼들이 했던 그 무역 자료에 신라와 일본이 어떻게 무역했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료가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 나온 752년이 그 752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보고는 무역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교도 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미국도 사실은 여러 개의 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연방국인데 주지사들이 자치권을 꽤 갖고 있는 주도 많습시다. 그런데 국방하고 외교는 미국의 각 주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국방하고 외교는 오로지 중앙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장보고는 자신이 직접 외교 교섭까지 한 거를 보면, 그러니까 왕 못지않은 권력을 실제로 갖고 있었던 거죠.

장보고는 산동성에 신라인들의 거주지를 만들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들을 포용했습니다. 장보고가 산동성 신라 사람들 많이 사는 곳에다가 법화원이라는 절을 지었는데요 절의 승려가 30명 연간 500석을 추수하는 500석이면은 50톤 정도 됩니다. 벼 50톤을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살펴보았듯, 수도권의 왕족과 인연을 만들려다가 실패한 거죠. 중앙 정부의 정치적 분쟁에 관여하기 위해 신무왕의 투쟁에 개입하고, 내전에서 이겨 자기가 후원했던 사람을 왕으로 만든 것까지 좋았는데 배신을 당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청해진을 없애 버렸어요.

청해진이 갖고 있었던 중국과 일본 해상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었는데, 신라가 그거를 자기 손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바다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하고 일본에 완전히 뺏겨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거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국제성을요. 일본이 이 바다를 이용해서 조총 같은 것도 들여오고 여러 가지로 발전하게 됐는데, 이 창구를 이후의 한국사에서는 결국 복원하지 못했어요. 나비 효과겠지만 이 해양성의 상실이 흘러흘러 쇠국을 계속하다가 식민지까지 되는 아픔을 겪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장보고는 호족 세력의 선구자였죠. 그러나 장보고의 실패 때문에 이후 호족들은 신라 왕족을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성장해가고, 결국 후삼국 시대가 도래하죠.

그래서 신라가 멸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은 지방 세력과 불화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호족들의 명분이 되었는데, 나는 고구려의 후예다. 그러니까 신라를 멸망시키겠다. 나는 백제의 후예다. 그러니까 신라를 멸망시켜야지. 그런데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경북 상주 사람이었고,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신라 왕자였다는 설도 있죠.

그러니까 신라의 귀족이나 왕족이었던 사람들조차 신라는 더 이상 민심을 얻지 못한다. 이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지방 세력의 힘으로 왕이 돼놓고 토사구팽 시켜버리니까, 어느 호족들이 왕족을 믿고 왕족에게 힘을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결국은 중앙과 지방 세력이 완전히 넘을 수 없는 강을 넘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국제화된 자생적인 세력 청해진이죠. 청해진을 토사구팽했다는 것은 경주 귀족 사회에는 부분적으로 도움이 됐겠죠. 지역 기반의 엄청난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킨 거니까요. 경주의 귀족 사회에는 이게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국력을 훼손한 일이고 이후에 한국사가 청해진에 맞먹을 만한 해양 세력을 다시는 가져보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엔닌이라고 하는 스님이, 장보고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근데 장보고가 때마침 죽는 바람에 엔닌을 더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해진의 후계자들이 엔닌을 도와줬습니다. 엔닌이 <입당구법순례행기>라는 책을 냈는데요. 일본에는 장보고의 조각상으로 추정되는 신라 명신이라는 유물이 있대요. 이게 엔닌이 세운 절에 있어요. 그래서 엔닌이 생각하는 가장 고마운 신라 사람은 장보고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장보고의 얼굴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에 남아 있는 장보고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닌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 배를 타고 돌아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본 배의 항해 기술이 아직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일본 배는 타기 싫으니까 제발 신라 배를 타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탄원을 했는데요. 장보고는 죽었지만 청해진이 아직 남아 있을 때라서 무사히 돌아가게 됩니다.

청해진과 산동성의 신라 법화원에 관한 얘기는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라는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법화원에 대한 지식은 일본 스님이 지은 책에 나와 있어요. 장보고와 청해진이 엔닌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 다행이죠.

내용을 몇 페이지 인용해 두었으므로, 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 5. 정리

정리합니다.

의자왕은 군사적 사상적인 능력은 있었다. 신라를 압박하고 해동 증자라고 불릴 정도의 능력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근데 이게 단순히 판단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충신들이 전쟁에 대한 생각이 의자왕과 달랐기 때문에, 의자왕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나와 그렇게 정치적인 입장이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간적인 의심을 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야성 전투가요. 의자왕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유신이 대두 되게 됐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가요. 그리고 신라는 외교적으로 백제를 고립시켜야겠다. 그래서 고구려도 가고 일본도 갔지만 다 실패하고 당나라와 동맹을 맺게 됐어요. 그 동맹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군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동맹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노력은 결국 나당 동맹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삼한을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주로 백제가 망하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마한 진한 변한의 한반도 남부를 통일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김유신과 김춘추가 했었는데요. 나중에 당나라가 이 동맹을 뒤집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자기네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니깐, 고구려의 유민들까지 포함해서 삼국을 통일해야겠다는 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경덕왕의 왕권 강화는 왕족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애민 정신이나 귀족들을 위한 배려는 찾기 어렵죠. 정치적 격동기에 왕권의 권위를 위해 이루어진 건축물과 미술 작품에는 그런 혼란상에서도 피어나는 예술 정신이 있었겠지요.

해상왕 장보고는 국제 무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라의 견고한 신분제 사회를 좀 느슨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연대했던 왕족에게 배신당해 죽고, 이후 호족들은 경주의 왕족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청해진만한 해양 세력이 끝내 한국사에 다시 나타나지 못했

던 점은 아쉽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퀴즈 (5분)

1. 백제 의자왕은 즉위한 뒤 신라에게 일방적으로 영토를 빼앗기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O/X)

정답: X

2.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격동기에는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오히려 예술이 흥성하기도 한다. (O/X)

정답: O

3. 신라 경덕왕은 <찬기파랑가>를 지은 총담사에게 <안민가>를 짓게 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O/X)

정답: O

4. <삼국유사>에 장보고가 신라 사람들을 위해 산동성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지은 이야기가 나온다. (O/X)

정답: X

5.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막강한 해상 세력을 갖고 있어 해동의 증자라고 불렸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ㄱ~ㄷ은 역사적 사건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를 연도순으로 바르게 정리한 것은?

- |  |
|--|
| ㄱ. 신라의 총담사가 <안민가>를 지어 경덕왕에게 바치다.<br>ㄴ. 백제의 성충이 의자왕에게 탄현과 기벌포를 잘 지키라고 간언하다.<br>ㄷ. 신라의 월명사가 <도솔가>를 지어 경덕왕에게 바치다. |
|--|

- ① ㄱ → ㄴ → ㄷ
- ② ㄴ → ㄷ → ㄱ
- ③ ㄷ → ㄱ → ㄴ

정답: ②

2. 다음 중 장보고에 관한 정보로 올바른 것은?

- ① 신라 신무왕을 즉위하게 도와주고 그 답례로 신무왕의 장인이 될 수 있었다.
- ② 김태령, 김훤, 김필연 등 700여 명과 7척의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 ③ 일본의 승려 엔닌은 장보고가 세웠던 청해진의 도움을 받아 귀국하였다.

정답: ③

3. 총담사가 지은 <안민가>와 <찬기파랑가>를 비교한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두 작품 모두 나라를 온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 나타나 있다.  
 ② 두 작품 모두 자연물 소재를 많이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했다.  
 ③ <안민가>에서는 계층의 위와 아래를, <찬기파랑가>에서는 하늘과 지상을 오가며 내용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형식상 유사하다.

정답: ②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백제의 성충과 의자왕이 갈등한 원인은 결국 군사적, 정치적 입장의 ○○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차이

2. 신라 경덕왕은 정치 ○○을 장악하기 위해 귀족들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정답: 권력

3. 해상왕 장보고는 무역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직접 ○○ 관계도 맺었다.

정답: 외교

**나. 토의 (50분)**

왼쪽의 작품은 <안민가>를 현대어로 풀이한 전문입니다. 8세기로 돌아가 신라를 통치하게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때 어떠한 정치를 실현할 것이며, 그것을 시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논의를 바탕으로 오른쪽의 빈칸을 채워 봅시다.

<p>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할 어머니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 수 있어야 하리라.          꾸물대며 살아가는 중생들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들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까?”          한다면 나라가 버틸 수 있으리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해지리라.</p> <p style="text-align: right;">(김완진 해독, 서철원 현대어 풀이)</p>	<p>임금은 ( )요          신하는 ( )요          백성은 ( )라고          한다면 백성이 ( )을 알 수 있어야 하리라.          ( )며 살아가는 중생들          그들을 ( )야 한다.          그들이 “( )”          한다면 나라가 버틸 수 있으리라.          ( )          한다면 나라가 태평해지리라.</p>
---	---

**다. 과제 (40분)**

왼쪽의 작품은 <찬기파랑가>를 현대어로 풀이한 전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열 번째 줄까지 시의 흐름을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오른쪽 빈칸에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이때, 시의 화자가 시선을 위아래로 이동하는 흐름에 유의하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p>1 흐느끼며 바라보니          2 이슬 밝힌 달이          3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          4 모래 가르 물가에          5 기파랑의 모습이 수풀처럼.          6 저 냇가 자갈 벌에서          7 기파랑이 지니셨던          8 마음의 끝을 따르리라.          9 아아, 잣나무 가지 드높아          10 눈이 못 덮을 고깔이여!</p> <p>(김완진 해독, 서철원 현대어 풀이)</p>	
--	--

## ■ 참고자료

일연 지음, 서철원 번역·해설, 『삼국유사』, 아르테, 2022.

### - 의자왕 관련

대야성전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조룡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 - 경덕왕 관련

고종훈 한국사 - [생방송 한국사] 경덕왕 ([영상 보기](#))

김부식 글, 이병도 번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96.

서철원, 「향가의 서정주체와 불국사·석굴암의 조성 방식」, 『향가의 유산과 고려시가의 단서』, 새문사, 2013.

연민수·김은숙·이근우·정효운·나행주·서보경·박재용 역주, 『역주 일본서기』, 동북아역사재단, 2013.

연민수 역주, 『역주 속일본기』, 해안, 2022.

### - 장보고 관련

심경호, 「[심경호 교수와 함께 읽는 한문고전] ⑫ ‘입당구법순례행기’」, 『주간조선』, 2010.8.27. ([글 보기](#))

장보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 <10차시> 삼국유사의 정치(2): 사극의 전쟁, 권력 암투와 연애담

### ■ 학습목표

1. MBC <태왕사신기>, KBS <근초고왕>의 연애담과 인물 형상을 살핀다.
2. SBS <서동요>에 나타난 현대적 재해석을 평가해 본다.
3. KBS <대왕의 꿈>, <해신>에 나타난 전쟁과 그 성격을 정리한다.

### ■ 강의 목차

1. 강의 개관
2. KBS 근초고왕, 삼각관계와 부여 계승론
3. SBS 서동요, 정통과 퓨전의 갈림길
4. KBS 대왕의 꿈, 신라 무열왕의 성장과 리더쉽
5. KBS 해신, 장보고의 꿈과 좌절
6. 정리

### ■ 강의 내용 전문

#### 1. 강의 개관

안녕하세요. 서철원입니다.

사극에서 정치하면 떠오르는 전쟁, 권력, 암투, 연애담, 이런 게 한국 사극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거는? 한국 사극은 한국 드라마는 의사가 나오나 형사가 나오나 누가 나오나 연애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쟁, 권력, 암투, 연애담 이렇게 순서를 적어놨는데 순서는 좀 역순이 돼 버렸네요.

구성을 시대순으로 하다 보니까, <태왕사신기>와 <근초고왕> 이 두 편의 사극은 정치적인 라이벌이 연애 관계에서의 라이벌도 돼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좀 작위적이죠. 그래도 뭔가 좀 중첩된 갈등 관계는 그럭저럭 볼 만합니다. <태왕사신기>의 태양은 아시다시피 광개토태왕이고, 근초고왕 백제의 전성기를 열었던 인물들인데요.

그 다음 서동의 무왕은 약간 좀 후대 임금이었죠. 그래서 서동요는 과학의 나라였던 백제를 재조명하겠다는 그런 기획 의도를 처음에 갖고 있었어요. 퓨전 사극답게 굉장히 현대적인 재해석을 시도했는데요. 이걸 하다가 좀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권력 암투를 묘사하는 정통 사극 방식으로 전환했는데요. 역시 신라의 선화공주를 둘러싼 삼각관계가 정치적 갈등과 함께 이중으로 중첩된 그런 연애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살필 이 사극의 핵심은

아니고요. 과학의 나라를 묘사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전환했는지 그걸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대왕의 꿈>하고 <해신>은, 더욱 후대인 무열왕 김춘추하고 장보고를 각각 주인공으로 한 사극인데요. 앞에 있는 것들보다는 주목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왕의 꿈>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주연 배우가 낙마, 말을 타다가 떨어지는가 하면, 스태프들이 또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괴담 같은 게 생길 정도였죠.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조기 종영을 한 그런 사극이고요.

<해신>의 경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약간 의도하지 않은 효과랄까? 그런 게 생겨서, 기획 의도하고 시청자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거리가 생기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대왕의 꿈과 해신은 공교롭게도 둘 다 최수종 씨가 주연했는데요. <대왕의 꿈>과는 달리 <해신>에서는 주인공인 장보고보다, 장보고를 죽인 염장의 매력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염장을 송일국 씨가 연기했거든요. 염장이 장보고보다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애초에 의도한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꽤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태왕사신기>하고 <근초고왕>은 좀 옛날이라 자료가 없는 것도 있는데요. 사랑의 광개토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각관계 안에서 이래저래 좀 하는 사랑의 주제입니다.

이따 볼 <근초고왕>은 백제와 고구려의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태왕사신기>의 원래 줄거리였습니다. 백제 아신왕과 고구려 광개토왕이 한 여인을 두고 벌이는 삼각관계가요. 그런데 광개토왕은 광개토왕릉 비문을 보면, 한반도 남부에 쳐들어온 일본과 백제를 물리친 일이 최대 업적이었지요. 그래서 광개토왕과 백제의 관계를 다루다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안 다룰 수가 없고요. 일본을 격퇴한 장면 역시 안 넣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태왕사신기>는 일본의 투자도 이루어진 드라마였습니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배용준 씨가 환웅과 광개토왕 1인 2역을 맡을 정도였지요. 그래서 백제를 아예 빼버리고요. 광개토왕이 다른 고구려의 왕족들과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또 사랑 문제로 또 싸우는 내용입니다. 한국인들은 광개토왕을 한국사 최고의 정복 군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와는 아주 다른, 인간관계와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나름 새로운 시도였죠.

물론 사랑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뭔가 모자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이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간에, 나는 사랑 문제가 힘들어서 뭐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힘든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가 일상의 여러 가지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광개토왕을 민폐를 많이 끼치는 사람처럼 그려냈다면요? 새로운 시도와 참신한 이미지는 괜찮았지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갑옷 하나는 정말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삼각관계는 근친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초고왕이 배다른 누이동생을 사랑했는데, 그 누이동생이 고구려로 시집을 가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삼각관계인데요. 아무리 고려시대까지는 왕족들이 근친혼을 했다고 해도, 누이동생과 연애한다는 게 약간 걸리기도 했습니다.

<서동요>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을 이야기하려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까요. 귀족을 혐오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귀족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약간 전형적인 스토리를 보였고요.

그리고 <대왕의 꿈>에서는 무열왕의 성장과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조기 종영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명예로운 죽음을 당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조기 종영을 해서 그런

데 좀 아쉬움이 남죠.

그리고 <해신>도 기획 의도는 장보고의 꿈과 좌절, 그런 면을 잘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염장을 연기했던 송일국 씨의 연기력과 카리스마의 사람들이 많이 매혹돼서, 오히려 장보고가 좀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기획 의도에서 장보고와 염장의 관계를 더 입체적으로 보는 쪽을 강조했다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5편의 사극이 다 뭔가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자료가 좀 남아 있는 무열왕이나 장보고의 인생에 대해서는 나름 괜찮은 방식의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 2. KBS 근초고왕, 삼각관계와 부여 계승론

그래서 <태왕사신기>부터 보시면, <태왕사신기>의 전제는 고조선의 환웅하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이같은 인물의 환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전생이 환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 동서남북 사신의 힘을 빌려서, 환웅은 홍익인간의 꿈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작은 흑과 백 둘이 있었어요. 흑과 백 두 주작이 환웅을 두고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문제가 됩니다. 주작이 흑화된 사악한 힘에 물들면 흑주작이 된다는데요. 삼각관계 때문에 생기는 질투와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흑주작을 만드는 계기가 되겠지요. 두 주작, 두 여성이 서로를 질투하고 그러느라고 결국 홍익인간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환웅이 동면에 접어들어요. 이것도 지금 기준에서는 문제죠. 주작에 해당하는 두 여성의 질투가 역사를 망쳤다는 건데요. 옛날 사극에는 그런 줄거리가 많았습니다.

여성들의 질투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이 나오는 클리셰가 많았는데요. 지금 기준에서는 일종의 혐오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주작의 질투 때문에 한 번 망쳤다는데요.

사실 고조선은 환웅 때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웅 때 시작되었죠. 저것도 엄밀하게 보면 역사 왜곡이라고 할 만한 건데요. <광개토대왕>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요. 또 광개토대왕이 홍익인간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머나먼 미래를 기억하면서 동면해요.

무슨 광개토대왕이 괴수영화에 나오는 고질라도 아니고, 걸핏하면 이렇게 동면을 해요. 저런 식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안 되면은 다음 생을 기약하자. 이것도 하나의 클리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광개토대왕 하면, 아니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남긴 광개토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 남부에 쳐들어온 왜구를 물리치고 백제를 완전히 꺾어서 한반도의 패자가 된 것이겠지요. 한반도와 만주의 패자가 된 것이 가장 큰 업적인데요. 여기서 사랑을 실패하고 동면하는 인물입니다. 환웅과 광개토대왕은 나름 새 시대를 연 인물들이었지만, 여기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동면하는 인물이 되었지요. 그래서 실패자라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사에 대한 존중이 별로 없느 것도 같아요.

왜 그러면 줄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사랑의 광개토대왕을 만들었냐? 이거는 당시 주연 배우가 일본에서 겨울 연가나 이런 드라마로 큰 인기를 얻었던 배용준 씨였거든요. 배용준 씨는 그때 일본 중년 여성들이 '욘사마'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겨울 연가의 여주인공 최지우 씨를 지우 히메, 일본어로 공주를 히메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렀지요. 그래서 배용준을 캐스팅해서 일본 시장을 훑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캡처해 두었어요.

캡처된 내용을 보시면, 여기 고대사 연구회라는 곳이 나름대로 자문해 준 내용과 다르게 됐

다는 걸 항의했다고 했는데요. 고대사 연구회도 이렇게 좀 뭐랄까 기록에 남으니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간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역사 연구도 간혹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 보시면 이렇게 편드식인 일본 자금으로 보편적인 제작을 한다고 해서, 현실에서의 제작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속단하기는 무리라는 주장이 있고, 반면에 이러한 투자자들의 흥행에 대한 요구로 '윤사마'라는 한류 열풍의 주역인 배우 배용준 씨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있었다지요.

그래서 원래는 <주몽>이란 사극에서 주몽 역할도 맡았던 송일국 씨가 이 광개토대왕 역을 맡으려고 했었는데요. 일본 측 투자자들의 요구로 인해서 배용준 씨로 교체됐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일본 시장을 고려해서 일본과의 전쟁은 빼고 내용을 바꾸고, 결말도 그냥 열린 결말이 되었죠. 예전에 한 번 망해서 동면했는데, 이번에도 삼각관계 때문에 망했으니깐 또 그런 거죠. 역사는 되풀이되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예전에 이래서 망했으면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요. 뭐 하여튼 개연성도 떨어지고 좀 무리한 것 같죠. 물론 일본 자본을 가지고 한일 합작으로 뭘 만든다는 취지는 괜찮죠. 잘 만들면은 좋은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인물에 대한 형상을 좀 바꾼다는 건요. 배용준 씨를 주연으로 쓰고 싶었으면 굳이 광개토대왕 하지 않고 다른 거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일본과 우호적이었던 백제나 고구려의 다른 임금을 주인공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전에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도 이거는 일본 시장을 고려한다는 의도가 너무 줄거리나 배우의 캐릭터성 이런 데 많이 관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뚜렷한 하나의 목적이 지나치게 콘텐츠에 많이 간섭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물 간 밭인데요. <태왕사신기>의 이미지는 이렇게 한때 굳어졌었습니다.

이런 거를 굳이 링크까지 해서 보여주냐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태왕사신기에 대한 이 당시 사람들의 태도랄까 이게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400억 넘게 투자했을 텐데, 언제 한국 사극이 400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뭘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아주 좀 씁쓸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룡은 청룡, 백호는 백호, 주작은 봉황이고요. 현무는 원래 거북이하고 뱀인데요. 여기서는 머리는 거북이고 꼬리는 뱀으로 무슨 키메라처럼 창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환웅과 함께 나타난 수호신들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낫겠지 이러실 분도 있으려나? 그런데 2007년 기준으로 저게 지상파 tv 화면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큰 화제가 될 만한, 그런 CG, 컴퓨터 그래픽이었습니다. 아마 외국 CG 기술일 거예요. 지금은 CG 기술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 어쨌건 그 당시 기준으로는 보기 힘들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극에서 나온 새로운 광개토대왕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원작이나 원래 역사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드라마 연구하시는 분이 이런 평을 했어요.

순환과 반복을 통한 영원 회귀적인 신화적 시간에 대한 서술이라고 하셨는데요. 영원회귀라고 한 거는 그렇습니다. 환웅이 한 번 그렇게 망했고, 광개토대왕도 똑같은 이유로 또 망했으니까요. 그리고 미래를 또 기약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인류의 영원한 꿈이라는 면에서 신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딱 두 번 일어난 일을 가지고 영원회귀라고 하셨죠. 영원회귀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차례 일어나야 영원회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말로 고치자면 숙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야구팀이 매년 봄에는 희망을 주다가, 가을에 시즌 끝날 때면 우승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면요. 매년 그렇게 희망고문을 준다면 그게 영원회귀이고, 우승은 숙원이 되겠지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갈망하고 좌절한 그런 것을 영원회귀라고 할 수 있지요. 두 차례만 갖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환웅과 광개토왕 뒤에, 이런 꿈을 가졌다가 좌절한 한국사의 군주들의 이야기를 몇 개 좀 같이 얘기했더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신화의 인물상으로 담덕의 행보는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다고 하셨지요. 아무래도 흥익인간이라는 공동체의 이상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태왕사신기>의 내용 자체에서는 그런 공동체적 이상보다는, 내 곁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의 싸움과 갈등이 더 중요하지 않았던가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좀 진정한 인간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직장이나 이런 데 있는 문제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회사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 나의 아내와 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겠다. 그거는 충분히 긍정할 만한 그런 가치관이죠.

근데 광개토대왕인 담덕은 그런 개인이 아니라 왕이잖아요. 왕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사로운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게 왕의 책임이겠지요. 그런 면에서 왕이라는 존재가 외로운 존재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의 행복이나 사적인 게 허용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안 풀리면 폭군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행보를 왕으로서 이상보다는 자기 가족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추구한 거를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국가의 지도자는 개인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고 그렇게 할 만한 선택이라 해도 국가 지도자라는 차원에서는 꼭 그런 게 전적으로 긍정될 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태왕사신기> 같은 경우는요. 이게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가상의 나라의 임금이었다면, 이렇게 환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더 생각했다는 걸 우리가 존중할 수 있겠지만요. 광개토대왕이라는 실존 인물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선이해 때문에 성공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입니다. 이 박스 안 문장은 <근초고왕> 사극의 기획 의도에 들어있는 원래 문장이거든요. 요서 지방을 수중에 넣고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서백제를 건설했다는 이런 얘기는 아마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중국의 남북조 시절에 북조와 남조에 속한 왕조들이 각각 역사책을 편찬했는데요. 북조 쪽 역사 책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남조 쪽 역사 책에 요서 지방에 백제 사람들이 와서 활동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를 지난 시간 나왔던, 신라 사람들이 산동성 법화원을 중심으로 무역을 했던 것처럼 그냥 경제활동이나 이런 상업적인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군사적으로 이 지역을 백제가 지배했던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후자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백제가 산동반도에 식민지를 건설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한때 각광을 받았던 설인데요. 이것 때문에 중국 쪽에 백제가 식민지를 건설하는 이야기가 <근초고왕> 사극에 등장하는데, 그런 인식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근데 기획 의도는 이렇게 짜놓고요. 정작 내용을 보면 정복 대신에 권력 암투와 삼각관계에 치중해서요. 줄거리가 어지간한 막장 드라마 뺄 정도입니다. 굳이 영상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는데요. 근데 이 사극이 여전히 존중받는 이유가 있어요. 갑옷 고증이 굉장히 훌륭해요.

이 누런 게 1600년 전에 있었던 백제 갑옷인데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런 갑옷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백제 갑옷의 특징은요.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여기 목을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백제 갑옷만의 특징이거든요. 이거를 사극에서 구현한 유일한 드라마가 근초고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칭찬 많이 받았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백제와 싸웠던 고구려 갑옷도 벽화에 남아 있는데, 거의 똑같이 이렇게 재현했어요. 건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입은 게 고구려 갑옷입니다.

<태왕사신기>를 비롯한 다른 고구려 사극 보면 고구려 갑옷이 거의 무슨 판타지 수준입니다. 워크래프트 게임에 등장하는 갑옷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 벽화의 모습을 거의 재현해서, 투구의 날개 모양 장식의 무늬까지 구현해서요. 이게 갑옷 하나만은 역대 어떤 사극보다도 훌륭했다. 이 갑옷에 대한 고증이나 자문을 철저히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에 백제 갑옷으로 추정되는 유물들도 약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갑옷하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투구나 어깨 장식 이런 거를 좀 일본풍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런 일본 갑옷의 느낌이 약간은 남아 있지만, 목 장식과 투구 같은 것들이 상당히 고증이 잘 된 갑옷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백제 사극은 그냥 이 갑옷을 계속 재활용해서 찍으면 되겠다. 할 정도로 격찬을 받았지요. 근데 어째서인지 그 다음부터는 이거 안 쓰더라고요. 그냥 이거 안 쓰고요. 그냥 요 작은 사진에 나온 거 씁니다. 다른 사극이나 마찬가지로 잃어버렸는지? 아무튼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사극에서 건질 것은 갑옷뿐이라고들 했는데요. 갑옷이라도 제대로 고증된 게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 3. SBS 서동요, 정통과 퓨전의 갈림길

<서동요>는 제가 신라 향가를 전공하다보니, 나름 열심히 끝까지 다 봤거든요.

의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의 나라 백제를 그리자고 했는데요. 사극이 끝난 다음에 평론가께서 이런 비평을 했어요. 노란 글씨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백제의 찬란했던 문화가 일개 부족 국가만도 못한 비주열로 눈앞에 드러났을 때, 그냥 어디 절 하나 빌려서 그 절을 백제의 궁궐이라고 해놓고 좁은 공간에서 이것저것 다 했거든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배우와 스태프들은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기쁜 일이 있으니 큰 잔치를 벌이자. 했는데 절 마당에다가 상 세 개 붙여놓고 돌 잔치하는 것처럼요. 그거야 주어진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환경 탓에 부득이하다고 봅시다. 근데 문제는 다른 겁니다.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이공계가 주목받는 사극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모처럼 과학의 나라를 해보자고 해서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과학하고 발명을 구별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어느 날 찬 바닥에 자니까 너무 힘든데, 바닥이 뜨거우면 좋겠다. 그래서 온돌을 발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가 아쉬우면 척척척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이공계 경시 문제의 핵심과 관련되어 있다. 과학을 질문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초과학으로 여기지 않고, 발견과 발명으로 인한 산업화에만 치중하고 그것을

과학이라고 여기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성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한 게 아니라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닌텐도 게임기를 보시고, 우리나라는 이런 거 못 만드나 하고 산업계 인원들을 질타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런 게 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소프트웨어는 1~2년 만에 똑딱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요. 지금도 늘 사람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연구재단의 지원 같은 것도 3년이나 5년 기한을 줘놓고, 이 시간 안에 뭘 해라. 무슨 게임 하듯이 생각하는 건 아닐지요? 20분 안에 늑대 가죽 몇 개를 가져오시오. 이런 식으로요. 딱 이렇게 시간제한을 주고 돈을 주면 뭐가 알아서 척척 나오겠거니. 그런 마인드를 여전히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과학하고 기술하고 발명을 잘 구별도 하지 않고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인 성과가 나오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방바닥에 천에 온돌, 제가 아까 너무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서동의 과학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발명이었지요. 이런 인식을 반영했는데 시청자들이 이런 마인드에 더는 공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공계가 얼마나 힘들고 참 열악하게 연구하는지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던 시점이라 별로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를 살짝 바꿨습니다. 그냥 격물, 격물치지할 때 격물입니다. 실학의 정신인데요. 격물은 백성을 위하는 것이다. 과학적인 발명은 백성을 위하는 거니까요. 그럼 백성을 위한 게 뭘까? 귀족이 문제로구나. 귀족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요즘의 화두하고도 약간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귀족들의 약점을 잡아서 다 몰수해 버리는 이게 엔딩입니다. 속은 시원할런지 모르지만 비현실적인 엔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평론가께서는 인류 역사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느냐? 그런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손쉽게 아무렇게나 이루어진다는 게 <서동요> 줄거리의 정신입니다. 손쉽게 아무렇게나요. 과학이든 정치든 너무 손쉽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다 하는 거죠. 아동극도 넘어서는 안 될 범주다. 대단히 혹평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읽 어볼게요. 왜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유토피아를 세우지 못하고, 수많은 이들이 굶고 핍박 받고 학대받고 죽어가는 지옥일까? 무왕이 없어서일까? 재미만 있으면 이런 알팍한 세계관도 용인되는 게 한국의 드라마계인가?

<서동요> 사극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향가 갖고 만들었다고 해서 저는 참고 봤죠. 근데 블랙코미디라는 장르로 <서동요>를 보면 말이 된다. 사극이라는 이름을 반납해라. 했는데요. 지금은 사극 자체를 잘 안 만드는 시대가 돼버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아무튼 나름대로 참 신한 시도가 될 뻔 했는데요. 저거 각본 쓴 분이 나중에 <대장금>을 비롯해서 좀 성공한 사극도 몇 개 참여하고 그러기는 했어요.

아무튼 과학이라는 기획 주제를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반응이 안 좋게 되니까, 그냥 귀족들이 문제라는 수십 년간 사극이 반복해 온 클리셰로 돌아가는 좋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인류 사회 모독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너무 좀 험악해졌으니까 서동과 선화공주의 해맑은 아역 때 모습을 잠깐 보고 그러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화공주 아역은 지금은 고인이 된 설리라는 아이돌 출신 배우의 데뷔작이었습니다. 대략 저런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하는 정도를 보시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백제에서 미인 대회를 여는 장면이 있었어요. 정확히는 미인 대회라기보다 패션 모델을 뽑는 그런 행사를 백제 사람들이 하는 게 있었는데요. 한복을 여러 가지로 재창작하기도 했어요. 돌아가신 분 잠깐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을 그냥 마련해 봤습니다.

#### 4. KBS 대왕의 꿈, 신라 무열왕의 성장과 리더십

네 번째로 <대왕의 꿈>은 김춘추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삼국 통일 주역들의 이야기입니다. 워낙 선거를 자주 해서 그렇기는 한데요. 2012년도 선거가 있던 때였죠. 대통령 선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드라마에서 리더십 같은 걸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능동적으로 대체하여, 삼국 통일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기획 완수 시대 정신 국가적 프로젝트 운운하지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김춘추의 리더십은 뭐냐? 이거는 보통 안 나와요. 리더십이 이 즈음 사극에 많이 제기되는데요, 그럼 그 리더십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기획 의도로 구체적으로는 또 안 나옵니다. 누가 선거에 이길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명분, 비전, 충성, 의리, 성공, 실패의 교훈을 보자. 그렇게 하고 여러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경쟁을 현실 정치 상황과의 연관 속에서 보여준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선거 결과는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특정 정치인을 연상시키면 안 되겠지요.

그래도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한 고민과, 저 주제에 대한 갈증이 꽤 있는 그런 시기니까요. 그런 시사적인 거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도화녀 비형량 이야기 읽을 때 생각나실까요? 비형량이 귀문이라는 비밀 결사, 일본의 난자 같은 거를 연상시키는 그런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김춘추와 신흥 세력들을 나름대로 후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갈등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그 성격이 규정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조직이 등장해요.

그래서 비형량이 귀신들과 놀았다는 것을 귀문이라는 조직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김춘추의 일대기 자체보다는 귀문의 활동이 더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링크된 영상을 잠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 좀 험해 보이죠? 저 난승이라는 분은 옛날에 철권이라는 게임에 나오는 헤이하치라는 캐릭터와 헤어스타일이 특히 비슷합니다. 헤이하치 쪽이 약간 더 빠죽빠죽 돼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게 떠올라 가지고요. 상당히 나름대로 현대인들의 입맛에도 익숙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려고 공을 들인 것 같아요.

개성 넘치는 난승이나 길달, 그리고 비문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에게, 우리가 사극에서 여러 번 봐온 김춘추나 김유신이나 그런 분들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좀 받았습시다. 그래서 이 사극은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좀 사고도 나고 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게 아쉬운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 5. KBS 해신, 장보고의 꿈과 좌절

그리고 <해신>은 여기 15분짜리 동영상 요약을 링크해 두었으니, 잠깐 보시고 이따 말씀 나누다며 더 좋겠습니다. 장보고의 일대기를 다룬 최인호 소설가의 <해신>이라는 원작이 있었는데요. 대개 이런 경우는 제목만 따오고 내용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원작이 있는 사극이 원작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오히려 굉장히 드물어요.

중국에서 김용이라는 전설적인 무협 소설가의 작품을 한 4~5년에 한 번씩 드라마로 만듭니다. 여러 작품을요. 근데 그때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원작을 되풀이해서 재현하기보다는, 캐릭터들의 관계가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는 또 다르게 되는 게 좀 재밌겠다. 그렇

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 설록 홈즈를 재해석해서 유명했던 그 B.B.C. 설록이라는 드라마도 캐릭터 관계를 많이 뒤바꾸어 놨잖아요. 어쩐지 수습이 안 돼 결국은 다음 시즌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배우들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 다를 수 있다.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원작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보고를 찬양하는 말이 있죠? 둘째 단락 셋째 줄에서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국경 없이 다스렸던 시대라네요. 바다는 원래 국경이 없어요. 국제 분쟁을 할 때 좀 따지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인, 미래인이라는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경덕왕대 이후로 신라가 혼란스러울 때, 장보고는 나름대로 동북아 무역의 강자로서 새로 이렇게 떠오른 거죠.

비록 장보고는 역적으로 몰려 죽었지만요. 역사란 이긴 자의 편에서 기록된다 하더라도 장보고를 비열한 반역자, 역사적 패배자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우리는 다 장보고가 갖고 있었던 선진적인 해양성과 미완의 진취성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기획 의도로는 그래서 장보고의 파란만장한 삶을 극적으로 묘사해서,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에게 뭔가 마련해 준다. 이럴 때는 꼭 젊은 세대 팔아먹어요. 이 사극은 2004년에 나왔고, 그 시절의 젊은 세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기획 의도가 그런대로 무난하죠.

장보고 하면은 예상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딱 구성했구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예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염장 역할을 한 배우의 카리스마가 너무 컸지요. 여기서 아까 링크한 영상에 대한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다의 제국 운운하는 기획 의도를 보고, 마지막에도 해상의 대제국을 건설하는 장정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실상 줄거리는 영상을 보셨다시피 역시 삼각관계였습니다.

애초에 기획 의도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염장이 일방적인 짝사랑 때문에 고생하며 성장하고, 결국 그 짝사랑 때문에 나중에 장보고까지 죽이게 되는 것인데요. 의외로 염장의 성장과 선택에 관하여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서, 장보고보다 염장이라는 캐릭터가 더 주목받고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줄거리에서는 염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리지는 않았거든요. 일반적인 빌런처럼 짝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하고, 또 결국은 국가의 방향까지도 좋지 않은 쪽으로 가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인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든 행동들이요. 사랑한다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랑에 미친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설득력이 생겨나게 된 거지요. 요약본 영상의 염장에게서 여러분도 그런 설득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2004년의 시청자들은 염장에게 많이 공감했던 거예요. 저 때는 짝사랑이나 그런 힘든 연애를 했던 사람들이 겪는 여러 고민이나 절망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했던 그런 시대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주인공을 보면,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이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까지 의식하지 않아도 좋은 것인지? 이따금 의문이 듭니다.

저 시절 사람들은 왜 장보고보다 염장에 더 공감했을까요? 장보고처럼 바다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지만요. 염장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었던 보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염장에 대한 공감대가 좀 컸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 6. 정리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보셨다시피 예산이 많이 드는 전쟁, 고구려나 백제가 나오는 사극에서 특히 전쟁 장면을 찍자면 일단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하고요. CG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CG로 처리하는 게 실제 사람 쓰는 것보다 저예산이 된 지가, 실은 얼마 안 돼요.

그 일본 드라마 중에 저 예산 모험 활극을 표방한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처음 나올 때는 저 예산이다 보니까 싹티가 막 나고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다시 나온 걸 보니까요. CG를 많이 써서 저예산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CG 덕분에 저예산도 고급지게 된 걸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 드라마만의 개성은 아쉽게도 사라져 버렸지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사극을 그만 별로 안 만들게 되었죠. 환경은 갖춰졌지만, 인기가 사라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사극은 전쟁 장면보다는 몇 사람만 나오면 되는 권력 간의 암투나 연애담을 선호하다 보니까요.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광개토대왕이나 근초고왕 같은 정복 군주의 일대기조차 삼각관계 중심이 돼서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재해석이 좀 어색한 게 많아요. 서동요 같은 그런 드라마 보시면 삼각관계를 상세하게 묘사했지만, 발명과 발견에 대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뭘 똑딱 만드는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공계의 성과를 결과만으로 판정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세태를 반영했다고 해서 욕을 먹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나름대로 풍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뭘가 똑딱 나오는 걸 많이 기대하지만, 정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꾸며보니까 얼마나 이게 개연성이 떨어지냐?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발명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풍자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민본주의와 애민 정신을 갖고 있는 전제 왕권이 묘사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는 임금이나 왕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저 간악한 귀족들을 물리쳐야겠다. 그런 구도를 보이는 사극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난 시간 봤던 경덕왕 있죠? 나라가 망하더라도 아들을 봐야겠다고 했잖아요. 전제왕권이 꼭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뭘가 조직이나 제도나 지역에 따른 분권을 거부하고 대통령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싶어 했던, 5공화국 시절까지의 대통령의 시대에 나왔던 사극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현실을 반영한 비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원작과 원래 역사는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가?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의식해서 콘텐츠 만들 필요는 없겠는데요. 그러나 원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아까 얘기 나왔던 광개토대왕이나 근초고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말이예요.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의식은 해야겠죠.

지금 김춘추와 장보고 역할을 한 최수종 씨도 처음 사극에서 태조 왕건 맡았을 때 동네 어르신들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시다. 아니, 태조 왕건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인자하게 수염 막 나 있고 약간 투실투실하고요. 그런데 최수종 씨는 그때까지도 미청년의 이미지가 강해서, 저런 미청년이 어떻게 태조 왕건을 하느냐? 했는데요. 어느덧 최수종 씨가 안 해본 왕이 거의 없죠. 거의 모든 왕을 해보고 장보고까지 해도 이제 별 무리가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존중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 거리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그런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자면요. 요기 작은 사진에 나오는 <감격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흥행에 그리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기획상으로는 시라소니라는 초창기 주먹 중 한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시라소니 일대기에 역시 유명한 주먹이던 김두한의 생애도 많이 보태었습니다. 김두한이란 분은 아까 염장 역할 맡았던 송일국 씨의 외할아버지기도 한데요. 시라소니와 김두한은 이미지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시라소니와 국회의원이 되는 김두한 모두 굴곡이 있고 매력적인 인생을 살다 갔지만, 1인 2역도 아닌 2인 1역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를 했지요.

시라소니라는 인물에다가 김두한이나 이 당시에 활약했던 다른 주먹들의 이야기까지 추가해서 캐릭터를 아예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라소니의 일대기 혹은 김두한의 일대기 아니면 어떤 상상 속 협객의 일대기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짓지 못하니까, 캐릭터가 어정쩡해지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요. 이런 식으로 원작이나 원래 역사에 뭔가 공백이나 여백이 느껴질 때는, 그거를 다른 상상력으로 메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지요. 비록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시도가 자꾸 나오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므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우리는 네 가지를 봤죠. <삼국유사>의 시간, 공간, 캐릭터, 정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신화에서는 신화가 단일하지도 유일하지도 않은 텍스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국 시조들은 대개 남성들이고 딱 한 사람이었는데요. 고구려를 한 사람이 세웠다. 백제를 한 사람이 세우고, 신라도 한 사람이 세웠다. 물론 백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 좀 약간 보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여신들이 세운 이런 나라에 대한 전승이 또 남아 있었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모습이 늘 달라지는 것이지, 고정된 하나의 신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미륵 신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믿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권력을 살폈죠. 권력이란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생겨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권력이 사라지겠죠.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지금은 투표고, 예전에는 민심이라고 하는 두리몽실한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건국 신화나 여신들의 신화가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공간과 관련해서는, 기획에 따른 이상향이 구현되는 과정을 불국사와 석굴암 통해서 이야기했지요. 그 앞에 화랑의 기원으로서 미륵선화와 진자, 이런 사람들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기획이 과거에는 정치권력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기획에 따른 관광지의 조성으로는 삼국유사 테마파크 그런 게 있었지요. 삼국사 관련된 중요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경주박물관이 거의 갖고 있는 상황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하시기는 했지만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차차 나아지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호응해서 일연과 민중성을 강조해 보려는 그런 성과도 있었는데요. 제가 지도 두 장 나란히 놓고 보여드렸죠? 지도 안에서만 놓고 봐도, 일연은 별로 그렇게 민중성과 관련된 지역을 일부러 찾아다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았죠. 이런 식으로 실제 있었던 내용보다 기획 의도를 우선시하는 태도에는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릭터와 관련해서는 현실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존재들, 길달 같은 이들이죠. 비형량의 부하였다가, 비형량의 질투 때문에 비극적으로 죽은 귀신이었죠. 그리고 <김현감호>에 등장하는 그 호랑이입니다. 남편과 오빠들을 위해서 희생당한 존재였죠. 그리고 처용은 시대에 따라서

천의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당의 원조, 때로는 지방 호족의 아들, 또 때로는 다문화 사회를 상징하는 존재로 나타났어요.

이런 캐릭터들에 대한 포용심이 한쪽에 있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런 성격의 캐릭터를 무리해서 만들기 위해서, 연개소문 같은 인물을 강화도와 강원도 지역들 곳곳에서 활용했지요. 내 고장의 위인, 내 가문의 위인을 만들기 위해서 종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정치와 관련해서는, 의자왕과 경덕왕 또 장보고 같은 이런 역사 속 지도자들의 투쟁과 좌절을 통해서요. 각각 외국과의 대결, 견제 세력과의 대결, 기득권과의 대결을 살펴봤지요.

그리고 이런 대결 구도를 사극 속에서 구현하는 한편으로요. 사극 속 지도자의 인간관계는 연애담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었어요. 보셨다시피 장보고가 당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것이나 상단에서 활동한 것, 다 나름대로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였고요. 입장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랑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역사적 이미지와의 차이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 혹은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관계를 바꾸는 게요. 이광수의 소설 중에 <사랑의 동명왕>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명왕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장군이나 영웅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미지를 이광수가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동명왕> 이후로, 사랑이라는 걸 사극 속 지도자에게 우리가 의외로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이 끝났어요. 소재는 시간마다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오늘날에 되살리려는 시도 자체는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 대중의 시선과 입맛에 맞으면서도 원전에도 충실하겠다. 이거는 양립하면 좋지만 양립할 수 없는 그런 큰 두 개의 벽이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시도는 벗어날 필요가 있겠지요.

다른 이들의 생각을 수용하고, 읽고 보고 듣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것을 일종의 객체 지향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바로 <삼국유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큰 하나의 교훈이고 메시지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문화 예술 작품이나 콘텐츠가 많은데도 제가 <삼국유사>라는 거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전해드리고 함께 교감을 하고 싶었는데요.

좀 미진했던 것은 다른 자리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세요.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MBC 사극 <태왕사신기>에서는 환웅이 두 주작(여성)의 지혜를 빌려 홍익인간의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 (O/X)

정답: X

2. MBC 사극 <태왕사신기>는 일본 시장을 의식하여, 역사적 사실과 내용을 달리하고 열린 결말의 형식을 취했다. (O/X)

정답: O

3. KBS 사극 <근초고왕>은 백제가 산둥반도에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설을 수용하여 백제가 중국 땅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O/X)

정답: O

4. SBS 사극 <서동요>는 '과학'의 나라 백제를 재조명하겠다는 기획 의도를 내세우며 이공계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다. (O/X)

정답: O

5. 소설 등의 원작이 존재하는 사극의 경우,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을 궁극적 지향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MBC 사극 <태왕사신기>에서의 광개토대왕 형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왜구를 물리치고 한반도와 만주의 패자가 된 업적이 강조된다.
- ②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였으나, 좌절하지 않고 결국은 사랑을 쟁취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 ③ 국가 지도자로서 야망과 꿈보다는 개인적 갈등과 감정에 집중하는 인물이다.

정답: ③

2. 다음 중 KBS 사극 <근초고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벽화에 남아있는 백제 갑옷의 모습을 정교히 재현하여 호평을 받았다.
- ② 근초고왕이 배다른 누이동생을 사랑했다는 근친혼을 기반으로 한 삼각관계가 묘사된다.
- ③ 근초고왕의 정치·군사적 업적에 주목하여 남녀 간의 애정 서사에는 소홀하였다.

정답: ③

3. 다음 중 SBS 사극 <서동요>가 비판받은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백제에서 미인 대회를 여는 장면이 과하게 조명되어 이야기의 흐름에 방해가 되었다.
- ② 당대 귀족들을 순수한 피해자로 묘사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였다.

③ '과학'을 내세운 기획 의도 아래, 과학적 서사가 아닌 발명의 성과만이 알파하게 묘사되었다.

정답: ③

4. 다음 중 KBS 사극 <대왕의 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청자들이 현실 정치 상황과의 연관 속에서 사극 속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바라보게 하였다.

② 김춘추가 추구하는 '리더십'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현대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③ <도화녀 비형량> 이야기의 내용을 '귀문'이라는 조직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주고 있다.

정답: ②

5. 다음 중 KBS 사극 <해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보고의 일대기를 다룬 한국의 설화와 고전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다.

② 악역으로 등장한 '염장' 캐릭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졌다.

③ 장보고의 삶을 극적으로 묘사해서,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에게 교훈을 제공하는 것을 기획 의도로 두었다.

정답: ①

####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사극에서의 전쟁 장면 묘사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에, 정복 전쟁보다는 등장인물의 삼각관계와 같은 ○○ 이야기를 다룬 한국 사극 작품이 많았다.

정답: 연애(사랑)

2. SBS 사극 <서동요>는 발명과 발견의 ○○만이 묘사되어, 이공계의 성과를 ○○만으로 판정하는 세태를 풍자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정답: 결과

3. 한국 사극에서 묘사되는 ○○ 왕권은 임금이나 왕자가 백성들을 위해 귀족들을 벌하는 민본주의, 애민 정신에 근거해 나타나곤 한다.

정답: 전제(절대)

#### 나. 토의(30분)

KBS 사극 <해신>에서 주인공 '장보고'보다 악역 '염장'의 인기가 높았던 이유를 시청자의 관점에서 토의해보자.

#### 다. 과제(60분)

시청자의 공감과 호평을 얻을 수 있는 사극을 제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자유롭게 서술해 본다.

■ 참고자료

일연, 서철원 역, 『삼국유사』, 아르테, 2022.

최인호, 『해신』, 열림원, 2003.

김소은, 「TV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신화성 및 환상성 연구」, 『드라마연구』 42, 한국드라마학회, 2014, 53-91면.